

국립국어원 2011-01-2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346-01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강영봉

■ 연구 보조원 : 김순자 · 김성용

■ 조사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4일

연구책임자 : 강 영 봉

〈국문초록〉

이 보고서는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지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이다. 가파리는 섬으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과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 사이에 있는데, 모슬포항에서 도항선으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마을은 상동과 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 11월 기준 134세대에 남자 139명, 여자 142명 등 281명이 살고 있다. 가파도는 낚시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더불어 관광지로도 알려져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특히 5월 초 보리를 주제로 한 ‘가파도청보리축제’가 열리고 있다.

주제보자는 라 (73살)이고, 보조제보자는 그의 부인인 강 (69살)이다. 처음 소개받은 강 (77살) 할머니 또한 보조제보자로, 농경에 관한 어휘를 제보하였다. 조사는 강영봉·김순자·김성용이 담당하였으며, 조사 장소는 제보자 집 마루이다. 조사 내용은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사항 등 4개 분야이다. 조사는 준비된 질문지에 따라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섬 지역이라 상당량의 동물·식물 관련 어휘는 조사할 수 없었으나 바다 관련 내용은 구술 발화에서도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구술 발화 9시간 41분, 어휘 9시간 39분, 음운 1시간 33분, 문법 1시간 20분 등 총 22시간 13분 녹음할 수 있었다.

녹음기는 Marantz PMD660이며, 마이크는 SURE SM11을 이용하였다.

전사는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어휘·음운·문법 사항은 조사된 내용을 모두 전사하였으며, 구술 발화는 약 4시간 분량의 조사 내용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였으며, 어휘·음운·문법 사항은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음운인 경우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전사는 김순자·강영봉이 담당하였으며, 1차 점검은 강영봉·김성용이, 2차 점검은 강영봉·김순자가 담당하였다.

핵심어: 제주 지역어, 가파도, 구술 발화, 전사, 제보자

〈Abstract〉

Report on Jeju Dialect in 2011

This report is about the study of Jeju dialect in 2011.

It was researched in Gapa-ri, Daejeong-eup, Seogwipo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apa-ri is an islet between the southernmost Mara islet and the Moseulpo harbor in Hamo-ri, Daejeong-eup. It takes 15 minutes to get Gapa-ri by ferry from the Moseulpo harbor. The village is divided into Sang-dong and Ha-dong and there are 281

people (139 male and 142 female), 134 households residing in the village as of November, 2011. Gapa islet is a famous fishing spot and also a popular tourist attraction with the southernmost Mara islet so there are many visitors every summer.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May, ‘Gapa Island Green Barley Festival’ is held annually.

The main interviewee is Ra (73) and a supportive interviewee is his wife, Gang (69). Farming vocabulary is researched by Gang (77), another supportive interviewee who was first introduce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Gang Yeong-bong, Kim Soon-ja and Kim Seong-yong in the interviewee’s living room.

The four parts such as speech,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researched and interviewees answered to the questionnaires. Plenty ocean vocabulary is researched during speech, even though there are not many animal and plant vocabulary words since Gapa is an islet. At last, the records for speech,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up to 9 hours 41 minutes, 9 hours 39 minutes, 1 hours 33 minutes and 1 hours 20 minutes respectively (total: 22 hours 13 minutes).

Marantz PMD 660(a recorder) and Sure SM11(a microphone) were used.

The records were transcribed from August 22 to November 30. While words or phrases from each content of vocabulary, phonemes and grammar were fully transcribed, only 4 hour-speech did so sentence by sentence. “base form + ending of a word” was used for phonemes. Kim, Soon-ja and Kang, Young-bong were in charge of the transcriptions and the contents were first checked by Kang, Young-bong, and Kim Seong-yong and double checked by Kang, Young-bong and Kim, Soon-ja.

Keywords: Jeju dialect, Gapa Islet, Speech, Transcriptions, Interviewee

2011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9
2. 전사 원칙	14
3. 전사 자료	17
제 1 편 구술 발화	19
제 2 편 어휘	128
제 3 편 음운	175
제 4 편 문법	213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제보자 조사표 포함)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지점인 가파도(加波島)는 모슬포항에서 도항선으로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섬으로,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馬羅島)와 제주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행정 구역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濟州特別自治道 西歸浦市 大靜邑 加波里)이다.

하동 ‘한개’ 포구 앞에 1962년 이민 일동의 명의로 세워진 <加波島開耕一百二十周年記念碑>에 따르면, “이 섬 옛 이름은 개도, 개파도, 가파도, 가을파지도, 더위섬이라 불렀고 처음에는 나라에서의 소와 말을 기르는 목장지로 이조 성종 때 1469년 임금이 타시는 양마를 산출한 곳이다. 영조 26년 1750년 나라에 바치는 회성 진공용(소) 50마리 방목한 이래 헌종 6년 1840년 영국선이 내박하여 축우를 총으로 쏘아 잡아간 후 폐우장이 되었다. 동 8년 임인년 1842년 이광림 주관으로 개경을 받아 상·하모슬리민들이 왕래하면서 개간 경작하기 시작해서부터 나라에 납세하였다. 철종 말경 1863년 이 섬에 소와 쟁기로 밭가는 법이 들어오면서 주민이 살기 시작했다. 1885년 울류 일본 잠수기선업자 길촌여삼랑(요시무라) 일행이 정착하면서 입어후 우리 잠수기 어업이 발달한 시초지다. 뒤희 병술년 1886년 길촌여삼랑이 일본에서 고구마 종자를 도입하여 재배법을 전수 받아 분리 유지 김용홍 역시 근세 제주도 고구마 재배를 장려하였다. 1914년 하모리 소관에서 분리되어 가파리라 부르고 있다. 교육은 고종초 1863년부터 한문 훈학하기 시작해서 학자와 지식인들이 배출되었다. 신유년 1921년 김성숙의원 주관으로 신유의숙학교 창설, 1947년 가파국민학교 창립 인계하고 1923년 항개 서방파제를 리민의 협력으로 축성, 1936년 연해어업 멸치, 자리 어로법 도입 우리 조상님들이 연구 개발하여 오늘과 같이 제주도 멸치 자리 어로법이 발달한 시초이다. 분리 호수는 을유년 40호 현재(1962) 호수 212호 인구 1,036인”이라 기록하고 있다. 기념비의 역사적 사실(史實)들은 가파도 출신 역사학자 김태능(金泰能) 선생의 고증을 거쳤다는 내용도 함께 새겨져 있다.

가파도는 상동과 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지만 아름다운 학교인 가파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발전소, 보건소, 소방대, 담수장 등의 기관과 마을회를 비롯하여 청년회, 어촌계, 노인회, 해녀회 등의 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134세대에 남자 139명, 여자 142명 등 총 281명이 살고 있어, 1962년(호수 212호, 1,036명)과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커 50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물 나들이는 계절별로 차이는 있지만 모슬포항에서 오전 9시·11시, 오후 2시·4시 하루 4차례 운항하는 도항선을 이용한다. 가파도는 낚시터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와 더불어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어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한다. 특히 5월 초 보리를 주제로 한 ‘가파도정보리축제’가 열리고 있다.

1.2. 조사 기간

2011년 제주 지역어 조사는 7월 하순부터 이루어졌다. 7월 21일 가파리 노인회장을 통하여 강 (77세) 할머니를 소개받았다. 강 할머니는 기억력이 좋고 말씀도 잘 하시는 어른이어서 이런 유의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선발(?)되곤 하여, 이번 제주 지역어 조사에도 제보자로 추천되었다. 첫날 ‘어휘 1’ 등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그 다음 날부터가 문제였다. 자식들이 만류한다며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원만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70대 후반이라는 나이에 불구하고 아직도 물질하고 있어서 해녀회장 등을 동원하여 설득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했다. 다른 몇 분을 소개받았지만 나이가 많고, 신체적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제보자 선정을 며칠 미뤄야만 했다.

7월 28일 다시 노인회장의 추천으로 제보자 라 (羅)을 소개받고 새롭게 지역어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제보자 라 은 선친이 조선업을 하고 있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물인 대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귀향하여 지금까지 가파도에서 살고 있다. 매우 과묵한 편이다. 마을 일에 헌신적이며 지금은 소각장 일을 맡고 있다.

슬하에 5남을 두었으나 모두 물으로 나가 살고 있다. 특히 보조제보자①인 부인 강 는 혈혈단신으로 외할머니와 살았으며, “대나무처럼 강하게 살아라.” 하는 뜻으로 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몇 번의 조사로 이내 정이 들어 금방 따온 전복을 바닷가에서 맛볼 수 있는 행운을 얻었고, 직접 채취한 미역·고등·소라 등도 건네주어 후한 인정을 맞보기도 하였다. 제보자는 밤낚시로 낚은 돌돔을 살려 두었다가 회로 먹으려는 정성을 들였으나 돌돔은 높은 파도에 밀려 길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만 죽고 말아 제보자가 마련한 싱싱한회는 먹을 수는 없었으나 대신 조림으로 맛난 점심을 대접받기도 하였다. 조사 내내 제보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후한 인심 속에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주제보자 라 은 ‘토끼연’이라 불리는 방패연을 손수 제작해 보여줌으로써 방패연의 부분 명칭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

조사 지점이 섬이라 조사하는데 일기 변화에 따른 어려움도 많았다. 출장 명령을 받고도 주의보 발령으로 가파도로 들어갈 수 없거나, 모슬포항구까지 갔지만 도항선이 출항하지 않아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특히 8월 11일에는 다음날 주의보가 발령된다는 소식에 하루 전에 가파도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11월 27일 어휘 확인 조사를 끝으로 모든 조사를 완료하였다.

1.3. 제보자

(1) 주제보자

- | | |
|----------|----------------------|
| • 이름 | 라 |
| • 성별 | 남 |
| • 나이 | 73(1939년생) |
| • 출생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 • 거주지 | 위와 같음 |
| • 선대 거주지 | 위와 같음 |

- 직업 없음
- 경력 없음
- 학력 고등학교를 다니다 가정 형편으로 그만둠
- 병역 육군 일반 하사 제대
- 제보자 소개 과정 가파리 노인회장을 통하여 소개받음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과묵하고 꼼꼼한 편임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소리는 작으나 발음이 정확한 편임

(2) 보조제보자①

- 이름 강
- 성별 여
- 나이 69세(1943년생)
-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거주지 위와 같음
- 선대 거주지 위와 같음
- 직업 잠녀
- 경력 가파도 해녀회 부회장 지냄
- 학력 초등학교 졸업
- 병역 해당 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주제보자의 부인
- 제보자의 특기 사항 기억력이 또렷함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말이 빠른 편이나 발음이 분명함

(3) 보조제보자②

- 이름 강
- 성별 여
- 나이 77(1935년생)
- 출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거주지 위와 같음
- 선대 거주지 위와 같음
- 직업 잠녀
- 경력 해녀회장 지냄
- 학력
- 병역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가파리 노인회장을 통하여
- 제보자의 특기 사항 풍부한 어휘와 또렷한 기억력
- 제보자의 음성 특징 목청이 좋고 발음이 분명함

1.4. 조사

(1) 조사자

- 연구책임자: 강영봉(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연구보조원: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성용(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2) 조사 일시: 2011년 7월 21일~11월 27일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마루

(4) 녹음기와 마이크

- 녹음기: 마란츠 PMD 660
- 마이크: SURE SM11

(5) 조사 일정과 내용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조사 결과 구술 발화 9시간 41분, 어휘 9시간 39분, 음운 1시간 33분, 문법 1시간 20분 등 총 22시간 13분 녹음할 수 있었다.

보조제보자가 잠녀여서 물질할 때면 ‘풍중’(잠녀 가족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저 나르거나 물으로 옮기기 위하여 잠녀를 마중하는 일) 나가 바닷가에서 바다 관련 어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섬 지역이라 바다 관련 어휘는 풍부하게 조사되었으나 상당량의 육상 동물·식물 관련 어휘는 조사할 수 없었다.

‘방패연’에 해당하는 ‘토끼연’을 조사하고, 실제로 ‘토끼연’을 제작하여 부분 명칭까지 조사할 수 있었다. 바다 관련 내용은 구술 발화에서도 풍부하게 조사할 수 있었다.

1.5. 전사

(1) 전사자: 김순자·강영봉

- 전사 일시: 2011년 8월 22일~11월 30일
- 전사 내용: 구술 발화·어휘·음운·문법

(2) 1차 점검: 강영봉·김성용

- 일시: 2011년 11월 21일~12월 1일

(3) 2차 점검: 강영봉·김순자

- 일시: 2011년 12월 2일~12월 5일

<표 1>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

조사 일정	조사 영역	조사 내용	녹음 시간	파일 이름
7월 21~23일	제보자 섭외 어휘 1	강 농경	- 1시간 25분	- SJS_GP_13
7월 28~30일	제보자 재섭외 어휘 2	라 · 강 음식	- 50분	- SJS_GP_14
	어휘 3	가옥-가게	1시간 1분	SJS_GP_15
	어휘 4	숫자-의복	39분	SJS_GP_16
	어휘 5	민속	59분	SJS_GP_17
	어휘 6	인체	51분	SJS_GP_18
	어휘 7	육아	18분	SJS_GP_19
8월 1일	어휘 8	친족	39분	SJS_GP_20
	어휘 9	동물	40분	SJS_GP_21
	어휘 10	들집승 날집승	9분	SJS_GP_22
	어휘 11	식물	33분	SJS_GP_23
8월 10~11일	구술 1	마을 개관	40분	SJS_GP_01
	구술 2	결혼 절차 등	30분	SJS_GP_02
	구술 3	장례 절차	1시간 23분	SJS_GP_03
	구술 4	밭농사	56분	SJS_GP_04
	구술 5	가을걷이 등	37분	SJS_GP_05
	구술 6	마을공동체 생활	30분	SJS_GP_06
	어휘 12	자연	39분	SJS_GP_24
8월 25일	구술 7	거주생활	1시간 2분	SJS_GP_07
	사진 촬영	-	-	-
9월 30~10월 1일	구술 8	의생활	26분	SJS_GP_08
	구술 9	식생활	43분	SJS_GP_09
	구술 10	질병, 민간요법	27분	SJS_GP_10
	구술 11	세시풍속과 놀이	58분	SJS_GP_11
11월 5~6일	구술 12	고기잡이	1시간 29분	SJS_GP_12
	음운 1	단모음-활용(1)	45분	SJS_GP_26
	음운 2	활용(2)	40분	SJS_GP_27
	음운 3	곡용	8분	SJS_GP_28
	문법 1	대명사-종결어미	50분	SJS_GP_29
	문법 2	연결어미-속담	40분	SJS_GP_30
11월 27일	어휘 13	어휘 보충	56분	SJS_GP_25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3시간 48분가량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 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하는 도중에 생각하거나 기억을 더듬을 때 또는 군소리로 내는, 의식적으로 길게 발음하는 '에' 등은 장음 표시를 하지 않았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이나 어구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신),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

하였다.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③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 ‘=3’을 부여하고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②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이나 어귀 단위로 전사하였다.

2.5. 표기 방법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② ‘외’는 단모음 [ø]로 실현되지 않고 항상 이중모음 [we]로 실현되기 때문에 ‘웨’로 전사하였다.

③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지니므로 각각 따로 표기하였다.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물결표(~)로 표시하였다.

⑤ 장음은 ‘:’, 인상적 장음은 ‘::’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의도적인 장음은 표시하지 않았다.

⑥ ‘오’와 ‘아’, ‘어’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래 아(·)와 이중모음 ‘으(ㄴ)’의 경우, transcriber 상에서는 각각 ‘오/’와 ‘요/’로 표기했으나, 인쇄물에서는 ‘으’와 ‘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⑦ ‘ㅍ’은 종성으로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ㅍ’으로 표기하였다.

2011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 발화

1.2. 일생 의례

1.2.7.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

10226 @1 게난 사라미 주그면 이제 장네 치러야 돼자나예?(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10226 #1 예.{예.}

10226 @1 그 전통저긴 장네 절차예. 사라미 딱 죽기 전부터. 죽기 전부터 무덤으네 사무제 지낼 때까지예. 쭉 한번 ㄴ라줍써?(그 전통적인 장례 절차요. 사람이 딱 죽기 전부터. 죽기 전부터 묻어서 삼우제 지낼 때까지요. 쭉 한번 말해주십시오?)

10226 @1 사라미 죽쨌 허젠 허면.{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10226 @2 게문 운명 하젠 허면 뭐 사람들 막 친척들 불르고 헐 꺼 아니라예?(그러면 운명하려고 하면 뭐 사람들 막 친척들 부르고 할 거 아닌가요?)

10226 #1 예 물론. 예 사라미 임종하게 돼머는 뭐 아파도 그러코 친족 뿐드리 아 이삼 명 씨근 늘 그 망이니 죽기 저네는 겨테 꼭 이써야 돼곡.{예 물론. 예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 뭐 아파도 그렇고 친척 분들이 아 이삼 명씩은 늘 그 망인이 죽기 전에는 곁에 꼭 있어야 되고.}

10226 @2 예.{예.}

10226 #1 에 좀 그 이상하다 할 때는 친족들한테 기벼를 해가지고 어 위험하다 이러케 해가지고 에 헐꼬.{아 좀 그 이상하다 할 때는 친척들한테 기별을 해가지고 아 위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했고.}

10226 #1 에 도라가게 돼머는 여기서는 그냥 염습파고.{아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는 그냥 염습하고.}

10226 @2 그러니까 종명한 거슬 어떠케 화긴합니까?(그러니까 종명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10226 #1 아 종명헌 거는 뭐 혈매글 지퍼보던가 또는 저 이 호홉 숨쉬는 에 과정을 하던가.{아 종명한 거는 뭐 혈맥을 짚어보든가 또는 저 이 호홉 숨쉬는 아 과정을 하든가.}

10226 #1 또 그 시체 그 도라가시게 되면 아주 싸늘하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도라가신 걸 알리지.{또 그 시체 그 돌아가시게 되면 아주 싸늘하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돌아가신 걸 알리지.}

10226 @2 젠디 우리 동네서에는 예 이러케 그 소느로 허리를 이러케 지버 노아 본 텐 험띠다. 산 사르문 드러가는데 운명하면 안 드러간다고예.{그런데 우리 동네서에는요 이렇게 그 손으로 허리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본다고 합디다. 산 사람은 들어가는데 운명하면 안 들어간다고요.}

10226 @2 그럼 운명을 하면 이제는?(그럼 운명을 하면 이제는?)

10226 #1 게 운명을 하게 돼머는 예 여기서는 에 습허는 거 염습.{그래 운명을 하게 되면 아 여기서는 아 습하는 거 염습.}

10226 @2 예.{예.}

10226 #1 깨끄시 예 수거네 그 향물.{깨끗이 아 수건에 그 향물.}

10226 @2 예 상물.{예 향물.}

10226 #1 예 상무를 수거네 적서가지고 모를 깨끄시 딱꼬.{아 향물을 수건에 적서가지고 몸을 깨끗이 닦고.}

10226 #1 어 그거 한 다으메는 예 소렴. 오슬 입피고.{아 그거 한 다음에는 아 소렴. 옷을 입히고.}

10226 #1 그 다으멘 소려미 완저니 끝나며는 예 대렴.{그 다음에 소렴이 완전히 끝나면은 아 대렴.}

10226 @2 예.{예.}

10226 #1 대렴하고. 예 대렴 한 다으메는 예 여기서는 저 소렴 끝나며는 호를 불러마썬. {대렴하고. 아 대렴 한 다음에는 아 여기서는 저 소렴 끝나면은 혼을 불러요.}

10226 @2 아 소렴 끝나야.{아 소렴 끝나야.}

10226 #1 아 소렴 끈낭 호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대렴 한 다으메는 예 관 안네 노코 모슬 박꼬.{아 소렴 끝나서 혼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대렴 한 다음에는 아 관 안에 넣고 못을 박고.}

10226 #1 그 다으른 성복제를 지내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 복친드리 이제 두건 쓰고 상제드리 상복을 입꼬 그러케 해서 이제 성복제를 지내고.{그 다음에는 성복제를 지내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복친들이 이제 두건 쓰고 상제들이 상복을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복제를 지내고.}

10226 #1 성복제 지내기 저네 도라가시면 여기는 저 이 나이를 저거가지고 저 어디고?{성복제 지내기 전에 돌아가시면 여기는 저 이 나이를 적어가지고 저 어디고?}

10226 @1 정시안테.{정시한테.}

10226 #1 아 정시.{아 정시.}

10226 @2 예.{예.}

10226 #1 정시안테 가서 날짜를 보며는 거기에서 예 대렴 시간. 예 그런 거시 나오기 때문에 그 대렴 시가네 마췌 대려물 허고 그 다으른 성복젤 지내고.{정시한테 가서 날짜를 보면 거기에서 아 대렴 시간. 아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렴 시간에 맞추어서 대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성복제를 지내고.}

10226 #1 그 다으른 성복제 지낸 다으메는 예.{그 다음에는 성복제 지낸 다음에는 예.}

10226 @2 조문객들 바들 꺼 아니우팡예?{조문객들 받을 거 아닙니까?}

10226 #1 아 조문개글 이젠 받꼬. 날짜가 나올 꺼니까.{아 조문객을 이제는 받고. 날짜가 나올 것이니까.}

10226 @2 네.{예.}

10226 #1 그 날짜 전날. 그 날짜 전날 이제 그 고림 동네 싸름덜 받꼬.{그 날짜 전날. 그 날짜 전날 이제 그 조문 동네 사람들 받고.}

10226 #1 그 다음 장사 나레는 물론 예 장지로 운구해야 돼고. 그때는 그 저네는 우리가 혈 찌게는 상여.{그 다음 장사 날에는 물론 아 장지로 운구해야 되고. 그때는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적에는 상여.}

10226 @1 예.{예.}

10226 #1 나무 이제 나무 상여로 해가지고 예 그 관 우에 씨우는 지붕에다가 예 꼬출 그

전날 밤에 종이로 저 꼬출 만드러가지고 쪽 다라가지고 이제 꼰쌍여를 만드는 거지.{나무. 이제 나무 상여로 해가지고 아 그 관 위에 씌우는 지붕에다가 아 꽃을 그 전날 밤에 종이로 저 꽃을 만들어가지고 쪽 달아가지고 이제 꽃상여를 만드는 거지.}

10226 @2 거시 화다니우파?(그것이 화단입니까?)

10226 #1 예 화단. 그 화다네다가 꼬출 다라가지고 장산날 이제 전부다 이제 그 망인접 그 올레에다가 예 그 상열때를 노코 이제 노끈으로 트러 무껴.{예 화단. 그 화단에다가 꽃을 달아가지고 장산날 이제 전부다 이제 그 망인집 그 올레에다가 아 그 상여 부출을 넣고 이제 노끈으로 꼬아서 묶어.}

10226 #1 트러 무끈 다오메 이제 그 과늘 예 운구해가지고 이제 그 상열때에 노코 이제 그.{꼬아서 묶은 다음에 이제 그 관을 아 운구해가지고 이제 상여 부출에 넣고 이제 그.}

10226 @2 장받띠까지 가는 거 아니라예?(장지까지 가는 것 아닌가요?)

10226 #1 그 뚜껑을 꼰쌍여를 이제 땅 노코 이제 바린 추글 고현 다오메 이제 드러가지고 가게 댜는 거지.{그 뚜껑을 꽃상여를 이제 떡 놓고 이제 발인 축을 고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지.}

10226 @2 게른 그때 그 과닌 경우는 사온 건 아니지 아녀우짱예?(그러면 그때 그 관인 경우는 사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226 #1 과는 여기 사옵니다. 여기 전부 다 사와야.{관은 여기 사옵니다. 여기 전부 다 사와야.}

10226 @2 엔날서부터마씨?(옛날서부터요?)

10226 #1 예.{예.}

10226 @1 음. 나무가 업짜으파?(음. 나무가 없잖습니까?)

10226 #1 예. 여기 전부 다 모실포 강 사와야 댜마씨.{예. 여기 전부 다 모실포 가서 사와야 돼요.}

10226 @2 아아.{아아.}

10226 @1 그 다오메 헨다면 어떻 해마씨?(그 다음에 한다면 어떻게 해요?)

10226 @1 바린 현 다오멘?(발인 한 다음에는?)

10226 #1 바린 현 다오메 이제 그 무칠 장소에 가게 댜며는 예 그 한조게다가 이제 하관 째를 지내고 한조게다 모시고.{발인 한 다음에 이제 그 문힐 장소에 가게 되면 아 그 한쪽에다가 이제 하관제를 지내고 한쪽에다 모시고.}

10226 #1 예 그 춘남. 춘남 하북 추동 동서. 그 사르미 도라가며는 그 머리 관 머리를 보며는 예 보며는 남조그로.{아 그 춘남. 춘남 하북 추동 동서. 그 사람이 돌아가면 그 머리 관 머리를 봄에는 아 봄에는 남쪽으로.}

10226 @1 으 춘남.{아 춘남.}

10226 #1 춘남 하북. 여르메는 북조그로. 추동 동서. 가으레는 동조게 겨우레는 서조그로 이제 관머리를 이제 노코 이제 평풍을 두른 다오메 이제 거기서 이제 하관제를 지내는 거마 썸.{춘남 하북. 여름에는 북쪽으로. 추동 동서. 가을에는 동쪽에 겨울에는 서쪽으로 이제 관 머리를 이제 놓고 이제 병풍을 두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하관제를 지내는 거지요.}

10226 #1 하관제를 지내가지고.{하관제를 지내가지고.}

10226 #1 하관제가 끝나며는 이제 복친드리 그 관만. 예 상여를 불리해가지고 이제 관만 이제 여러시 그 배관 코를 여선 깨 만드러가지고 여선 싸르미 그걸 운구해가지고 그 개광터에 예 글로 모시게 댜는 거지.{하관제가 끝나면 이제 복친들이 그 관만. 아 상여를 불리해가

지고 이제 관만 여럿이 그 배관 고리를 여섯 개 만들어가지고 여섯 사람이 그걸 운구해가지고 그 개광터에 아 그리로 모시게 되는 거지.}

10226 #1 계가지고 정시가 말해준 그 입관 시에 거기다 드러가게 되는 거지.{그래가지고 지관이 말해준 그 입관 시에 거기다 들어가게 되는 거지.}

10226 @1 그러케 현 다으메는 어떻 해마씨?(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10226 #1 그러케 현 다으메는 이제 봉분도 여기 이디서는 동네 뿐더러 절든 사라더리 가마니로 호글 나라다가 봉부를 싸코 봉부니 올라가게 되며는 그 다으믄 때로 입피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봉분도 여기서는 동네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마니로 흙을 날라다가 봉분을 쌓고 봉분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은 잔디를 입히고 이제.}

10226 @1 달구?(달구?)

10226 #1 달구를 찢는디 겐또 한 버늘 허게 되면은 세 버늘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달구 찢는 사람드른 세 번 허고 그렇지 아는 사람들 또 달구 안 찢는 사람도 인꼬.{달구를 찢는데 그것도 한 번을 하게 되면 세 번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달구 찢는 사람들은 세 번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또 달구 안 찢는 사람도 있고.}

10226 #1 근데 거 봉부를 튼튼하게 만들며는 달구를 찢어야 돼. 사르미 올라가서 도라다니면서 발브니까.{그런데 거 봉분을 튼튼하게 만들면 달구를 찢어야 돼. 사람이 올라가서 돌아다니면서 밟으니까.}

10226 #1 달구 찢 때는 뭐 어불싸 달구여 이렇게 세 번 해난 다으메 뭐 여러 가지 얘기드리 인찌 뭐.{달구 찢을 때는 뭐 어불싸 달구여 이렇게 세 번 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뭐.}

10226 @2 하여튼 달구덜도 불르고예?(하여튼 달구들도 부르고요?)

10226 #1 달구를 찢어가지고 이제 예 봉부니 이제 잘 다려진 거 가트며는 그 우에다 폐를 입피고.{달구를 찢어가지고 이제 아 봉분이 이제 잘 다려진 것 같으면 그 위에다 잔디를 입히고.}

10226 #1 대. 그 운구할 찢게 행뎌 그 ㄴ큰대를 그건 좀 찢븐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메를 막 묘를 두들겨가지고 단단하게 때가 죽찌 말라고. 잘 부트라고 이제 그걸로 막 때려가지고 모양도 조케 멘들고 그러케 행찌.{대. 그 운구할 적에 했던 그 가로대를 그건 좀 짧은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묘를 막 묘를 두들겨가지고 단단하게 잔디가 죽지 말라고. 잘 불으라고 이제 그걸로 막 때려가지고 모양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

10226 #1 그러케 허며는 이제는 예 끈난 다으메는 예 필제.{그렇게 하면 이제는 아 끝난 다음에는 아 필제.}

10226 #1 필제를 지내고 초우제를 지내고 채우제를 지내고 또.{필제를 지내고 초우제를 지내고 채우제를 지내고 또.}

10226 @2 사무?(삼우?)

10226 #1 사무제.{삼우제}

10226 @1 예.{예.}

10226 #1 예 그러고 졸곡.{아 그러고 졸곡.}

10226 #1 그건 졸곡도 도라간 한 베길 되는 때를 그 졸곡 허는데 요즈믄 뭐 전부다. 그 저네는 초우만 밧되서 지내고 채우나 사무는 지배 와서 지낸는데 요즈믄 초우 채우 졸곡까지 막 받떠서 장지에서 다 헤버리지.{그건 졸곡도 돌아간 한 백일 되는 때를 그 졸곡 하는데 요즘은 뭐 전부다. 그 전에는 초우만 밧에서 지내고 채우나 삼우는 집에 와서 지냈는데

요즘은 초우 재우 줄곡까지 막 밭에서 장지에서 다 해버리지.}

10226 #1 계면 그러며는 이젠 지베 오며는 그자 고기나 하고 이제 상을 모신 사르른 모시고.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집에 오면 그저 고기나 하고 이제 상을 모신 사람은 모시고.}

10226 #1 또 초하루 보름 때에만 사길 해 놔서 그저 음식 제공하는 사람도 인꼬 현디 요즘 보통 음식까지도 잘 아너. {또 초하루 보름 때에만 사길 해 놓아서 그저 음식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요즘 보통 음식까지도 잘 안 해.}

10226 @2 일년 지나면? {일년 지나면?}

10226 #1 일년 지나며는 지금 보통 베길 탈쌍하는데 그 저네는 일년 지나고 이년 삼년까지도. 헐쓰니까. {일년 지나면 지금 보통 백일 탈상하는데 그 전에는 일년 지나고 이년 삼년까지도.}

10226 @2 소상 대상예? {소상 대상요?}

10226 #1 소상 대상 전부다 따로 해쓰니까. 켜디 요즈른 뭐 소상으로 일년 탈쌍. 저 돌기 탈쌍으로 이제 전부다 해부런느디. {소상 대상 전부다 따로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뭐 소상으로 일년 탈상. 저 돌기 탈상으로 이제 전부다 해버렸는데.}

10226 #1 이제 이 근가네 완 베길 탈상. 점점 각박. 그 탈쌍 그 지내며는 또 담제축까지 그 탈쌍 때는 그 담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끈마쳐부러. {이제 이 근간에 와서 백일 탈상. 점점 각박. 그 탈상 그 지내면 또 담제축까지 그 탈상 때는 그 담제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끝마쳐버려.}

10226 #1 그 다으른 삼년째부터는 제사로 모시고. {그 다음은 삼년째부터는 제사로 모시고.}

10226 @1 예. 지금까지는 장례 절차를 쭉 ㄹ라줘서예. 그거를 이제는 구체저그로 하나하나 무르कु다예? {네. 지금까지는 장례 절차를 쭉 말해줬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10226 @1 그 임종하신 다으메는 임종을 화긴헐짜나예. 그 습할 때, 염습할 때는 어떤 시그로 염스블 해마씨? {그 임종하신 다음에는 임종을 확인했잖아요. 그 습할 때, 염습할 때는 어떤 식으로 염습을 하나요?}

10226 #1 염습할 때는 향무레다 수건 해가지고 따끄는 게 전부지. {염습할 때는 향물에다 수건 해가지고 닦는 게 전부지.}

10226 #1 여자드른 머리도 잘 빗꼬 그러고 남자는 뭐 그대로 해가지고 오슬. 오슬 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머리도 잘 빗고 그러고 남자는 뭐 그대로 해가지고 옷을.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10226 @2 콧구멍이나 귀꼬망은 언제 망는 거? {콧구멍이나 귀구멍은 언제 막는 거?}

10226 #1 그 그거 습관 후에 습관 후에 소렴할 대게. {그 그거 습한 후에 습한 후에 소렴할 적에.}

10226 @1 예. 게른 소려른 어떤 거우꽈? {예. 그러면 소렴은 어떤 겁니까?}

10226 #1 아 소려른 소곤부떠 아 속꼴 그 다음 위에 도복까지 다 이피가지고. {아 소렴은 속옷부터 아 속옷 그 다음 위에 도포까지 다 입혀가지고.}

10226 #1 아 숨 손짱갑. {아 숨 손장갑.}

10226 @1 예. {예.}

10226 #1 버선. {버선.}

10226 @1 예. {예.}

10226 #1 그런 건또 다 처니 업쓰며는 종이 창호지로 전부다 만들고.{그런 것도 다 천이 없으면 종이 창호지로 전부다 만들고.}

10226 #1 신발도 만들곡.{신발도 만들고.}

10226 #1 또 이 손톱 까까서 좌수 우수 좌족 우족 한무느로 써가지고 이제 발톱 까곤 거 소네다 이러케 쥐어주고.{또 이 손톱 깎아서 좌수 우수 좌족 우족 한문으로 써가지고 이제 발톱 깎은 거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고.}

10226 #1 그 장가블 씹고.{그 장갑을 씹우고.}

10226 #1 그 다으메는 콘꾸멍 권꾸멍에다가 이제 소르로 허고.{그 다음에는 콧구멍 컷구멍에다가 이제 숨으로 하고.}

10226 #1 또 두거니라고 해가지고 어 십짜 댜 그 처네다가 숨 너어가지고 이제 두상 머리에다 이러케 싸고 그 우의다 또 흑뚜건.{또 두건이라고 해가지고 어 십자 댜 그 천에다가 숨 넣어가지고 이제 두상 머리에다 이렇게 싸고 그 위에다 또 흑두건.}

10226 @1 네에.{네에.}

10226 #1 흑뚜꺼늘 이제 씌우며는 소려미 다 댜 거.{흑두건을 이제 씌우면 소려미 다 댜 거.}

10226 @2 그때 이때는 뭐 바발 가튼 거 안 놉니까? 쌀.{그때 입에는 뭐 밥알 같은 거 안 넣습니까? 쌀.}

10226 #1 그건 도라갈 때. 곧 도라가면 소려 허기 저네 우선 그거부터.{그건 돌아갈 때. 곧 돌아가면 소려 하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10226 @1 예. 그거는 뭐렌 험니까?{예.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6 #1 아 그거 이르른 잘 모르젠네.{아 그거 이름은 잘 모르겠네.}

10226 @1 그 쫄빵우를 허는 거 아니라예? 댜 빵을 물러마씨?{그 쌀알을 하는 것 아닌가요? 댜 알을 물려요?}

10226 #1 뭐 방울 아니고 그자 수저로 세 번.{뭐 알이 아니고 그저 수저로 세 번.}

10226 @1 아 수저로 세 번?{아 수저로 세 번?}

10226 #1 물 불린 쌀을 수저로 세 번. 적당량 그자 마니도 아니고 조금씩.{물 불린 쌀을 수저로 세 번. 적당량 그저 많이도 아니고 조금씩.}

10226 @2 그러면 아까 수의를 입히면 이러케 다 장갑까지 하면 이러케 빼가 흔들지 말도록 무껴야?{그러면 아까 수의를 입히면 이렇게 다 장갑까지 하면 이렇게 빼가 흔들리지 말도록 묶어야?}

10226 #1 무껴야주게. 그 소려 그 오슬 이피는 과정은 다 댜고 온 이피게 댜며는 자세를 똑바로 노코 그 베로.{묶어야지. 그 소려 그 옷을 입히는 과정은 다 되고 옷 입히게 되면 자세를 똑바로 놓고 그 베로.}

10226 @1 예.{예.}

10226 #1 예, 처으메는 그 기러기로 이러케 노코 그거슬 아프로 이러케 오게 댜며는 구멍을 세 곤네 딸라가지고 이 쪼에서 두 갈래로 찢르며는 세 개로 나오지 않습니까?{아, 처음에는 그 길이로 이렇게 놓고 그것을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구멍을 세 군대 뚫어서 이 쪽에서 두 갈래로 자르면 세 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10226 #1 구멍으로 낀 다으메 그 다으른 여프로 베를 까라가지고 이러케 묶는데 이견또 일곱 매로 무껴가지고.{구멍으로 끼운 다음에 그 다음은 옆으로 베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이것도 일곱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10226 #1 @2 게른 일곱 개 놔니까?{그러면 일곱 개 놓습니까?}

10226 #1 일곱 개 그거는 막음대로 논는데 그 처니 저 뭘 아녀게끔 논는데 일곱 매 막자
클 일곱 뺨 무끈다 해가지고 일곱 맨데.{일곱 개 그것은 마음대로 넣는데 그 천이 저 무엇
않게끔 놓는데 일곱 매듭 매듭을 일곱 번 묶는다 해가지고 일곱 매인데.}

10226 #1 그거 그러케 해가지고 일곱 매를 무끄며는 거는 대렴힐 때까지는 그 배 무끈 거
시 대렴힐 찌개는 그 두 사람만 드러도 돼니까 꾸부러지지 아녀니까 딱딱 무끄니까 일곱 매
에 무끄니까 흔들거리지 못터게 그 일곱 매에 무끄는 거고.{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일곱 매
듭을 묶으면 거는 대렴할 때까지는 그 배 묶은 것이 대렴할 적에는 그 두 사람만 들어도 되
니까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딱딱 묶으니까 일곱 매듭에 묶으니까 흔들거리지 못하게 그 일곱
매듭에 묶는 것이고.}

10226 #1 그 대렴허게 관 쏘게 땅 놀 때는 그 미테 창오지로다가 칠성판.{그 대렴하게 관
속에 딱 놓을 때는 그 밑에 창호지로다가 칠성판.}

10226 @1 예.{예.}

10226 #1 칠성판 그 별 모양으로 북두칠성가치 이제 일곱 구멍을 뚫러가지고 거기다 이
제 베개.{칠성판 그 별 모양으로 북두칠성같이 이제 일곱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베개.}

10226 #1 호게다가 이제 베개에다가 호글 다마가지고 거기다 너은 다으매 에 거기에다 이
제 모시며는 그 친촉떠리 상제드리 큰상제부떠 그 일곱 매 무끈 거슬 전부다 푸러가지고 이
젠 딱 한쪼그로 이러케 노코.{흠에다가 이제 베개에다가 흠을 담아가지고 거기에다 넣은 다
음에 아 거기에다 이제 모시면 그 친족들이 상제들이 큰상제부터 그 일곱 매 묶은 것을 전
부다 풀어가지고 이제는 딱 한쪽으로 이렇게 놓고.}

10226 #1 그 다음 뭐 자기드리 입땀 거 보공이라고 허는데 공가늘 너무 띠면 안 돼니까
그 보공을 자식뜨리 온 내의 가튼 거 부드러운 걸로 나이롱이 들지 안는 걸로 그런 걸로 채
워가지고 예 이제 거기다가 뭐 이 불교 믿는 사름더른 뭐 다라니 가튼 건또 이러케 해가지
고 거기에 가판을 더끄며는 대려미 끈난 거.{그 다음 뭐 자기들이 입땀 거 보공이라고 하느
데 공간을 너무 띄우면 안 되니까 그 보공을 자식들이 옷 내의 같은 거 부드러운 것으로 나
일론이 들지 않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채워가지고 아 이제 거기다가 뭐 이 불교 믿는 사름
들은 뭐 다라니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관판을 덮으면 대려미 끝난 거.}

10226 @1 그러며는 아까 그 소렴힐 때 일곱 매렌 헐짜누파예? 겨른 매듭이 일곱 껌니까
아니면?{그러면 아까 그 소렴할 때 일곱 매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매듭이 일곱 껌니까 아
니면?}

10226 #1 매드비 일곱 개.{매듭이 일곱 개.}

10226 @1 아 이 이러케 끄느로 묶는 게 일곱 개가 아니고예?{아 이 이렇게 끈으로 묶는
것이 일곱 개가 아니고요?}

10226 #1 예.{예.}

10226 @1 아 그거는 먼 개 맨 끝데로 무끔니까?{아 그것은 몇 개 몇 군데로 묶습니까?}

10226 #1 아 게난 처늘 노는 게 일곱 개가 아니고 우에 무끄는 거시 일곱 매.{아 그러니
까 천을 놓는 게 일곱 개가 아니고 위에 묶는 것이 일곱 매.}

10226 #1 @1 매드블 일곱 .{매듭을 일곱.}

10226 #1 매드베 매드블 일곱 개.{매듭에 매듭을 일곱 개.}

10226 @2 그러든 처는 뭘 깨놔마씨? 건 사정에 따라서.{그러면 천은 몇 개 놓나요? 그것

은 사정에 따라서.}

10226 #1 아 건 뭐 기리가 키가 큰 사르문 쪼끔 더 드러가고.{아 건 뭐 길이가 키가 큰 사람은 조금 더 들어가고.}

10226 @2 게난 보통 멘 개 놔니까?{그러니까 보통 몇 개 놓습니까?}

10226 #1 보통 혼 건또 머리 쪼게 인거든. 또 센 넬 한 다섯 개. 다섯.{보통 한 것도 머리 쪽에 있거든. 또 셋 넷 한 다섯 개.}

10226 @1 그러면 그 일곱 매를 허는데 머리 쪼게도 일곱 매 무꼬 배 쪼게도 일곱 매.{그러면 그 일곱 매를 하는데 머리 쪽에도 일곱 매 묶고 배 쪽에도 일곱 매.}

10226 #1 아니, 아니 전부다 해서.{아니, 아니. 전부다 해서.}

10226 @1 전부 다 해감꼬.{전부 다 해가지고.}

10226 #1 이 두상은 이러케 구비져가지고 팔 모양으로 해서 허민 매드비 이까지 옵니다. {이 두상은 이렇게 굽이쳐가지고 팔 모양으로 해서 하면 매듭이 이까지 옵니다.}

10226 @1 예.{예.}

10226 #1 둘. 둘 센. 이게 한꺼버네 이러케 무끄는 게 아니고 그 반을 쪼개가지고 요러케 무꼬 이 그 천 하나에 두 개 드러가고.{둘. 둘 셋.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 게 아니고 그 반을 쪼개가지고 요렇게 묶고 이 그 천 하나에 두 개 들어가고.}

10226 #1 게른 여기 모게 꺼 하나 그 다음 여기 꺼 천 하나에 두 개 허민 세 개.{그러면 여기 목에 거 하나 그 다음 여기 거 천 하나에 두 개 하면 세 개.}

10226 #1 또 배쪼게 허민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 다리 쪼겐 하나로 그냥. 여서 일곱 개. {또 배쪽에 하면 네 개 다섯 개 그 다음 다리 쪽엔 하나로 그냥. 여섯 일곱 개.}

10226 @1 아아.{아아.}

10226 #1 그러며는 하나 둘 센 넬 처니 다섯 개 드러가고 머리에 허면 여섯 개.{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천이 다섯 개 들어가고 머리에 하면 여섯 개.}

10226 @1 게른 그거를 모으면서 매듭 진 게 일곱.{그러면 그거를 모으면서 매듭 지은 것이 일곱.}

10226 #1 매드비 일곱 개. 게난 일곱 매.{매듭이 일곱 개. 그러니까 일곱 매.}

10226 @1 겨난 여기에 하나 무경 내분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하면서 마무리는 하나로 허는 거다예?{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묶어서 내버린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하면서 마무리는 하나로 하는 거네요?}

10226 #1 거니까 그 하나씩 전부다 해가지고 이거는 그 닌 다크는 상제드리 그 그걸 하나씩 푸러.{그러니까 그 하나씩 전부다 해가지고 이것은 그 넣은 다음에는 상제들이 그 것을 하나씩 풀어.}

10226 @1 대림할 때.{대림할 때.}

10226 @2 대림할 때는예?{대림할 때는요?}

10226 @1 그럼.{그럼.}

10226 @2 아까 소림하고 난 다크 호늘 불른다고 허지 아난쑈광예. 그러든 혼 그 절차를 한번 ㄱ라줍써?(아까 소림하고 난 다음에 혼을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혼 그 절차를 한번 말해주십시오?)

10226 @1 혼 불르는 절차.{혼 부르는 절차.}

10226 #1 혼 그 이저네는 엔나레는 그 우리가 처음 배와 올 쪼게는 옰떠른드리 뭐 상동 가트며는 예 가파리 상동 거주 멘 쌀 뭐 김해 김씨 나이 팔썹 썸 보오 이러케 세 버늘 지붕

우의 올라가서 허던데.{혼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 우리가 처음 배워 올 적에는 옛어른들이 뭐 상동 같으면 아 가파리 상동 거주 몇 살 뭐 김해 김씨 나이 팔십 세 보오 이렇게 세 번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던데.}

10226 #1 그건또 그 혼 불르는 적쌈. 혼적쌈을 가지고 가서 아 여자 남자는 왼쪽 팔 끝 소매 잡고 또 오른쪼그로는 이 어깨 우측 어깨 자바가지고 호늘 불런써.{그것도 그 혼 부르는 적쌈. 혼적쌈을 가지고 가서 아 여자 남자는 왼쪽 팔 끝 소매 잡고 또 오른쪼그로는 이 어깨 우측 어깨 잡아가지고 혼을 불렸어.}

10226 @1 음, 아 이러케 해서예?{음, 아 이렇게 해서요?}

10226 #1 어 겨니까 저구리 ㄴ뜨며는 오른쪽 어깨하고 왼손 자바서 남자는 이러케 해서 누구 누구 보하고 세 버늘 헤여가지고 그걸 고비청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거 망인 머리에다가 이러케 놔.{아 그러니까 저고리 같으면 오른쪽 어깨하고 왼손 잡아서 남자는 이렇게 해서 누구 누구 보하고 세 번을 해가지고 그것을 접어서 지붕에서 내려와가지고 거 망인 머리에다가 이렇게 놔.}

10226 @2 보통 어떤 디 가면 혼 불르러 옛날 지붕에 올라가지 아난쑤짱예? 그러면 아프로 올라간따가 내려올 땐 뭐 뒤로 와야웁다라는 건또 인쑤수파?{보통 어떤 데 가면 혼 불르러 옛날 지붕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뭐 뒤로 와야 된다는 것도 있었습니까?}

10226 #1 그거는 여기서는 동까지로 올라가지고 서쪼그로 내려왔써.{그거는 여기서는 동쪽 처마로 올라가지고 서쪽으로 내려왔어.}

10226 @1 으음 동까지로 올라가서.{으음 동쪽 처마로 올라가서.}

10226 #1 동까지 동까지 아프로 올라가서 서까지로 내려완.{동쪽 처마 동쪽 처마 앞으로 올라가서 서쪽 처마로 내려왔어.}

10226 @2 어떤 동네는 아프로 올라서 뒤로 내리라고예.{어떤 동네는 앞으로 올라서 뒤로 내리라고요.}

10226 #1 어 건 지방마다 틀리는지 몰라도 우리 가파도에서는 나도 멘 뻔 거 해봤찌마는 동쪼그로 올라가서 서쪽으로.{아 건 지방마다 다르는지 몰라도 우리 가파도에서는 나도 몇 번 거 해봤지만 동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10226 @2 건 지비 좌향하고는 관련 관계 업써.{그것은 집이 좌향하고는 관련 관계 없이.}

10226 #1 여기는 보통 다 남향이니까.{여기는 보통 다 남향이니까.}

10226 @1 그러면 그때 그 아까 망인한테 입는 저승온. 여기는 호상온 험니까?{그러면 그때 그 아까 망인한테 입히는 수의. 여기는 호상옷 험니까?}

10226 #1 예 호상.{예 호상.}

10226 @1 호상예. 그 호상도 뭐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거 이서예. 아까 그 보공할 때 나 이롱 든 거 안 허는 것처럼 호상은 어떤 걸로 해쑤과?{호상요. 그 수의도 뭐뭐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 있지요. 아까 그 보공할 때 나일론 든 것 안 하는 것처럼 수의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10226 #1 아 호상도 이 베. 삼베. 전부다 삼베.{아 수의도 이 베. 삼베. 전부다 삼베.}

10229 @1 삼베로예. 성복제 허젠 허며는 어떤 음식글 준비해신고예?{삼베로요. 성복제 하려고 하면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가요?}

10229 #1 성복제 허게 뉘며는 메 갱. 또 뭐 적 탕쉬.{성복제 하게 되면 메 갱. 또 뭐 적 탕쉬.}

10229 @2 과실.{과실.}

10229 #1 과일.{과일.}

10229 #1 돼지머리. 돼지머리도 올려서.{돼지머리. 돼지머리도 올렸어.}

10229 @1 예.{예.}

10229 @2 돼지머리예?{돼지머리요?}

10229 @1 그 다음 떡 가튼 건 어떻 헐쭈과? 성복제에.{그 다음 떡 같은 것은 어떻게 했 습니까?}

10229 #1 물론 떠근 뭐.{물론 떡은 뭐.}

10229 @2 오편 다 헐쭈과?{오편 다 했습니까?}

10229 #1 침떡.{시루떡.}

10229 @1 예.{예.}

10229 #1 송편 가튼 건 안 허고.{송편 같은 것은 안 하고.}

10229 @1 예예.{예예.}

10229 @2 절벤?{절편?}

10229 #1 절벤허고.{절편하고.}

10229 @2 솔벤?{솔편}

10229 #1 솔벤허고.{솔편하고.}

10229 @1 성복제는 쟁장히 정성을 드러간꼬 준비헐멘 드러신디예?{성복제는 쟁장히 정성 을 드러가지고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10229 #1 물론 뭐 모든 제사가 다 정성드리는 건 사시런데 성복제도 역시 그 그 오늘 다 입꼬서 이제 성복절 지낸 다오메 그때 동관 허게 되는 거지.{물론 뭐 모든 제사가 다 정성 드리는 것은 사실인데 성복제도 역시 그 그 옷을 다 입고서 이제 성복제를 지낸 다음에 그 때 동관 하게 되는 거지.}

10226 @1 그러며는 그 상제들 입는 오슨 언제 마드러마썸?{그러면 그 상제들 입는 옷은 언제 만들어요?}

10226 #1 언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저네는 그 지그른 모실포 가서 사오지마는 엔나레는 삼베 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 옷 그 허는 할무니더리 이서서. 동네 할무니더리.{언 제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그 전에는 그 지금은 모슬포 가서 사오지만 옛날에는 삼베 가지고 여기서 직접 그 옷 그 하는 할머니들이 있었어. 동네 할머니들이.}

10226 @2 두건 줍꼬 뭐.{두건 접고 뭐.}

10226 #1 아 두건도 줍꼭 상복또 다 저 미싱. 엔나른 미싱 일쓰니까 미싱 한 녀 때 석 때 간따 노코 할머니더리 동네뿐더리 전부다 모영 부인드리 다 만드런. 상복떠를.{아 두건도 접 고 상복도 다 저 재봉틀. 옛날은 재봉틀 있으니까. 재봉틀 한 녀 대 석 대 갖다 놓고 할머니 들이 동네분들이 전부다 모여서 부인들이 다 만들었어. 상복들을.}

10226 @1 그러면 건 도라가썸파고 허면 이젠 상복글 만드는 거 아니라예. 계도 그 상복 또 아들 상복 딸 메누리 사위 상복기 다 트나텐 허명예?{그러면 그것은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는 상복을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그 상복도 아들 상복 딸 며느리 사위 상복이 다 다르다고 하먼서요?}

10226 #1 상복근 다 비스틴데 머리에 거니 그 건 우에 씌우는 테 그계 저 이제 이 사위 7튼 거는 테가 업제. 상제드른 이거 테가 인는다.{상복은 다 비슷한데 머리에 건이 그 건 위에 씌우는 테두리 그계 저 이제 이 사위 같은 것은 테두리가 없지. 상제들은 이거 테두리

가 있는데.}

10226 @2 겐또 상주만 일찌 아녜니까?{그것도 상주만 있지 않습니까?}

10226 #1 예. 아 상주도.{예. 아 상주도.}

10226 @2 큰아들만?{큰 아들만?}

10226 @1 아니 아들 상제는 다.{아니 아들 상제는 다.}

10226 #1 아들 상제는 전부다 썬썬. 아들 상제는 전부다 쓰고 사위는 안 쓰고.{아들 상제는 전부다 썬어. 아들 상제는 전부다 쓰고 사위는 안 쓰고.}

10226 @1 예예. 그 온또 흐뭇 툴리텐 허명마썬. 뒤에 엔나레.{예예. 그 웃도 조금 다르다고 하면서요. 뒤에 옛날에.}

10226 #1 오시 조금 툴런던가.{웃이 조금 달랐던가.}

10226 @1 겐 안 허면 마냐게 아버지 도라가실 때나 어머니 도라가실 때는 상복 흐뭇 툴리게 허지예? 그 마른 안 드러뭇따가?{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나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상복 조금 다르게 하지요? 그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226 #1 여기서는 똑 다 그대로인 거 가튼데.{여기서는 똑 다 그대로인 거 같은데.}

10226 @1 그럼 저 뭐는?{그럼 저 무엇은?}

10226 #1 아버지나 어머니나.{아버지나 어머니나.}

10226 #1 방장때는 저 이 아버지 도라가시며는 에 대나무.{상장은 저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 대나무.}

10226 @1 예.{예.}

10226 #1 대나무허고 어머니 도라가시며는 머귀나무라고 인는데 그 저 쏘기 비지 아는 나무 그런 나무. {대나무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머귀나무라고 있는데 그 저 속이 비지 않는 나무 그런 나무.}

10226 @1 그건 무산고예?{그것은 왜일까요?}

10226 #1 예?{예?}

10226 @1 무사 그 아버지 께 하고 어머니 께 툼나게 툼나게 방장때를 헤신고예?{왜 그 아버지 께 하고 어머니 께 하고 다르게 다르게 상장을 했는가요?}

10226 #1 글썬 그 어머니는 그 나코 그 춤 정성이 지극카다 해서 그 쏘기 께 찬 그 애정을 뜨테서 아마도 그 쏘기 비지 아년 나무를 테칸 거 가태마썬.{글썬 그 어머니는 그 낳고 그 참 정성이 지극하다 해서 그 속이 께 찬 그 애정을 뜻해서 아마도 그 속이 비지 않은 나무를 택한 것 같아요.}

10226 #1 아버지는 즈시근 나찌마는 어머니가치 그러케 즈식 끼르는 데 정성을 안 드러쓰니까 대나무. 아버지는 주그민 대나무. 여자는 머귀나무를.{아버지는 자식은 낳았지만 어머니같이 그렇게 자식 기르는 데 정성을 안 들었으니까 대나무. 아버지는 죽으면 대나무. 여자는 머귀나무를.}

10226 @2 겐디 어떤 체겐 보니깐예 그 아버지가 대나무를 짐는 거는 대나무가 동글락커지 안 험니까예. 그거슨 뭘 하느를 상징하는 거시고 그 다음 머귀나무 네모지게 하니까 땅이다 이런 시그로 해서글 한 겐또 이십디다. 사위는 어떤 거 지뽴니까?{그런데 어떤 책에는 보니까요 그 아버지가 대나무를 짐는 것은 대나무가 동그랑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 머귀나무 네모지게 하니까 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위는 어떤 거 쥔습니까?}

10226 #1 예예?{예예?}

10226 @2 사위는?{사위는?}

10226 #1 사위?{사위?}

10226 @2 예. 방장때.{예.상장.}

10226 #1 사위는 방장때가 어서.{사위는 상장이 없어.}

10226 @2 우리 동넨 수리대로 해마씨.{우리 동네는 이대로 합니다.}

10226 #1 아 그런가. 동네마다 틀리구나. 우리는 사위는 방장때가 없어.{아 그런가. 동네마다 다르구나. 우리는 사위는 상장이 없어.}

10226 @1 예. 서조개는 안 하니까.{예. 서쪽에는 안 하니까.}

10226 @2 재니까 아까 어르신 요거 아니우팡예? 요거시 달탄 애기지예. 그 두건 우의 쓰는 요거 요거.{그러니까 아까 어르신 요거 아닌가요? 요것이 다르다는 애기지요. 그 두건 위에 쓰는 요거 요거.}

10226 #1 예예. 이 전삼후사라 해가지고 이게 아페는 대조글 세 개나 노코 뒤에는 네 개를 노코 이견또 저 우리 창오지로 해가지고 직접 만드렘씨.{예예. 이 전삼후사라 해가지고 이것이 앞에는 대쪽을 세 개나 놓고 뒤에는 네 개를 놓고 이것도 저 우리 창호지로 해가지고 직접 만들었어.}

10226 @2 이견 뭐렌 해마씨?{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6 #1 저거 건대.{저거 건대.}

10226 #2 건넨 건대라도.{건대는 건대여도.}

10226 @1 아까 테는 어느 겨우파?{아까 띠는 어느 것입니까?}

10226 #1 이거 둘레에 인는 거 테.{이거 둘레에 있는 거 띠.}

10226 @1 으 둘레에 인는 거 테예?{아 둘레에 있는 것이 띠요?}

10226 #2 이거 둘레에 영 인는 거ㄴ라 테.{이거 둘레에 이렇게 있는 것보고 띠.}

10226 @1 아 둘레에 그 저기 찌그로 영 현 거예?{아 둘레에 그 저기 쪼으로 이렇게 한 거요?}

10226 #1 이거 전체를 건대 건대라고만 헐는데. 켜디 요거는 우에 끼우는 요거슨 뭐라 헐는지 몰르는데 이거 뭐 전삼후사.{이거 전체를 건대 건대라고만 했는데. 그런데 요것은 위에 끼우는 요것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뭐 전삼후사.}

10226 @2 요기 요러케 내려 논 견또 이서예? 그 베로.{요기 요렇게 내려 놓은 것도 있지요? 그 베로.}

10226 @1 영 귀 여페 이러케 하는 거. 건 뭐렌 험니까?{이렇게 귀 옆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0226 #1 잘 모르겐네.{잘 모르겠네.}

10226 @1 귀마구리.{귀마개.}

10226 #2 만들긴 만드라날쭈마는.{만들기는 만들었지만.}

10226 #1 이 하여튼 통트런 건대엔만 헐찌.{이 하여튼 통틀어서 건대라고만 했지.}

10226 @1 그리고 예저네 그 과네 이제 대림하게 뒤면 팔죽 쭈거나 이러지는 안 해썰쭈과? 엔나른 관 만들 때 팔죽 썰뎌 헐썰꺼든예?{그리고 예전에 그 관에 이제 대림하게 되면 팔죽 쭈거나 이러지는 안 했었습니까? 옛날은 관 만들 때 팔죽 쭈었다고 했었거든요?}

10226 #2 팔죽 썰쭈다.{팔죽 쭈었습니다.}

10226 #1 여기는 그 일폰날. 일폰날 그 친족 사돈 뒤는 쪼게서 팔쭈글 썩 오머는 거기 온 사람들 동네 짜름덜 전부다 먹찌 뒤.{여기는 그 일푼날. 일푼날 그 친족 사돈 되는 쪽에서

팔죽을 쑤어 오면 거기 온 사람들 동네 사람들 전부다 먹지 뭐.}

10226 #2 방법 달마. 무슨 사돈 찌비서 똑 썬 옵니다.{비방 같아. 무슨 사돈 집에서 똑 썬 워 옵니다.}

10226 @1 예.방법예. 마자마씨. 방법행은예. 경허곡 아까 일폰나른 조문. 고렘허는 날 아니우까예? 고렘허기 댜면 어떤 시그로 헤신고예? 엔날드른.{예. 비방요. 맞습니다. 비방해서. 그렇게 하고 아까 일폰날은 조문. 조문하는 날 아닙니까? 조문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옛날들은.}

10226 #1 여기도 만날 그 와서들 상에다 절하고 아 상주안테 절하고 동네 뿌니 안자 일쓰며는 그디 절하고 그 다으른 부조하고 이제 나오며는 음식.{여기도 만날 그 와서들 상에다 절하고 아 상주한테 절하고 동네 분이 앉아 있으면 거기 절하고 그 다음은 부조하고 이제 나오면 음식.}

10226 #1 여긴 뭐 하얀 쌀바베다 그냥 돼지고기. 여기는 뭐 주로 장사나면 하얀 쌀밥 헐 쓰니까.{여긴 뭐 하얀 쌀밥에다 그냥 돼지고기. 여기는 뭐 주로 장사나면 하얀 쌀밥 했으니까.}

10226 @2 만장으로 흰 저근 연쭈강?{만장으로 한 적은 없습니까?}

10226 #1 그 엔날 우리 아주 어릴 때는 만장도 이션는데.{그 옛날 우리 아주 어릴 때는 만장도 있었는데.}

10226 @2 만장이 부조로예?{만장이 부조로요?}

10226 #1 예 만장도 하고 그 상여 메고 나갈 때에는 그 대에다가 저.{예. 만장도 하고 그 상여 메고 나갈 때에는 그 대에다가 저.}

10226 #2 만전기.{만장.}

10226 #1 만서. 만서 써가지고 그 형겅 아 저 대에나 뭐에다 해가지고 복친드리 이러케 미곡 그러케 헐썬는데 너무 어릴 때라서 거 자세히 몰르겐네.{만장. 만장 써가지고 그 형겅 아 저 대에나 뭐에다 해가지고 복친들이 이렇게 메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어릴 때라서 거 자세히 모르겠네.}

10226 @2 그건또 어른덜 끼리는 그 부주를 헤십쭈게. 만서로.{그것도 어른들 끼리는 그 부조를 했습지요. 만장으로.}

10226 @2 게른 삼촌네 헐 때는 이런 그 만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안 헐썬꾸나예?{그러면 삼촌네 할 때는 이런 그 만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군요?}

10226 #1 그런 거 안 헐.{그런 것은 안 했어.}

10226 @1 그러면 그 운상해 갈 때예. 아까 이제 운상해 갈 때는 어떻 해쭈과? 아까 설배도 헐텐 허니까. 그 운상 행려를 한 번 ㄱ라쭈썬?{그러면 그 운상해 갈 때요. 아까 이제 운상해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설배도 했다고 하니까. 그 운상 행려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226 #1 예 그 상여 아페는 그 배. 뽕쭈로 해가지고 두 줄로 한 오십 메타씩 나간썬 거야. 아마도. 거기다가 동네 부인들 부인드리 아페 겹고 어 동네 궂드른 이 그 상여를 메고. 복치드른 이제 뒤에 따르고.{아 그 상여 앞에는 그 바. 그 밧쭈로 해가지고 두 줄로 한 오십 미터씩 나갔을 거야. 아마도. 거기다가 동네 부인들 부인들이 앞에 겹고 아 동네 분들은 이 그 상여를 메고. 복친들은 이제 뒤에 따르고.}

10226 #2 배 끝페도 흰 겹로 쭈라멜쭈게. 설배엔 허연.{바 끝에도 흰 것으로 쭈라맸습니다. 설배라고 해서.}

10226 #1 게. 아페 메는 게 그 설빠.{그래. 앞에 메는 것이 그 설빠.}

10226 @2 예. 그 한 오십 미터쯤에?{예. 그 한 오십 미터쯤요?}

10226 #1 아페 메는 게 설빠. 게난 거기 부인덜 미고 두에는 상주가 따르고.{앞에 메는 것이 설빠. 그러니까 거기 부인들 메고 뒤에는 상주가 따르고.}

10226 @1 아까 그 상여 매가는 사라플 누구라고 헨마씨?{아까 그 상여 매어 가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요?}

10226 @2 상두꾼?{상두꾼?}

10226 #1 어 상두꾼.{아 상두꾼.}

10226 @1 아까 동네꾸니라는 마를 해서.{아까 동네꾼이라는 말을 해서.}

10226 #1 아니야. 동네 동네 싸라드리 동네 절문 사라드리 상뒤꾼 상뒤꾼.{아니야. 동네 동네 사람들이 동네 젊은 사람들이 상두꾼 상두꾼.}

10226 @2 아 그럼예. 그 행상 매는 사르른 멘 짜르미 피료하우파?{아 그럼요. 그 행상 매는 사람은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10226 #1 아 한나 둘 쉰 넌 다서.{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226 @2 여덜?{여덟?}

10226 #1 여섯 시미 명 십쌔 명.{여섯 십이 명 십삼 명.}

10226 @1 으음.{아아.}

10226 #1 십쌔 명.{십삼 명.}

10226 @2 그러면 아까 ㄴ른대는 멘 개 와마씨?{그러면 아까 ㄴ른대는 몇 개 놓습니까?}

10226 #1 ㄴ른대 네 개.{ㄴ른대 네 개.}

10226 @2 네 개 노면.{네 개 놓으면?}

10226 #1 ㄴ만 일짜 그 그리플.{가만 있자. 그 그림을.}

10226 @2 ㄴ른대를 네 개 노면? 이겁쭈게.{가로대를 네 개 놓으면? 이거지요.}

10226 #1 아아. ㄴ른대를 노게 뒤편은 여기도 줄 메고 끝뎡이도 줄 뎡니다.{아아. 가로대를 놓게 되면 여기도 줄 메고 꼬트머리도 줄 뎡니다.}

10226 @1 네에.{네.}

10226 #1 노끄느로.{노끈으로.}

10226 @2 네.{네.}

10226 #1 상여 이거 틀 때. 이거 허민 이거 버서지지 몰터게 노끄느로 메도 게머는 오편 한 사람 사고 바로 여기.{상여 이거 꼬을 때. 이거 하면 이거 벗겨지지 못하게 노끈으로 매도 그러면 옆에 한 사람 서고 바로 여기.}

10226 #1 이거만 다섯 짜르미니까 양쫘기면 열 명 열하나 열두 명. 두에는 방양 조정허난.{이것만 다섯 사람이니까 양쪽이면 열 명. 열하나 열두 명. 뒤에는 방향 조정하니까.}

10226 @2 저 치자비.{저 키잡이.}

10226 @1 그 다음 이거는 뭇렌 헤마씨? 이 대는. ㄴ른대.{그 다음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대는 가로대.}

10226 #1 상열때. 상열때 장때라고 허고 이거 상여 장때 이진 ㄴ른대. 이진 대 ㄴ른대.{상열때. 상열때. 장때라고 하고 이거 상여 장대 이진 가로대.}

10226 @1 아까 네 개?{아까 네 개?}

10226 #1 예.{예.}

10226 @1 상여 장때는 두 개?{상여 장대는 두 개?}

10226 #1 예.{예.}

10226 @1 경혜영 그 우에 상여를 올려노는 거 아니라예?(그렇게 해서 그 위에 상여를 올려놓는 거 아닌가요?)

10226 #1 계난 이 ㄱ론대부터 논 다으멘 장때를 노코 이제 줄로 해 가서 이제 일로 시작케가지고 일로 시작케가지고 서로 이러케 와가지고 줄 양쪼그로 해가지고 이기다 무꼬.{그러니까 이 가로대부터 놓고 다음에는 장대를 놓고 이제 줄로 해 가서 이제 이리로 시작해가지고 이리로 시작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와가지고 줄 양쪽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묶고.}

10226 @1 예.{예.}

10226 #1 예 ㄴ디 ㄴ디마다 연결웨는 디 무꾼 다으메 여기 와서 매듭 찌고 이 끝땡이 와서 두벌로 이제 이러케 매듭 찌며는 게며는 이러케 웨는 거지.{아 마디 마디마다 연결되는데 묶은 다음에 여기 와서 매듭 짓고 이 꼬트머리에 와서 두벌로 이제 이렇게 매듭 지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10226 #1 이 주리.{이 줄이.}

10226 @2 예. 마쭈다. 마쭈다.{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10226 #1 이거 줄 때는 방식또 이러케 짝 돌려불고 이쪼게는 이러케 완저니 무꺼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러케 자바서 이러케 돌리며는 딱 끼며는.{이거 줄 때는 방식도 이렇게 짝 돌려버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완전히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면 딱 끼면.}

10226 @1 안 푸러지게.{안 풀어지게.}

10226 #1 아 안 푸러지게 딱 매지니까.{아 안 풀어지게 딱 매지니까.}

10226 @2 아까 요기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자비 아니우짱예?(아까 여기는 그 방향을 조정하는 키잡이 아닙니까?)

10226 #1 예.{예.}

10226 @2 요기는 뭐렌 해마씨? 요 사라믄.{요기는 뭐라고 합니까? 요 사람은.}

10226 @1 아페 산 사르믄.{앞에 선 사람은.}

10226 #1 선두엔 험쭈. 선두.{선두라고 하지요. 선두.}

10226 @1 으. 선두. 선두고. 그 다으메 상여 우에 올라 와 이 우에 올라와간꼬 노래 불르는 사름 일찌 아녀우파? 그 사라믄 뭐렌 험니까?(아. 선두. 선두고. 그 다음에 상여 위에 올라 와 이 위에 올라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10226 #1 소리꾼이라고 헨는가?(소리꾼이라고 했는가?)

10226 @2 예 조쭈다.{예 좋습니다.}

10226 @1 소리꾼예?(소리꾼요?)

10226 #1 그다음 혹씨 행상을 해가다가예 그 망인보다 더 항려리 노픈 사라메 묘지가 인쓰면 가튼 권당인데 그러면 이거슬.{그 다음 혹씨 행상을 해가다가요 그 망인보다 더 항렬이 높은 사람의 묘지가 있으면 같은 권당인데 그러면 이것을.}

10226 #1 하례. 하례.{하례. 하례}

10226 @2 걸 뭐라고마씨?(그것을 뭐라고요?)

10226 #1 하례.{하례.}

10226 @1 하례.{하례.}

10226 #1 예 하례 하면 그 산 여페 가며는 그.{아 하례 하면 그 묘 옆에 가면 그.}

10226 @1 과늘 내려노켄따예?(관을 내려놓겠네요?)

10226 #1 그 항상 그 상여 해 갈 때는 동네 그 알만한 사라미 그.{그 항상 그 상여 해 갈 때는 동네 그 알만한 사람이 그.}

10226 @2 선두에 서니까.{선두에 서니까.}

10226 #1 아 선두에 이제 그 메진 아녀도 여프로 가면서 다 저 이 코치를 허는 거니까. {아 선두에 이제 그 메지는 았아도 옆으로 가면서 다 저 이 코치를 하는 것이니까.}

10226 #1 그 이제 여기 여기 김성숙 동상 가튼 데 그런 디 지나갈 때는 딱 하레 해가지고 딱 하레 허게 뒤편는 전부다 상여를 거이 거이 땅까지 땅엔 아니라도 미트로 내릴따가 그 인사하는 목쓰로 그러케 허고.{그 이제 여기 여기 김성숙 동상 같은 데 그런 데 지나갈 때는 딱 하레 해가지고 딱 하레 하게 되면 전부다 상여를 거의 거의 땅까지 땅에는 아니어도 밑으로 내렸다가 그 인사하는 뒤편으로 그렇게 하고.}

10226 @2 하레?{하레?}

10226 #1 예. 하레.{예. 하레.}

10226 @2 다른 동네 가니까 하메라고 하던데요?{다른 동네 가니까 하마라고 하던데요?}

10226 #1 하메라고도 합니다. 하메.{하마라고도 합니다. 하마.}

10226 @2 게영 쪽 케영 장지까지 갈 꺼 아니라예. 아까처럼 어 게저레 따라서 그 머리를 어느 쪽으로 할 꺼시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간 그 상뒤꾼들도 음식글 메겨야 땀 꺼 아니라예?{그래서 쪽 해서 장지까지 갈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아 계절에 따라서 그 머리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간 상뒤꾼들도 음식을 먹여야 될 거 아닌가요?:}

10226 #1 게난 거기서는 봉부니 다 뒤편야 점심 제공헐쥬마씨.{그러니까 거기서는 봉분이 다 되어야 점심 제공하지요.}

10226 #1 시가니 쪼끔 느끼며는 예 하관허기 저네 먹꼬 하관 시기고 또 웬마니 늘찌 아널 때는 똑 하관허고 하관늘 딱 허게 뒤편는 식싸 저 봉분 시작커게 뒤편는 또 일허는 사름더 른 일허고 나머지는 저 점심 먹꼬.{시간이 조금 늦으면 아 하관하기 전에 먹고 하관 시키고 또 웬만큼 늦지 았을 때는 똑 하관하고 하관을 딱 하게 되면 식사 저 봉분 시작하게 되면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나머지는 저 점심 먹고.}

10226 #1그리고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또 안 한 사름도 허곡.{그리고 이제 바꾸어가지고 이제 또 안 한 사람도 하고.}

10226 #2 받떠서 그냥.{밭에서 그냥.}

10226 #1 어 받떠서 그냥. 장지에서 그냥.{아 밭에서 그냥. 장지에서 그냥.}

10226 @2 혹시 입관할 때라든가 아니면 하관할 때에 무슨 떠 무슨 떠는 보지 말라라고 하는?{혹시 입관할 때라든가 아니면 하관할 때에 무슨 떠 무슨 떠는 보지 말라라고 하는?}

10226 #1 예예. 그건또 그 그 나리 자일 가뜨며는 자일 가뜨면 축 인 묘 진 사 오. 자에 반대가 오.{예예. 그것도 그 그 날이 자일 같으면 자일 같으면 축 인 묘 진 사 오. 자에 반대가 오.}

10226 @1 오니까.{오니까.}

10226 #1 오니까 몰허체. 몰허체도 그 사가게 중에 든 사르문 켜차는데 게난 그 몰떠드리 그 피허라. 이제 그런 전부다 저 이.{오니까 말떠. 말떠도 그 사각에 중에 든 사름은 켜찮은 데 그러니까 그 말떠들이 그 피허라. 이제 그런 전부다 저 이.}

10226 @2 테길 끼에.{택일 기에.}

10226 #1 테길 끼에 다 나오니까 그 하관하기 저네 과늘 이제 들고 이제 그 개광짜리로

가게 댜면 드러가기 저네 피하시오.{택일 기에 다 나오니까 그 하관하기 전에 관을 이제 들고 이제 그 개광자리로 가게 댜면 들어가기 전에 피하시오.}

10226 @2 그건 뉜엔 허는고예?{그것은 뉜엇이라고 하는가요?}

10226 #1 소피.{소피.}

10226 @2 소피예?{소피요?}

10226 @2 불르는 건 호충. 호충이라는 말 드러뵐띠가?{부르는 것은 호충. 호충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10226 #1 호충 그런 건 못 뜨런는데.{호충 그런 것은 못 들었는데.}

10226 @2 소피예?{소피요?}

10226 @1 소피.{소피.}

10226 @2 그러면 이제 봉부니 다 댜면 아까 달구를 하고 그 다음 아까 맨처으메 필제? {그러면 이제 봉분이 다 댜면 아까 달구를 하고 그 다음 아까 맨처음에 필제?}

10226 #1 예. 필제.{예. 필제.}

10226 @2 이거시 산 산젠가마씨?{이것이 묘 묘제인가요?}

10226 #1 산제.{묘제.}

10226 @2 봉부니 다 싸아지면 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초우제 재우제 사무제를 할 꺼 아니우파예? 계영 다 끈낭으네 지배 오면 또 연날 귀양푸리 가튼 거는 안 해신가마씨?{봉분이 다 쌓아지면 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끝나서 집에 오면 또 옛날 귀양풀이 같은 것은 안 했는가요?}

10226 #2 무사 아녀?{왜 안 해?}

10226 #1 장사 끈난 다음에 귀양푸리를 해십쥬.{장사 끈난 다음에 귀양풀이를 했습지요.}

10226 #1 그 귀양푸리는 어떤?{그 귀양풀이는 어떤?}

10226 #1 그날 저녁게.{그날 저녁에.}

10226 @1 그날 쩌녀게 어떤 시그로 허는 겨우파? 그거는.{그날 저녁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10226 #1 그 뉜 무당들 저 이 음식. 음식 대개 보니까 전부다 생쌀로 올리는 거 가탄게. {그 뉜 무당들 저 이 음식. 음식 대개 보니까 전부다 생쌀로 올리는 것 같던데.}

10226 #2 무사 메도 허영 올리곡게.{왜 메도 해서 올리고.}

10226 #1 메도 허곡 생쌀도 뉜 올려가지고.{메도 하고 생쌀도 뉜 올려가지고.}

10226 #2 이만때 오며는 뉜날 아쳐기 마청 가.{이만때 오면 뉜날 아침에 마쳐서 가.}

10226 #1 제무른 미를 다 장사 나게 뉜며는 해두니까 그 귀양푸리 할 꺼를 다 준비해두니까 그날 쩌녀게는 그 이튼날 발글 때까지 밤새도록 그 저 귀양푸릴 허는 거 가편데.{제물은 미리 다 장사 나게 뉜면 해두니까 그 귀양풀이 할 것을 다 준비해두니까 그날 저녁에는 그 이튼날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그 저 귀향풀이를 하는 것 같던데.}

10226 @2 그럼 흑씨 지금 장네까지 치르고 귀양푸리까지 하지 아녜쥬과? 그러면 그와가튼 장비를 마련할려고 하면 아들 상제하고 딸 상제 사위 상제가 다른가마썰?{그럼 흑씨 지금 장례까지 치르고 귀양풀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와같은 장비를 마련하려고 하면 아들 상제하고 딸 상제 사위 상제가 다른가요?}

10226 #1 아 그러니까.{아 그러니까.}

10226 @2 배당할 게.{배당할 것이.}

10226 #1 뉜 딸도 여유 인는 데는 보태지마는 대개 주상제드리 주상제드리 서로 분담해영

딸도 잘 사는 딸드른 가치 허고.{뭐 딸도 여유 있는 데는 보태지만 대개 주상제들이 주상제들이 서로 분담해서 딸도 잘 사는 딸들은 같이 하고.}

10226 @2 그럼 일포는 누가 준비힙니까?(그럼 일포는 누가 준비힙니까?)

10226 #1 여기는 그자 본주에서.{여기는 그저 본주에서.}

10226 @2 본주에서?(본주에서?)

10226 @1 다른 동네 가면 이러케 이제 장 난쓸 때는 안 하지만 소상 때는 대개 크게 헌 덴 헤간꼬 떡 가튼 경우도 켜장히 마니 해서 동네 나누고 헨헨 헨꺼든마씨? 여기는 그런 건 어신가마씨?(다른 동네 가면 이렇게 이제 장사 닐을 때는 안 하지만 소상 때는 대개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떡 같은 경우도 켜장히 많이 해서 동네 나누고 했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10226 #1 엔나레는 떡 헨씀니다.{옛날에는 떡 했습니다.}

10226 #1 뭐 시루떡 가튼 거 뭐.{뭐 시루떡 같은 거 뭐.}

10226 #1 빵떡 가튼 거 그런 거 해영 저 밥 제공 아널 때 엔날 그 보리쌀 머글 때는 주로 떡 헨쑤다게. 떡 케가지고 조문객덜토 명 먹꼬 술 먹꼬 돼지고기 먹꼬 그 정도.{빵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저 밥 제공 았을 때 옛날 그 보리쌀 먹을 때는 주로 떡 했습니다. 떡 해가지고 조문객들도 떡 먹고 술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 정도.}

10226 @2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도라와서 다 귀양푸리 하고 난 다으메 다음 주 쯔 되면 그 본주에서는 뭐 입관할 때라든가 아니면 염혈 때에 아니면 봉분혈 때 너무나 마니 수고를 헨파고 해가지고 공정?(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돌아와서 다 귀양풀이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쯔 되면 그 본주에서는 뭐 입관할 때라든가 아니면 염할 때에 아니면 봉분할 때 너무나 많이 수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공정?)

10226 #1 공정. 그저넨 공정 이션쑤다게.{공정. 그전에는 공정 있었습니다.}

10226 @1 그거는 어떤 시그로 허는 겨우파? 그거는.{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10226 #1 에 공정이엔 허며는 그 소상 때에 돼지 자브면은 돼지고기 한두 근 정도 이러케 찢라가지고 쌀 곤쌀 한 한 말 정도 술허고 술 뉘뽕 큰 뉘 그.{아 공정이라고 하면 그 소상 때에 돼지 잡으면 돼지고기 한두 근 정도 이렇게 찢라가지고 쌀 흰쌀 한 한 말 정도 술하고 술 뒷병 큰 뉘 그.}

10226 #1@1 큰 뉘?(큰 뉘?)

10226 #1 에 그 뉘뽕으로 하나하고 돼지고기 한두 근하고 그러케 해서 그 뉘까를.{아 그 뒷병으로 하나하고 돼지고기 한두 근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를.}

10226 @2 소상 때마씨?(소상 때요?)

10226 #1 예 소상 때.{예 소상 때.}

10226 @1 큰일 할 땐 모르니까. 소상 때 어디 어디 가져가마씨? 공정은.{큰일 할 때는 모르니까. 소상 때 어디 어디 가져가나요? 공정은.}

10226 #1 게면은 개광현 사람.{그러면 개광현 사람.}

10226 @1 예.{예.}

10226 #1 또 염현 사람.{또 염현 사람.}

10226 @1 예.{예.}

10226 #1 뉘 그 정도.{뉘 그 정도.}

10226 #2 엔나른 돼지고기 썬 사람.{옛날은 돼지고기 썬 사람.}

10226 #1 아 뭐.{아 뭐.}

10226 @1 도감.{도감.}

10226 #1 도감 또.{도감 또.}

10226 @2 산땀헌 사르른. 산따른 언제 험니까?{산땀헌 사람은. 산땀은 언제 합니까?}

10226 #1 그 옛날 산땀헐 때는 뭐 그거는 산따른 동네 뽀드리 전부다 모영 허니까 그거는 뭐 특별헌 기수리 아니고 동네 뽀드리 가치 허니까.{그 옛날 산땀헐 때는 뭐 그것은 산땀은 동네 분들이 전부다 모여서 하니까 그것은 뭐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동네 분들이 같이 하니까.}

10226 #2 한 식꾸가치.{한 식구같이.}

10226 #1 장산나른 그냥 음식 제공 받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일해주는 거지. 동네 뽀드리.{장삿날은 그냥 음식 제공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일해주는 거지. 동네 분들이.}

10226 #1@1 계난 공정은 소상 때 허는구나예?{그러니까 공정은 소상 때에 하는군요?}

10226 #1 아 소상 때에. 계난 요즘 뭐 베길 탈쌍이니까 베길 때에 그자 저 나도 가서 뭇터여 주며는 요즈믄 그 뭐 공정 그런 거 얻꼬 내보거나 한 불 이러케 주는 경우.{아 소상 때에. 그러니까 요즘 뭐 백일 탈쌍이니까 백일 때에 그자 저 나도 가서 뭇해 주면 요즘은 그 뭐 공정 그런 것은 없고 내복이나 한 벌 이렇게 주는 경우.}

10226 @1 으음. 공정 대신 내복으로 이러케 하는 구나예.{으음. 공정 대신 내복으로 이렇게 하는군요.}

10226 #2 수고헨젠 허영.{수고했다고 해서.}

10226 @1 예예.{예예.}

10226 #2 공정이명 말명 수고헨젠 허영.{공정이며 말명 수고했다고 해서.}

10227 @1 그러며는예 예저네 그 장레하고 요즘 장레하고 비교를 헨쓸 때 어때마씨? 아까도 드문드문 얘기는 헨씀니다마는.{그러면 예전에 그 장레하고 요즘 장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까도 드문드문 얘기는 했습니다만.}

10227 #2 아이고, 요즈믄 간단허주게. 허는 게.{아이고, 요즘에는 간단하지. 하는 것이.}

10227 #1 엔나렌 정말 율리 원칙때로 춤 헨는데 그 저 육찌에선 보니까 도라가시믄 그 삼년 간 뭐 사네 가서 살고도 헨쭈마는.{옛날에는 정말 율리 원칙대로 참 했는데 그 저 육찌에서는 보니까 돌아가시믄 그 삼년 간 뭐 묘에 가서 살고도 했지만.}

10227 @2 예. 묘지기에?{예. 묘지기요?}

10227 #1 어. 그런 건 업찌마는 엔나렌은 뭐 소상 대상 뭐 담제꺼지 딱 제 날짜에 다 하고 헨는데 요즈믄 아주 간소와웨니까 뭐 배길 탈쌍도 하고 다 끈마치고.{아. 그런 것은 없지만 옛날에는 뭐 소상 대상 뭐 담제까지 딱 제 날짜에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주 간소화되니까 뭐 백일 탈쌍도 하고 다 끝마치고.}

10227 #2 제사도 열 씨에 해 먹꼬.{제사도 열 시에 해 먹고.}

10227 #1 제사도 뭐 당일 썰사해가지고 열 씨 저네 해 머거버리고 허니까. 뭐.{제사도 뭐 당일 썰사해가지고 열 시 전에 해 먹어버리고 하니까. 뭐.}

10227 @2 혹씨 지금도 상식키는 디 이신가마씨?{혹시 지금도 상식하는 데 있는가요?}

10227 #1 상식키는디 요즘.{상식하는데 요즘.}

10227 @2 가파도에서 몬 봐서예?{가파도에서 못 봤지요?}

10227 #1 가파도 안네 이제 지그믄 상식 안 해.{가파도 안에 이제 지금은 상식 안 해.}

10228 @1 그러면 그 예저네 상여 매고예 아까 보니까 우리 삼추니 노래 잘 부르더라. 이

목청이 좋은 거 가태. 운구하면서 불렀던 그 달구. 이 노래 아는 거 하나 불러지쿠과?{그러면 그 예전에 상여 메고요 아까 보니까 우리 삼촌이 노래 잘 부르더라. 이 목청이 좋은 거 같아. 운구하면서 불렀던 그 달구. 이 노래 아는 거 하나 부를 수 있겠습니까?}

10228 #1 그걸.{그것.}

10228 #2 달구소리.{달구노래.}

10228 #1 달구?{달구.}

10228 #2 아녀나난.{안 했었으니까.}

10228 #1 달구 찢을 때는 뭐.{달구 찢을 때는 뭐.}

10228 @1 아니며는 운상할 때는.{아니면 운상할 때는.}

10228 #1 하기도 헐썌는데.{하기도 했었는데.}

10228 @1 튼내 봄썌.{생각해 보십시오.}

10228 @1 운상을 허든 달구를 허든 아까 딱 보니까 한 소절 딱 헐는데 목소리가 조터라고예.{운상을 하든 달구를 하든 아까 딱 보니까 한 소절 딱 헐었는데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10228 #1 어 불쌍 달구여. 어허 불쌍 달구여. 어허 불쌍 달구여. 삼 세번째랑 들고나 노차.{어 불쌍 달구야. 어허 불쌍 달구야. 어허 불쌍 달구야. 삼 세번째랑 들고나 놓자.}

10228 #1 이러케 허면 달구를 이제 찢는데 그때부터 도라가면서 이제.{이렇게 하면 달구를 찢는데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10228 #2 그 허여난 때가 어느 때라.{그 했던 때가 어느 때야.}

10228 #1 세상사리 뭐뭐 그런 거 허젠 허면.{세상살이 뭐뭐 그런 거 하려고 하면.}

10228 @2 예. 마쭈다게.{예. 맞습니다.}

10228 @1 게니까 어 불쌍 달구여. 이 사람 주건쓰니까 이제 불쌍하다 하는 이런 소리가 봐예.{그러니까 어 불쌍 달구야. 이 사람 죽었으니까 이제 불쌍하다 하는 이런 소리가 봐요.}

10229 @1 그 다으멘에 장네 때 음식근 어떤 거슬 어떠케 장만해마썌? 장네 음식또 손님 대접봉이 일썌 꺼고 제 용으로 일썌 꺼고. 도새기는 멘 므리 잡꼬 이런 거예?{그 다음에는 요 장례 때 음식은 어떤 것을 어떻게 장만하는가요? 장례 음식도 손님 대접용이 있을 것이고 제 용으로 있을 것이고. 돼지는 몇 마리 잡고 이런 거요?}

10229 #1 우선 저 이 돼지 자브며는 열 까그로 트지 안썌니까?{우선 저 이 돼지 잡으먼 열 각으로 떠내지 않썌니까?}

10229 @1 예.{예.}

10229 #1 게면 돼지머리는 우선 켄썌에 올릴 꺄로 노코 나머지 부분 아홉 개 가른 거슬 거시서 한 근씩 전부다 떼어네마썌. 한 그니든 반 그니든.{그러면 돼지머리는 우선 켄썌에 올릴 것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 아홉 개 가른 것을 거기서 한 근씩 전부다 떼내요. 한 근이든 반 근이든.}

10229 @2 부분 부분.{부분 부분.}

10229 #1 으 부분 매 부분마다 떼여 놔가지고 그꺄로. 갈비 가튼 거는 꺄갈 만드는 데 쓰고. 예 이 부분 한 꺄또 이제 그 제 그 신주안테 그 쓰는 거고.{아 부분 매 부분마다 떼여 놔가지고 그것으로. 갈비 같은 것은 꺄갈 만드는 데 쓰고. 아 이 부분 한 꺄또 이제 그 제 그 신주안테 그 쓰는 것이고.}

10229 #1 뭐 제무른 우선 그 틀리게 헐썌.{뭐 제물은 우선 그 다르게 했지.}

10229 @1 예예.{예예.}

10229 #1 떡 가튼 건또 따로 만들고.{떡 같은 것도 따로 만들고.}

10229 #1 켄디 이제 나머지 고기 가지고 그냥 상뒤꾼들도 메기고 동네 뽀들도 메기고.{그런데 이제 나머지 고기 가지고 그냥 상뒤꾼들도 먹이고 동네 뽀들도 먹이고.}

10229 @1 그거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는 거자나예? 그 그때도 순대를 다마마씨?{그거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때도 순대를 담나요?}

10229 #1 아아.{아아.}

10229 @1 상 남쓸 때도.{상 났을 때도.}

10229 #1 순대. 예 거론 때에바께 잘 안 헐쓸 곁. 순대?{순대. 아 결혼 때에밖에 잘 안 했을 곁. 순대?}

10229 @1 순대는예?{순대는요?}

10229 #1 순대 거론 때 헐찌. 장사 때는. 아 장사 때도 헐따. 장사 왜 헐냐면 그 해가지고 관 행사 할 찌게 상뒤꾼들 그 술란주로 어 순대 이리케 찌러가지고 거 술란주로 이제 대접헐.{순대 결혼할 때 헐지. 장사 때는. 아 장사 때도 헐다. 장사 왜 헐냐면 그 해가지고 관 행사 할 적에 상뒤꾼들 그 술안주로 아 순대 이리케 찌어가지고 거 술안주로 이제 대접헐다.}

10229 @1 그거는 이제 술란주 헐 때 순대허고예. 그 다큐메 조문객 오며는 음식근 어떤 곁 대접페마씨?{그거는 이제 술안주 할 때 순대하구요. 그 다큐메 조문객 오면 음식은 어떤 곁 대접하나요?}

10229 #1 엔나레는 저 아까도 말헐찌마는 돼지고기하고.{옛날에는 저 아까도 말헐지만 돼지고기하고.}

10229 #2 밥.{밥.}

10229 #1 아니 떡. 아주 그 오십 년대까지는 그랜쓸 꺼야. 떡 가튼 거 허고 술허고 떡카고 돼지고기. 그 정도로 허여가지고 어 대접헐꼬.{아니 떡. 아주 오십 년대까지는 그랬을 거야. 떡 같은 거 하고 술하고 떡하고 돼지고기.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아 대접헐고.}

10229 @1 바른 어떤 밥 헐니까?{밥은 어떤 밥 헐니까?}

10229 #1 이젠 그 팔십 년대부터는 하여튼 무조건 뽀미바블 헐찌.{이젠 그 팔십 년대부터는 하여튼 무조건 뽀미밥을 헐지.}

10229 @1 예. 그 저네는마씨?{예. 그 전에는요?}

10229 #1 그 저네 그 떡.{그 전에 그 떡.}

10229 @1 아 그거 하고. 그 다큐메는 반. 고긴빠는 꼭 주자나예? 켄깐예. 켄깐 주는 데 요즈믄 이리케 쟁바네 헐 주지만 엔나레는 꼬치에 이리케 꼬장 바메 영 꼬장 주진 아녀 났쑈과?{아 그거 하고. 그 다큐메는 반기. 고기반기는 꼭 주잖아요? 고기반기요. 고기반기 주는데 요즈믄 이리케 쟁반에 해서 주지만 옛날에는 꼬치에 이리케 쑈아서 밥에 이리케 쑈아서 주지는 았았습니까?}

10229 #1 으 저 장산날.{아 저 장삿날.}

10229 @1 예.{예.}

10229 #1 장산날 상뒤꾼더리 이제 상여 메기 저네 그 밤 머그레 오며는 아침밥 머그레 오며는 저 그 고쟁이에다가 석 찔씩 쑈여가지고.{장삿날 상뒤꾼들이 이제 상여 메기 전에 그 밥 먹으러 오면 아침밥 먹으러 오면 저 그 꼬치에다가 석 찔씩 쑈여가지고.}

10229 @1 예.{예.}

10229 #1 아까 바른 뽀푸니에다가 퍼가지고 여러 사لامي 가치 먹께끔 세시던 네시든 이리케 안자서 가치 먹고 그 돈뽈기 예 저 저갈. 그 그거는 고쟁이에 쑈 거 한 개씩 석 찔씩 쑈

걸 나눠줘.{아까 밥은 낭퐁이에다가 퍼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먹게끔 셋이든 넷이든 이렇게 앉아서 같이 먹고 그 돼지고기 아 저 적. 그 그것은 꼬치에 켜 거 한 개씩 석 점씩 켜 것을 나눠줘.}

10229 @1 그 고쟁이 켜 궤기를 머렌 해마씨?{그 꼬치 켜 고기를 뭐라고 하나요?}

10229 @1 다른 데 가니까 뭐 바엔꼬지 이런 말도 허곡 험떠다마는예?{다른 데 가니까 뭐 바엿꼬치 이런 말도 하고 합디다만?}

10229 #2 고쟁이췌기엔 안 허는가?{꼬치고기라고 안 하는가?}

10229 #1 그냥 그냥 고쟁이. 고쟁이라고.{그냥 그냥 꼬치. 꼬치라고.}

10229 @1 고쟁이췌기. 그러케 해서 이제 하는데 국 가튼 거는 특별하게 안 해마씨? 다른 데 가면 묵국도 허고 허던데.{꼬치고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국 같은 거는 특별하게 안 하나요? 다른 데 가면 모자반국도 하고 하던데.}

10229 #1 아 저 이 보통 여기서는 저 엔나레는 장국. 미여게 췌장국또 끄련찌마는 여르메는. 겨우레는 보통 저 이.{아 저 이 보통 여기서는 저 옛날에는 장국. 미역에 췌장국도 끓였지만 여름에는. 겨울에는 보통 저 이.}

10229 #2 육개장이라고.{육개장이라고.}

10229 #1 육개장. 저 돼지 자브머는 그 근유그로만 떼가지고 육개장 만드러가지고 그러케.{육개장. 저 돼지 잡으면 그 근육으로만 떼어가지고 육개장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10229 #2 몸 낱.{모자반 넣어서.}

10229 @1 몸 낱 육개장으로 끄리는 거라예. 고사리 낱 육개장 허는 게 아니고.{모자반 넣어서 육개장 끓이는 거군요. 고사리 넣어서 육개장 하는 것이 아니고.}

10229 #1 고사리도 노코 뭐.{고사리도 넣고 뭐.}

10229 #2 고사리 육개장도 험니다. 주로 몸꾸젠 몸 노코. 육개장에 고사리가 드러가고.{고사리 육개장도 합니다. 주로 모자반국에는 모자반 넣고. 육개장에 고사리가 들어가고.}

10229 #1 고사리가 여기는 히미 드니까. 어려우니까.{고사리가 여기는 힘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10229 #2 육개장에 고사리 드러가고. 그냥 췌우는 건 몸꾸젠 몸만 낱.{육개장에 고사리 들어가고. 그냥 끓이는 것은 모자반국에는 모자반만 넣어서.}

10229 @1 육개장.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 고사리 사당으네 육개장을 끄리나봐예. 그런쿠나.{육개장.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 고사리 사다가 육개장을 끓이나봐요. 그렇구나.}

10229 @1 자 이제까지는 장네라예.{자 이제까지는 장례예요.}

10229 @2 삼년 상을 다 지낸 거지.{삼년 상을 다 지낸 거지.}

10230 @1 삼년 상 다 끝나니까 처으므로 천제사할 때예. 제사하는 거는 어떤 종뉴드리 제사가 이신고예?{삼년 상 다 끝나니까 처음으로 첫제사할 때요. 제사하는 것은 어떤 종류들의 제사가 있는가요?}

10230 @1 기제사 이췌 거고. 그 다음 뭐 추석또 이꼬.{기제사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추석도 있고.}

10230 @2 시제 묘제.{시제 묘제.}

10230 #1 여기는 저 묘제 가튼 거는 안 하고. 제사.{여기는 저 묘제 같은 것은 안 하고. 제사.}

10230 @2 게문 멘 때까지 합니까?{그러면 몇 대까지 합니까?}

10230 #1 예예?{예예?}

10230 @2 증조까지는 하지예? 제사를.{증조까지는 하지요? 제사를.}

10230 @1 제사는 뭘 때까지 지내마씨?{제사는 몇 대까지 지냅니까?}

10230 #1 제사 아 증조까지는 험쭈마씨.{제사 아 증조까지는 하지요.}

10230 @2 삼 대예?{삼대요?}

10230 #1 예. 삼 대까지는 험쭈다. 삼 대까지는 허는데 요즘 와서는 또 아녀는 지비 마나. 저 이 정허는 사름드른 부부 틀린 나레 도라가셔도.{예. 삼 대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삼 대까지는 하는데 요즘 와서는 또 안 하는 집이 많아. 저 이 정하는 사람들은 부부 다른 날에 돌아가셔도.}

10230 @2 합제?{합제?}

10230 #1 하라버지 이레 합제 해버리고 보통 요즈믄 하라버지꺼지. 증조 뉘며는 제사 지내지 아녀는 거 가테.{할아버지 일에 합제 해버리고 보통 요즘은 할아버지까지. 증조 되면 제사 지내지 않는 거 같아.}

10230 @1 묘제를 안 하면 시제 이런 걸또 안 허게따 여기는예?{묘제를 안 하면 시제 이런 것도 안 하겠다 여기는요?}

10230 #1 아 시제 험니다. 보메. 보메는 시제 험니다게.{아 시제 합니다. 봄에. 봄에는 시제 합니다.}

10230 @1 아아.{아아.}

10230 #1 거는 시제는 그 제사 안 지내는 분들 그거 전부다 허여마씨.{거는 시제는 그 제사 안 지내는 분들 그거 전부다 합니다.}

10230 @1 그러며는예 일년 딱 생가글 해서 이제 제사. 우리가 말허는 식계허고 그 다음에 명절부터 뭐 한식 단오 해간꼬 엔나레 제를 지내면 나를 한번 ㄱ라줘 봅써? 어떤 날 어떤 날 제 지낸?{그러면요 일년 딱 생각을 해서 이제 제사. 우리가 말하는 제사하고 그 다음에 명절부터 뭐 한식 단오 해가지고 옛날에 제를 지냈던 날을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어떤 날 어떤 날 제 지냈는지?}

10230 @2 정월초훈날 헐 꺼꼬예?{정월 초하룻날 할 것이고요?}

10230 #1 정월 초하룻날 헐꺼고.{정월 초하룻날 할 것이고.}

10230 @1 예.{예.}

10230 @2 한식 케난쭈과?{한식 했었습니까?}

10230 #1 여기는 한식. 청명 한식 그런 거. 그 저 청명 한식 때는 사네 벌초나 잡푸리나 캐지 뭐 제 지내는 거 못 봤꼬.{여기는 한식. 청명 한식 그런 거. 그 저 청명 한식 때는 묘에 벌초나 잡풀이나 캐지 뭐 제 지내는 것 못 봤고.}

10230 @1 단오 멧지른 헐쭈과?{단오 명절은 했습니까?}

10230 #2 다노도 안 험니다.{단오도 안 합니다.}

10230 #1 다노도 그런 걸또 안 허고 추석.{단오도 그런 것도 안 하고 추석.}

10230 @1 예.{예.}

10230 #2 딱 두 번.{딱 두 번.}

10230 #1 설허고 추석.{설하고 추석.}

10230 @1 하고 이제 시제. 식계.{하고 이제 시제. 제사.}

10230 #1 아 시제는 건 뭐 제사 안 지내는 사름덜 허는 거니까 그 정도.{아 시제는 그것은 뭐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10231 @1 예. 그러며는예 전통저그로 요새 말고예 전통저그로 제사를 지내젠 허면 삼춘

내가 삼촌 아버지 이제 제사 지낼 때 그 과정을 쭉 한번 ㄱ라줘 봅써?{예. 그러면요 전통적으로 요새 말고요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삼촌네가 삼촌 아버지 이제 제사 지낼 때 그 과정을 쭉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10231 @1 식편날 되면 뭐 제물도 준비하는 거부터 시작케간꼬.{제삿날 되면 뭐 제물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0231 #1 제물 뭐?{제물 뭐?}

10231 @1 식께 허젠 허든 어떻 험니까?{제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231 #1 식께 허젠 허민 뭐 물론 쌀 가라서 침떡.{제사 하려고 하면 뭐 물론 쌀 갈아서 시루떡.}

10231 @2 예.{예.}

10231 #1 곤떡 그 뭐 솔편 절편 뭐 에 그 다오메.{흰떡 그 뭐 솔편 절편 뭐 아 그 다오메.}

10231 #2 도래기떡.{절편.}

10231 #1 에 저 뭇꼬. 송편.{아 저 무엇이지. 송편.}

10231 @1 예.{예.}

10231 #1 에 그런 건또 허고. 또 그 옛날에는 묵.{아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옛날에는 묵.}

10231 @1 예예.{예예.}

10231 #1 묵 케가지고 저 올려서 제사 지낼찌마는 송년 때는. 요즈믄 쌀 ㄱ라다가 그런 시그로 허고 돼지고기 적갈. 바다에 그거 허곡.{묵 해가지고 저 올려서 제사 지냈지만 흥년 때는. 요즘은 쌀 갈아다가 그런 식으로 하고. 돼지고기 적. 바다에 그거 하고.}

10231 @1 바다 꺼는 뭇뭇 올립니까? 아까 보난.{바다에 것은 뭇뭇 올립니까? 아까 보니까.}

10231 #1 아 바다에 꺼는 고기 말린 거.{아 바다에 것은 고기 말린 거.}

10231 @1 예.{예.}

10231 #1 고기 말린 거 허고 그 다오믄 갱국. 무레 바다꼬기는 보통 그러케 드러가고.{고기 말린 거 하고 그 다음은 갱국. 물에 바닷고기는 보통 그렇게 들어가고.}

10231 @2 아까 무너도 이설던 거 가튼데.{아까 문어도 있었던 거 같은데.}

10231 @1 적갈.{적.}

10231 #1 에 무너도 올리는 거.{아 문어도 올리는 거.}

10231 #2 건 요즈메야.{그것은 요즘에야.}

10231 @1 엔나레는 안 허고마써?{옛날에는 안 하고요?}

10231 #1 그 저네는 비느리 얹는 고기는 상에 아니 올린다 해가지고 그 저네는 안 올련썬. 요즈메 와서 자기 부모 제사 때에 올리고 시폰 거 올련찌 그 저네는 비닐 얹는 고긴 아니 올려서. 갈치 ㄱ뜬 거 이런 거 안 올련찌.{그 전에는 비늘이 없는 고기는 상에 아니 올린다 해가지고 그 전에는 안 올렸어. 요즘에 와서 자기 부모 제사 때에 올리고 싶은 거 올렸지 그 전에는 비늘 없는 고기는 아니 올렸어. 갈치 같은 거 이런 거 안 올렸지.}

10231 @2 게난 어르신네 어르신네 아버님 제사 모실 때 제수근 뭇뭇 헬쭈과?{그러니까 어르신네 어르신네 아버님 제사 모실 때 제수는 뭇뭇 했습니까?}

10231 #1 제수근 에 우렁 몰린 거나 불락 뱅어돔 이런 거 저 말린 거 해서 올련꼬 돼지고기적 쇠고기적 또 탕쉬 에 고사리.{제수는 아 우렁 말린 거나 불락 뱅어돔 이런 거 저 말린 거 해서 올렸고 돼지고기적 쇠고기적 또 탕쉬 아 고사리.}

10231 #2 방어페옥.{방어페옥.}

10231 #1 또 이제 과일들.{또 이제 과일들.}

10231 @2 예 과이른 멘 종이우파?{예 과일은 몇 종입니까?}

10231 # 과이를 배 사과.{과일을 배 사과.}

10231 #2 꿀.{꿀.}

10231 #1 감 그 다음 꿀.{감 그 다음 꿀.}

10231 #2 다섯 까지.{다섯 가지.}

10231 @2 예 오종.{예 오종.}

10231 #1 그 정도.{그 정도.}

10231 @2 오종예. 떠근 마씨? 아까 침떡?{오종요. 떡은요? 아까 시루떡?}

10231 #1 아까 침떡.{아까 시루떡.}

10231 @2 곤떡.{흰떡.}

10231 #1 솔편 절편 또 이 모밀할 때는 모밀떡도 올릴 꺼고 도레기떡 또 전.{솔편 절편 또 이 메밀할 때는 메밀떡도 올릴 것이고 절편 또 전.}

10231 @2 네.{네.}

10231 #1 예 그 정도 떠근.{예 그 정도 떡은.}

10231 @2 도레기떠근 어떤 겨우파?{절편은 어떤 겁니까?}

10231 #1 우에 저 이 두 겨브로 이러케 해가지고 이러케 뚱그런 거 일찌 아님니까?{위에 저 이 두 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231 @1 맨 우에 올라가는 겨우파? 그걸 도레기떠젠 해마씨?{맨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걸 절편이라고 합니까?}

10231 @2 우끼?{웃기?}

10231 @1 예 우찍.{예 웃기.}

10231 @2 우찍.{웃기.}

10231 @1 으 우찌글 도레기떠그로. 건 멘 깨 올려마씨? 도레기떠근.{으 웃기를 절편으로. 그건 몇 개 올려요? 절편은.}

10231 #2 세 개.{세 개.}

10231 #1 하여튼.{하여튼.}

10231 @1 세 개?{세 개?}

10231 #1 세 개나 다섯 개나 이제 짹 그르게.{세 개나 다섯 개나 이제 홀수로.}

10231 @1 짹그르게 해간꼬.{홀수로 해가지고.}

10231 @1 아까 방어로 해간꼬 무신 거?{아까 방어로 해가지고 무슨 거?}

10231 #1 아 방어페옥. 그거 방어 이러케 쪼끔씩 찢른 거ㄱ라 페오기라고 하는데 방어페옥.{아 방어페옥. 그거 방어 이렇게 조금씩 자른 것보고 페옥이라고 하는데 방어페옥.}

10231 @1 방어페옥. 게른 방어 적 현 거를 방어페오기렌 허는 거라예. 옛날부터 방어로 해난쭈가? 여긴.{방어페옥. 그러면 방어 적 한 것을 방어페옥이라고 하는 거네요. 옛날부터 방어로 했었습니까? 여기는.}

10231 #2 옛날도 방어.{옛날도 방어.}

10231 @1 상어 안 허는 시그로 방어로.{상어 안 하는 식으로 방어로.}

10231 #2 아 예. 상어도 헐쭈다.{아 예. 상어도 했습니다.}

10231 @2 모도리.{돌묵상어.}

10231 #1 엔나렌 상어가 마니 난져. 켄디 요즈른 상어가 정말 귀합니다게. 그 엔날 우리 저 구물칠 헐 때는 상어 비께.{옛날엔 상어가 많이 났지. 그런데 요즘은 상어가 정말 귀합니다. 그 옛날 우리 저 그물질 할 때는 상어 두툽상어.}

10231 #2 도레기.{도레기.}

10231 @2 저립.{재방어.}

10231 @1 여긴 저리비 안 나오고.{여기는 재방어가 안 나오고.}

10231 #1 저리비 아니고 저리비 아니고 여기선 가다리라 하는데 그거 일본마린지 몰라도 그 저리비 우리 저 이 ㄱ만 일짜 육십 년대 초까지 그거 나까쓰니까. 육십 년대 말까지 나까찌.{저립이 아니고 저립이 아니고 여기서는 가다리라 하는데 그거 일본말인지 몰라도 그 재방어가 우리 저 이 가만 있자 육십 년대 초까지 그거 낚았으니까. 육십 년대 말까지 낚았지.}

10231 #1 우리도 가민 그 다선 마리씩 나까찌. 이백 키로 백오십 키로 백이십 키로 삼백 키로 나가는 건또 일짜. 우리 직접 나까찌요. 하루 가서 다선 ㄱ리까지도 나까는데. 풍선할 때부터 이제 발똥선 이제 헐 때까지 배를 헐썬는데.{우리도 가면 그 다섯 마리씩 낚았어. 이백 키로 백오십 키로 백이십 키로 삼백 키로 나가는 것도 있어. 우리 직접 낚았어요. 하루 가서 다섯 마리까지도 낚았는데. 풍선할 때부터 이제 발똥기선 이제 할 때까지 배를 했었는데.}

10231 #1 그때는 그게 얼마나 마신는 줄 아라. 참치 그런 거에 비헐 빠가 아니야.{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는가. 참치 그런 것에 비할 바가 아니야.}

10231 #1 아주 저거 참치 종류에서도 특 참치.{아주 저거 참치 종류에서도 특 참치.}

10231 @1 가다리가예?{재방어가요?}

10231 @2 어떤.{어떤.}

10231 #1 가다리.{재방어.}

10231 @2 사초니거든.{사촌이거든.}

10231 #1 참치 종눈디 거보단 더 커. 아주 크지. 거 켄디 우리가 여기 나강 팔 때는 도니 얼마 안 돼지. 엔나렌.{참치 종류인데 거보다 더 커. 아주 크지.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가서 팔 때는 돈이 얼마 안 되지. 옛날에는.}

10231 @1 웃음. 이제썰 헐썰면.{이제썰 했으면.}

10231 #1 아 지금썰 하면 그거는 향아리에다가 딱딱 자바가지고 소그메 딱케서 ㄱ 해서 향아리 쪼게 무더노면 겨울 내내 한두 점만 무우꾸게 놔도 배춧꾸게 놔도 그 마시 정말. 하하.{아 지금썰 하면 그거는 향아리에다가 딱딱 잡아가지고 소금에 딱해서 ㄱ 해서 향아리 속에 묻어놓으면 겨울 내내 한두 점만 못국에 넣어도 배춧국에 넣어도 그 맛이 정말. 하하.}

10231 @1 게른 그 음식 이르른 뭇렌 ㄱ라마씨. 경현 음식군?{그러면 그 음식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그렇게 한 음식은?}

10231 #2 가다리 저린 거. 가다리.{재방어 절인 거. 재방어.}

10231 @2 가다리국.{재방어국.}

10231 @1 아 가다리 저린 거. 아아 겐또 이 동네마니 이런 독특칸.{아 재방어 절인 거. 아아 그것도 이 동네만의 이런 독특한.}

10231 @2 아까?{아까?}

10231 @1 이제는 시께.{이제는 제사.}

10231 @1 방어폐옥.{방어폐옥.}

10231 @2 방어페옥? 작씨레기란 애긴가?{방어페옥? 부스러기라는 애긴가?}

10231 @1 아니 아니. 방어저글 그냥 다른 도새기 허민 돈뽀기적 험니까?{아니 아니. 방어적을 그냥 다른 돼지 하면 돼지고기적 합니까?}

10231 #2 예.{예.}

10231 @1 돈뽀기적. 쉼고기는 쉼뽀기적.{돼지고기적. 소고기는 소고기적.}

10231 #1 예.{예.}

10231 @1 건디 방어 저근?{그런데 방어 적은?}

10231 #2 방어는 방어적갈로 허지마는 요 기리만씩 허영예 말리왕.{방어는 방어적도 하지만 요 길이만씩 해서 말려서.}

10231 @1 예.{예.}

10231 #2 청 그 마른 고기영 가치. 청그네 건 따로. 건 방어페옥.{썩서 그 마른 고기랑 같이. 썩서 그건 따로. 그것은 방어페옥.}

10231 @1 방어페옥 그거는 말려서 썩내는 거.{방어페옥 그것은 말려서 썩내는 거.}

10231 #1 어 말린 거.{아 말린 거.}

10231 #2 잘도 만썩마썩. 지금도 그거 주로 험니다.{잘도 맛있어요. 지금도 그거 주로 험니다.}

10231 @1 아아 방어를. 방어를 말령 놔두는 구나예?{아아 방어를. 방어를 말려서 놔두는 군요?}

10231 #2 시비될 딸 뒤편. 장년에는예 이만큼씩 켜 방어 만오쳐 뉘씩 파랠쭈다. 잘도 싸게. 게난 그런 거 아프로는 시에난 그런 거 먹꼬 시프머는 알리머는 싸게 사갈 쭈 시쭈다. {십일월 달 되면. 작년에는요 이만큼씩 한 방어 만오천원 씩 팔았습니다. 잘도 싸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앞으로는 제주시니까 그런 거 먹고 싶으면 알리면 싸게 사갈 수 있습니다.}

10231 @1 그러니까.{그러니까.}

10231 #2 아이고 장녀네는 대방어 이만큼씩 켜 거 난예 너무 마신게 머견쭈다.{아이고 작년에는 대방어 이만큼씩한 거 나서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10231 @1 방어페오기렌 현 걸 머거봐야 뉘는데.{방어페옥이라고 한 것을 먹어봐야 되는데.}

10231 #2 그거에 머리빠근 국 끄려 머거도 썩 베벨랑으네 삼 밀만 시들키영으네 은박찌에 딱딱 썩 놔두머는 생전 놔뒤도 어떻 아녀마썩. 잘도 만썩니다.{그거요 머리빠은 국 끓여 먹어도 썩 배파서 삼 일만 시들게해서 은박지에 딱딱 썩서 놔두면 생전 놔두어도 어떻게 않습니다. 잘도 맛있습니다.}

10231 @1 방어페옥께?{방어페옥요?}

10231 @2 방어페옥또 하고.{방어페옥도 하고.}

10231 #2 시비될 시비될 두 달 사이.{십일월 십이월 두 달 사이.}

10231 @1 이제는 그거 말고 이제 식계를 또 해봐야쿠다.{이제는 그것 말고 이제 제사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10231 @2 그러니까 이젠 제무를 다 출린 거 아니우파? 그러면 진서를 헐 꺼 아니라예? 진서를 허게 뒤편 한번 이러케 쟈썩을 출려봅썩.{그러니까 이제는 제물을 다 차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설을 할 거 아닌가요? 진설을 하게 되면 한번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보십시오.}

10231 @1 꾸며 봅썩.{꾸며 보십시오.}

10231 #1 진설하는데 저 차례대로.{진설하는데 저 차례대로.}

10231 @2 예.{예.}

10231 #1 아네는 메. 갱.{안에는 메. 갱.}

10231 @2 예.{예.}

10231 #1 그 다른 에 고사리. 가운데 잔때. 그 바깥으로는 에 적.{그 다음은 아 고사리. 가운데 잔대. 그 밖으로는 아 적.}

10231 #1 또 그 바깥으로는 에 과일. 주로 왼쪽에는 떡 그 정도.{또 그 밖으로는 아 과일. 주로 왼쪽에는 떡 그 정도.}

10231 @2 예.{예.}

10231 @1 그러케 해서 상이 출려지면 지방도 지방을 부치든 사지를 노튼.{그렇게 해서 상이 차려지면 지방도 지방을 붙이든 사진을 놓든.}

10231 #1 어 지방.{아 지방.}

10231 @1 삼촌네 지방 험니까?{삼촌네 지방 합니까?}

10231 #1 예.{예.}

10231 #1@1 예 지방은 이제 삼추니 썩 부치고예?{예. 지방은 이제 삼촌이 써서 붙이고요?}

10231 #1 예.{예.}

10231 @1 그 다른엔 제사를 지내야할 거 아니우파? 제사 지내는 순서를 ㄴ라 줘써?{그 다음에는 제사를 지내야할 것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순서를 말해 주십시오?}

10231 #1 어 제사 지내는 거는 처음에는 그 집사가 우선 저 이 세수 소를 싣꼬.{아 제사 지내는 거는 처음에는 그 집사가 우선 저 이 세수 손을 씻고.}

10231 @2 거 관수.{거 관수.}

10231 #1 관수하고. 아 집사가 먼저 저를 허고 드러간 다오메 그 다오메 이제 향뽀를 피우게 뒤편은 상제드리 에 헌과니 저를 하고.{관수하고. 아 집사가 먼저 절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향불을 피우게 되면 상제들이 아 헌관이 절을 하고.}

10231 @2 헌과니. 예 헌관.{헌관이. 예 헌관.}

10231 #1 에 저를 하고 그 다른은.{아 절을 하고 그 다음은.}

10231 #2 문전허고.{문전제 하고.}

10231 #1 어.{아.}

10231 @2 초허니 드러가서 강신.{초헌이 들어가서 강신.}

10231 #1 강시네 그. 여기는 강시네 아녀고 그 아이고 갑짜기 얘기허젠 허난 처음에 드리는 잔 뭐?{강신에 그. 여기는 강신이라고 앓고 그 아이고 갑짜기 얘기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드리는 잔 뭐?}

10231 #2 잘 모르겠는데.{잘 모르겠는데.}

10231 @2 그게 그게 아아.{그것이 그것이 아아.}

10231 #2 잘 이저부런쨌.{잘 잊어버렸다.}

10231 @1 첨자근 아니고.{첨작은 아니고.}

10231 @2 계난 초허니 일판 술 쯔 따라가지고 향에 이러케 세 번씩.{그러니까 초헌이 일판 술 조금 따라가지고 향에 이렇게 세 번씩.}

10231 #1 큰상주가 이제.{큰상주가 이제.}

10231 @2 예 초허니예.{예 초헌이요.}

10231 #1 큰 제과니 이제 아 초허니 이제 그걸 허는다.{큰 제과니 이제 아 초헌이 이제 그것을 하는데.}

10231 #1 왼쪼그로 세 번 오른쪼그로 세 번 돌려가지고.{왼쪽으로 세 번 오른쪽으로 세 번 돌려가지고.}

10231 @2 거 모사끄를.{거 모삿그릇.}

10231 #1 에 모사끄르세 이제 집싸를 주며는 집싸가 그 모사끄르세 세 버네 이제 따라 비우며는 거시.{아 모삿그릇에 이제 집사를 주면 집사가 그 무삿그릇에 세 번에 이제 따라 부우면.}

10231 @2 강시니 댜 겹쭈.{강신이 댜 것이지요.}

10231 #1 강시닌 댜고. 그 다투는 다시 이젠 안네 그거슨 모삿쪼썩에 낄찌마는 안넌 짜네다가 이제 다시 수를 비워가지고 집싸가 댜 초헌관안테 주며는 그 술잔 바다가지고 올린 다투메 에 여기선 저뵤.{강신이 댜고. 그 다음은 다시 이제는 안네 그것은 모삿그릇에 놓았지만 안네 잔에다가 이제 다시 술을 부어가지고 집사가 댜 초헌관한테 주면 그 술잔 받아가지고 올린 다투메 아 여기서는 젓가락.}

10231 #1 저부들 아 탕쉬 쪼기나 이제 고기 저 이 적 낄는 쪼게 이러케 올려노으며는 거시 에 초헌. 그 초허니 절허고 나머는 그 초허니 끈나고.{젓가락을 아 탕쉬 쪽이나 이제 고기 저 이 적 있는 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것이 아 초헌. 그 초헌이 절하고 나면 그 초헌이 끝나고.}

10231 #1 그 저 두 번째는 또 안네 잔 내려가지고 아 수를 바든 다투메 이제 집싸가 또 두번째.{그 저 두 번째는 또 안네 잔 내려가지고 아 술을 받은 다투메 이제 집사가 또 두번째.}

10231 @2 잔도 드리고.{잔도 드리고.}

10231 #1 아 잔 드러가지고 이젠 허게 댜며는 에 잔 올리고 수저를 에 밥끄르세 두경을 열고 어 수저로 갱을 적신 다투메 바베다 꼬바. 이제 배례허고 나머는 두번째 끈나고.{아 잔 드러가지고 이제는 하게 되면 아 잔 올리고 수저를 아 밥그릇에 뚜껑을 열고 아 수저로 갱을 적신 다투메 밥에다 꽃아. 이제 배례하고 나면 두번째 끝나고.}

10231 #1 세 번째는 그냥 술만 올려가지고 절하면 끈난 다투메 그 다투메 이제 다시 큰 초헌관안테 이제 수를 해가지고 침작짜늘 이제 허게 댜면 저 안네 짜네다가 세 번을 더 비우게 댜면 침작. 그때는 이제 삼헌관드리 다 절허고.{세 번째는 그냥 술만 올려가지고 절하면 끈난 다투메 그 다투메 이제 다시 큰 초헌관한테 이제 술을 해가지고 침작잔을 이제 하게 되면 저 안네 잔에다가 세 번을 더 부으게 되면 침작. 그때는 이제 삼헌관들이 다 절하고.}

10231 #1 그 다투메 복치드리 또 다 절허고. 그거 끈난 다투메는 에 부복케가가지고 어 승냥 올려난 다투메 에 부복케가가지고 한 이삼 분 정도 그 뭐 소위늘 비는 건지 몰라도 그런 부복케가가지고 헌 다투메 철변. 수저 내려노코 전부다 해서 철변.{그 다투메 복친들이 또 다 절하고. 그거 끈난 다투메는 아 부복해가지고 아 승냥 올려난 다투메 아 부복해가지고 한 이삼 분 정도 그 뭐 소위를 비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런 부복해가지고 한 다투메 철변. 수저 내려놓고 전부다 해서 철변.}

10231 #1 전부 다 그릇 타나씩 움지겨가지고 허게 댜면 그 다투메 이제 또 헌관드리 절허고 난 다투메 또 복친드리 절허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가 끈난 거.{전부 다 그릇 하나씩 움지여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투메 이제 또 헌관들이 절하고 난 다투메 또 복친들이 절하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가 끝난 거.}

10231 @1 그 문전?{그 문전?}

10231 #1 에 그러케 헌 다으메 여기서는 문전쌍에 헐 쩌게는 걸명을 헌 다으메 다시 저를 허는데.{아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는 문전상에 할 적에는 고수레를 한 다음에 다시 절을 하는데.}

10231 #1 이 제사 때는 제사 완저니 끈난 다으메 걸명을 쪼금씩 뜨더와가지고 숭늉에다 너어가지고 그 숭늉에다 안네 짤 술도 비우고 모사쩍시는 따시 따로 지붕에 올리고 그 툃다는 그 걸명 헌 거슬 저 문전 바께다가 정무네다가 좌츠게 세 번 우츠게 세 번 이러케 뿌려.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이 제사 때는 제사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고수레를 쪼금씩 뜯어넣어가지고 숭늉에다 넣어가지고 그 숭늉에다 안에 잔 술도 부으고 모삿그릇은 다시 따로 지붕에 올리고 그 뜯어 놓은 그 고수레 한 것을 저 문전 밖에다가 정문에다가 좌측에 세 번 우측에 세 번 이렇게 뿌려. 그러면 제사가 끝나는 거.}

10231 @2 게난 문전제는 제사보다 먼저 헐쭈광?{그러니까 문전제는 제사보다 먼저 했습니까?}

10231 #1 먼저 헐.{먼저 했어.}

10231 @2 혹씨 아네도 헐쭈과? 고평을 위한 신?{혹시 안에도 했습니까? 고평을 위한 신?}

10231 #1 엔날 엔나레는 헌 걸로 아는데 우리가 큰 후에는 그런 건 못 받.{옛날 옛날에는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큰 후에는 그런 것은 못 봤어.}

10231 @2 게문 아버님 제사할 때 그거 안 노치예. 메 두 그릇 세 그릇. 문전까지.{그러면 아버님 제사할 때 그거 안 놓지요. 메 두 그릇 세 그릇. 문전까지.}

10231 #1 아 그런 거 안 놔.{아 그런 것 안 놓아.}

10232 @1 제사 음식근 누가 준비해마씨?{제사 음식은 누가 준비하나요?}

10232 #1 아 뭐 집싸르미.{아 뭐 집사람이.}

10232 @1 음. 켜기허는 제숙커는 거는 삼추니 허고.{음. 고기하는 제수하는 것은 삼촌이 하고.}

10232 #1 제숙도 다 집싸라미 허고.{제수도 다 집사람이 하고.}

10232 #2 아녀뵈쭈다.{안 해봤습니다.}

10232 @1 아 안 해뵈마씨? 우리 어릴 때 보면 남자가 이거 적갈해연게마는.{아 안 해봤습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남자가 이거 적하더니만.}

10232 #1 해야 돼는디. 웨 처으멘 나도 헐썰썰. 웨. 허다 마으메 안 드런는지 다음부터는 자기가 허데.{해야 되는데. 왜 처음에는 나도 했었지. 왜. 하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데.}

10232 @1 웃음.

10232 @2 게난 메도 우리 여자 삼추니 거리고?{그러니까 메도 우리 여자 삼촌이 뜨고?}

10232 #1 아 다 거려.{아 다 떠.}

10232 @1 음 다예. 게문 그런데 이제 제사 음식 준비허는데 금기 제사 음식 준비 못될 때가 일짜나예. 뭐 상이 난꺼나 아니면 여자들 가튼 경우 모메 꺼 온다거나 그때도 그냥 그런 거 안 걸려 볼띠가? 식계할 때.{음 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금기 제사 음식 준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장사가 났거나 아니면 여자들 같은 경우 몸에 거 온다거나 그때도 그냥 그런 거 안 걸려 봤습니까? 제사할 때.}

10232 #2 안 걸려 봤쥬다. 안 걸려보고 어디 일 나며는 제사할 싸르른 안 가마썸.{안 걸려 봤습니다. 안 걸려보고 어디 일 나면 제사할 사람은 안 갑니다.}

10232 #1 여기서도 거 장사 난 지베 이 제사 일꺼나 거론 경사 이썸 때는 안 가쥬.{여기서도 거 장사 난 집에 이 제사 있거나 결혼 경사 있을 때는 안 가지.}

10232 #2 안 가쥬.{안 가지.}

10232 @2 보통 사뭇 정성은 해야웨니까예.{보통 삼일 정성은 해야 되니까요.}

10232 #1 예. 안 갑니다.{예. 안 갑니다.}

10233 @1 엔날 제사허고 요즘 제사허고 제사 지내는 방시기 달라져신가마썸?{옛날 제사하고 요즘 제사하고 제사 지내는 방식이 달라졌는가요?}

10233 #1 제사 지내는 건 다 마찬가지로.{제사 지내는 것은 다 마찬가지.}

10233 #2 요즈메는.{요즘에는.}

10233 @1 근데 달라진 거 이시든 뭔가 달라져신고예. 엔날하고 지금하고.{그런데 달라진 것 있으면 뭔가 달라졌는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10233 #1 모슬포에 강 확 간단허게 허영 옵니다.{모슬포에 가서 확 간단하게 해서 옵니다.}

10233 @1 음.{음.}

10233 #1 이 뭐 그 저네는 떡 가튼 거 지베서 저 이 절구에다가 저 쌀도 빠아가지고 이제 뭐 헨찌마는 지그든 뭐 모슬포 가서 전부다 떡치베 마껴가지고 당일날 딱 드러오면 뭐 그대로 다 웨니까 아주 간편해졌찌.{이 뭐 그 전에는 떡 같은 거 집에서 저 이 절구에다가 저 쌀도 빵아가지고 이제 뭐 했지만 지금은 뭐 모슬포 가서 전부다 떡집에 맡겨가지고 당일날 딱 들어오면 뭐 그대로 다 되니까 아주 간편해졌지.}

10233 #2 엔날치룩 사는 디가 어디 일쭈과?{옛날처럼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232 @1 삼춘 도망가지 마랑 여기 왕예. 떡 이제 어쨌든 제사 음식근 삼추니 헌텐 허니까 떠기랑 탕쉬도 무신 거 무신 거 허는 거를 ㄴ라 줍썸? 왕으네. 여기 노금해야 웨니까. 꼬자 줍썸.{삼춘 도망가지 말고 여기 와셔요. 떡 이제 어쨌든 제사 음식은 삼춘이 한다고 하니까 떡이랑 탕쉬도 무슨 거 무슨 거 하는 거를 말해 주십시오? 와서. 여기 녹음해야 되니까. 꽃아 주세요.}

10232 #1 크게 ㄴ르라.{크게 말해라.}

10232 @1 게난 이제 시아버지 식께 준비를 하는 거라예?{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232 #2 예.{예.}

10232 @1 게난 시아버지 식께 준비를 한번 해봣쥬. 삼추니. 오늘 이제 제사라예. 게든 메칠 전부터 준비허는 과정을 한번 ㄴ라 줍썸?{그러니까 시아버지 제사 준비를 한번 해보지요. 삼춘이. 오늘 이제 제사예요.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말해 주십시오?}

10232 #2 음 준비는 한 오일 저네부터 마음 고생 막.{음 준비는 한 오일 전에서부터 마음 고생 막.}

10232 #1 엔날 헤난 시글 ㄴ라?{옛날 했던 식을 말해?}

10232 #2 엔나른예 지베서 떡커영 치곡 헨쥬마는 요즈메는 경 안 합니다.{옛날에는요 집에서 떡해서 찌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10232 @1 게난 엔나레 상 왕 허지 말고 지베서 삼추니 준비해간꼬 헨 때.{그러니까 옛날

에 사 와서 하지 말고 집에서 삼촌이 준비해가지고 할 때.}

10232 @2 콩나물 어떡 하고?{콩나물은 어떻게 하고?}

10232 #2 콩나물 하고. 콩나물도 콩나물 사당예. 콩나물하고 고사리하고.{콩나물 하고. 콩나물도 콩나물은 사다가요. 콩나물하고 고사리하고.}

10232 #1 아 엔나렌 놓도 헐짜나게?{아 옛날에는 넣어서도 했잖아?}

10232 @2 시금치도 하고. 시금치 허곡.{시금치도 하고. 시금치 하고.}

10232 #1 엔날 말 ㄱ르렌 허니까?{옛날 말 하라고 하니까?}

10232 #2 게난 엔나레 세 가지베끼 아널쑤다. 탕쉬는.{그러니까 옛날에는 세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탕쉬는.}

10232 @1 탕쉬는 세 가지하고?{탕쉬는 세 가지하고?}

10232 #2 예예.{예예.}

10232 @1 그 다음에 제수근 뭐뭐 헐쑤과?{그 다음에 제수는 뭐뭐 했습니다?}

10232 #2 예?{예?}

10232 @1 제숙?{제수?}

10232 #2 지숙?{제수?}

10232 @1 음 지숙.{음 제수.}

10232 #2 지수근 고기 바다에 간 자바오난.{제수는 고기 바다에 가서 잡아오니까.}

10232 @1 예.{예.}

10232 #2 꼭 제사 압땡예 상어. 상어를 경 자바옘따게. 게난 상어고기. 그때는 방어 아 너고. 저 구루찌 퐁량으네 그거하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그거 허영 경 허영.{꼭 제사 앞땡서 상어. 상어를 그렇게 잡아오대요. 그러니까 상어고기. 그때는 방어 안 하고. 저 뽕어 돔 말려서 그거하고 소고기하고 돼지고기하고 그거 해서 그렇게 해서.}

10232 @1 그러케해서 적카고. 그 저기 목적 이런 거는 안 헐니까? 여기는.{그렇게 해서 적하고. 그 저기 목적 이런 것은 안 헐니까? 여기는.}

10232 #2 목저근 안 해뽕쑤다. 나 씨집 간 후에.{목적은 안 해뽕했습니다. 나 시집 간 후에.}

10232 @1 돔비는?{두부는?}

10232 #2 돔비도 안 해보고.{두부도 안 해보고.}

10232 @1 아아 그런 저근 안 올려예? 여기는.{아아 그런 적은 안 올린다고요? 여기는.}

10232 #2 지지미만 쪼끔 허영.{지짐이만 조금 해서.}

10232 @1 아 지지미저근 올리고. 지지미는 어떤 시그로 행 올려마쑤? 여기서는.{아 지짐 이는 올리고. 지짐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올려요? 여기서는.}

10232 #2 오징어 가튼 거예. 그런 거 허영으네 지저그네 하고. 어떤 때는 딱로 호박 동그 라미 그런 거나 헐쑤. 요즈메가치 막.{오징어 같은 거요. 그런 거 해서 지저서 하고. 어떤 때 는 또 호박 동그라미 그런 것이나 했지. 요즘에같이 막.}

10232 @1 목 씨그로 이러케는 안 올리는구나예.{목 식으로 이렇게는 안 올리는군요.}

10232 #2 안 해뽕쑤다. 우리. 간단하게 행. 나는 세번째난 딱로 식게 해도 큰지비 쪼끔 허 다네 나도 쪼끔 허단 또 쉐텅님 가져가불고 허난 식계를 아너뽕쑤다.{안 해뽕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해서. 나는 세번째이니까 또 제사 해도 큰집에 조금 하다가 나도 조금 하다가 또 둘째형님 가져가버리고 하니까 제사를 안 해뽕했습니다.}

10232 @1 아 기구나예.{아 그렇군요.}

10232 #2 예 안 해봐네 지그메는 망내 도려니미 시나네 그 헐쑤. 춤 씨지비엔 허영 씨집

사리 경 물 견디게 살지도 아녀고 허난 식께 멩질도 아녀보고.{예 안 해봐서 지금에는 막내도런님이 있으니까 그 하고 있지. 참 시집이라고 해서 시집살이 그렇게 못견디게 살지도 않고 하니까 제사 명절도 안 해보고.}

10232 @1 게난 아까 게문 떡칼 때 떠글 맨 미테에 맨 미테 노는 떠근 무슨 떡마씨? 떡 켈 때.{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떡할 때 떡을 맨 밑에요 맨 밑에 놓는 떡은 무슨 떡이에요? 떡 켈 때.}

10232 #2 굽짱.{굽징.}

10232 @1 굽징. 굽짱에는 뭐뭐 올림? 맨 깨 올립니까?{굽징. 굽짱에는 뭐뭐 올림? 몇 개 올립니까?}

10232 #2 굽짱 썬. 영 하나 시루떡 커머는 세 개레 딱 나뉘 세 개로.{굽징 셋. 이렇게 하나 시루떡 하면 세 개로 딱 나뉘서 세 개로.}

10232 @1 세 비슬 올려예?{세 커를 올린다구요?}

10232 #2 예.{예.}

10232 @1 아 굽짱에 맨 굽짱?{아 굽징에 맨 굽징?}

10232 #2 맨 굽짱에 꺼 세 개로 떠내영. 떠내영으네.{맨 굽징에 거 세 개로 떠내서. 떠 내어서.}

10232 @1 아아 시리떡커민 맨 미테 걸로 논는구나. 올리는 거는예?{아아 시루떡하면 맨 밑에 것으로 놓는구나. 올리는 것은요?}

10232 #2 아니우다.{아닙니다.}

10232 @1 아 그건 아니고.{아 그것은 아니고.}

10232 #2 아무 거라도 영 보기 존 걸로 올려.{아무 것이라도 이렇게 보기 좋은 것으로 올려.}

10232 @1 예. 보기 조은 걸로 이제 세 빔 올려.{예. 보기 좋은 것으로 이제 세 커 올려.}

10232 #2 모르쿠다. 올리는 건.{모르겠습니다. 올리는 것은.}

10232 #1 세 빔.{세 커.}

10232 @2 세 빔.{세 커.}

10232 @1 세 빔.{세 커.}

10232 @2 그 우에는?{그 위에는요?}

10232 @1 게문예 세 빔 제편 그 제페니렌 허지예. 여기도예. 그 침떠글 세 빔 올리고 그 우에는 무슨 떡 올려마씨?{그러면요 세 커 제편. 그 제편이라고 하지요. 여기도요. 그 시루떡을 세 커 올리고 그 위에는 무슨 떡 올립니까?}

10232 #2 곤떡.{흰떡.}

10232 @1 곤떡. 곤떠근 어떤 곤떡부터.{흰떡. 흰떡은 어떤 흰떡부터.}

10232 #2 아니 그 중계 압께 올링. 쫄딱턴 거 보고 네모난 건 허고 중계 압께렌 허지 아넘니까예?{아니 그 중계 약과 올려서. 길쭉한 거 보고 네모난 것 하고 중계 약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10232 @1 예예.{예예.}

10232 #2 그거 올링.{그거 올려서.}

10232 @1 게문 중계는 먼 깨 올려. 중계부터 올립니까 압께부터 올립니까?{그러면 중계는 몇 개 올려. 중계부터 올립니까 약과부터 올립니까?}

10232 #2 모르쿠다. 그건.{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0232 #1 네모진 거부떠 올려.{네모진 것부터 올려.}

10232 @1 정사각형예?{정사각형요?}

10232 #2 예예.{예예.}

10232 @1 게문 압깨부떠 올링. 건 멘 깨 정도 올려마씨?{그러면 약과부터 올려서. 그건 몇 개 정도 올리나요?}

10232 #1 보통 저 이 다섯 깨.{보통 저 이 다섯 개.}

10232 @2 다섯 깨 그 다음에 중게는?{다섯 개. 그 다음에 중게는?}

10232 #1 건또 다섯 깨.{그것도 다섯 개.}

10232 #2 똑 ㄴ뜨게.{똑 같게.}

10232 @1 그 다음에 그 중게 압폐를 여기서 곤떠기렌 힘니까? 흑씨.{그 다음에 그 중게 약과를 여기서 흰떡이라고 하나요? 흑시.}

10232 #2 아니 곤떠근.{아니 흰떡은.}

10232 @1 중게 압폐예?{중게 약과요?}

10232 #1 어.{아.}

10232 @1 그거 올린 우에는 뭐 올려?{그거 올린 위에는 뭐 올려?}

10232 #2 반달떡.{반달떡.}

10232 @1 반달떡?{반달떡?}

10232 #2 예 건꼬라 곤떡.{예 그것보고 흰떡.}

10232 @1 아 반달떡ㄴ라 곤떡. 반달떡 멘 깨?{아 반달떡보고 흰떡. 반달떡 몇 개?}

10232 #1 건또 다섯 깨.{그것도 다섯 개.}

10232 @1 다섯 깨. 반달떡 우에는 뭐 올림니까?{다섯 개. 반달떡 위에는 뭐 올림니까?}

10232 #2 거 도레기떡.{거 절편.}

10232 #1 도레기떡.{절편}

10232 @1 도레기떡.{절편.}

10232 #2 건 세 개.{그건 세 개.}

10232 @1 건 세 개. 게문 끝.{그것은 세 개. 그러면 끝.}

10232 #2 예.{예.}

10232 @1 그 우에 뭐 안 놔마씨?{그 위에 뭐 안 놓나요?}

10232 #2 안 놔.{안 놓아.}

10232 @1 아까 도레기떡글.{아까 절편을.}

10232 #1 저 이 전ㄴ튼 건또 노는 수가 일쭙게.{저 이 전같은 것도 놓는 수가 있지.}

10232 @1 아 떡 우에?{아 떡 위에?}

10232 #1 예.{예.}

10232 @1 아 떡 꾸에 전도.{아 떡 위에 전도.}

10232 #1 전 전 조금씩.{전 전 조금씩.}

10232 #2 초기전 가튼 거.{버섯전 같은 거.}

10232 @1 예 초기전 가튼 거.{예 버섯전 같은 거.}

10232 #2 초기전 가튼 그런 거 이 보통 그건또 영 세 개나 다섯 깨 정도.{버섯전 같은 그런 거 이 보통 그것도 이렇게 세 개나 다섯 개 정도.}

10232 @1 아 떡 꾸에 올리는 도레기떡 우에 올리는구나예.{아 떡 위에 올리는 절편 위에

올리는군요.}

10232 @1 게문 삼촌 그 도레기떠기 어떤 떠기우짜? 한번 정화키 한번?{그러면 삼촌 그 절편이 어떤 떡입니까? 한번 정확하게 한번?}

10232 #2 우리는 도레기떠겐 험니다.{우리는 도레기떡이라고 합니다.}

10232 @1 게니까 그걸 어떤 시그로 만드느 떡?{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만드느 떡?}

10232 #2 똥글똥글허게 모실포에 강 몬 만드러 올 때는예.{동글동글하게 모슬포에 가서 못 만들어 올 때는요?}

10232 @1 예 지배서 만들 때?{예 집에서 만들 때?}

10232 #2 여기서 똥글똥글허게 허영 두 개 마주청.{여기서 동글동글하게 해서 두 개 마주쳐서.}

10232 @1 예.{예.}

10232 #2 누뜨렁.{눌러서.}

10232 @1 뭘로 눌러마썬?{무엇으로 누르나요?}

10232 #2 팽 꾸브로.{병 굵으로.}

10232 @1 팽 꾸브로.{병 굵으로.}

10232 #2 예.{예.}

10232 @1 팽 꾸브로 누르면 절벼늘 도레기떠기라고 하네. 다른 그 다음 그 우에는 업꼬예. 게연 솔변 우에 도레기떡 세 개를 올리는 거라예?{병 굵으로 누르면 절편을 도레기떡이라고 하네. 다른 그 다음 그 위에는 없고요. 그래서 솔편 위에 절편 세 개를 올리는 거라고요?}

10232 #2 팽굽만큼 요만큼 허게만.{병굽만큼 요만큼 하게만.}

10232 @1 으 요만큼 허게 허영으네 가운데 영 두 개 부청예.{으 요만큼 하게 해서 가운데 이렇게 두 개 붙여서.}

10232 @2 게난 그 떡 머글 때는 거 떠지 말렌 허지예?{그러니까 그 떡 먹을 때는 떼지 말라고 하지요?}

10232 #2 예. 떠지 안 허여.{예. 떼지 안 해요.}

10232 @2 떠지 말렌. 게난 절벼니야.{떼지 말라고. 그러니까 절편이야.}

10232 @1 게난 그 도레기떠근.{그러니까 그 절편은.}

10232 #1 그게 절벼니구나.{그것이 절편이구나.}

10232 @1 예 도레기떠글 떼영 머그민 뭇렌 굵니까?{예 절편을 떼어서 먹으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232 #2 모르쿠다. 그건.{모르겠습니다. 그것은.}

10232 @1 아 그건 모르고.{아 그것은 모르고.}

10232 @2 겐또 떼영 먹찌 말렌 허지예?{그것도 떼서 먹지 말라고 하지요?}

10232 #2 예. 떼영 먹찌 말고 여기는 우리 가파도에서는 다른 딴 몰라도 문전 올려난 떡도양.{예. 떼어서 먹지 말고 여기는 우리 가파도에서는 다른 데는 몰라도 문전 올렸던 떡도요.}

10232 @1 예. 놈 주지 말렌.{예. 남 주지 말라고.}

10232 #2 예. 주이니 머그렌 그런 말 험니다게. 게도 난 그런 정성도 안 허고.{예. 주인이 먹으라고 그런 말 합니다. 그래도 난 그런 정성도 안 하고.}

10232 @1 아 문전 올려난 떠근 놈.{아 문전 올렸던 떡은 남.}

10232 #2 지배 주이니 머그라고.{집에 주인이 먹으라고.}

10232 @1 그 다크. 주이니 머그라고예. 그 그 다크 아까 여기 헐뎀 폐옥. 방어폐옥 그거 만드는 거를 한번 ㄱ라줘 봄써?{그 다음에. 주인이 먹으라고요. 그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했던 폐옥. 방어폐옥 그거 만드는 거를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10232 #2 방어폐옥근 방어 이러케 생기지 아님니까게?{방어폐옥은 방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10232 @1 예.{예.}

10232 #2 게른 배 딱 벌러.{그러면 배 딱 벌러.}

10232 @1 예 배 불와낭.{예 배 따서.}

10232 #2 꿩 다 쳐내영으네 살로만. 요만큼 지러기 허영으네 납찌룩커게 멘드랑 걸 말령. 한 사밀 정도 말령 찌른 거시 폐옥.{빼 다 쳐내어서 살로만. 요만큼 길이로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말려서. 한 삼일 정도 말려서 찌면 그것이 폐옥.}

10232 @1 게른 그 찌는 거는 어떻 뭐 낱 찌는 거마씨?{그러면 그 찌는 것은 어떻게 뭐 넣어서 찌는 거예요?}

10232 #2 찜통도. 바드랭이 낱.{찜통도. 경그레 놓아서.}

10232 @1 바드랭이 낱으네 어 바드랭이 낱 허면 그거는 양녀를 허영으네 찌마씨 아니면?{경그레 놓아서 아 경그레 놓아서 하면 그것은 양념을 해서 찌나요 아니면?}

10232 #2 그거 다 조금 뎀 거난.{그거 다 조금 된 것이니까.}

10232 @1 예.{예.}

10232 #2 그대로 찌.{그대로 찌.}

10232 @1 아아 조금 해간꼬 말린 거를 찌낸 거를 폐옥예. 게른 그 폐옥근 멘 개 올려마씨? 식게 때예.{아아 조금 해가지고 말린 것을 찌낸 것을 폐옥요. 그러면 그 폐옥은 몇 개 올려요? 제사 때예.}

10232 #1 하나. 그냥 다. 한 점.{하나 그냥 다. 한 점.}

10232 #2 거 큰 거난 한 점씩씩.{거 큰 것이니까 한 점씩.}

10232 @1 아 이러케 베허면 이만큼 현 거를 그대로 올리는 거구나예?{아 이렇게 배 하면 이만큼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거군요?}

10232 #2 꼭 요만큼씩 커영. 먹기 조케 허영 납작납작커게 요만큼 납작크로허게 허영.{꼭 요만큼씩 해서. 먹기 좋게 해서 납작납작하게 요만큼 납작하게 해서.}

10232 @1 아아.{아아.}

10232 #2 방어가 큰 거난.{방어가 큰 것이니까.}

10232 @1 예. 게른 그 적또 쉼고기 적커는 거처럼 이러케 씨러마씨? 건도. 썰진 아너고. {예. 그러면 그 적도 쇠고기 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씨나요? 그것도. 썰지는 않고.}

10232 #2 예. 썰든. 고지 혈 때는 씨령 허고.{예. 썰면. 꼬챙이 할 때는 썰어서 하고.}

10232 @1 예.{예.}

10232 #2 폐옥근 딱로 그대로 또.{폐옥은 또 그대로 또.}

10232 @1 그대로 올린 다크 머글 때만 이러케.{그대로 올린 다음에 먹을 때만 이렇게.}

10232 #2 예. 찌썰 먹꼬.{예 찢어서 먹고.}

10232 @1 찌져 머글 수 일께. 아아. 경허영 바드랭이 낱 찌는 거라 찜통에서예. 그게 다른 데 하고 다른 제사음식 담쭈다. 여기 이 동네.{찢어서 먹을 수 있게. 아아. 그렇게 경그

래 놓아서 찌는 거라 찜통에서요. 그것이 다른 데 하고 다른 제사음식 같습니다. 여기 이 동네.}

10232 @2 계란 그거시 결구근 나가 보건대.{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보건대.}

10232 #2 우리 시에서 아이고 모기 봐점짜. 시에서 아이덜 그 사네 벌초 오명 그 고기를 춤 사네 멧질 못 또나네 그 권. 춤 이수글 해와신디 처으메는 카메케 켕 와십떠다게.{우리 제주시에서 아이고 모기 보인다. 제주시에서 아이들 그 묘에 벌초 오면서 그 고기를 참 사서 멧질 못 오니까 그 구워서. 참 제수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까맣게 구워서 왔습디다.}

10232 #2 권 오난. "야 다시랑 굽찌 마랑 찌라. 쟁으네 해야 보기도 조코 먹기도 조추." 다으텐 오난 쩌 오난 "아이고 언니야 찌 거시 더 훨썬 마신킨 구난 원 기분도 안 조코" 허 연 그때부턴 쟁 옵니다.{구워서 오니까. "야 다시는 굽지 말고 찌라. 찌서 해야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지." 다음에는 오니까 찌서 오니까 "아이고 언니야 찌 것이 더 훨썬 맛있고 구으니까 원 기분도 안 좋고" 해서 그때부터는 찌 옵니다.}

10232 @1 으음.{으음.}

10232 #2 예 쟁.{예 찌서.}

10232 @2 아 무슨 고기를마씨?{아 무슨 고기를요?}

10232 #2 그 그 볼락 그 이수글 쟁 와.{그 그 볼락 그 제수를 찌서 와.}

10232 @1 아아.{아아.}

10232 #2 예. 굽찌 아녕.{예. 굽지 않고.}

10232 @1 여기는 제숙또 쟁으네 몬딱 올려마씨?{여기는 제수도 찌서 몽땅 올려요?}

10232 #2 예 청. 굽찌 아넴니다. 여기는.{예 찌서. 굽지 않습니다. 여기는.}

10232 @1 아 기우파?{아 그렇습니까?}

10232 #2 예. 바드랭이 낱 청.{예. 경그레 놓아서 찌.}

10232 @1 아아 몬딱예. 그 지숙.{아아 몽땅요. 그 제수.}

10232 #2 예. 지숙 ㄴ튼 건 다 쳐마씨.{예. 제수 같은 것은 다 찌요}

10232 @1 아아. 게몬 그 저 무슨 거 켜기드른?{아아. 그러면 그 저 무슨 거 고기들은?}

10232 #2 켜기도 다 쳐. 아 그 돼지고기 가튼 거는 튀기주마는 생선 가튼 거는 다 침니다.{고기도 다 찌. 아 그 돼지고기 같은 것은 튀기지만 생선 같은 것은 다 찹니다.}

10232 @1 바를켜기 바당에 허는 건예?{바닷고기 바다에 하는 것은요?}

10232 #1 바단켜기는 전부다 쳐.{바닷고기는 전부다 찌.}

10232 #2 은박찌에 푼톨 몰랑예 이 하나씩 켜영 다 쳐마씨.{은박지에 돌돌 말아서요 이 하나씩 해서 다 찌요.}

10232 @1 엔날부터 경 청 올릴쑈과? 여기는.{옛날부터 그렇게 찌서 올렸습니까? 여기는.}

10232 #2 예. 나 씨집가난 치기 시작허연 경. 귀보지 아넬쑈다.{예. 나 씨집가니까 찌기 시작해서 그렇게. 구워 보지 않았습디다.}

10232 @1 아아 기구나.{아아 그렇구나.}

10232 #1 청. 친 거시 훨썬 만썬니다. 귀시니랑 먹꼬 안 먹꼬.{찌서. 찌 것이 훨썬 맛있습니다. 귀신이랑 먹고 안 먹고.}

10232 @1 아 왜냐허면 우리는 그걸 쟁으네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생선 가튼 거 올리게 댜면 적 꾸에 이러케 올리자나예? 게몬 어평 올려마씨 영 댜썬?{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구워서 항상 지금도 이제. 그 생선 같은 거 올리게 되면 적 위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올립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10232 #2 어평.{엎어서.}

10232 @1 여긴 어평예.아아.{여기는 엎어서요? 아아.}

10232 #2 동더레 머리 향허영.{동으로 멀리 향해서.}

10232 @1 동더레 해간꼬예. 아아. 아 다른 폐옥만 찌는 게 아니라 다른 건뎔또 찌는구나 예?{동으로 해가지고요. 아아. 아 다른 폐옥만 찌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찌는군요?}

10232 @1 게문 상어로 현 건또 폐오기렌 곱니까?{그러면 상어로 한 것도 폐옥이라고 말합니까?}

10232 #2 예. 상어폐옥.{예. 상어폐옥.}

10232 @1 상어폐옥?{상어폐옥.}

10232 #2 고기마다 고기 이르므로 폐옥. 상어폐오근 상어폐옥 방어폐오근 방어폐옥 경 허영.{고기마다 고기 이름으로 폐옥. 상어폐옥은 상어폐옥 방어폐옥은 방어폐옥 그렇게 해서.}

10232 @1 게문 돼지고기는?{그러면 돼지고기는?}

10232 #2 돼지고기는 그냥 돼지고기 저칼렌 험니다.{돼지고기는 그냥 돼지고기 적이라고 합니다.}

10232 @1 건 저까리엔 허고예?{그것은 적이라고 하고요?}

10232 #2 돼지저칼 소고기적칼.{돼지적 소고기적.}

10232 @1 아아. 게문 마냐게 예를 드려서 저기 뭐는 우럭 가튼 건?{아아.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기 뭐는 우럭 같은 것은?}

10232 #2 우럭근 지속.{우럭은 제수.}

10232 @1 거는 지속.{그것은 제수.}

10232 #2 예. 우럭근 지속.{예. 우럭은 제수.}

10232 @1 우럭 지속.{우럭 제수.}

10232 #2 예.{예.}

10232 @1 그 다오메 아까 구루찌 지속?{그 다음에 아까 뽕에돔 제수?}

10232 #2 예. 구루찌 지속킨 건 구루찌로 현 건 구루찌 지속 우럭그로 현 건 우럭찌숙. 블라그로 현 건 블락찌숙 경 허연.{예. 뽕에돔 제수한 것은 뽕에돔으로 한 것은 뽕에돔 제수 우럭으로 한 것은 우럭제수 블락으로 한 것은 블락제수 그렇게 해서.}

10232 @1 아아.{아아.}

10232 #2 갱 꺼리는 저 도미나. 여기는 고기 꼬다니나네 다 그런 거 허영으네.{갱 꺼리는 저 돔이나. 여기는 고기 고장이니까요 다 그런 것 해서.}

10232 @1 그러면 그 올리는 이름도 다르구나. 그거는 지수기고. 지수근 바닥꼬기만 지수기구나예?{그러면 그 올리는 이름도 다르구나. 그것은 제수고. 제수는 바닷고기만 제수군요?}

10232 #2 잔 잔고기만.{잔 잔고기만.}

10232 @2 잔 아아.{잔 아아.}

10232 #2 방어 ㄱ뜬 건 폐옥.{방어 같은 것은 폐옥.}

10232 @1 건 폐오기고예. 아주 트기한. 요거 말고 특별허게 이제 제사 음식칼 때 허는 거 어서마씨? 무그로는 뭘로 헤마씨?{그것은 폐옥이고요. 아주 특이한. 요거 말고 특별허게 이제 제사 음식할 때 하는 거 없나요? 묵으로는 무엇으로 하나요?}

10232 #2 모밀.{메밀.}

10232 @1 모밀?{메밀?}

10232 #2 예 모밀. 묵 켜 땀 모밀로. 모밀가루.{예 메밀. 묵 할 때는 메밀로. 메밀가루.}

10232 @1 음 모밀떠근 어떤 거 험니까?{음. 메밀떡은 어떤 것 험니까?}

10232 @1 제사할 때?{제사할 때?}

10232 #2 모밀떠근 제사할 때 중계 압께만 험니다. 네모난 거 허고 쫄딱헌 거.{메밀떡은 제사할 때 중계 약과만 험니다. 네모난 거 하고 길쭉한 거.}

10232 @1 으음.{으음.}

10232 #2 중계 압께만.{중계 약과만.}

10232 @1 아아 중계 압께는 항상 모밀떠그로 험니까?{아아 중계 약과는 항상 메밀떡으로 험니까?}

10232 #2 주로 그걸로 허젠 햐쭈마는 여르메는 변지리 시나네 겨우레 큰 정월멩지레는 주로 그 모밀떠그로 험니다.{주로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변질이 있으니까 겨울에 큰 정월명절에는 주로 그 메밀떡으로 험니다.}

10232 @1 예 모밀떡께. 다른 이제 그 도레기떠기나 이런 건뜨른?{예 메밀떡요. 다른 이제 그 절편이나 이런 것들은?}

10232 #2 하얀 쌀떠그로.{하얀 쌀떡으로.}

10232 @1 곤떡으로 하고.{흰떡으로 하고.}

10232 #2 예. 쌀떠그로만.{예 쌀떡으로만.}

10232 @1 기구나. 아라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제사 음식기 이제 달라전네예. 음식또 엔 날하고 마니 달라져찌예? 요즘 제사하고예?{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제사 음식이 이제 달라졌네요. 음식도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요? 요즘 제사하고요?}

10232 #2 예게. 엔나른 참 쌀밥. 큰닐 때나 쌀밥 머건쭈. 쌀밥 머거뵤쭈가게? 참 요즈메는 그자 집점마다 쌀바비 혼진허난 쌀밥.{예. 옛날은 참 쌀밥. 큰일 때나 쌀밥 먹었지. 쌀밥 먹 어봤습니까? 참 요즘에는 그자 집집마다 쌀밥이 혼하니까 쌀밥.}

10232 @1 엔나렌 그 곱밥 먹젠 막 애썸신디예?{옛날에는 그 흰밥 먹으려고 막 애썸는 데요?}

10232 #2 잔치지비나 강 곱밥 먹꼭.{잔치집에나 가서 흰밥 먹고.}

10232 @2 일탄 곧마치게썸니다.{일탄 끝마치겡습니다.}

1.3. 생업 활동

1.3.2. 밭농사

10307 @2 오느른 반농사와 팔려된 거 무려보쿠다.{오늘은 밭농사와 팔려된 거 물어보겡 습니다.}

10307 @1 반농사로 진는 그 곡썸예?{밭농사로 짓는 그 곡식요?}

10307 #1 예.{예.}

10307 @1 그 가과도서 지엿뵤 게 어떤 거 어떤 거 이신고예?{그 가과도에서 지엿던 것이 어떤 거 어떤 거 있었는가요?}

10307 #1 이 콩 보리.{이 콩 보리.}

10307 @2 예.{예.}

10307 #1 에에 이 조 감자 고추 마늘 이런 거는 조끔씩 그자.{에에 이 조 감자 고추 마늘 이런 것은 조끔씩 그저.}

10307 #2 무사 엔나렌 감자가 주로 헐쭈게.{왜 옛날에는 고구마가 주로 했지.}

10307 #1 감자. 이거 이거 감자는 지슬 아냐게. 지슬 보고 감자라고.{감자. 이거 이거 감자는 감자 아닌가. 감자 보고 감자라고.}

10307 @1 이거 보지 따씨 삼촌. 웃음.{이거 보지 마십시오 삼촌. 웃음.}

10307 #1 계난.{그러니까.}

10307 @1 계난.{그러니까}

10307 #1 주로 콩 보리 수화글 마니 허고.{주로 콩 보리 수확을 많이 하고.}

10307 #2 고구마도 헐쭈게.{고구마도 했습니다.}

10307 #1 고구마.{고구마.}

10307 @2 계난 지금 감자마씨 그거시예. 소람헌 거.{그러니까 지금 고구마쥬 그것이요. 기름한 거.}

10307 #2 예 감제.{예 고구마.}

10307 #1 감제. 감제.{고구마. 고구마.}

10307 @1 예 감제.{예 고구마.}

10307 #1 예. 감제. 감제하고 보리 콩 ** 나머지 수수 가쁜 거나 이런 거는 지반 그 뜨레 서 에 조끔씩 케서 먹꼭. 주로 콩 보리 감제.{예. 고구마하고. 고구마하고 보리 콩 ** 나머지 수수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집안 그 뜰에서 아 조끔씩 해서 먹고. 주로 콩 보리 고구마.}

10307 @1 예 아라쭈다.{예 알겠습니다.}

10308 @1 그러며는예 우리가 일년 열두 다를 기주느로 해간꼬 그 봄부터. 봄부터 이제 겨울까지 쭉 보메는 어떤 농사진꼬 여름에는 어떤 농사진꼬 헐 거예 그거를 쭉 한번 ㄱ라쭈 봄씨. 계절별로.{그러면요 우리가 일년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봄부터. 봄부터 이제 겨울까지 쭉 봄에는 어떤 농사진꼬 여름에는 어떤 농사짓고 한 것일요 그것을 쭉 한번 말해주십시오. 계절별로.}

10308 #1 예 보리는 예 상강 지나서 아 입똥까지 그때 이제 파종허고 이듬해 예 오월따레 예 수화글 합니다.{아 보리는 아 상강 지나서 아 입똥까지 그때 이제 파종하고 이듬해 아 오월달에 아 수확을 합니다.}

10308 #1 수화글 허고. 그 수확 끝나며는 예 그 소서. 유월절 저네 망종으로부터 유월절 그 사이에 예 콩을 파종해마씨. 경허영 예 시월따레 예 수확카고 콩은.{수확을 하고. 그 수확 끝나면 아 그 소서. 유월절 전에 망종으로부터 유월절 그 사이에 아 콩을 파종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시월달에 아 수확하고 콩은.}

10308 #1 또 고구마도 또 보리 재배가 끝나며는 예 그때는 이 고구마를 마니 시머 가지고 고구마 종자는 예 고구마를 예 겨울에 겨울에 예 집뜨레다가 이제 해 가지고 그 묘종을 키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리가 수확 끝나며는 밭에다가 시머 가지고 아 그걸또 이제 상강 깎르에 수확켄쭈다.{또 고구마도 또 보리 재배가 끝나면 예 그때는 이 고구마를 많이 심어 가지고 고구마 종자는 예 고구마를 예 겨울에 겨울에 예 집뜰에다가 이제 해 가지고 그 묘종을 키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보리가 수확 끝나면 밭에다가 심어 가지고 아 그것도 이제 상강 즈음에 수확했습니다.}

10308 @1 으음.{으음.}

10310 @2 보리농사 한번 지어봅쭈예. 그러면 어 거르른 어떻 허여신고예?{보리농사 한번

지어보지요. 그러면 아 거름은 어떻게 했는가요?)

10310 @1 엔나레는 그 해초. 뭍 뭍 몰려가지고 바닷가에 올른 거 뭍 몰려가지고 놀 누런
따가 그거 이제 에 보리 갈 때는 상강 지나가며는 그걸 이제 바테다 저다가 고랑에다가 그
때는 소로 쟁기로 바슬 갈 때니까 고랑에다가 이제 그거를 쭉 찌저가지고 매 고지마다 매
고랑마다 까라가지고 보리를 보리를 시르며는 그때는 비료가 업썬끼 때무네 그게 비료가 돼
여마씨.{옛날에는 그 해초. 모자반 모자반 말려가지고 바닷가에 올라온 거 모자반 말려가지
고 가리 가리었다가 그거 이제 아 보리 갈 때는 상강 지나가면 그것을 이제 밭에다 저다가
매 고랑마다 매 고랑마다 깔아가지고 보리를 보리를 심으면 그때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비료가 됩니다.}

10310 #1 그러케 해 가지고 어 바로 그 입똥 저네 에 보리 파종해 가지고 그 다오메 이
그 김매는 거는 여기서는{그렇게 해가지고 아 바로 그 입똥 전에 아 보리 파종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그 김매는 것은 여기서는.}

10310 @2 에 김질 김질매는 거.{예. 김 김매는 거.}

10310 #1 김매는 거는 이 받뚜두게는 지그른 저 이 제초제 해가지고 푸를 주지만 엔나
레는 어 골쟁이로 그냥 풀 다 메열꼬.{김매는 것은 이 밭둑에는 지금은 저 이 제초제 해가
지고 풀을 죽이지만 옛날에는 아 호미로 그냥 풀 다 땀고.}

10310 #1 그 보리가 이글 때까지도 이 저 대오리. 대오리는 수시로 보리 끝날 때까지 그
이듬해 또 그 한 필기만 일썬도 이듬해는 여러 아주 마니 번식커니까. 그 하여튼 보리 재배
할 때까지도 그 대오리를 메여야마씨.{그 보리가 익을 때까지도 이 저 귀리. 귀리는 수시로
보리 끝날 때까지 그 이듬해 또 그 한 포기만 있어도 이듬해는 여러 아주 많이 번식하니까.
그 하여튼 보리 재배할 때까지도 그 귀리를 매입니다.}

10310 #1 경허영 겨우레 헐타가 에 오월따레 이제 수확글 해가지고. 그건또 또 엔나레는
수확카며는 전부 다 지베 가져와서 아 지반 마당에 놀트를 만드러가지고 돌로 싸아가지고
그 비가 스며들지 못하게 그 노퍼 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리를 놀 누려.{그렇게 해서 겨우레
했다가 아 오월달에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옛날에는 수확하면 전부 다 집에 가
져와서 아 집안 마당에 가리틀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쌓아가지고 그 비가 스며들지 못하게
그 높여 가지고 거기다 이제 보리를 가리를 가려.}

10310 @1 예.{예.}

10310 #1 놀 누려가지고 일기 조은 날 보면서 이제 그거 보리를 홀트는데 홀트는 기계로
해가지고 보리를 홀타가지고 보리찌른 한 문씩 이러케 한 아람씩 무겨가지고 그거 역시 그
건또 놀 누려서 겨우레 땀까므로 썰꼬.{가리 가려가지고 일기 좋은 날 보면서 이제 그거 보
리를 홀는데 홀는 기계로 해가지고 보리를 홀어가지고 보릿짚은 한 문씩 이렇게 한 아람씩
묶어가지고 그거 역시 그것도 가리 가리어서 겨우레 땀감으로 썰고.}

10310 #1 또 고고리는 이제 그 엔나레 탈곡기 저 맥타기가 일썬가지고 어 그 맥타기가 한
여기 세 대쯤 일썬는가. 그 그거시 가파도 도라다니면서 에 먼저 이 저 고고리 분리한 사람
들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탈곡해가지고 이제 그 보리를 보리쌀을 내는데.{또 이삭은 이
제 그 옛날에 탈곡기 저 탈곡기 있어가지고 아 그 탈곡기가 한 여기 세 대쯤 있었는가. 그
그것이 가파도 돌아다니면서 아 먼저 이 저 이삭 분리한 사람들부터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탈곡해가지고 이제 그 보리를 보리쌀을 내는데.}

10310 #1 또 그 보리쌀을 에 그 껍질 벗겨알 꺼 아니우파?{또 그 보리쌀을 아 그 껍질 벗
겨야 할 것 아닙니까?}

10310 @2 예.{예.}

10310 #1 게며는 그걸 크젠 우리 막 어릴 찌게는 방에토게다 노코 이제 예 방엔끼로 한 사르미든 또 두 사람 세 사람까지도 이러케 서로 번가라 가면서 찌가지고 곡씩 내완꼬. 그 후에는 또 연자방아. 소를 연자방아가 여기 한 연자방아가 한 가과도에 한 삼사십 때쯤 인 씨쓰니까.{그러면 그것을 크게는 우리 막 어릴 적에는 방아확에다 넣고 이제 아 방앗공이로 한 사람이든 또 두 사람 세 사람까지도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찧어가지고 곡식 내왔고. 그 후에는 또 연자방아. 소를 연자방아가 여기 한 연자방아가 한 가과도에 한 삼사십 대쯤 있었으니까.}

10310 @1 그 연자방아를 가과도에선 뭐렌 불런쭈과?{그 연자방아를 가과도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10310 #2 방에.{방아.}

10310 #1 방에.{방아.}

10310 @2 몰방에?{연자방아?}

10310 #2 예 몰방에.{예 연자방아.}

10310 #1 몰방에가 아니고 여긴 므른 업쓰니까 그냥 방에. 쉼을 쉼을 이용해가지고 헐꼬. {연자매가 아니고 여기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방아. 소를 소를 이용해가지고 했고.}

10310 #1 그건또 혼 빠네 뒸는 거시 아니고 혼 불 두 불 막 빨꺼지 세 버늘 헐러며는 그 혼 사름뿌니 아니고 동넨뿐들 허여나며는 또 허고 허쟁 허며는 시가니 마니 걸런찌.{그것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벌 두 벌 세 벌까지 세 번을 하려고 하면 그 한 사람뿐 아니고 동네분들 해나면 또 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지.}

10310 #1 경허난 그 세 번 해야 그 완전한 찌리 뒸고 어 나머지 누까는 말러가지고 소 가 뜬 거 머기고. 찌른 사르미 머견찌.{그러니까 그 세 번 해야 그 완전한 쌀이 되고 아 나머지 보릿겨는 말러가지고 소 같은 거 먹이고. 쌀은 사람이 먹었지.}

10310 @1 그러케 해간꼬 이제 보리 농사는 현 거라예. 아까 그 탈곡끼 헐 때 보리를 고 고리로 다 훑튼 다오메 고고리만 탈고글 헛쭈과? 아니며는 한꺼버네 해간꼬?{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리 농사는 한 거지요. 아까 그 탈곡기 할 때 보리를 이삭으로 다 훑은 다음에 이삭만 탈곡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해가지고?}

10310 #1 아이 고고리만.{아니 이삭만.}

10310 @1 아 여긴 고고리만예.{아 여기는 이삭만요.}

10310 #1 게난 그 예 탈곡 아녀며는 안 뒸니까.{그러니까 그 아 탈곡 앓으면 안 되니까.} 10310 #1 그 맥타기가 고고리만 이러케 올라가게끔 저 이 승강기 해가지고 맥타기에 고고리 보리찢까지 가게 뒸며는 기계가 안 도라가니까. 엉켜가지고.{그 탈곡기가 이삭만 이렇게 올라가게끔 저 이 승강기 해가지고 탈곡기에 이삭 보릿짚까지 가게 되면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엉켜가지고.}

10310 @2 거 우리도 거 기억납쭈다. 영 올라가게만 해서예. 벨트시그로예.{거 우리도 그것 기억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만 해서요. 벨트식으로요.}

10310 #1 예예.{예예.}

10310 @1 그런 시그로 행으네 이제 보리는 지어서예? 여기는 보리씨 뽕 때 뒸 저기 돈통에 거르메 막 저기 서경으네 빠지는 아년마씨?{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리는 지었지요? 여기는 보리씨 뿌릴 때 뒸 저기 돼지우리에 거름에 막 저기 섞어서 뿌리지는 앓았습니까?}

10310 #1 서경 빠지 아녀. 그 거름 저 이.{섞어서 뿌리지 앓아. 그 거름 저 이.}

10310 @1 몸걸름 험니까?{모자반 거름 험니까?}

10310 #1 몸걸름도 허지마는 돈통에 인는 걸름도 보리찍 까랑 이제 돼지 키우당 허면은 그걸 중시리로 몸소 이제 지게로 정. 리어까도 업쓸 때니까 지게로 저가지고 그거 보리바테 다가 걸 막 골고로 빼여가지고 그러케도 허고,{모자반 거름도 하지만 돼지우리에 있는 거름도 보릿짚 깔아서 이제 돼지 키우다가 하면 그것을 '중시리'로 몸소 이제 지게로 저서. 손수레도 없을 때니까 지게로 저가지고 그거 보리밭에다가 그것을 막 골고루 뿌려가지고 그렇게도 하고.}

10310 #1 또 그러케 몬터는 사름더른 또 이제 해초 해당 깔고,{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해초 해다가 깔고.}

10310 @1 그 바당에 해초 까는 거는 어떤 종류드를 까라신고예?{그 바다에 해초 까는 것은 어떤 종류들을 깔았는가요?}

10310 #1 느랭이 종류.{팽생이모자반 종류.}

10310 @1 예.{예.}

10310 #1 감태 가튼 거는 말리게 돼며는 너무 예 거칠고 이러니까 그 썩는 디도 오래고 저 느랭이,{감태 같은 것은 말리게 되면 너무 아 거칠고 이러니까 그 썩는 데도 오래고 저 팽생이모자반.}

10310 #2 몸.{모자반.}

10310 @1 느랭이몸예.{팽생이모자반요.}

10310 #1 예. 느랭이몸미 예 그거시 저기 파도가 씨고 허민 여기 아주 마니 올라와옵니다. 바닷가에.{예. 팽생이모자반이 예 그것이 저기 파도가 세고 하면 여기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바닷가에.}

10310 @2 그냥 올라와예?{그냥 올라온다구요?}

10310 #1 바닷가에 그 가며는 구역. 이 구역 꾸역마다 자기가 들고 시픈 통에다 가이를 해마씨.{바닷가에 그 가면 구역. 이 구역 구역마다 자기가 들고 싶은 '통'에다 가입을 합니다.}

10310 @1 으음.{으음.}

10310 #1 예 또 부라게서 이기덕통이 요쫓기가 이기덕인데, 이기덕통에 들려며는 이기덕통에 뭐 돈 이쳐 뉘는 낸다든지 해가지고 가이를 하게 돼며는 거기 한 대여섯 싸름 허게 되면 대여섯 싸름만 이 여기서 허고,{아 또 부락에서 이기덕통이 요쫓이 이기덕인데, 이기덕통에 들려면 이기덕통에 뭐 돈 이천 원을 낸다든지 해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 한 대여섯 사람 하게 되면 대여섯 사람만 이 여기서 하고.}

10310 #1 또 찌조게 두쨌머리 허며는 두쨌머리 쪼게도 그디도 대여섯 명 쨌도 해가지고 그러케 해서 이제 몸.{또 저쪽에 두쨌머리 하면 두쨌머리 쪽에도 거기도 대여섯 명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반.}

10310 #2 저 가고 시픈 디.{저 가고 싶은 데.}

10310 #1 예.{예.}

10310 @1 으음.{으음.}

10310 #1 므를 허영그네.{모자반을 해서.}

10310 @1 게문 그러케 할 때는 마으레서 이러케 도늘 받꼬 그 정해주는 거구나예?{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마을에서 이렇게 돈을 받고 그 정해주는 거군요?}

10310 #1 예. 겨난 그러치 아느며는 이쪼게만 므미 올랐쓸 쪼게는 가파도 찌르미 전부다

오게 돼며는 큰 싸우미 나지. 그러니까 들든 안 들든 거기다 오르며는 거기 든 사람드른 마니 저 돼비를 마니 허는 거고.{예.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만 모자반이 올랐을 적에는 가파도 사람이 전부다 오게 되면 큰 싸움이 나지. 그러니까 들든 안 들든 거기다 오르면 거기 든 사람들은 많이 저 돼비를 많이 하는 것이고.}

10310 #1 또 다른 데에도 오르긴 오르지만은 적게 오르며른 또 그 저 적게 올른만큼 해가지고 이제 돼지우리 돌통에 걸름 허영으네 노코.{또 다른 데에도 오르긴 오르지만 적게 오르면 또 그 저 적게 올른만큼 해가지고 이제 돼지우리 돼지우리에 거름 해서 넣고.}

10310 @1 그러며는 가파도를 쪽 이러케 들면 그런 통드리 먼 개 정도 돼마씨?{그러면 가파도를 쪽 이렇게 들면 그런 통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0310 #1 만삼니다게. 물완통, 장택코, 이개덕.{많습니다. 물완통, 장택코, 이개덕.}

10310 #2 가메기돌아피.{가마귀돌앞에.}

10310 #1 믋시리, 뒤쨌머리, 사개, 게염주리, 큰옹진물, 조근옹진물, 말자븐물, 한개창 그 정도.{마시리, 뒤켓머리, 사개, 게염주리, 큰옹짓물, 작은옹짓물, 말잡은못, 한개창, 그 정도.}

10310 @2 열하나.{열하나.}

10310 @1 그러케를.{그렇게를.}

10310 @2 열하나.{열하나.}

10310 @1 열하나예요. 그 열한 군데를 이 마으레서 이제 다 이러케 나눠서예. 구역 정해간꼬.{열하나예요. 그 열한 군데를 이 마을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눠서요. 구역 정해가지고.}

10310 #1 나눠가지고.{나눠가지고.}

10310 @1 그러면 그 걸름허는 게 농사질젠 허민 아주 큰이리라날따예?{그러면 그 거름하는 것이 농사지으려고 하면 아주 큰일이었네요?}

10310 #1 아 예. 그때 비료 업쓸 때니까 그 완저니 그거 묻터며는 농사가 안 돼지.{아 예. 그때 비료 없을 때니까 그 완전히 그거 못하면 농사가 안 되지.}

10309 @2 네에. 그러며는예 여기에서 가랴쁜 보리 종뉴는 어떤 게 이신고예?{네에. 그러면요 여기에서 갈았던 보리 종류는 어떤 게 있는가요?}

10309 #1 예 여기는 쌀보리하고 어 맥주보리 겉보리 그거 두 가지.{아 여기는 쌀보리하고 아 맥주보리 겉보리 그거 두 가지.}

10309 #2 ** 엔날 겉보리.{** 옛날 겉보리.}

10309 @1 게른 겉보리허고 술보리 그 두 개를 가랴쁘.{그러면 겉보리하고 쌀보리 그 두 개를 갈았고.}

10309 #1 주로 저 양시그로는 이 술보리를 마니 가랴쁘 겉보리는 이 쯔 술보리 안 돼는데 브름 브른 데는 예 겉보리를 가랴쁘.{주로 저 양식으로는 이 쌀보리를 많이 갈았고 겉보리는 이 쯔 쌀보리 안 되는데 바람 바른 데는 예 겉보리를 갈았고.}

10309 @1 게른 그 겉보리도 다 멍는 거 아니라예?{그러면 그 겉보리도 다 멍는 거 아닌가요?}

10309 #1 예예.{예예.}

10309 #1 마슨 이삼니다게.{맛은 있습니다.}

10309 @1 아 마슨 겉보리가 더 서마씨?{아 맛은 겉보리가 더 있습니까?}

10309 #1 마슨 더 신는디.{맛은 더 있는데.}

10309 @1 수화근?{수확은?}

10309 #1 수화근 약간 저거마씨.{수확은 약간 적어요.}

10310 @1 그러면에 아까 이제 보리 농사 짓는 과정은 설명을 해주긴 했찌마는. 여기도 밀농사도 지서신가마씨? 밀도 가라날쑤가?{그러면요 아까 이제 보리 농사 짓는 과정은 설명을 해주기는 했지만. 여기도 밀농사도 지었는가요? 밀도 갈았었습니까?}

10310 #1 밀도 가랴찌마는 그자 가파도 허며는 한두 군데 정도. 아주 소량으로요.{밀도 갈았지만 그저 가파도 하면 한두 군데 정도. 아주 소량으로요.}

10310 @1 으음. 혹시 보리 갈젠 허면 바슬 번헤나거나 이런 밭 미리 갈앙 놔두거나 이런 안 헤마씨?{으음. 혹시 보리 갈려고 하면 밭을 애벌갈이하거나 이런 밭 미리 갈아서 놔두거나 이러지는 안 하나요?}

10310 #1 아 왜 저 그 소 쟁기로 갈 찌게는 혼불 두벌 막뿔꺼지 세 번은 가라야 돼. 감자 캐난 다으메는.{아 왜 저 그 소 쟁기로 갈 적에는 초벌 두벌 막벌까지 세 번은 갈아야 돼. 고구마 캐난 다음에는.}

10310 #1 아 예. 감자 캐난 다으메는 혼불 갈며는 고랑이 서너네 개 나고. 고구마 이제 캐면서 막 밭바노며는 고랑이 업끼 때무네 거르믈 묻 깔지.{아 예. 고구마 캐 다음에는 애벌 갈면 고랑이 서너 개 나고. 고구마 이제 캐면서 막 밭아놓으면 고랑이 없기 때문에 거름을 못 깔지.}

10310 @1 예.{예.}

10310 #1 그러니까 소로 이제 지피 가라가지고 이제 고랑을 만든 다으메 거기다 거르믈 날꼬.{그러니까 소로 이제 깊이 갈아가지고 이제 고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거름을 넣었고.}

10310 #1 또 풀 마니 나며는 또 가라야 되고.{또 풀 많이 나면 또 갈아야 되고.}

10310 #1 또 쟁기로 가는 거는 병에. 호기 뭉청으네 이제 일끼 때무네 보리 갈 때게는 보리가 잘 안 나기 때무네 이제 막뿔 이제 가라가지고.{또 쟁기로 가는 것은 벧밭. 흙이 뭉쳐서 이제 있기 때문에 보리 갈 때는 보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막벌 이제 갈아가지고.}

10310 #1 이제 그건 대개 번넌바순 그랜꼬. 감자 안 시른 바순 그러케 세 번씩 가라야 되고.{이제 그것은 대개 애벌갈이한 밭은 그랬고. 고구마 안 심은 밭은 그렇게 세 번씩 갈아야 되고.}

10310 #1 감자 시른 바순 건 감자 시르면서 보드러우니까 한번 정도 갈고는 아 보리 그냥 파중해서.{고구마 심은 밭은 그것은 고구마 심으면서 보드러우니까 한번 정도 갈고는 아 보리 그냥 파중했어.}

10310 @1 그러며는에 아까 걸르믈 먼저 ㄱ. ㄴ니까? 아니면 걸르 ㄱ. ㄴ고 씨도 ㄱ치 헤영 됩니까?{그러면요 아까 거름을 먼저 깔니까? 아니면 거름 깔고 씨도 같이 해서 합니까?}

10310 # 아이 아니. 거르믈 먼저 ㄱ 다으메 그 다음 내중에 씨 뿌려.{아니 아니. 거름을 먼저 ㄱ 다음에 그 다음 나중에 씨 뿌려.}

10310 @1 그러면 그거에 이제 그냥 변행 놔둘 때든 아니면 감저 싱경으네 밭 가는 거부터 해서 그 씨 뿌리는 과정예. 걸르 먼저 허고 그 다으메 씨 뿌리고 뭐 검질메고 헤간꼬 그 순서예. 탈곡 순서를 한번만 더 ㄱ라 줍써?{그러면 그거요 이제 그냥 애벌갈이해서 놔둘 때든 아니면 고구마 심어서 밭 가는 것부터 해서 그 씨 뿌리는 과정요. 거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씨 뿌리고 뭐 김매고 해가지고 그 순서요. 탈곡 순서를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10310 #1 예 보리.{아 보리.}

10310 @1 보리 싱그젠 허문예?{보리 심으려고 하면요?}

10310 #1 감자 수화카고 난 다으메 예 상강 지나가지고 입똥까지 예 거름 치고 거름 노코

그 다으른 보리씨 빼고 이제 소로 갈고 그러며는 파종은 되는 거지.{고구마 수확하고 난 다음에 아 상강 지나가지고 입동까지 에 거름 치고 거름 넣고 그 다음은 보리씨 뿌리고 이제 소로 갈고 그러면 파종은 되는 것이지.}

10312 @1 음 게른 검지른 언제부터 맨쭈과? 보리 검지른.{음 그러면 김은 언제부터 땀습니까? 보리 김은.}

10312 #1 검지른 보통 이 보릴때 저 두둑 가쁜 데는 뭐 처음부터도 메얼찌마는 그 대우리 가쁜 거는 이 보릴때가 서기 시작해야 그 구부니 잘 돼니까 그때부터 매기 시작해.{김은 보통 이 보릿대 저 두둑 같은 데는 뭐 처음부터도 땀지만 그 귀리 같은 것은 이 보릿대가 서기 시작해야 그 구분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매기 시작해.}

10312 @1 여기도 수눌명 검질메거나도 헛쭈과?{여기도 품앗이하면서 김매거나도 했습니까?}

10312 #1 검질메는 건 수 안 누런쭈다.{김매는 것은 품앗이 안 했습니다.}

10312 #2 식구덜끼리.{식구들끼리.}

10312 #1 고구마 캐는 거 그런 거는 자기드리 일 업쓸 때 동넨싸름덜 이러케 모여서 해줬꼬.{고구마 캐는 것 그런 것은 자기들이 일 없을 때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해주었고.}

10312 #1 또 이 사름 지배 해나며는 이 사람 집 허고, 소안 키우는 사람드른 주로 이제 소 인는 지배 농사부터 우선 해주고 난 다으메 그 소를 비러가지고 또 농사를 지얼쓰니까, {또 이 사람 집에 해나면 이 사람 집 하고, 소 안 키우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소 있는 집의 농사부터 우선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빌려가지고 또 농사를 지었으니까.}

10311 @1 흑씨 가파도에서도 보리밭끼도 헤마씨?{흑시 가파도에서도 보리밭기도 합니까?}

10311 #1 보리밭끼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보리밭길 헤어나쭈다.{보리밭끼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보리밭끼 했었습니다.}

10311 @1 아아.{아아.}

10311 #1 겐디 그 반마다 이제 학교 끝나며는 이제 반마다 다니면서 이제 쪽 열 지어가지고 한 번씩 발바주고.{그런데 그 발마다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발마다 다니면서 이제 쪽 열 지어가지고 한 번씩 밟아주고.}

10311 @1 으음.{으음.}

10311 #1 그 그건또 보릴때 서기 저네 파종해서 그 보리 펴기 안줄 때, 대 서기 저네 그 거슬 발바야 보리가 튼튼허고, 이듬해 그 비 와도 비 마니 와도 쓰러지지 말라고 그러케 해서 우리 보리밭끼 헐뎀 기어기 납니다.{그 그것도 보릿대 서기 전에 파종해서 그 보리 포기 앓을 때, 대 서기 전에 그것을 밟아야 보리가 튼튼하고, 이듬해 그 비 와도 비 많이 와도 쓰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리밭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315 @1 에 초등학교 때예, 그 다으메 아까는 보리를 하고예, 여기 콩도 하영 헐뎀 허니까, 콩은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카는 지 그 순서대로예?{아 초등학교 때요, 그 다음에 아까는 보리를 하고요, 여기 콩도 많이 했다고 하니까, 콩은 언제 파종하고 언제 수확하는 지 그 순서대로요?}

10315 #1 에 콩도 이제 에 보리 끝나며는 그 하여튼 유월절 저네 망종으로부터 시작케가지고 어 유월절 소서까지.{아 콩도 이제 아 보리 끝나면 그 하여튼 유월절 전에 망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유월절 소서까지.}

10315 #2 유월절 일주일 안네.{유월절 일주일 안에.}

10315 #1 (기침) 에 그때까지 소서. 느저도 소서 때까지도 해쓰니까. 해가지고 어 파종해가지고 여기는 콩 ㄴ똥 거는 비료가 피료 업써요.{에 그때까지 소서. 늦어도 소서 때까지도 했으니까. 해가지고 아 파종해가지고 여기는 콩 같은 거는 비료가 필요 없어요.}

10315 @1 아아.{아아.}

10315 #1 월래 보리 혈 쪼게 거름 낚뎌 거시 너무 저 이 거르플 마니 깔며는 너무 기름져서 보리가 자꾸 쓰러지니까.{원래 보리 할 적에 거름 넣었던 것이 저무 저 이 거름을 많이 깔면 너무 기름져서 보리가 자꾸 쓰러지니까.}

10315 @1 으음.{으음.}

10315 #1 그 양부니 계속 나마 일끼 때무네 콩 시를 때는 비료 가뜰 거 비료 몫 가뜰 거 안 ㄴ ㄴ고 그대로 파종만 하고.{그 양분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콩 심을 때는 비료 같은 거 비료 모자반 같은 거 안 깔고 그대로 파종만 하고.}

10315 #1 그냥 아 내중에 그거 자라게 되며는 에 또 콩 검질 메야 돼고.{그냥 아 나중에 그거 자라게 되면 아 또 콩 김은 매야 되고.}

10315 #1 건또 혼불 두불 또 잡풀 ㄴ똥 건드른 큰. 존 건떨 메여불며는 저 큰 풀드른 수시로 이러케 저 콩 저기 혈 때꺼지 그냥 바테는 검지렌 헌 게 어선쭈게.{그것도 애벌 두벌 또 잡풀 같은 것들은 큰. 작은 것들 매어버리면 저 큰 풀들은 수시로 이렇게 저 콩 저기 할 때까지 그냥 밭에는 김이라고 한 게 없었습니다.}

10315 @1 예.{예.}

10315 #1 깨끗터게.{깨끗하게.}

10315 @1 그러며는 그 콩은 어떤 콩을 가라신고예? 예저네는예.{그러면 그 콩은 어떤 콩을 갈았는가요? 예전에는요.}

10315 #1 예저네는 장콩 종류를 마니 가랴쨌는데 내중에는 이.{예전에는 장콩 종류를 많이 갈았었는데 나중에는 이.}

10315 #2 준자리.{준자리.}

10315 #1 준자리. 저 방우리 자근 거.{준자리. 저 알이 작은 거.}

10315 @1 예예.{예예.}

10315 #2 콩나물콩.{콩나물콩.}

10315 @1 콩나물콩예?{콩나물콩요?}

10315 #1 예 콩나물콩. 건 수화기 마니 나고. 그런 걸 가라근예.{예 콩나물콩. 그것은 수화기 많이 나고. 그런 걸 갈아서.}

10315 @1 그러면 이제 콩은 그러케 해서 콩도 비여야. 비텐 힘니까? 콩 꺼끈텐 힘니까? {그러면 이제 콩은 그렇게 해서 콩도 베야. 벤다고 합니까? 콩 꺾는다고 합니까?}

10315 #2 꺼끈텐 힘니다. 꺼끈텐도 허고 빔도 허고.{꺾는다고 합니다. 꺾는다고도 하고 베기도 하고.}

10315 #1 건 콩 비는 게. 콩. 콩 비엄젠 허주.{그것은 콩 베는 게. 콩. 콩 벤다고 하지.}

10315 @1 콩 비영으네 그건또 탈고근 어떻 헐쭈과?{콩 베서 그것도 탈곡은 어떻게 했습니까?}

10315 #1 엔나레는 콩 비여다가 그거 역씨 지베다 다 가정왕 저 이 놀터 만드랑 그거 역씨 누러.{옛날에는 콩 베다가 그거 역시 집에다 다 가져와서 저 이 가리터 만들어서 그거 역시 가려.}

10315 #1 날 조은 날 보면서 이제 마당에 멍석 까라노코 에 거기다 이제 콩을 아 여러 사

라미 이제 동넨 싸람드리 도깨아덜 그걸로 두드러가지고 이제 알 불리헐꼬.{날 좋은 날 보면서 이제 마당에 명석 깔아놓고 예 거기다 이제 콩을 아 여러 사람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도리갯열 그것으로 두드러가지고 이제 알 분리헐꼬.}

10315 #1 그거 이제 다 허기 뉘며는 예 대얼맹이.{그거 이제 다 하게 되면 예 대어레미.}

10315 @1 예.{예.}

10315 #1 큰 걸로 친 다으메 또 검부리 인쓰면 푸는체로 또 퍼.{큰 것으로 친 다음에 또 검불이 있으면 키로 또 까불어.}

10315 #1 그러케 해가지고.{그렇게 해가지고.}

10315 #2 바라메 불령.{바람에 불려서.}

10315 #1 어 바라메 이제 손빠그로 행으네 이제 *** 내려 노며는 바라메 꺼푸른 나라가고 경허민 그거 콩이 왁료 뉘는 거.{어 바람에 이제 손박으로 해서 이제 *** 내려 놓으면 바람에 꺾질은 날아가고 그렇게 하면 그거 콩이 완료 되는 거.}

10315 @1 예. 콩은 경허고예. 그 다으메 아까 다른 지역커고 달리 가파도는 옛날부터 감제 하영 싱그지 아느파?{예. 콩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지역하고 달리 가파도는 옛날부터 고구마 많이 심지 않습니까?}

10315 #1 예.{예.}

10315 @1 감제 싱그젠 허며는 감제 씨 논는 거부터 시작캥예 쉼로 허영 수화컬 때까지. 감제 주스는 거까지.{고구마 심으려고 하면 고구마 씨 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로 해서 수확할 때까지. 고구마 줏는 것까지.}

10315 #1 감제.{고구마.}

10315 #2 감제씨 구덩이 팡.{고구마씨 구덩이 파서.}

10315 #1 아 감제씨는 감제 수확커고 나머는 아 그늘에 좀 한 일쭙일쭙 뉘따가 물기가 완저니 빠지며는 예 집 우영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여프로 이제 보리찌플 싸아노코 그 아네다가 깔고 해서 그 보리찢 우의다가 감저를 놔 가지고 이제 주제기.{아 고구마씨는 고구마 수확하고 나면 아 그늘에 좀 한 일쭙일쭙 뉘다가 물기가 완전히 빠지면 예 집 텃밭에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옆으로 이제 보릿짚을 쌓아놓고 그 안에다가 깔고 해서 그 보릿짚 위에다가 고구마를 넣어 가지고 이제 주저리.}

10315 @1 예.{예.}

10315 #1 느람지 해가지고 딱 더꺼가지고 주제기 딱 더꺼가지고 이듬해 봄까지.{이영 해가지고 딱 덮어가지고 주저리 딱 덮어가지고 이듬해 봄까지.}

10315 @1 예.{예.}

10315 #1 예 날따가 보메 초보메 이제 그건또 여기는 바테다 아녀고 우영예.{예 두었다가 봄에 초봄에 이제 그것도 여기는 밭에다 앓고 텃밭예.}

10315 @1 예.{예.}

10315 #1 집 가까이에 인는 바라미 엄는 덜 부는 고세다 그걸 시므며는 춤 빨리 자라마씨.{집 가까이에 있는 바람이 없는 덜 부는 곳에다 그것을 심으면 참 빨리 자라요.}

10315 @1 음.{음.}

10315 #1 그 자랄 만큼 자라며는 이제 그 보리 캔 다으메 이제 허는데 그 시기에 마취그네 자라마씨. 너무 자란 거슨 또 두 마디 세 마디로 잘라가지고 그러케 심꼬.{그 자랄 만큼 자라면 이제 그 보리 팬 다음에 이제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자라요. 너무 자란 것은 또 두 마디 세 마디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심고.}

10315 @1 그러면 그 우영에 논논에 그 감저를 싱그는 거를 뭐렌 험니까?{그러면 그 텃밭에 넣는 그 고구마를 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10315 #1 메 논다.{모 놓는다.}

10315 #2 감전메.{고구마모.}

10315 #1 감전메 논다.{고구마모 놓는다.}

10315 @1 감전메예. 게민 감전메가 크면 그걸 찢라다가.{고구마모요. 그러면 고구마모가 크면 그것을 잘라다가.}

10315 @2 줄 비어다가.{줄기 베다가.}

10315 #1 어 줄 비어다가 심었찌.{아 줄기 베어다가 심었지.}

10315 @1 그건 언제 정도에 시믄니까?{그것은 언제 정도에 심습니까?}

10315 #2 사월 정도. 보리 끝나면.{사월 정도 보리 끝나면.}

10315 #1 그 그 스워리 아이고.{그 그 사월이 아니고.}

10315 #2 하여튼 유월절 저네 싱거야.{하여튼 유월절 전에 심어야.}

10315 #1 겐또 역시 마찬가지로. 저 오월.{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오월.}

10315 @1 게난 보리끄르에 싱그는 거라마씨?{그러니까 보리그루에 심는 거예요?}

10315 #1 예예.{예예.}

10315 @1 아아 게민 그러믄 보리끄르에 이제 감자를 싱그는 거부떠 수확컬 때까지 ㄴ라줍써?{아아 그러면 그러면 보리그루에 이제 고구마를 심는 것부터 수확할 때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0315 #1 그거는 예 감자 역시 기를 메야 돼고.{그거는 아 감자 역시 김을 메야 되고.}

10315 @1 으. 겐지를.{으. 김을.}

10315 #1 이 고랑이 마니 내려안지머는 흑또 올려줘야 돼고. 그건바께 업썸쑤다.{이 고랑이 많이 내려왔으면 흑도 올려줘야 되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10315 @1 그러면 예를 들면 보리를 갈젠헐 때 그 잠대로 갈 꺼 아니우꽉예? 그럼 그때 어 웨벳찌기 험니까? 양벳찌기 험니까?{그러면 예를 들면 보리를 갈려고 할 때 그 쟁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아 '외벳뜨기'합니까? '양벳뜨기' 합니까?}

10315 @1 골 가는 거?{고랑 가는 거?}

10315 @2 무슨 얘기냐 허면 감저를 싱글려고 하면 요러케 두둑ㄴ치 올라와야 될 거 아니우꽉?{무슨 얘기냐 하면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면 요렇게 두둑같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10315 #1 게난 보통 여기 예 고구마 가뜰 거는 네벳찌기 해야 돼고 예 보리는 세벳찌기 정도.{그러니까 보통 여기 아 고구마 같은 것은 '네벳뜨기' 해야 되고 아 보리는 '세벳뜨기' 정도.}

10315 #1 그러케 저 한 고지에 고구마 가뜰 거는 네 벼늘 감따와야 돼고. 한 고지 만들려머는.{그렇게 저 한 이랑에 고구마 같은 것은 네 벼늘 잣다와야 되고. 한 이랑 만들려면.}

10315 @1 예예.{예예.}

10315 #1 한 고지를 네 벼네 이쪽 * 갈고 올 때는 이쪽 * 갈고 나머지 인는 건 또 두벼네 갈랑 여기서 네벳찌기. 네벳찌기 헐꼬.{한 이랑을 네 벼네 이쪽 * 갈고 올 때는 이쪽 * 갈고 나머지 있는 것은 또 두벼네 갈라서 여기서 '네벳뜨기'. '네벳뜨기' 했고.}

10315 #1 보리는 그 벼헐 때 보드러우니까 쏘 넓게 자바가지고 이쪽 강 갈고 이쪽 강 갈고 가운데 한번 갈고 그러케 세벳찌기.{보리는 그 애벌같이할 때 보드러우니까 쏘 넓게 잡

아가지고 이쪽 가서 갈고 이쪽 가서 갈고 가운데 한번 갈고 그렇게 '세벳뜨기'.}

10315 @1 게믄 이제 감저주를 이제 싱글 꺼 아니라예? 그러며는 어느 정도 하면 아까 골 골 가라마씨? 감저.{그러면 이제 고구마줄기를 이제 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아까 고랑 고랑 가나요? 고구마.}

10315 #1 거 감자가 곧 시르며는 금방 사는 게 아니고 아 한 일주일 돼가며는 잡푸리 남쭈게.{거 고구마 곧 심으면 금방 사는 것이 아니고 아 한 일주일 되가면 잡풀이 나지요.}

10315 @1 예.{예.}

10315 # 게며는 그 그때는 골 갈리 거마씨.{그러면 그 그때는 고랑 가르는 거지요.}
10315 @1 아아.{아아.}

10315 #1 골 갈리게 돼며는 잡풀도 마가정 죽꼬 우에 고구마 트메 인는 거는 더러 메기고 허고, 그냥 내버려도 그거 얼마 자라질 몬테마씨.{고랑 갈게 되면 잡풀도 막아져서 죽고 위에 고구마 틈에 있는 것은 더러 매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도 그거 얼마 자라질 못합니다.}
10315 @1 아아.{아아.}

10315 #1 고구마가 저 양부늘 빠라먹기 때무네.{고구마가 저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10315 #2 주리 어울려져가명.{줄이 어우러져가면서.}

10315 #1 주리 마니 어울려지며는.{줄이 많이 어우러지면.}

10315 #2 땅이 어스난.{땅이 없으니까.}

10315 #1 푸리 잘 자라지 몬터고, 고랑에 인는 건떠른 그 가라버리니까 존폴드리 다 주거 버려마씨.{풀이 잘 자라지 못하고, 고랑에 있는 것들은 그 갈아버리니까 잔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10315 @1 게믄 그 감자 검지른 경 하영 안 맨겐따예, 보리 검지리나 이런 건처럼.{그러면 그 고구마 김은 그렇게 많이 안 맺겠네요, 보리 김이나 이런 것처럼.}

10315 #1 감자는 여르메 허는 거기 때무네 그 더우니까 검질 메젠 해도 더 힘드러마씨, {고구마는 여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우니까 김 매려고 해도 더 힘들어요.}

10315 @1 으음.{으음.}

10315 #1 그러니까 검지를 주로 안 맨찌.{그러니까 김을 주로 안 맺지.}

10315 @1 예예.{예예.}

10315 #1 골 갈령 내불며는 그걸로 끈나니까, 감저쭈 싹 버더정 고랑꺼지 더퍼지게 되면 잡푸리 안 나니까.{골 갈아서 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니까, 고구마줄기 싹 뻗어져서 고랑까지 덮여지게 되면 잡풀이 안 나니까.}

10315 @1 예예.{예예.}

10315 @2 검지리 몰릴 꺼지.{김이 몰릴 것이지.}

10315 @1 예예.{예예.}

10315 #2 안 나, 안 나고.{안 나, 안 나고.}

10315 @1 그러케 헤영으네 이제 감저를 수확카면 엔나레 절간도 헤실 꺼 아니라예? 그냥 도 팔기도 하고, 빼떼기, 빼떼기 허는 거를 좀 ㄴ라 줘씨?(그렇게 해서 이제 고구마를 수확하면 옛날에 고지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도 팔기도 하고, 고지, 고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315 #1 그 빼떼기 그 바다갈 썬게는 그때는 고구마 이제 지베 전부다 가져다가 손수 저 이 시친 다오메 에 손수 칼로 하나하나씩 전부다 빼떼길 멘들아, 찢라가지고.{그 고지 그 받아갈 적에는 그때는 고구마 이제 집에 전부다 가져다가 손수 저 이 썬은 다음에 아 손수 칼

로 하나하나씩 전부다 고지를 만들어, 잘라가지고.}

10315 @1 소느로 멘드라서마씨? 옛날 기계로.{손으로 만들었어요? 옛날 기계로.}

10315 #1 아니 처으메는 처으메는 허다가, 이제 그러케 멘드런 빼빼기도 멘드런쭈마는, 그 겉또 역씨 저 머글러머는 또 방에토게 낳 뻘사, 채로 친 다으멘 그 가루로 이제 즈베기도 헤영 먹꼬 저 돌레떡도 헤영 먹꼬 헤영꼬.{아니 처음에는 처음에는 허다가, 이제 그렇게 만 들어서 고지도 만들었지만, 그것도 역시 저 먹으려면 또 방아확에 넣어서 빵아, 채로 친 다 음에는 그 가루로 이제 수제비도 해서 먹고 저 도래떡도 해서 먹고 하였고.}

10315 #1 그 내중에는 이제 그 소느로, 겉또 소느로 이제 돌리는 그 그 기계 이름 뭇지 모르겐네.{그 나중에는 이제 그 손으로, 것도 손으로 이제 돌리는 그 그 기계 이름 뭇지 모르겠네.}

10315 #2 감저 씨는 기계주.{고구마 씨는 기계지.}

10315 #1 그냥 감저 씨는 기계라고 헐쓸 껴야.{그냥 고구마 씨는 기계라고 했을 거야.}

10315 @2 예 맡쭈다, 통으로 집어 너면.{예 맞습니다, 통으로 집어 넣으면.}

10315 #1 예예, 한 개씩 놔서 자꾸 노면서 이제 그 아궁이에 노머는 빼빼기 썬러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널 때가 업쓰니까.{예예, 한 개씩 넣어서 자꾸 넣으면서 이제 그 아가리에 넣으면 고지 썰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널 때가 없으니까.}

10315 #2 바테 너러.{발에 넣어.}

10315 #1 지붕 우에.{지붕 위에.}

10315 @1 아아 지붕 우에도 너러예.{아아 지붕 위에도 넣어요.}

10315 #1 우리 이 쓰래트 우에다가 막 이빠이 너러.{우리 이 슬레이트 위에다가 막 가득 넣어.}

10315 #2 받티도 널곡.{발에도 넣고.}

10315 #1 또 바티는 잘 안 마르니까.{또 발에는 잘 안 마르니까.}

10315 #2 게도 주로 받띠 너런 푼랴쭈.{그래도 주로 발에 넣어서 팔았지.}

10315 #1 그 받띠 너는 거는 이 저 구물.{그 발에 너는 것은 이 저 그물.}

10315 @1 예.{예.}

10315 #1 이 저 덩장 구물 가튼 거 이러케 바닷가에 마니 올리면 그런 거 마니 주서다 낚 따가 거 깔고 그 위에다 또 빼빼기 너런 말리고, 그러케도, 지붕에 주로 지붕에 마니 너런 쭈.{이 저 덩장 그물 같은 거 이렇게 바닷가에 많이 오르면 그런 것 많이 주워다가 놓았다 가 거 깔고 그 위에다 또 고지 넣어서 말리고, 그렇게도, 지붕에 주로 지붕에 많이 넣었지.}

10315 @1 으음, 지붕 우에 하영 너런예?{으음 지붕 위에 많이 넣었다고요?}

10315 @1 게난 여기도 이제 감저 빼빼기 헤갈꼬 음식글 하영 행 먹얼꾸나예?{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고구마 고지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해서 먹었군요?}

10315 #1 예, 빼빼기 엔나렌 뭇 보리 아녀머는 그 고구마 감저.{예, 고지 옛날에는 뭇 보리 얹으면 그 고구마 고구마.}

10315 #2 주로 감자 켜 머건쭈게.{주로 고구마 썬서 먹었지.}

10315 @1 예예.{예예.}

10315 #1 구덩이에 인는 감저 쪼끔씩 꺼내면서 썬도 먹꼬.{구덩이에 있는 고구마 조금씩 꺼내면서 썬도 먹고.}

10315 #2 빼빼기 행 통개에 놔두서.{고지 해서 항아리에 놔두고서.}

10315 #1 썬지 아년 거는 썬허고, 썬거가는 거슨 꺼냉 썬근 거 도려내노코 이제 썬마 먹

끼도 하고.{썩지 않은 것은 썩하고, 썩어가는 것은 꺼내서 썩은 거 도려내놓고 이제 삶아 먹기도 하고.}

10315 @2 계란 구가미렌 말도 드리받지요?{그러니까 '구감'이라는 말도 들어봤지요?}

10315 #1 구가믄 이제.{구감은 이제.}

10315 @2 줄 난 다으메.{줄기 난 다음에.}

10315 #1 그 감저 줄 낭으네 그 파종해 불민 다으메 에 다으메 이제 그 고구마 그 종자 키우려고 저 그 무턴편 거슬 파내영으네. 에 그거 허영 구감제 해영으네 그건또 쌀망 먹고. {그 고구마 줄기 나서 그 파종해 버리면 다음에 아 다음에 이제 그 고구마 그 종자 키우려고 저 그 묻었던 것을 파내서. 아 그거 해서 구고구마 해서 그것도 삶아서 먹고.}

10315 @1 그거 허당 보면 그 구감 미테 쪼꼬만허게 또.{그거 하다가 보면 그 '구감' 밑에 조그만하게 또.}

10315 #1 새감제가 생겨마씨.{새고구마가 생깁니다.}

10315 @1 예. 거기 생기지요?{예. 거기 생기지요?}

10315 @2 새감.{새고구마.}

10315 @1 예.{예.}

10315 #1 어 구감제 미테 저 뿌리에 또 새가미 생기니까 그 새가미 생기며는 아주 조아 헐찌.{아 구고구마 밑에 저 뿌리에 또 새고구마가 생기니까 그 새고구마 생기면 아주 좋아 했지.}

10315 #1 말또 일꼬 허니까.{맛도 있고 하니까.}

10315 @2 너무 물랑물랑. 웃음.{너무 말랑말랑. 웃음.}

10315 #3 엔나렌 춤.{옛날에는 참.}

10315 @1 머글 께 어서노난예.{먹을 것이 없어 놓으니까요.}

10315 @2 구감도 보면 줄기가 마나예. 줄 버더서 그런지 몰라도.{구고구마도 보면 줄기가 많지요. 줄 뺏어서 그런지 몰라도.}

10315 @1 거기도 구감에도 왜 새로로 부풀어오른 그 부부는 맛 조코 다른 거는 이제 하고.{거기도 구고구마에도 왜 새로로 부풀어오른 그 부분은 맛 좋고 다른 것은 이제 하고.}

10315 @1 그 다으메 그 반농사허멍 검지른 보통 멘 뺏 메마씨? 보리 가튼 경우는 아까 세 벌.{그 다음에 그 밭농사하면서 김은 보통 몇 번 매나요? 보리 같은 경우는 아까 세 벌.}

10315 #1 감자는 한 번 정도.{고구마는 한 번 정도.}

10315 @1 감 감잔 한 번 정도예?{고 고구마는 한 번 정도요?}

10315 #2 한두 번.{한두 번.}

10315 @1 이 가파도도 조도 헐쭈과?{이 가파도도 조도 했습니까?}

10315 #1 조도 엔나렌 건또 마니는 아녀고.{조도 옛날에는 것도 많이는 안 하고.}

10315 #1 그건또 똑 보리 밀 가튼 건또 똑 보리 농사하고 가치 뵈니까 양시기 인는 사람드른 새해 먹을 꺼 인는 사람드른 쫘 밭 하나 정도 같고.{그것도 똑 보리 밀 같은 것도 똑 보리 농사하고 같이 되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새해 먹을 것 있는 사람들은 쫘 밭 하나 정도 같고.}

10315 @1 예.{예.}

10315 #1 농토가 마는 사르른 아무래도 하나 쟁도는 조 같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제 보리 같고 헐쓰니까.{농토가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 쟁도는 조 같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제 보리 같고 했으니까.}

10315 @1 그 조도 직접 가라판마씨?(그 조도 직접 갈아봤습니까?)

10315 #1 조는 안 가라판쭈다.(조는 안 갈아봤습니다.)

10315 @1 아 안 가라보고. 조는 그 조컴질 때는 게 우턴텐 헨게마는.(아 안 갈아보고. 조는 그 조감 때는 게 힘들다고 하더니만.)

10315 #1 아이 조컴질 저 이 나 어머니 따라오네 조컴질 메맡쭈다.(아니 조감 저 이 나 어머니 따라서 조감 매봤습니다.)

10315 # 젠디 그거 더워 아이고.(그런데 그거 더워서 아이고.)

10315 @1 예. 수미 ㄴ은ㄴ은합니다게.(예. 숨이 헉헉합니다.)

10315 #1 아이. {아니.}

10315 @1 그 조컴질 조 허는 거를 한번 ㄴ라줘 봄씨?(그 조감 조 하는 것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10315 #1 그거 조는 어떠케 헨는지 모르지마는. 잘 기어기 안 나지마는 그 조 역시 보리랑 꼭가치 시기에 뛴는 거라서 그거 조 전부다 이제 비어 오며는 비며는 그 고고리를 호미로.(그거 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조 역시 보리랑 꼭같이 시기에 되는 것이어서 그거 조 전부다 이제 베어 오면 베면 그 이삭을 낮으로.)

10315 @1 예.(예.)

10315 #1 이러케 한 줍씩 케가지고 호미 이러케 발로 밟아서 이제 미인 다오메 고고리 찢라가지고 그거 역시 이제 저 거 뭇꼬.(이렇게 한 줍씩 해가지고 호미 이렇게 발로 밟아서 이제 밀린 다음에 이삭 잘라가지고 그거 역시 이제 저 거 뭇지.)

10315 @2 덩드렁마께.(‘덩드렁방망이’)

10315 #1 어 덩드렁마께로 이제 두들경 이제 곡씨글 불리헨찌.(아 덩드렁방망이로 이제 두들겨서 이제 곡식을 분리했지.)

10315 @1 으 조는예?(아 조는요?)

10315 #1 예.(예.)

10315 @2 조컴지린 경우는 안장 몬 매거든.(조감인 경우는 앉아서 못 매거든.)

10315 @1 완전 즈작뵤띠.(완전 띄약별예.)

10315 @2 게난 이러케 서야 허리를 굽펴야 뛴. 왜냐하면 대 꺾꺼지믄 안 뛴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야.(그러니까 이렇게 서야 허리를 굽혀야 뛴. 왜냐하면 대 꺾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힘든 거야.)

10315 #1 게난 조컴질 그 막 어릴 때.(그러니까 조감 그 막 어릴 때.)

10315 @1 예.(예.)

10315 #1 그때 조컴질 메어난 기어기 나.(그때 조감 매었던 기억이 나.)

10315 @2 여기도 조 머서블면 소끄곡 헤난찌예?(여기조 조 벗어버리면 숨고 했었지요?)

10315 #1 땅 비왕으네 그 쓰러블며는 다 그 굽짜리 올려주고 또 헤난쭈.(땅 비와서 그 쓰러버리면 다 그 굽자리 올려주고 또 했었지.)

10315 @2 방 벌리명예?(방 벌이면서요?)

10315 #1 예.(예.)

10315 @1 너무 이제 뵡뵡케도 소까야 뛴곡.(너무 이제 뵡뵡해도 숨아야 되고.)

10315 #1 예.(예.)

10313 @1 그러면 어련쓸 때예 지그믄 머글 꺾가 이제 풍족카지 아느니까 늑미 콩 서리허레 텅기거나 아니면 여기도 독뜰도 키우니까 독 서리허레 가거나 감저 놀 강 늑미 꺾 강 헤

먹거나 이런 기어근 얻쭈가?{그러면 어렸을 때요 지금은 먹을 것이 이제 풍족하지 않으니까
남의 콩 서리하러 다니거나 아니면 여기도 닭들도 키우니까 닭 서리하러 가거나 고구마 가
리 가서 남의 거 가서 해 먹거나 이런 기억은 없습니까?}

10313 #1 아 뭐 그런 거.{아 뭐 그런 것.}

10313 @1 어렸을 때.{어렸을 때.}

10313 #1 그 농사하는 거는 그 그런 건 업썰꼬. 닥 가뜰 거는 우리 절름 때 저 나미 지브
강으네 몰래 저다가 메시서 그자 나눠서 쏴마 먹던 기어근 나는데. 거 뭐 그것.{그 농사하는
것은 그 그런 것은 없었고. 닭 같은 것은 우리 젊을 때 저 남의 집에 가서 몰래 저다가 몇
이서 그저 나눠서 삶아 먹던 기억은 나는데. 그 뭐 그것.}

10313 @1 그 말 ㄴ라줘 봅써?{그 말 말씀해줘 보십시오?} 웃음.

10313 #1 그 그거 어떠케 뭐 말로 표현허여게.{그 그것 어떻게 뭐 말로 표현하나.} 10313
@2 켄디 그거 재미이쭈 꺼 가튼데.{그런데 그것 재미있을 것 같은데.}

10313 @1 예. 게난 친구드리영 늑미 지비 강 그 스리리 이쭈 꺼 가튼데.{예. 그러니까 친
구들이랑 남의 집에 가서 그 스릴이 있을 것 같은데.}

10313 @2 게니까 어떤 사르미 그럽따다게. 어 다긴 경우는 아주 기수리 피료한 거고. 그
다음 도새기에는 가마니에 불치. 불치를 다망 강 도새기 머리를 콧 바그면 소리를 몰턴텐마
썸. 게영 자방 완텐 허고.{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아 닭인 경우는 아주 기술이 필
요한 것이고. 그 다음 돼지는 가마니에 재. 재를 담아서 가서 돼지 머리를 콧 박으면 소리를
못한다네요. 그래서 잡아서 왔다고 하고.}

10313 @2 다근 어디 영 어디 이렇게 안지면 이 노미 술술술술 소느로 너머온텐마썸. 게
니까 아주 기수리 피료해서.{닭은 어디 이렇게 어디 이렇게 앓으면 이 놈이 살살살살 손으
로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해서.}

10313 #1 아 그런 거 마른 드러뵈쭈다마는. 닥 가튼 거 이러케 압가스메다 톡 이러케 손
쭈 뜯뜯터게 해가지고 이러케 허며는 다기 저 소리를 안 진다 허여. 게며는 그 모그로 해가
지고 날개 인는 쪼그로 양 소느로 콧 자브며는 이 저 이 다기 꿈쩍도 몰턴데.{아 그런 거
말은 들어봤습시다만. 닭 같은 거 이렇게 앞가슴에다 톡 이렇게 손 쭈 뜻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닭이 저 소리를 안 지른다 해. 그러면 그 목으로 해가지고 날개 있는 쪽으로
양 손으로 콧 잡으면 이 저 이 닭이 꿈쩍도 못한다고.}

10313 @2 꼬꼬댁 소리도 몰터고.{꼬꼬댁 소리도 못하고.}

10313 #1 소리도 몰터고. 게며는 그거 들고 저 바테 산땀 인는 데 강으네 털 뜨딩.{소리도
못하고. 그러면 그거 들고 저 발에 산땀 있는 데 가서 털 뜯어서.}

10313 #2 독 도둑쟁이로구나.{닭 도둑놈이로구나.}

10313 #1 게. 그거 해연 쌀마 멍는 기어기 나. 건또 빨리해영 먹썰 허난 털 술마네 찢건
먹썰도 몰터고 된날 발간 베려보난 소리 별경허연. 털 술만.{게. 그거 해서 삶아 먹는 기억
이 나. 것도 빨리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털 삶아서 질겨서 먹지도 못하고 된날 밝아서 보니
까 살이 별개서. 털 삶아서.}

10313 @1 예. 게문 그 주이는 그거 아라실 꺼 아니라예?{예. 그러면 그 주인은 그거 알았
을 거 아닌가요?}

10313 #1 주인 득근 일러부런찌마는.{주인 닭은 잃어버렸지만.}

10313 #2 사르른 몰랏쭈.{사람은 몰랐지.}

10313 #1 사르른 모르지게. 누가 거 뭐 알게 함니까게. 모르게.{사람은 모르지. 누가 그것

뭐 알게 합니까. 모르게.}

10313 @1 웃음

10313 #2 다 ㄴ라부켜. 이젠.{다 말해버리겠어. 이제는.}

10313 @2 계란.{그러니까.}

10313 @1 누구네 지비 꺼까지 해야 이제 꼴 켜디.{누구네 집에 것까지 해야 이제 말할 것인데.}

10313 @1 웃음

10313 @2 엔나레 그런 말 일찌 아녀우파? 들러간 사르른 췌가 흥나여. 들러간 췌. 이여분 사르른 누군고 누군고 허다 보난 췌가 열 개.{옛날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져간 사람은 죄가 하나다. 가져간 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굴까 누굴까 하다 보니까 죄가 열 개.}

10313 #1 게고 저 이 독 일러분 사름덜토.{그리고 저 이 닭 잃어버린 사람들도.}

10313 @1 그러려니.{그러려니.}

10313 #1 에 그러려니 허는 거주. 에이 절문 놈덜 허여단 머거실 테지.{아 그러려니 하는 것이지. 에이 젊은 놈들 해다가 먹었을 테지.}

10314 @1 웃음. 그러면 이제는예. 엔나른 어쨌든 이젠 보린낭. 이제 여기는 미른 하영 안 가니까 허지만 보린낭으로 만든 게 하서예? 그 보린낭 쓰임새가 할찌예?{웃음. 그러면 이제 는요. 옛날은 어쨌든 이제는 보릿대. 이제 여기는 밀은 많이 안 가니까 허지만 보릿대로 만든 것이 많지요? 그 보릿대 쓰임새가 많지요?}

10314 #1 보린낭으론 쓰임새는 우서는 걸로 지들케 헐꼬. 겨우내에. 그걸로 불 솔랑으네 밥 페 먹꼬 헐꼬. 더러는 저 이 여경으네 거 거 보고 뭐라 하나?{보릿대로는 쓰임새는 우선은 그것으로 땀감 했고. 겨우내내. 그것으로 불 살라서 밥 해 먹고 했고. 더러는 저 이 엮어서 거 거 보고 뭐라 하나?}

10314 @2 바작.{발채.}

10314 @1 페랭이. 살깁?{밀짚모자. 삿갓?}

10314 #1 아니고 거적.{아니고 거적.}

10314 #2 거적.{거적.}

10314 #1 에 거적 만드러가지고 여르메 마당에 까랑으네 까라 안끼도 허고. 비 올 때 저 이 창문 아페 이러케 막기도 허고 그런 정도.{아 거적 만들아가지고 여름에 마당에 깔아서 깔아 앉기도 하고. 비 올 때 저 이 창문 앞에 이렇게 막기도 하고 그런 정도.}

10314 @1 거저그로예?{거적으로요?}

10314 #1 예.{예.}

10314 @1 페랭이 몬는 거는 안 봐반마씨?{밀짚모자 겹는 것은 안 봤었습니까?}

10314 #1 페랭이는 여기서 안 ㄴ잔쑤다. 보린때로 허며는 거 물러가지고 거는 페랭이는 여기서 무테 강 사당 췌꼬.{밀짚모자는 여기서 안 췌습니다. 보릿대로 하면 거 물러가지고 그것은 밀짚모자는 여기서 물에 가서 사다가 췌고.}

10314 @1 무테서는 페랭이를 저기 짜난텐 허는데 어르드리.{물에서는 밀짚모자를 저기 췌었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10314 #1 예. ** 가튼 걸로 짜며는 우린 여기서 사당 췌꼬. 여긴 그런 거 안 나니까. 보리 찌브로 헌 건 비 한 번 마지민 흘탁케 불곡 이 저 세기 거머 불고.{예. ** 같은 것으로 짜면 우리는 여기서 사다가 췌고. 여기는 그런 거 안 나니까. 보릿대로 한 것은 비 한 번 맞으면 늘어져 버리고 이 저 색이 거매 버리고.}

10314 @1 그러며는.{그러면.}

10314 @2 계난 통시 지슨 안 쥐날쭈과?(그러니까 돼지우리에 갓은 안 찼었습니까?)

10314 #1 예?(예?)

10314 @2 보리낭으로.{보릿대로.}

10314 @1 보린낭으로.{보릿대로.}

10314 @2 통시에 진.{돼지우리에 갓.}

10314 @1 돌통에.{돼지우리에.}

10314 #1 아 그거야 비와 나민 주곡. 경해야 걸름웨니까.{아 그거야 비와 나면 주고. 그렇게 해야 거름되니까.}

10314 @1 예. 건또 보리낭으로?(예. 그것도 보릿대로?)

10314 #1 예. 보리낭으로. 순전 돌통에 드러가는 건 보리짚.{예. 보릿대로. 순전히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것은 보릿대.}

10314 #2 도새기 질민 물 굴르민 덤박덤박케가민 그레 주곡 그레 주곡.{돼지(우리) 질민 물 고이면 덤병덤병해가면 그리로 주고 그리로 주고.}

10314 @1 마당에 깔거나 이러지는 안넌마씨? 여기는.{마당에 깔거나 이러지는 아니했습니까? 여기는.}

10314 #1 거 엔나레는 나미 지비 이러케 드러가다 보면 보리낭도 까라나서마썸. 땅이 흐기니까 질퍽질퍽커며는 깔기도 허고. 또 그 집 드러가젠 허며는 가생이로 이제 팡똥 놔그네 그 돌로 발브명 비올 때는 드러가날꼬. 보리짚또 그러케 마니는 안 까라던 거 가*.{그 옛날에는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보릿대도 깔았었습니다. 땅이 흙이니까 질퍽질퍽하면 깔기도 하고. 또 그 집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자리로 이제 디딤돌 놓아서 그 돌로 밟으면서 비올 때는 들어갔었고. 보릿대도 그렇게 많이는 안 깔았던 것 같*}.

10314 @2 아 계난 거저글 헐썰꾸나예.{아 그러니까 거적을 했었군요.}

10314 #1 예. 거적 텐드랑으네 비 올 때는 창무네 천꼬.{예. 거적 만들어서 비 올 때는 창문에 쳤고.}

10314 @2 거 우리 동네는 지지기라고 허는 거거든.{거 우리 동네는 지직이라고 하는 거거든.}

10314 @1 지직?(지직?)

10314 @2 대 해가지고예.{대해가지고요.}

10314 @1 근데 여기는 보린낭으레 해서 거적행은네예 그 정제에 까랑으네 밤 먹기도 하고 마당에 까라서 마당에서 먹기도 하고예.{그런데 여기는 보릿대로 해서 거적해서요 그 부엌에 깔아서 밥 먹기도 하고 마당에 까라서 먹기도 하고요.}

10314 #1 정제는 *** 보리짚 그냥 날 개로 영 폐왕 까랑 머건꼬. 이 거저근 주로 거 거적 또 만드는 게 거 심들기 때무네 건또 줄 여러 줄 낳으네 그건또 일부러 짜젠 허민 건또 시가니 걸리고 허니까 주로 비올 때 저 이 창문 아니우파게? 옛날은. 걸문 얻꼬 초가지비민 그거 허영 창무네 비마기 비마기 헐꼬. 또 여르멘 그거 마당에 깻랑 아장 놀기도 줍도 자고 그레.{부엌은 *** 보릿대 그냥 날 개로 이렇게 펴서 깔아서 먹었고. 이 거적은 주로 거 거적도 만드는 것이 거 힘들기 때문에 그것도 줄 여러 줄 놓아서 그것도 일부러 짜려고 하면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주로 비올 때 저 이 창문 아닙니까? 옛날은. 걸문 없고 초가지비이면 그거 해서 창문에 비막이 비막이 했고. 또 여름에는 그거 마당에 깔아서 앉아서 놀기도 줍도 자고 그리로.}

10314 @1 삼촌도 거적 짜봐마씨?{삼촌도 거적 짜봤습니까?}

10314 #1 거적 안 짜 받쭈다.{거적 안 짜 보았습니다.}

10314 @1 건 안 짜보고예?{그것은 안 짜보고요?}

10314 #2 짬 기훤가 서게.{짬 기훤가 있는가.}

10315 @1 그러면네 이 우영에 농사 크게 안 지지 안 해도 고치도 가라보고 고치는 어떤 시그로 저기 가라마씨?{그러면요 이 터알에 농사 크게 안 짓지 안 해도 고추도 갈아보고 고추는 어떤 식으로 저기 가나요?}

10315 #2 고치 씨 뿌렁 쪼끔씩 까랑.{고추 씨 뿌려서 조금씩 갈아서.}

10315 #1 그 고치 건또 굴갱이로.{그 고추 그것도 호미로.}

10315 @1 예.{예.}

10315 #1 이녁 우영에 바람 으지에다가 쪼끔. 그자 우영 전체 가는 건또 아니고 한 고지 정도. 이러케 굴갱이로 팡으네 씨 툅툅 놉그네 그거 허영으네.{이녁 터알에 바람 의지에다가 조금. 그저 터알 전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이랑 정도. 이렇게 호미로 파서 씨 툅툅 넣어서 그거 해서.}

10315 @1 허면 양너른 충분하자나예? 여르메 땅으네.{하면 양념은 충분하잖아요? 여름에 따서.}

10315 #1 저이 누무레 허며는 그때도 저이 가는 거시 업끼 때무네 건또 그때도 뻥살찌이. 조근 방에트게 낵으네 뻥상 그거 가루 내영으네 배추에 무청 저련땅으네 김치 멘드랑 먹고. 게난 벌건 고춧가루가 이만썩 넘썩넘썩커지.{저이 나물에 하면 그때도 저이 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것도 그때도 뻥았지. 작은 방아확에 넣어서 뻥아서 그거 가루 내서 배추에 무쳐서 저렸다가 김치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벌건 고춧가루가 이만썩 넓적넓적하지.}

10315 #2 거시 마싹쭈다.{것이 맛있습니다.}

10315 @1 예.{예.} 웃음.

10315 @1 그거 놀 걸로 해간꼬 해영예. 여기 부레기. 부레기도 옛날부터 싱겨난쭈과?{그거 날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요. 여기 옥수수. 옥수수도 옛날부터 심었었습니까?}

10315 #2 대죽부레기.{옥수수.}

10315 @1 예예.{예예.}

10315 #1 아 대죽부레기도예. 옛날부터.{아 옥수수도요. 옛날부터.}

10315 @1 으 그거는 어.{아 그것은 아.}

10315 #1 그건또 역시 뭐 수수 어 대죽부레기 그 씨 해영 놉될따가 어 그 봄 나민 거.{그것도 역시 뭐 수수 아 옥수수 그 씨 해서 놉두었다가 아 그 봄 되면 거.}

10315 #2 하나씩 움겨 싱경.{하나씩 움겨 심어서.}

10315 #1 그거 그거 역시 저 굴갱이로 팡으네 씨 하나씩 낵으네. 뭐 크게는 아니.{그거 그거 역시 저 호미로 파서 씨 하나씩 넣어서. 뭐 크게는 아니.}

10315 #2 가랑 주겨불민 몬 먹꼭 바람 안 불며는 아이덜.{갈아서 죽어버리면 못 먹고 바람 안 불면 아이들.}

10315 #1 위낙 그 바람이 그 잘 타기 때무네 이 아페도 일쭈마는 저거 그래도 태풍이 늘게 부러주니까 게도 만 받찌. 경 아너민 미를 바람 부러버리면 저거 꺼꺼져버리고 자빠져불며는 아리 안 생겨마씨.{위낙 그 바람이 그 잘 타기 때문에 이 앞에도 있지만 저거 그래도 태풍이 늦게 불어주니까 그래도 맛 봤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바람 불어버리면 저거 꺾어져버리고 자빠져버리면 알이 아니 생깁니다.}

10315 @1 우리는 채수 조아갸꼬 먹꼬.{우리는 채수 좋아 가지고 먹고.}

10315 #1 여기는 바람 때무네 그런 거는 큰 농사 아녀. 그냥 한 고지 정도.{여기는 바람 때문에 그런 거는 큰 농사 았아. 그냥 한 이랑 정도.}

10315 @2 사탕대죽또 해 봄띠가?{사탕수수도 해 봤습니까?}

10315 #1 예. 사탕대죽또 허영으네 허며른 우리 어릴 때 허영으네 그거 나미 우영에 드러 강으네 저.{예. 사탕수수도 해서 하면 우리 어릴 때 해서 그것 남의 터알에 들어가서 저.}

10315 @1 익찌도 아늘 때.{익지도 았을 때.}

10315 #1 어 파당으네 저기 개까시 썬썬에 강으네 수명덜 그거 영 꺼꺼으네 씨버 먹꼭 허던 생각또 나고.{아 파다가 저기 바닷가 저쪽에 가서 숨어서들 그거 이렇게 꺾어서 썬어 먹고 하던 생각도 나고.}

10315 @1 여기도 담배도 싱거날쑈과?{여기도 담배도 심었었습니까?}

10315 #1 예. 옛날덜 담배도 ** 담배도 그 저 이 봉초.{예. 옛날들 담배도 ** 담배도 그 저 이 봉초.}

10315 #2 담배 싱거날쑈나. 난 몰란.{담배 심었었구나. 나는 몰랐어.}

10315 #1 어 담배 하르방덜 다 싱거날쑈. 저 담 으지에 허영으네 여기도 바람 세니까.{아 담배 할아버지들 다 심었었지. 저 담 의지에 해서 여기도 바람 세니까.}

10315 @1 예.{예.}

10315 #1 뭐 이 고추가치 담 으지에다 이제 거 씨 어떠케 씨로 시먼는지 어떠케 시먼는지 하여튼 씨로 시머실 테지. 그 허영으네 담배 헤영으네 허며른 이파리가 넓꼬.{뭐 이 고추같이 담 의지에다 이제 거 씨 어떻게 씨로 심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하여튼 씨로 심었을 테지. 그 해서 담배 해서 하면 이파리가 넓고.}

10315 #2 예. 상추 모양으로 생긴 거.{예. 상추 모양으로 생긴 것.}

10315 #1 크지. 게며른 그거 말렸다가 새끼 꼬아 가지고 그 새끼에다 하나씩 하나씩 케가지고 이러케 쭉 커게 허영 그느레서 말렸 그거 허영으네 칼로 일리리 썬렁 담배 그 봉초 멘든 거를 봐날쑈다게.{크지. 그러면 그거 말렸다가 새끼 꼬아 가지고 그 새끼에다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게 해서 그늘에서 말려서 그거 해서 칼로 일일이 썬어서 담배 그 봉초 만든 것을 봤었습니다.}

10315 @1 그러며른 그 봉초는 봉초는 어떤 시그로 만든 게 봉초우파?{그러면 그 봉초는 봉초는 어떤 식으로 만든 것이 봉초니까?}

10315 #1 그 담배 이플 말려가지고 칼로 썬 게 그게 봉초.{그 담배 잎을 말려가지고 칼로 썬 것이 그것이 봉초.}

10315 @2 켄년. 켄년.{켄련. 켄련.}

10315 @1 게문 그거는 어떤 시그로 헤영으네 피와마씨?{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피우나요?}

10315 #1 그 여기 저 학생덜 그 공책 쓰다 나른 거나 썬던 거나.{그 여기 저 학생들 그 공책 쓰다 남은 것이나 썬던 것이나.}

10315 @2 신문지.{신문지.}

10315 #1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 그땐 뭐 신문지도 업썬꼬 허니까 그 주로 공책. 책 가뜰 거 이제.{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 그때는 뭐 신문지도 없었고 하니까 그 주로 공책. 책 같은 거 이제.}

10315 @1 지나 가분 거?{지나가 버린 것?}

10315 #1 예. 지나간 책들 이제 버린 거. 아이덜 쓰당 버린 건덜. 그런 거 해당으네 찢라 가지고 담배 끼리만큼 해가지고 뭐 기리도 뭐 하니 업써찌 뭐. 큰 거 자근 거 뭐. 자기 피울 만큼 재어가지고 거 내중에는 치프로 불량 피곡. 저 하라버지덜 피우는 걸 받찌.{예. 지나간 책들 이제 버린 것. 아이들 쓰다가 버린 것들. 그런 것 해다가 잘라가지고 담배 길이만큼 해가지고 뭐 길어도 뭐 한이 없었지 뭐. 큰 거 작은 거 뭐. 자기 피울 만큼씩 재가지고 거 나중에는 침으로 발라서 피우고. 저 할아버지들 피우는 것을 봤지.}

10315 @2 저도 드런는데 요 뺨는 디를 이러케 잘 눌러야 돼예. 경 아녀민 담뱃꾸르가 썬 채 기냥 드러간다고 하더라고. 영 놀렁.{저도 들었는데 요 뺨는 데를 이렇게 잘 눌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담뱃가루가 썬 채 그냥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눌러서.}

10315 #1 건 내중에는 그 담배 만드는 기계 나와가지고. 나무로 이러케 저 이 책바침 만큼 거보단 약간 조글 꺼라. 그거 해가지고 담배입 나 찢랑 아주 잘게 찢랑으네 거 저 신문지 딱 노퍽 해영으네 거기다 영영 낱 므랑 담배 멘드는 걸 어릴 때 받습니다.{그것은 나중에는 그 담배 마는 기계 나와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저 이 책바침 만큼 거보다는 약간 작을 거야. 그거 해가지고 담배입 나 잘라서 아주 잘게 잘라서 거 저 신문지 딱 넣고 해서 거기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말아서 담배 만드는 것을 어릴 때 받습니다.}

10315 @1 그리고 여기 지실도 낱싹찌예?{그리고 여기 감자도 넣었었지요?}

10315 #1 지슬도 여기 역시 겉또 지슬도 마찬가지로.{감자도 여기 역시 것도 감자도 마찬가지로.}

10315 @2 으 굴쟁이 농사?{아 호미 농사?}

10315 #1 예. 지슬 우리도 쪼끔 가라난쑤다마는 찌 서쪽 바떼 거 받또 소. 우린 소 기르니까. 소로 강으네 자 장기로 허영 가라가지고 잘허문 서너 고지. 한 이십 메타 쪼 뛴는 고지 한 서너 고지 이러케 해가지고 임시 그자 멍는 쩡도.{예. 감자 우리도 조금 갈았었습니다만 저 서쪽 밭에 거 밭도 소. 우리는 소 길렀으니까. 소로 가서 자 쟁기로 해서 갈아 가지고 잘 하면 서너 이랑. 한 이십 미터 쪼 되는 이랑 한 서너 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 그저 먹는 정도.}

10316 @1 그 다으메 가파도에는 춤뵈를 참 하영 가랴짜나예? 엔날부터 유명하자나예?{그다음에 가파도에는 참뵈를 참 많이 갈았었잖아요?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10316 #1 예. 춤뵈.{예. 참외.}

10316 @1 예. 그 춤메 농사 허는 거를 한 번 ㄱ라 쥐 볼써?{예. 그 참외 농사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10316 #1 춤뵈도 어 보리 재배 끝나며는 시머가지고 어 그건또 이 바떼 그게 받 타나면 한 덴 말 지기 서너 말 지기 그런 정도로 이제 가는데.{참외도 아 보리 재배 끝나면 심어 가지고 아 그것도 이 밭에 그게 밭 하나면 한 땃 말지기 서너 말 지기 그런 정도로 이제 가는데.}

10316 #2 춤메 저너브로 햐쑤게. 저너브로.{참외 전업으로 했지. 전업으로.}

10316 #1 안 가는 사람덜토 이션쑤다. 게난 베에도 얻꼬 나피 베에 부터 가지고 푼라야 얼마 돼지 안꼬 허니까 그 임시 머글 쩡도 허는 사름도 일꼬. 그거.{안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디다. 그러니까 베에도 없고 남의 베에 붙어 가지고 팔아야 얼마 되지 앓고 하니까 그 임시 먹을 정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10316 @1 삼춘는 춤메를 싱거판마써?{삼춘은 참외를 심어봤습디까?}

10316 #1 예. 싱건 저 나 풍선. 연나렌 풍선도 가지고 일썬쑤다게. 게나네.{예. 심어서 저

나 풍선. 옛날에는 풍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316 #1 풍서네 허며는 열 까마니 미만밖에 못 썰러마씨. 게며는 혼 사라메 혼두 가마니 한 가마니씩 커영 모슬포 강 팔면 한 가마니에 이십 원도 그뻔 도느로 시비 원도 반쪽 삼시 원도 반꼬 허여그네 뭐 고기도 사당 먹꼭.(풍선에 하면 열 가마니 미만밖에 못 싣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한두 가마니 한 가마니씩 해서 모슬포 가서 팔면 한 가마니에 이십 원도 그때 돈으로 이십 원도 받고 삼십 원도 받고 해서 뭐 고기도 사다 먹고.)

10316 @1 그때라며는 이십 원 혼 가마니에 이십 원 할 정도라면 먼 년도 정도우파? 그게.(그때라면 이십 원 한 가마니에 이십 원 할 정도라면 몇 년도 정돕니까? 그것이.)

10316 #1 그때는 처닐 짜리열턴가. 처 닐짜리열쓸 꺼야. 어 육십년대.(그대는 천 원짜리였턴가. 천 원짜리였을 거야. 아 아 육십년대.)

10316 #2 우리가 폴레 다녀시난.(우리가 팔러 다녔으니까.)

10316 #1 육십년대 초니까 아 처 닐 짜릴 꺼야. 그때 삼처 닐 이처 닐. 한 가마니.(육십년대 초니까 아 천 원짜릴 거야. 그때 삼천 원 이천 원. 한 가마니.)

10316 #2 짝 가메에.(짚 가마니에.)

10316 @1 으.(으.)

10316 #1 짝까마니로 해가지고.(짚 가마니로 해가지고.)

10316 #2 아이고 풍선. 아이고 더러와.(아이고 풍선. 아이고 더러워.)

10316 @1 게른예. 그 차메 농사를 씨를 시르면 또 움겨 시뤄야 댜는 겨우파? 아니면 그냥 힘니까?(그러면요. 그 참외 농사를 씨를 심으면 또 움겨 심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힘니까?)

10316 #1 아 그대로.(아 그대로.)

10316 #2 그냥.(그냥.)

10316 @1 예. 그냥하고. 그 참뵤 농사하면 그 다음 미테도 보리낭도 깰라줘야지예? 그런 건 아널쭈가?(예. 그냥하고. 그 참외 농사하면 그 다음 밑에도 보릿대도 깔아줘야지요?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10316 #1 그런 거 아녀고 이 저.(그런 것 안 하고 이 저.)

10316 @1 여기는 그냥 씨만 싱경 내불며는.(여기는 그냥 씨만 심어서 내버리면.)

10316 #1 씨만 싱그곡 검질만 메영 내불며는.(씨만 심고 김만 매서 내버리면.)

10316 #2 메영 파종허면 그걸 영 더러 캐영.(매서 파종하면 그것을 이렇게 더러 캐서.)

10316 #1 거* 일이개워리면 다 저 끝나는 거니까.(거* 일이개월이면 다 저 끝나는 것이니까.)

10316 #2 채고 만씨.(최고 맛있어.)

10316 @1 그 다음 우에 이러케 꺼꺼서 우 막거나 이러진 안 해마씨?(그 다음 위에 이렇게 꺾어서 위 막거나 이러지는 안 하나요?)

10316 #2 무사?(왜?)

10316 #1 아 저 순도 순도 꺼거난쭈다게. 길게 빼더가며는 순 찢라주며는.(아 저 순도 순도 꺾었었습니다. 길게 뺏어가면 순 잘라주면.)

10316 #2 맨날 강.(만날 가서.)

10316 @1 그 순 찢르는 거는 어느 정도를 찢라마씨? 시기를.(그 순 자르는 것은 어느 정도를 잘라요? 시기를.)

10316 #1 시.(시.)

10316 @1 아까 매날 강으네.{아까 매날 가서.}

10316 #1 거 수시로.{거 수시로.}

10316 @1 예.{예.}

10316 #1 길게 빼더가며는 이러케 보면서 잘라주고.{길게 뺏어가면 이렇게 보면서 잘라 주고.}

10316 @1 그 순 잘른 걸 여기선 뭐렌 그라마씨?(그 순 자른 것을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0316 #1 그냥 순. 순 꺼쥔. 순 꺼끄레 간다.{그냥 순. 순 꺾어서. 순 꺾으러 간다.}

10316 @1 아 우 막따 이런 말 안 허고예? 순 꺼끄레 가는 거. 그 순 꺾는 이유는 뭐우 파?(아 위 막따 이런 말 안 하고요? 순 꺾으러 가는 거. 그 순 꺾는 이유는 뭡니까?)

10316 #1 그거 순.{그거 순.}

10316 #2 열매 잘 키우레.{열매 잘 키우라고.}

10316 #1 에 열매가 열리며는 그 수니 길게 나가가면 양부니 그쪼그로만 가니까 에 참매 쪼그로 알맹이 쪼그로 이제 양부니 마니 가라고 수를 잘라 주는 걸로 알고 일꼬.{아 열매가 열리면 그 순이 길게 나가면 양분이 그쪽으로만 가니까 아 참외 쪽으로 가니까 아 참외 쪽으로 알맹이 쪽으로 이제 양분이 많이 가라고 순을 잘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316 @1 경 행 하면 여기에 그 가과도에서 싱겔뎌 춤메가 무슨 품종인 거는 아라지쿠 과? 어떤 품종이렌 허거나 뭘.{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에 그 가과도에서 심었던 참외가 무슨 품종인 것은 알겠습니까? 어떤 품종이라고 하거나 뭘.}

10316 #1 개구리춤메 일썤꼬 금마까 일썤꼬 뭘 여러 가지 일썤는데.{개구리참외 있었고 노랑참외 있었고 뭘 여러 가지 있었는데.}

10316 @1 개구리춤메는 어떤 거마씨?(개구리참외는 어떤 겁니까?)

10316 #1 그 개구리 무늬 모양으로 이러케 줄마다 파란 거시 이러케 열 지영.{그 개구리 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줄마다 파란 것이 이렇게 열 지어서.}

10316 @1 예.{예.}

10316 #1 아 이 거이 수박.{아 이 거의 수박.}

10316 #2 이만큼씩.{이만큼씩.}

10316 @1 커예?(크다고요?)

10316 #1 수박 무늬 거이 비슬뎌 건디 그거 그걸 개구리참매. 그거 정말 말뎌썤는데 요즘 저 개구리참매 저 육썤서 나는 거 이러케 사단 머거뺏찌마는 가과도서 날 때 그런 말보단 아녀. 여긴 그때는 그 몫 깎라서 그 농살 지엿끼 때무네 상당히 토지가 비옥해. ** 음식 마시 조알씨.{수박 무늬 거의 비슷한 것인데 그거 그것을 개구리참외. 그거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 저 개구리참외 저 육지서 나오는 거 이렇게 사다가 먹어봤지만 가과도서 나올 때 그런 맛보다는 못해. 여기는 그때는 그 모자반 깔아서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가 비옥했어. ** 음식 맛이 좋았어.}

10316 @2 땡이 거니까?(땡이 거니까?)

10316 #1 보 에 보리바블 해도 보리밥또 찰지고 마신텐.{보 아 보리밥을 해도 보리밥도 찰지고 맛있어.}

10316 @1 그러면 아까 금마께는 어떤 거우파?(그러면 아까 노랑참외는 어떤 겁니까?)

10316 #1 금마께는 노란 거. 노란 건데 건 얼마 크지도 아느면서정말 마신텐. 거 금마까. {노랑참외는 노란 거. 노란 것인데 그것은 얼마 크지도 았으면서정말 맛있어. 거 노랑참외.}

10316 @1 금마까?{노랑참외.}

10316 #1 예. 건 나머진 또 무슨 무슨 웨 무슨 웨 뭐 일킨 인는데.{예. 그것은 나머지는 또 무슨 외 무슨 외 뭐 있긴 있는데.}

10316 #2 다 이저부런.{다 잊어버렸어.}

10316 #1 이름 저.{이름 저.}

10316 @1 이저불고예?{잊어버리고요?}

10316 @1 그러며는 그 춤메를 다른 데는 우리가 이제 과일처럼만 먹짜나예? 여기는 아무래도 산지니까 그 춤메 가져간꼬 다른 음식또 해 머견쭈과? 춤메로.{그러면 그 참외를 다른 데는 우리가 이제 과일처럼만 먹잖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산지니까 그 참외 가져가지고 다른 음식도 해 먹었습니까? 참외로.}

10316 #1 춤메로 뭐?{참외로 뭐?}

10316 @1 뭐 지 다마 먹거나 이런 거.{뭐 장아찌 담가 먹거나 이런 거.}

10316 #1 저 이 지 담는 거슨 브르미 부렁으네 이제 막뿔. 완전니 저 이 브르미 췌게 부르도.{저 이 장아찌 담그는 것은 바람이 불어서 이제 막물. 완전히 저 이 바람이 췌게 불어도.}

10316 #2 팔지 몰털 정도 웨야.{팔지 못할 정도 되어야.}

10316 #1 얼마큼 주리 지나며는 주리 노라케 변해가지고.{얼만큼 줄기가 지나면 줄기가 노랑게 변해가지고.}

10316 @2 유으렁.{이올어서.}

10316 #1 말물 아 내중 말물이라 해가지고 그 내중에는 그거 다 처리하는데 아주 크지 몬턴 존존헌 건털 그런 건털 해다가 에 소그메 저렁 지 다망 먹기도 헐쭈다.{말물 아 나중 막물이라 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그거 다 처리하는데 아주 크지 못한 잔잔한 것들 그런 것들 해다가 아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 담가서 먹기도 했습니다.}

10316 @1 으음. 그 지 이르른 뭇렌 ㄹ라마씨?{으음. 그 장아찌 이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0316 #2 웨지.{외장아찌.}

10316 #1 웨지.{외장아찌.}

10316 @1 웨지. 게니까 참뽕렌 안 행 여기는 웨 가랴텐 헐쭈과? 흑씨.{외장아찌. 그러니까 참외라고 안 해서 여기는 외 같았다고 했습니까? 흑시.}

10316 #1 웨.{외.}

10316 @1 웨 논 거라예?{외 놓은 거지요?}

10316 #2 춤메.{참외.}

10317 @1 춤메. 웨. 그 다으멘예 이 가파도에 왜냐하면 아까 검질들도 하영 메지 아녜쭈과? 게난 가파도에 나는 풀 이름들 흑씨 아라지는 대로 흐썸 ㄹ라췌뽕씨?{참외. 외. 그 다음 앤요 이 가파도에 왜냐하면 아까 김들도 많이 매지 았았습니까? 그러니까 가파도에 나는 풀 이름들 흑시 알아지는 대로 조금 말씀해 췌보십시오?}

10317 #1 주로 받떠 나는 거는 보리왈떠 나는 거는 대오리.{주로 밭에 나는 것은 보리밭에 나는 것은 귀리.}

10317 #2 절환지.{바랭이.}

10317 #1 절환지.{바랭이.}

10317 #2 췌비눔.{쇠비름.}

10317 #1 췌비눔. 예 또.{쇠비름. 아 또.}

10317 @2 복쿨.{깨풀.}

10317 #1 복쿨.{깨풀.}

10317 #2 복쿨은 콩밭에.{깨풀은 콩밭에.}

10317 #1 게메게. 하여튼 나는 풀들. 밭에 나는 풀 이름들 다 ㄴ르렌 허는 거니까.{그러게. 하여튼 나는 풀들. 밭에 나는 풀 이름을 다 말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10317 @2 췌터럭.{김의털.}

10317 #2 저 췌비눔.{저 쇠비름.}

10317 #1 게메게 췌비눔은 아까 헐꼬.{그러게 쇠비름은 아까 헐고.}

10317 #2 춤비눔.{참비름.}

10317 #1 춤비눔도 일췌. 춤비눔.{참비름도 있어. 참비름.}

10317 @1 콩밭에 나는 거는 뭐 일췌과?{콩밭에 나는 것은 뭐 있습니까?}

10317 #2 콩밭엔.{콩밭에는.}

10317 #1 복쿨허고.{깨풀하고.}

10317 #2 대강 복쿨 남니다게.{대강 깨풀 남니다.}

10317 @1 복풀.{깨풀.}

10317 #2 절라니허고 복쿨. 여르메.{바랭이하고 깨풀. 여름에.}

10317 #1 절란지.{바랭이.}

10317 @1 으음.{으음.}

10317 #2 이제는 야글 주는 따무네 안 나.{이제는 약을 주는 때문에 안 나.}

10317 @1 그 다으메는 그 막 엉경퀴 달른 건데 그런 검질도 이서예?{그 다음에는 그 막 엉경퀴 달른 것인데 그런 검도 있지요?}

10317 #2 건 췌절란지. 엉키는 거 췌절란지.{그것은 췌절란지. 엉키는 거 췌절란지.}

10317 #1 절라니. 절라니.{바랭이. 바랭이.}

10317 @1 절라니는 절라니라도.{바랭이는 바랭이어도.}

10317 #2 췌절란지.{췌절란지.}

10317 @1 췌절란지렌 험쭈다.{췌절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10317 #2 췌절란지. 아이고 질겨.{췌절란지. 아이고 질겨.}

10317 @1 그 다으메 그 저기 검질도 췌 피는 검질들도 이실 꺼 아니라마췌?{그 다음에 그 저기 검도 췌 피는 검들도 있을 것 아닌가요?}

10317 #1 아 췌비름가튼 거.{아 쇠비름 같은 거.}

10317 @1 예.{예.}

10317 #2 췌스 췌비눔베끼 안 피어.{꽃은 쇠비름밖에 안 피어.}

10317 @1 췌비눔벤끼 안 피어. 예예.{쇠비름밖에 안 피어. 예예.}

10317 @1 그 그러면 밭에 나는 거 아니라도 이런 질레 가파도에 나는 풀 이름들 아라지는 거 ㄴ라췌 뽈췌?{아 그러면 밭에 나는 거 아니어도 이런 길에 가파도에 나는 풀 이름들 알아지는 것 말씀해 췌보십시오?}

10317 #2 거 요디 난 건 수리대. 요디 요디 여기 막 크는 거.{거 요기 난 것은 구릿대. 요기 요기 여기 막 크는 거.}

10317 #1 어 그거 수리대.{아 그것 구릿대.}

10317 #2 그 이제 그 약초엔 헐 건 무슨 건싼디사.{그 이제 그 약초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인지야.}

10317 #1 수리대. 쭉. 뭐 별로 잉모초 가튼 거. 또 베체기.{구릿대. 쭉. 뭐 별로 익모초 같은 거. 또 질경이.}

10317 @1 예.{예.}

10317 #2 인각채도 잘 나. 받때. 인각채 인각채.{인각채도 잘 나. 밭에. 인각채. 인각채.}

10317 #1 인각채도 나고. 선인장.{인각채도 나고 선인장.}

10317 @1 으음. 잉각채는 어떤 겨우파?(으음. 인각채는 어떤 겁니까?)

10317 #2 영 낭으네 이디 이파리 영 달렁 인각채. 저디 우영에도 이신디.{이렇게 나서 여기 이파리 이렇게 달려서 인각채. 저기 터알에도 있는데.}

10317 @1 아 여기 우영에 이서마씨? 어 인각채. 요버네 삼춘 그 뭐 모메 조텐 허멍 트더와난 거?(아 여기 터알에 있어요? 어 인각채. 요번에 삼춘 그 뭐 몸에 좋다고 하면서 뜯어왔던 거?)

10317 #2 비단풀.{비단풀.}

10317 #1 비단풀.{비단풀.}

10317 @1 예.{예.}

10317 #1 예. 그건또 마니 나고.{예. 그것도 많이 나고.}

10317 #2 하고초. 하고초.{하고초(꿀풀). 하고초.}

10317 @1 비다푸리 아 그때 하고초예?(비단풀이 아 그때 하고초요?)

10317 #1 예. 비단풀도 마니 나고.{예. 비단풀도 많이 나고.}

10317 @1 또 생각나는 거.{또 생각나는 거.}

10317 #1 주로 두두게 나는 건 이 새.{주로 두둑에 나는 것은 이 띠.}

10317 @1 예.{예.}

10317 #1 새가 그건 질기고 약또 안 타고. 거 받뚜두게는 그거 새가 마니 나지. 쭉. 쭉커고 뭐 그냥 바테 나는 건 그 정도.{띠가 그것은 질기고 약도 안 타고. 거 받뚜둑에는 그거 띠가 많이 나지. 쭉. 쭉하고 뭐 그냥 밭에 나는 것은 그 정도.}

10317 @1 수리대 하고.{구릿대 하고.}

10317 #1 수리대 가튼 거는 이 해변가로.{구릿대 같은 것은 이 해변가로.}

10317 @1 예.{예.}

10317 #1 해변가로 나고.{해변가로 나고.}

10317 @1 그 해변가로 해간꼬 방풍 가튼 건또.{그 해변가로 해가지고 갯기름나물 같은 것도.}

10317 #1 방풍. 해변가로는 방풍 가튼 건또 마니 나고.{갯기름나물. 해변가로는 갯기름나물 같은 것도 많이 나고.}

10317 @1 음. 그건또 이 동네 싸름들 머거신가마씨?(음. 그것도 이 동네 사람들 먹었을 까요?)

10317 #2 먹긴 험니다마는.{먹기는 합니다만.}

10317 #1 먹기도 험니다마는.{먹기도 합니다만.}

10317 #2 육찌 싸름덜 왕 다 캐.{육지 사람들 와서 다 캐.}

10317 #1 웨지 싸름더리 왕 마니 캐어 가지마씨.{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캐 가지요.}

10317 @1 가파돈 아니고예. 여기까지 해서 쉬겔습니다.{가파도는 아니고요. 여기까지 해서 쉬겠습니다.}

1.9. 특수 지역 생활

1.9.2. (해안 지역에서) 고기잡이

10904 @2 예. 오느른 그 고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쫓 물러보쿠다. 게서 고기 종류가 어떤 거시 인는지 어떠케 잡는지. 그 다음 배의 종류. 또 그물로 자브며는 구무레 종류예. 그런 건틀.{예. 오늘은 그 고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쫓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잡는지. 그 다음 배의 종류. 또 그물로 잡으면 구물의 종류요. 그런 것들.}

10904 @2 또 마지막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바라메 이름도 쫓 달를 꺼라예? 그걸 조사를 하고 십쭈다.{또 마지막으로 그 방향에 따라서 바람의 이름도 쫓 다를 거지요? 그것을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10904 @1 이 가파도에서예 잡피는 건튼 나는 건튼예. 여기에서 볼 쭈 인는 퀘기 일름드 른 어떤 거 이신고예? 퀘기 종류들 쭈 ㄴ라 쥐보써?{이 가파도에서요 잡히는 것이든 나는 것이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고기 이름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고기 종류들 쭈 말씀해 줘보십시오?}

10904 #1 자리.{자리돔.}

10904 #1 멸치. 멜.{멸치. 멸치.}

10904 @1 예.{예.}

10904 #1 또 우럭.{또 우럭.}

10904 #1 구를찌.{벵에돔.}

10904 #1 돔.{돔.}

10904 @1 예.{예.}

10904 #1 갈치.{갈치.}

10904 #1 이 가에로는 저 이 어랭이.{이 가로는 저 이 용치놀래기.}

10904 @1 으.{으.}

10904 #1 고맹이.{어랭놀래기.}}

10904 #1 또 갈치 ㄴ쁜 건또 마니 나고. 주로 그런 거.{또 갈치 같은 것도 많이 나고. 주로 그런 거.}

10904 @1 이땅이라도 퀘기 종류 생각나면 그 어떤 거 이신지 ㄴ라줘예?{이따가라도 고기 종류 생각나면 그 어떤 거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10904 @1 그러면 아까는 이제 퀘기 종류 쭈 ㄴ랄짜나예. 그러면 계절별로 계절 이월부터 시비월까지 해서 바닷에 뭐 그물로 잡거나 나끄거나 배로 강 행오거나 허는예 퀘기 종류를 다시 한번 튼내 봄써? 이월부터 시작캥으네.{그러면 아까는 이제 고기 종류 쭈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계절별로 계절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해서 바다에 뭐 그물로 잡거나 낚거나 배로 가서 해오거나 하는요 고기 종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월부터 시작해서.}

10904 #1 월별로?{월별로.}

10904 @1 예.{예.}

10904 #1 예 지금 이제는 저 이 정월.{아 지금 이제는 저 이 정월.}

10904 @2 아니면 계절로 해도 조쭈다. 봄 념름 가을 겨울로.{아니면 계절로 해도 좋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10904 #1 대개 보메는 이 저인망으로.{대개 봄에는 이 저인망으로.}

10904 @1 예.{예.}

10904 #1 저 이 구루찌.{벙에돔.}

10904 #1 돔.{돔.}

10904 #1 에 우럭.{아 우럭.}

10904 #1 논쟁이.{아홉동가리.}

10904 #1 또 엔나렌 북빠리가 마니 난썬는데 북빠리 씨가 이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해간또 잘 안 잡히고.{또 옛날에는 북바리가 많이 낚았는데 북바리 씨가 이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해가지고 잘 안 잡히고.}

10904 #1 능성어. 그거 능성어가 이.{능성어. 그거 능성어가 이.}

10904 @2 다금바리우짜? 그계.{다금바릅니까? 그것이.}

10904 #1 구문쟁이.{능성어.}

10904 @1 아 구문쟁이.{아 능성어.}

10904 #1 구문쟁이 또 다금바리. 에 그런 건떨 이제 주로 잡꼬.{능성어 또 다금바리. 아 그런 것들 이제 주로 잡고.}

10904 #1 여르메는 멜.{여름에는 멸치.}

10904 @1 예.{예.}

10904 #1 멜. 베 이제 불 켜가지고 불 썬으네 혼 이백 축짜리 썬으네 흰허게 허며는 메리 막 우의로 올라와마씨.{멸치. 베 이제 불 켜서 불 켜서 한 이백 축짜리 켜서 흰하게 하면 멸치가 막 위로 올라와요.}

10904 #1 게며는 아 그거 해서 베 만선혈 때는 밤새도록 그러케 해가지고 이제 자받썬꼬.{그러면 아 그거 해서 베 만선할 때는 밤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았었고.}

10904 #1 또 자리돔도 역시 발똥씨느로 헤여가지고 허영으네 저 마라도.{또 자리돔도 역시 발똥선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 마라도.}

10904 @1 예.{예.}

10904 #1 또 가을웨어가며는 가과도 부근에서 이제 바당 스시에서 자방 무테 나강 프라십쭈.{또 가을되어가면 가과도 부근에서 이제 바다 근처에서 잡아서 물에 나가서 팔았습쇼.}

10904 @1 예. 그 다으메 가르레는마씨?{예. 그 다음에 가을에는요?}

10904 #1 가르레는 여름 가르레는 멜.{가을에는 여름 가을에는 멸치.}

10904 @1 예.{예.}

10904 #1 불 썬 멜 자받꼬.{불 켜서 멸치 잡았고.}

10904 #1 갈치.{갈치.}

10904 @1 예.{예.}

10904 #1 풍서느로 해가지고 엔날 풍서느로 할 때가 갈치는 잘 무런쭈다게.{풍선으로 해가지고 옛날 풍선으로 할 때가 갈치는 잘 물었습니다.}

10904 @1 으음.{으음.}

10904 #1 그때는 뭐 가며는 이벙 머리 삼벙 머리씩또 나깁는데 요즈메는 그건또 이젠 불 켜가지고 이제 바메 먼바다에가 드리오는 거 자바버리니까 안네서는 잘 안 무러마씨.{그때는 뭐 가면 이백 마리 삼백 마리씩도 낚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는 불 켜가지고 이제 밤에 먼바다에 들어오는 거 잡아버리니까 안네서는 잘 안 물어요.}

10904 @1 으음. 여기 방어 ㄴ튼 건또 하영 나지 아녀마씨?{으음. 여기 방어 같은 것도 하

영 나지 않습니까?)

10904 #1 방어는 겨우레.겨우레는 방어 마라도 부그네 강 나끄곡. 여기서도 발동선 탕 강 으네 저 이 호로로. 호로 미끼로 허영으네 나끄기도 허고.{방어는 겨울에. 겨울에는 방어 마 라도 부근에 가서 낚고. 여기서도 발동선 타서 가서 저 이 호로로. 호로 미끼로 해서 낚기도 하고.}

10904 @1 호로는 뭐우짜?(호로는 뭘니까?)

10904 #1 호로. 고기 나끄는 미끼마씨. 거 인조.{호로. 고기 낚는 미끼요. 거 인조.}

10904 @1 아아.{아아.}

10904 #1 거 인조.{거 인조.}

10904 @1 아 인조 미끼.{아 인조 미끼.}

10904 #1 인조 미끼.{인조 미끼.}

10904 @1 으 그러면 아까 ㄴ라준 거는 요즘 허는 거자나예. 예저네 삼춘네 아버지가 고 기자비를 할 때.{아 그러면 아까 말해준 거는 요즘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삼춘네 아버지가 고기잡이를 할 때.}

10904 #1 그때.{그때.}

10906 @1 그때는 어떤 방식그로 고기자비드를 해신고마씨?(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고기잡 이를 했을까요?)

10906 #1 그 요수바리 해가지고 자리도물 자받꼬.{그 요수바리 해가지고 자리돔을 잡 았고.}

10906 #1 또 요수바리엔 헌 사름 수바리엔 헌 사라미 이 자리 어망 전부다 아 출려 가지 고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땀마 두 척 해 가지고 잡기 시작켄찌.{또 요수발이라고 한 사람 수발이라고 한 사람이 이 자리돔 어망 전부다 아 차려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리돔을 거루 두 척 해 가지고 잡기 시작했지.}

10906 #1 그때는 가며는 자리 한 말 두 마리 아니라 서므로 혼 섬 두 섬 이러케 해서 그 러케 마니 낚씨.{그때는 가면 자리돔 한 말 두 말이 아니라 섬으로 한 섬 두 섬 이렇게 해 서 그렇게 많이 낚어.}

10906 @1 으음.{으음.}

10906 #1 마니 낭으네 정말 쟈또 담꼬 여기는 엔나레는 팔로가 업쓰니까 저 무테 강으네 좁쌀도 바꾸곡 쓸도 바꾸곡 저녁 때 뉘도록 어둡또록 폰라 가지고 여기 오며는 어두왕 줌 얼마 자지도 못터곡 또 된날 한 서너 시 뉘며는 또 나가야 뉘고. 경허연 자리를 자받꼬.{많 이 나서 정말 첫갈도 담그고 여기는 옛날에는 판로가 없으니까 저 물에 가서 좁쌀도 바꾸고 쌀도 바꾸고 저녁 때 되도록 어둡도록 팔아 가지고 여기 오면 어두워서 잠 얼마 자지도 못 하고 또 뒷날 한 서너 시 되면 또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돔을 잡았고.}

10906 #1 여르메는 그 멜. 그 발전길 둘렁으네 한 이백 축짜리 전기따마 해 가지고 불로 이제 멜 유인해영으네 자바십쥬.{여름에는 그 멀치. 그 발전기 돌려서 한 이백 축짜리 전구 해 가지고 불로 이제 멀치를 유인해서 잡았습쥬.}

10906 @2 건 베로마씨?(그것은 베로요?)

10906 #1 예. 베로.{예. 베로.}

10906 @1 게난 여기는 해수욕장이 연짜나. 모살 업쓰니까 멜 후리거나 이러진 안 해 마씨?(그러니까 여기는 해수욕장이 없잖아. 모래 없으니까 멀치 후리거나 이러지는 안 하나요?)

10906 #1 여기는 그 모슬포 우리 살 찌게는 그 원땀 안에 드러오며는 메를 자받쨌는데 여기 가파도는 그런 게 업써.{여기는 그 모슬포 우리 살 적에는 그 원땀 안에 들어오면 멸치를 잡았었는데 여기 가파도는 그런 것이 없어.}

10906 @1 아아.{아아.}

10906 #1 쪼그만헌 통 안에 어찌다가 멸 드러왕 허게 뒤편는 그거 자바당으네 여러시 그자 국 끄려 머글 정도.{쪼그마한 통 안에 어찌다가 멸치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거 잡아다가 여럿이 그거 국 끓여 먹을 정도.}

10906 @1 게문 여기서는 멸 거리젠 허면 멸 뜨젠 허며는 배로 해간꼬 나강으네 허는 거구나예? 옛날부터예.{그러면 여기서는 멸치 뜨려고 하면 멸치 뜨려고 하면 배로 해가지고 나가서 하는 거군요? 옛날부터요.}

10906 #1 예 예. 옛날부터 멸 배로 나강 자바.{예 예. 옛날부터 멸치 배로 나가서 잡아.}
10905 @1 예예. 그러면예 배를 탕 꿰기자비 갈 때 기구는 어떻 거 어떻 거 출려신고예? 그거는 옛날 풍선 탕 나갈 때 하고 지금 두 개 비교헿으네 잠깐 ㄴ라 줄써?{예예. 그러면요 배를 타서 고기잡이 갈 때 기구는 어떤 것 어떤 것 차렸는가요? 그것은 옛날 풍선 타서 나갈 때 하고 지금 두 개 비교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10905 #1 옛날 풍선 때는 이 어망. 구물로, 구물로 해서 고기 자받꼬. 겨우레는 방어. 저 이 방어 소느로 이제 기계로가 아니고 소느로만 땡겨가지고 방어 나깅쑤다.{옛날 풍선 때는 이 어망. 그물로, 그물로 해서 고기 잡았고. 겨울에는 방어. 저 이 방어 손으로 이제 기계로가 아니고 손으로만 당겨가지고 방어 낚았습니다.}

10905 @1 으음.{으음.}

10905 @2 게난 예를 들면 그거 어르신께서 으음 고기 자브레 바당에 갈 때에 이 지비서 뭐뭐 들렁 잡니깿? 그걸 ㄴ라주시면 뉘 겨우다.{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어르신께서 으음 고기 잡으러 바다에 갈 때에 이 집에서 뭐뭐 들어서 잡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될 겁니다.}

10905 #1 방어 나깅 땡 대구수, 뽕똥, 낚시 뽕똥레 이제 매영으네 예 대구수줄 그건만 가정 가며는 방어 나까시난.{방어 낚을 때는 낚싯줄, 붕돌, 낚시 붕돌에 이제 매서 아 낚싯줄 그것만 가져서 가면 방어 낚았으니까.}

10905 @2 갈치 나깅 때.{갈치 낚을 때.}

10905 #1 갈치는? 어 갈치는 부경도 나끄고 건 부경 나끄는 거는 갈치섬비.{갈치는? 아 갈치는 푸꺼서 낚고 것은 푸꺼서 낚는 거는 갈치섬비.}

10905 #1 이러케 뽕똥 큰 거에다가 활때 이러케 해가지고 양끝때 이제 대구수 한 발 정도 해 가지고 낙씨 매어 가지고 예 갈칠 단 쉼 풍선 단 쉼그네 예 부경. 한 삼사십 매다 이런 수심 든 디 강으네 부경 나까십주. 부경 나끄곡.{이렇게 붕돌 큰 거에다가 활때 이렇게 해 가지고 양끝에 이제 낚싯줄 한 발 정도 해 가지고 낚시 매어 가지고 아 갈치를 닷 내려서 풍선 닷내려서 아 푸꺼서. 한 삼사십 미터 이런 수심 든 데 가서 푸꺼서 낚았습쑤. 푸꺼서 낚았습쑤. 푸꺼서 낚고.}

10905 #1 그냥 바람 조을 때는 예 돛단배에다가 이제 달림술, 달림술 뽕똥 여러 개 막 달린 거 달림술 해가지고 갈치 나끄고.{그냥 바람 좋을 때는 아 돛단배에다가 이제 달림술, 달림술 붕돌 여러 개 막 달린 거 달림술 해가지고 갈치 낚고.}

10905 @1 그러면예. 아까 대구수는 뭐우파?{그러면요 아까 대구수는 뭘니까?}

10905 #1 대구수 낚싯줄.{대구수는 낚싯줄.}

10905 @1 낙썬쭈를 대구수렌 해마씨?{낙썬쭈를 대구수라고 합니까?}

10905 #1 거 일본 마린지 몰라도 대구수. 우리는 그자 대구수엔 헐쭈다.{거 일본 말인지 몰라도 낙썬쭈. 우리는 그자 대구수라고 했습니다.}

10905 @1 그 다오메 갈치섬비는 뭐우파?{그 다음에 갈치섬비는 무엇입니까?}

10905 #1 갈치섬비는 그 갈치 나끄는 도구.{갈치섬비는 그 갈치 낚는 도구.}

10905 @1 예. 낙시의 일종인가마씨?{예. 낙시의 일종인가요?}

10905 #1 낙씨 하여튼 낙씨 전체 드러가는 거. 저 뽕뽕 한 한 삼 키로 이 키로 짜리에다가 이 키로꺼지 안 갈 꺾가. 한 일 키론 나갈 꺼라. 뽕뽕 일 키로쭈 되는 거에다가 섬비 할때.{낙시 하여튼 낙시 전체 들어가는 거. 저 뽕뽕 한 한 삼 킬로 이 킬로 짜리에다가 이 킬로까지 안 갈 것인가. 한 일 킬로는 나갈 거야. 뽕뽕 일 킬로쭈 되는 거에다가 섬비 할대.}

10905 #1 할때 이런 시그로.{할대 이런 식으로.}

10905 #1 예 큰섬비 이제 가운데 뽕뽕 해 가지고 양끝에다 이제 낙썬쭈 한 발 한 일 메다 정도 해 가지고 거기 낙씨를 메어 가지고 끝페레 낙씨 메여가지고 이제 단 쭈 가지고 한 십 메다 이십 메다 바다 쏘그로 너영으네 이러케 부끄며는 갈치가 무러썬쭈.{아 큰섬비 이제 가운데 뽕뽕 해 가지고 양끝에다 이제 낙썬쭈 한 발 한 일 미터 정도 해 가지고 거기 낙시를 매 가지고 끝으로 낙시 매어 가지고 이제 닻 내려서 한 십 미터 이십 미터 바다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부끄면 갈치가 물었습쇼.}

10905 @1 그럼 낙썬쭈를 이러케 즈바 땡겔따 허는 거를 부끄텐 ㄹ라마씨?{그럼 낙썬쭈를 이렇게 잡아 다녔다 하는 것을 부끄한다고 말합니까?}

10905 #1 예예. 낙씨 끝땡이에 미끼는 저 이 갈치 꼴렝이 이제 가시 업씨 이러케 솔로만 따가지고 거기다 이제 땡치ㄹ치 이러케 해서 낙썬쭈에 드라메영으메 부껴가며는 갈치가 왕 무러마씨.{예예. 낙시 꼬트머리에 미끼는 저 이 갈치 꼬리 이제 가시 없이 이렇게 살로만 따가지고 거기다 이제 땡치처럼 이렇게 해서 낙썬쭈에 달아매서 부껴가면 갈치가 와서 물어요.}

10905 @1 이 우에는 이건 뭐우파?{이 위에는 이것은 뭘니까?}

10905 #1 이거는 줄 그냥.{이거는 줄 그냥.}

10905 @1 게민 이거를 자방으네 부끄는 거우파?{그러면 이것을 잡아서 부끄는 겁니까?}

10905 #1 예예. 여기 뽕또레다가 줄 저 이제 바다 쏘그로 너을 주를 허며는 엔나레는 주리 업쓰니까 멘세줄. 멘센쭈 노꼬시엔 허영으네 두꺼운 거에 허영으네 피 메경.{예예. 여기 뽕돌에다가 줄 저 이제 바다 속으로 넣을 줄을 하면 옛날에는 줄이 없으니까 면샷줄. 면샷줄 노끈이라고 해서 두꺼운 거에 해서 피 먹여서.}

10905 @2 예. 피.{예. 피.}

10905 #1 피 메경. 거 밥숟떠 낵 치며는 이 침통에 낵 치며는 그 피가 시까망허고 뽕뽕터영 저 아 소네 부드럽* 걸 잘 미끄러지지 아녕 잘 땡겨썬쭈게.{피 먹여서. 거 밥숟에 넣어서 썬면 이 썬통에 넣어서 썬면 그 피가 시커멓고 뽕뽕해서 저 아 손에 부드럽* 그것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당겼습쇼.}

10905 #1 그 갈치 거 부꿈 연장.{그 갈치 거 부꿈 연장.}

10905 @1 이르플 게민.{이름을 그러면.}

10905 #1 이 이거시 다 갈치 부꿈 연장이엔.{이 이것이 다 갈치 부꿈 연장이라고.}

10905 @1 부꿈 연장예.{부꿈 연장요.}

10905 #1 부끄다 해서.{부끄다고 해서.}

10905 @1 아아. 갈치 부کم 연장. 게문 삼촌 다시 한번 여쭙보커라예. 이 주른 무신 주렌 해마씨? 이 뽕또레 메여진 수른.{아아. 갈치 부کم 연장. 그러면 삼촌 다시 한번 여쭙보겠습 니다. 이 줄은 무슨 줄이라고 합니까? 이 봉돌에 매진 줄은.}

10905 #1 그냥 갈치술.{그냥 갈치낙싯줄.}

10905 @1 갈치술예?{갈치낙싯줄요?}

10905 #1 예. 갈치술.{예. 갈치낙싯줄.}

10905 @1 갈치술. 이 뽕또른 아까 그냥 뽕똥?{갈치낙싯줄. 이 봉돌은 아까 그냥 봉돌?}

10905 #1 예. 뽕똥.{예. 봉돌.}

10905 @1 여기가 아까 메 키로엔 헐쑤과? 가운데 인는 뽕또리.{여기가 아까 몇 킬로라고 했습니까? 가운데 있는 봉돌이.}

10905 #1 하이고 일 키로 가까이 뉼 겨우다.{아이고 일 킬로 가까이 뉼 겁니다.}

10905 @1 그 다투메 이.{그 다투메 이.}

10905 #1 활때는.{활대는.}

10905 @1 활때는?{활대는?}

10905 #1 갈치섬비엔 허영으네 저 이 대나무 이러케 까까가지고 활땔 멘드랑.{갈치섬비라 고 해서 저 이 대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활대를 만들어서.}

10905 @1 게난 그 활때를 멘든 거를.{그러니까 그 활대를 만든 것을.}

10905 #1 활때.{활대.}

10905 @1 갈치섬비?{갈치섬비?}

10905 #1 활때 예.{활대. 예.}

10905 #1 활때 가운데다가 이제 뽕똥 드라메영 부경으네 예 양끝때 대구수쥬로 해가지고 이제 낙씨 메여 가지고.{활대 가운데다가 이제 봉돌 달아매서 푸겨서 예 양끝에 낙싯줄로 해가지고 이제 낙시 매어 가지고.}

10905 @1 그럼 이게 대구수쥬리우파?{그럼 이것이 낙싯줄입니까?}

10905 #1 예. 대구수쥬. 대구수쥬과 낙씨. 낙씨 쪼게는 한 뽕 정도 이제 철사로 이러케 갈 치가 이빠리 워낙 느스라 노니까 줄 잘 끄너가마썸.{예. 낙싯줄. 낙싯줄과 낙시. 낙시 쪽에는 한 뽕 정도 이제 철사로 이렇게 갈치가 이빨이 워낙 날카로워 놓으니까 줄 잘 끊어가요.}

10905 @1 아아.{아아.}

10905 #1 게니까 요 낙씨 끝때는 낙씨는 철사쥬로 해 가지고 한 뽕 쥬도 이제 철사로 무 꺾가지고.{그러니까 요 낙시 끝에는 낙시는 철사쥬로 해 가지고 한 뽕 정도 이제 철사로 묶 어 가지고.}

10905 @1 예.{예.}

10905 #1 그러케 케서 이 전체를 갈치섬비라고 험니다게.{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갈치섬 비라고 합니다.}

10905 #1 갈치섬비.{갈치섬비.}

10905 @1 아 저.{아 저.}

10905 @1 전체를예. 그 갈치부کم 연장이엔도 허고.{전체를요. 그 갈치 부کم 연장이라고도 하고.}

10905 #1 게메. 요 요쥬 부근을 섬비.{그러게. 요 요쥬 부근을 섬비.}

10905 @1 아아.{아아.}

10905 #1 갈치섬비엔 허곡.{갈치섬비라고 하고.}

10905 @1 예.{예.}

10905 #1 이 주른 말고 이젠 그대로 부꿈수리엔 허곡.{이 줄은 말고 이젠 그대로 부꿈줄이라고 하고.}

10905 @1 음 부꿈술. 갈치수리 부꿈술.{음 부꿈줄. 갈치 낚싯줄이 부꿈줄.}

10905 #1 부꿈 연장이엔 허미는 다 통헝쭈게.{부꿈 연장이라고 하면 다 통합지요.}

10905 @1 예.{예.}

10905 #1 갈치 부꿈 연장.{갈치 부꿈 연장.}

10905 @1 그러면 이 부부는 뭐 다는 건 어서마씨? 갈치섬비 끝테 다는.{그러면 이 부분은 뭐 다는 것은 없어요? 갈치섬비 끝에 다는.}

10905 #1 그 도르렌디 건 저 이 도레기엔 험니다. 여기. {그 도르래인데 건 저 이 도르래라고 합니다. 여기.}

10905 @1 도레기예.{도르래요?}

10905 #1 도레기.{도르래.}

10905 @1 도레기.{도르래.}

10905 #1 예. 도레기.{예. 도르래.}

10905 @1 게고 삼춘. 대구수쭈른 무슨 줄로 뽕쭈과?{그리고 삼춘. 낚싯줄은 무슨 줄로 뽕습니까?}

10905 #1 대구수는 그 요즘 저 낚씨 폭는 건디.{낚싯줄은 그 요즘 저 낚시 파는 것인데.}

10905 @1 예.{예.}

10905 #1 건 한 이십 포. 호수가 한 이십 포 뽕는 건디.{건 한 이십 호. 호수가 한 이십 호 되는 것인데.}

10905 @1 으음. 이걸 뽕쭈를 쓰는 거 아니예?{으음. 이것을 뽕쭈를 쓰는 거 아니죠?}

10905 #1 뽕쭈리 아니고 대구수쭈.{뽕쭈가 아니고 낚싯줄.}

10905 @1 도레기를 두 개 허고.{도르래를 두 개.}

10905 @2 게난 대구수쭈른 요썰말로 하면 정수리겔따예?{그러니까 대구수쭈른 요썰말로 하면 정술이겠네요?}

10905 #1 예.{예.}

10905 @1 여기는 정수리엔 허는 마른 잘 안 쓰는 모양이구나.{여기는 정술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는 모양이구나.}

10905 #1 예. 그냥.{예. 그냥.}

10905 @2 대구수쭈.{대구수쭈.}

10905 #1 아 아리엔도 허곡 대구수.{아 아리라고도 하고 대구수.}

10905 @1 아리. 예예예예. 이 달린 게 아리쭈리니까.{아리. 예예예예. 이 달린 것이 아리쭈리니까.}

10905 @1 이거는 이제 부경으네 갈치 부경으네 헝 때고 아까 돌림쭈런 헝 건 뽕쭈과?{이것은 이제 부껴서 갈치 부껴서 할 때고 아까 달림줄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10905 #1 돌림쭈른 그 이걸또 역시 뽕세 노끄세.{달림줄은 그 이것도 역시 뽕세 노끄세.}

10905 @1 예. 뽕세 노끄 테가지고.{예. 뽕세 노끄 해가지고.}

10905 #1 뽕으로 저 노끄 꼬은 걸 피 메겨 가지고 어 뽕또를 일췌한 간겨그로 해 가지고 한 열뚜 발 췌도 뽕또를 맵니다.{뽕으로 저 노끄 꼬은 것을 피 먹여 가지고 어 뽕또를 일췌

한 간격으로 해 가지고 한 열두 발 정도 봉돌을 맵니다.}

10905 @1 그러면 쪽 케영 이 사이에 뽕또를 이러케 매는 거라마씨?{그러면 쪽 해서 이 사이에 봉돌을 이렇게 매는 거라고요?}

10905 #1 예. 뽕또를 이제 찌가지고 여기다 노끄네다가 이평. 이평으네 열두 발 정도 입피며는 무거웁니다. 게며는 그 미테는 예 철싸 쫄로.{예. 봉돌을 이제 찌가지고 여기에다 노끈에다가 입혀서. 입혀서 열두 발 정도 입히면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아 철사 줄로.}

10905 @1 예.{예.}

10905 #1 낙씨 매여 가지고 이 줄 끝때다 이제 철싸 허고 낙씨. 여기도 역시 갈치 꼬리 저 이.{낙씨 매어 가지고 이 줄 끝에다 이제 철사 하고 낙씨. 여기도 역시 갈치 꼬리 저 이.}

10905 @1 갈치 술 행으네.{갈치 살 해서.}

10905 #1 설천.{설천.}

10905 @1 애.{예.}

10905 #1 거ㄴ라 설천. 갈치 끝따리 이제 찰라 가지고 설천 만드러 가지고 끼영.{그것보고 설천. 갈치 끝트머리 이제 잘라 가지고 설천 만들어 가지고 끼어서.}

10905 #1 처으멘 이 설쳐니 업쓰면 흰 형거비라도 흰 비니루 가쁜 거 해 가지고 허며는 하나 두 개 이제 나끄게 돼며는 그때부턴 갈치 꼴랑지로 이제 찰랑.{처음에는 이 설천이 없으면 흰 형겅이라도 흰 비닐 같은 거 해 가지고 하면 하나 두 개 이제 낚게 되면 그때부터는 갈치 꼬리로 이제 잘라서.}

10905 @1 예.{예.}

10905 #1 예 그거 이러케 번껴그네 그거 끼영으네 갈치 나깁는데 이거시 부꿈썰.{예 그거 이렇게 벗겨서 그거 끼어서 갈치 낚았는데 이것이 부꿈썰.}

10905 @1 이거는 부꿈.{이것은 부꿈.}

10905 #1 달림썰. 돌림.{달림썰. 달림.}

10905 @1 돌림썰.{달림썰.}

10905 #1 예. 돌림썰은 이 엔나렌 풍서네는 저 이 돌 뜨라 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허는 거고 부꿈수른 달 췌 나끄는 거고.{예. 달림썰은 이 옛날에는 풍선에는 저 이 닻 달아 가지고 이제 나가면서 하는 것이고 부꿈썰은 닻 내려서 낚는 것이고.}

10905 @2 으으음.{으으음.}

10905 #1 예. 이거는 배 탕 다니면서 나끄는 거고.{예. 이것은 배 타고 다니면서 낚는 것이고.}

10905 @1 아 돌림썰예?{아 달림썰은요?}

10905 @2 게난 배가 달린다는 예기.{그러니까 배가 달린다는 얘기.}

10905 @1 예.{예.}

10905 #1 게난 돌림썰.{그러니까 달림썰.}

10905 @1 돌림썰. 경 행으네 허게 되면 낙씨도 이 끄테도 이름도 트나지예? 이 낙씨는 무신 낙씨렌 힘니까?{달림썰.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낚시도 이 끝에도 이름도 다르지요? 이 낚시는 무슨 낚시라고 합니까?}

10905 #1 그냥 갈치낙씨엔 힘니다게.{그냥 갈치낚시라고 합니다.}

10905 @1 갈치낙씨예? 아아. 여기 고기 거러지는 부부는?{갈치낚시요? 아아. 여기 고기 걸어지는 부분은?}

10905 #1 거기 비늘.{거기 미늘.}

10905 @1 비늘예?{미늘요?}

10905 #1 비늘.{미늘.}

10905 @1 아아. 이견또 갈치낙씨 해 갠꼬 **. {아아. 이것도 갈치낙씨 해 가지고 **.}

10905 #1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갈치를 자바서예? 갈치도 종류 그 크기에 따랑도 부르는 이름드리 트나지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갈치를 잡았지요? 갈치도 종류 그 크기에 따라서도 부르는 이름들이 다른지요?}

10905 #1 여기는 그냥 그냥 갈치 큰갈치 조근갈치 하지 뭐. 별또로 부르는 이름은 업꼬. {여기는 그냥 그냥 갈치 큰갈치 작은갈치 하지 뭐. 별또로 부르는 이름은 없고.}

10905 @1 게문 우럭 쫘뉴는 어떻 힘니까? {그러면 우럭 쫘뉴는 어떻게 합니까?}

10905 #1 우러근 보통 나끄기도 허지마는. {우럭은 보통 낚기도 하지만.}

10905 @1 예. {예.}

10905 #1 연나레는 그 뽕마 탕 요 아페 나가며는 우럭 뽕또레다가 낙씨 메여 가지고 이런 드리우민 설천 견또 여기 갈치 나끄드시 그디 저 아무 고기라도 이제 썬렁으네 이러케 길쭉커게 썬렁 낙씨에 메영으네 바단 쏘게 드리치민 우럭 북빠리 그런 게 마니 무러십쭈. 연나레는. {옛날에는 그 거루 타서 요 앞에 나가면 우럭 봉돌에다가 낚시 매어 가지고 이런 드리우면 설천 그것도 여기 갈치 낚듯이 거기 저 아무 고기라도 이제 썰어서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서 낚시에 매서 바다 속에 집어넣으면 우럭 북바리 그런 것이 많이 물었습쭈. 옛날에는.}

10905 @1 그. {그.}

10905 #1 요즘도 우럭 가튼 거는 가튼 잘 무러마씨. {요즘도 우럭 같은 것은 가면 잘 물어요.}

10904 @1 예. 게난 우럭 쫘뉴. 이 바당에 나는 쫘뉴가 이실 꺼 아니예? 우럭 한 쫘뉴가 아닐 꺼니까. 웃음. {예. 그러니까 우럭 쫘뉴. 이 바다에 나는 쫘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럭 한 쫘뉴가 아닐 것이니까. 웃음.}

10904 #1 우러근 거이 다 우러그로 통허고. {우럭은 거의 다 우럭으로 통하고.}

10904 @1 게문 불락근? 아 불락또 안 나온 거 담파. 생각케 보난. {그러면 불락은? 아 불락도 안 나온 거 같다. 생각해 보니까.}

10904 #1 게메 이 불락. 불락또 여르메 보메. 보메는 뽕마 탕 여기 나가며는 뽕 머리 이뽕 머리 막 나깁쭈다게. 건 거는 아리 저 아주 얇은 거. {그러게. 이 불락. 불락도 여름에 봄에. 봄에는 거루 타서 여기 나가면 백 마리 이백 마리 막 낚았습니다. 건 거는 아리 저 아주 얇은 거.}

10904 @1 으음. {으음.}

10904 #1 하 이호 일호 그런 거 썬가지고. {아 이호 일호 그런 거 썬 가지고.}

10904 #1 불락또 산탕이불락. {아 불락도 산탕이불락.}

10904 @1 산탕이불락. {산탕이불락.}

10904 #1 거문불락. {검은불락.}

10904 @1 예. {예.} 기침.

10904 #1 또 아주 저근 거는 쉬불락. {또 아주 작은 것은 쉬불락.}

10904 @1 쉬불락예? {쉬불락요?}

10904 #1 예. {예.}

10904 @1 예.{예.}

10904 #1 쉬불락. 불라기야 불락.{쉬불락. 불락이야 불락.}

10904 @1 으음. 게문 산탱이불라근 어떤 겨우파?{으음. 그러면 산탱이불락은 어떤 겁니까?}

10904 #1 산탱이 빨간 거. 빨근 거. 빨간 거.{산탱이 빨간 거. 빨간 거. 빨간 거.}

10904 @1 빨간 거?{빨간 거?}

10904 #1 빨근 거 이서. 산탱이불락.{빨간 것 있어. 산탱이불락.}

10904 @1 겨문불라근?{검은불락은?}

10904 #1 큰 거. 그거는 주로 그런 건 마니 나까마썸.{큰 거. 그것은 주로 그런 것은 많이 낚습니다.}

10904 @1 예. 이거는 크기가 커예?{예. 이것은 크기가 커요?}

10904 #1 예.{예.}

10904 @1 쉬불라근 새까른?{쉬불락은 색깔은?}

10904 #1 쉬불락 막 어린 불라글 쉬불락이라고 하지.{쉬불락 막 어린 불락을 쉬불락이라고 하지.}

10904 @1 아아. 게문 아까 자리도 하영 거런는데 자리도 불르는 이르미 툇납따다. 다른 동네는.{아아. 그러면 아까 자리돔도 많이 뗏는데 자리돔도 부르는 이름이 다릅디다. 다른 동네는.}

10904 #1 예 자리도 쉬자리 허고 자근 거는 쉬자리 허곡 그자 요즘 저 웨 먹꼭 푯는 거는 그냥 자리엔. 자리.{예 자리돔도 쉬자리돔 하고 작은 것은 쉬자리돔 하고 그저 요즘 저 회 먹고 파는 것은 그냥 자리돔이라고. 자리돔.}

10904 @1 그 자리. 그냥 자리도 일찌만 쉬 싸 분 자리를 또 부르는 이름도 일찌 아녀 우파?{그 자리돔. 그냥 자리돔도 있지만 알 까 버린 자리돔을 또 부르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다?}

10904 @2 알 까분 거?{알 까버린 거?}

10904 #1 알 싸분 자리?{알 까버린 자리?}

10904 @1 예.{예.}

10904 #1 거 벨또로 그런 건 얻꼬.{거 별도로 그런 것은 없고.}

10904 @1 비양도 가난 거적짜리 이런 말 곧편데.{비양도 가니까 거적자리돔 이런 말 말 하던데.}

10904 #1 하 우린.{하 우리는.}

10904 @1 그건 어서예?{그건 없다구요?}

10904 #1 여기서는 그런 거 안 허고.{여기서는 그런 거 안 하고.}

10904 @1 아아. 그 다음 아까 그 고맹이는 어떤 꿰기우파?{아아. 그 다음 아까 그 용치놀래기는 어떤 고집니까?}

10904 #1 꼬맹이는 저 표준말로 놀래민데.{용치놀래기는 저 표준말로 노래미인데.}

10904 @1 예.{예.}

10904 #1 그 그 종뉴도 여러 가지야. 놀래미도 고맹이 일꼬 어랭이 일꼬 술맹이 일꼬.{그 그 종류도 여러 가지야. 노래미도 용치놀래기 있고 황놀래기 있고 실놀래기 있고.}

10904 @1 예.{예.}

10904 #1 맥썬 일꼬.{어랭놀래기 있고.}

10904 @1 예.{예.}

10904 #1 어 그 정도.{어 그 정도.}

10904 @1 게문 고맹이가 그 우리 코생이하고 ㄴ튼 겨우파?{그러면 용치놀래기가 그 우리 코생이하고 같은 겁니까?}

10904 #1 아 고생이 예 고생이 무티서는 고생이엿 허는데 이디는 고맹이라고.{아 용치놀래기 아 용치놀래기 물에서는 고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맹이라고.}

10904 @1 아 코생이가 고맹이라예. 그러면 고맹이하고 어랭이 하고 호썸 비스텐데 틀린 건 어떤 게 틀려마썸?{아 용치놀래기가 고맹이구요. 그러면 용치놀래기하고 황놀래기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것은 어떤 게 달라요?}

10904 #1 고맹이는 어 쏘랑허게 조금 저 가늘고 길고.{용치놀래기는 아 길쭉하게 조금 저 가늘고 길고.}

10904 @1 예.{예.}

10904 #1 어랭이는 썸 몸피가 일꼬 크고.{황놀래기는 썸 몸피가 있고 크고.}

10904 @1 예.{예.}

10904 @1 가운데 뭐 줄 가튼 건뜰도 일찌 아녀우파?{가운데 뭐 줄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10904 #1 줄도 세까리 고맹이는 연헌 세기고 어랭이는 썸 찢헌 세기고.{줄도 색깔이 용치놀래기는 연한 색이고 황놀래기는 썸 진한 색이고.}

10904 @2 술맹이는마썸?{실놀래기는요?}

10904 #1 술맹이는 아주 저 고와마썸. 얼룩얼룩켄게 줄도 일꼬.{실놀래기는 아주 저 고와요. 얼룩얼룩한 게 줄도 있고.}

10904 @1 그 놈도 머거마썸?{그 놈도 먹어요?}

10904 #1 예.{예.}

10904 @1 아 아까 맥썸는?{아 아까 어랭놀래기는?}

10904 #1 맥썸 맥썸는 녀썸커고 건또 놀래미 종눈데 거 맥썸는 또 어떻 설명힐 썸가 업썸마는 약간.{어랭놀래기 어랭놀래기는 넓적하고 그것도 놀래미 종류인데 거 어랭놀래기는 또 어떻게 설명힐 수가 없지만 약간.}

10904 @2 널버예.{넓다구요?}

10904 #1 예. 녀썸커게 생기곡 이빨도 강허고.{예. 넓적하게 생기고 이빨도 강하고.}

10904 @1 어랭이도 종뉴 또 따로 부르는 거 일찌 아녀우파? 뭐 썸어랭이도 다른 디 가난 굴안게마는?{황놀래기도 종류 또 따로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실놀래기도 다른 데 가니까 말하더니만?}

10904 #1 여기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우다. 그냥 어랭이믄 어랭이.{여기는 그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황놀래기면 황놀래기.}

10904 @1 예예. 여기는 술맹이 이러케 나뉘 버린 모양이다예?{예예. 여기는 실놀래기 이렇게 나뉘 버린 모양이네요?}

10904 #1 어랭이 술맹이 맥썸. 맥썸도 이 가에서 나는 거는 노랑헌 데 저 가메기맥썸라고 해가지고 거문 건 조금 기피 나가며는 그런 거. 주로 저 이 뽕마 탕 나강으네 허게 뽕며는 한 이십 메다 정도 그런 데서 썸 큰 건뜰 마니 뽕니다게.{황놀래기 실놀래기 어랭놀래기. 어랭놀래기 이 가에서 나는 것은 노란 데 저 수어랭놀래기라고 해가지고 검은 것은 조금 깊이 나가면 그런 거. 주로 이 거루 타서 나가서 하게 되면 한 이십 미터 정도 그런 데서 썸 큰

것들 많이 묻니다.}

10904 @2 어 게난 가장자리 거 쫘 노라코 기픈 디 켜 거머코.{아 그러니까 가장자리에
것은 쫘 노랑고 깊은 데 것은 거멓고.}

10904 @1 게영으네 가메기맥썩.{그렇게 해서 수어랭놀래기.}

10904 #1 어 가메기맥썩.{어 수어랭놀래기.}

10904 @1 으음. 그 다음 삼촌 여기 방어 하영 잡피지 아녀우파? 모슬포 허민 방어 하영
잡피텐 해신디. 방어 종류도 트나마씨? 이르미.{으음. 그 다음 삼촌 여기 방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모슬포 하면 방어 많이 잡힌다고 했는데. 방어 종류도 다른가요?}

10904 #1 예. 저 방어허고 히라스허고 또 자근 거는 일 키로 미만 짜리드른 히라스 새끼
더른 야드라고 허고.{예. 저 방어하고 부시리하고 또 작은 거는 일 킬로 미만 짜리들은 부시
리 새끼들은 야드라고 하고.}

10904 @1 예.{예.}

10904 #1 방어새끼더른 고졸멧이라고 허고.{방어 새끼들은 고졸멧이라고 하고.}

10904 @1 아아. 고졸멧이허고 방어하고 ㄴ튼 종내기우파? 게문.{아아. 고졸멧이하고 방어
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10904 #1 예. 고졸멧이허고 방어허고 ㄴ튼 종눈데 어린 건 고졸멧이고. 큰 거는 방어고.
또 히라스 여기 요즈른 부시리엔 허는데 그 히라스는 일 키로 그런 걸뜨른 야드라 허고 큰
거는 히라스.{예. 고졸멧이하고 방어하고 같은 종류인데 어린 것은 고졸멧이고. 큰 것은 방
어고. 또 히라스 여기 요즘은 부시리라고 하는데 그 부시리는 일 킬로 그런 것들은 야드라
하고 큰 것은 부시리.}

10904 @2 히라스 부시리.{히라스 부시리.}

10904 #1 예. 히라스.{예. 부시리.}

10904 @1 이 동네 삼치 ㄴ튼 건 안 나마씨?(이 동네 삼치 같은 안 나나요?)

10904 #1 삼치는 여기 가파도서는 안 나는데 이 부근 바다에서는 마니 납니다게.{삼치는
여기 가파도에서는 안 나는데 이 부근 바다에서는 많이 납니다.}

10904 @1 아아. 가파도에서는 안 나고.{아 가파도에서는 안 나고.}

10904 #1 여기는 그 나끄는, 주로 어망허는 따무네 그거 나끄레 다니지 아녀마씨? 요 모
슬포에서는 삼치 마니 나옵니다.{여기는 그 낚는, 주로 어망하는 때문에 그거 낚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요 모슬포에서는 삼치 많이 낚습니다.}

10904 @1 아 겐또 바로 여핀 데도 틀려예?(아 그것도 바로 옆인데도 다르네요?)

10904 #1 기침.

10904 @1 삼촌 아까 자리힐 때 요수바리라는 마를 해서예? 그 요수바리에 데행으네 설명
을.{삼촌 아까 자리돔할 때 요수발이라는 말을 했지요? 그 요수발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설명을.}

10905 #1 그 요수바리가 어 김묘생이라는 부니 요 가파도에서 저 이 처으멘 발똥선 해 가
지고 어 자기 창아느로 자기 생각때로 이제 어망을 마드러서 이제 뽕마 두 척카고.{그 요수
발이가 아 김묘생이라는 분이 요 가파도에서 저 이 처음에는 발똥기선 해 가지고 어 자기
창안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어망을 만들어서 이제 거루 두 척하고.}

10905 #1 그 저네는 풍서느로 ㄴ루바리라고 해 가지고 이러케 똥그렁헌 대를 이러케 연결
해 가지고 똥그러케 마드러 가지고 겐또 풍서니니까 얼마 크지도 아는 그 어망으로 해 가지
고 자릴 자반는데.{그 전에는 풍선으로 마루발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대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것도 풍선이니까 얼마 크지도 않은 그 어망으로 해 가지고 자리돔을 잡았는데.}

10905 #1 이제 발동선 이제 하면서 그 김묘생이라는 부니 이 요수바리 어망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예 배에서는 도르래 양쪽으로 해 가지고 깎는 배 드는 배 이러케 두 가지로 해 가지고 가튼 모서리도 귀야지에라도 거기다가 콘또를 다라메고 거기다 주를 두 개나 무꺼마 씨.{이제 발동기선 이제 하면서 그 김묘생이라는 분이 이 요수발이 어망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아 배에서는 도르래 양쪽으로 해 가지고 까는 바 다는 바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같은 모서리도 귀통이에라도 거기다가 콧돌을 달아메고 거기다 줄을 두 개나 묶습니다.}

10905 #1 그 하나는 올리는 배 깎는 배 이러케 해 가지고 배 양쪽에다가 깎는 배 드는 배 해서 구무를 끌 때는 깎는 배를 땡기고 거 도르래 메 가지고. 그건또 기계로 해 가지고 로라로 행으네 끌며는 쌍 내려가고. 땡마 양쪽에 코 매 가지고 그디도 돌 드라메 가지고 여기 배에 놀 때는 가치 이러케 노코.{그 하나는 올리는 바 까는 바 이렇게 해 가지고 배 양쪽에다가 까는 바 다는 바 해서 그물을 깔 때는 까는 바를 당기고 거 도르래 매 가지고. 그것도 기계로 해 가지고 로울러로 해서 깔면 싹 내려가고. 거루 양쪽에 코 매 가지고 거기도 돌 달아매 가지고 여기 배에 놓을 때는 같이 이렇게 넣고.}

10905 #1 이러케 헨 거슬 이 사르미 처음 시작커니까 예 그때부턴 이 가파도 자리. 지금도 이 모슬포 나가서 자리 뜨는 사람드리 전부다 가파도 뿐드리우다게.{이렇게 한 것을 이 사람이 처음 시작하니까 예 그때부터는 이 가파도 자리돔. 지금도 이 모슬포 나가서 자리돔 뜨는 사람들이 전부다 가파도 분들입니다.}

10905 @1 으음.{으음.}

10905 #1 가파도 씨람드린테 그 부모드리 아 부친드리 허던 걸 이어바다 가지고 지금도 그 다 그 묘생이 아덜 그런 분들도 전부다 저 이 여기 가파도서 요수바리 허던 그 사람드리 모슬포 나강 지금도 차거블 하고 일써마썸.{가파도 사람들인데 그 부모들이 아 부친들이 하던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도 그 다 그 묘생이 아들 그런 분들도 전부다 저 이 여기 가파도서 요수발이 하던 그 사람들이 모슬포 나가서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905 @1 게니까 그 김묘생이렌 현 어르니 만든 구물 이르미 요수바리라는 거라예?(그러니까 그 김묘생이라고 한 어른이 만든 그물 이름이 요수발이라는 거지요?)

10905 #1 그 부니 예 김묘생이지마는 그냥 수바리엔도 부름니다게.{그 분이 예 김묘생이지만 그냥 수발이라고도 부름니다.}

10905 @1 예. 아아.{예. 아아.}

10905 #1 그러니까 요수바리. 요 수바리 보라 허는 시그로 얘기헌 거시 요수바리가 똥 부런.{그러니까 요수발이. 요 수발이 봐라 하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요수발이가 되 버렸어.}

10905 @1 음. 사람 이르믄 땅으네 이제 똥 거라예?(음. 사람 이름을 따서 이제 된 거네요?)

10905 #1 예.{예.}

10905 @1 계문 요수바리 만드는 재료는 뭐라나서마썸?(그러면 요수발이 만드는 재료는 뭐였나요?)

10905 #1 재료는 나이롱줄 두꺼운 거.{재료는 나일론줄 두꺼운 거.}

10905 @1 예.{예.}

10905 #1 아 그런 거 헤여 가지고 어 이제 사각형으로.{아 그런 거 해 가지고 어 이제 사각형으로.}

10905 @1 예.{예.}

10905 #1 네 귀야지에 코 맨들고.{네 귀통이에 고리 만들고.}

10905 @1 예 이런 데.{예. 이런 데.}

10905 #1 예. 이제 예 노끈으로 무꺼 가지고.{예. 이제 예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10905 @1 여기는 노끈을 무꺼?{여기는 노끈을 묶어?}

10905 #1 아니 아니. 어 무끄는디 사각형 예 주레다가.{아니 아니. 어 묶는데 사각형 예 줄에다가.}

10905 @1 예.{예.}

10905 #1 이거 나이롱 노프.{이거 나일론 로프.}

10905 @1 예.{예.}

10905 #1 나이롱 노프스로 예 이제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코를 이러케 네 귀야지에 맨들고.{나일론 노끈으로 아 이제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이제 코를 이렇게 네 귀통이에 만 들고.}

10905 @1 예.{예.}

10905 #1 예. 요 구무른 이런 필꾸무런데 필로 나옵니다. 이 어망.{예. 요 그물은 이런 필 그물인데 필로 나옵니다. 이 어망.}

10905 @1 아 예예예예.{아 예예예예.}

10905 #1 필로 나오는데 거 한 다섯 필 이러케 해 가지고 허며는 겁니다.{필로 나오는데 거 한 다섯 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겁니다.}

10905 @1 예.{예.}

10905 #1 거 찢라가면서 이러케 이걸 다 연결해여마씨.{거 찢라가면서 이렇게 이것을 다 연결합니다.}

10905 @1 예.{예.}

10905 #1 코. 구물코 짜드시 이러케 짜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포글 맨드는데 예 똑 이 노 프 널미만 허게 뒤편은 푸미 업쓰니까 이거 이 드러가는 피렌 푸물 마니 쥐마썸. 여기에다 가 주르물 쥐가지고 이러케 이러케 통이 생기게끔.{코. 그물코 짜듯이 이렇게 짜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폭을 만드는데 예 똑 이 로프 넓이만 하게 되면 품이 없으니까 이거 이 들어가는 필에는 품을 많이 줍니다.}

10905 @2 으음.{으음.}

10905 @1 미테 줌.{밑에 줌.}

10905 #1 예. 어망.{예. 어망.}

10905 @1 푸물 줌 마니 쥐예?{품을 줌 많이 준다고요?}

10905 #1 어망을 그러케 해서 맨든 거시 예 요수바리 구물.{어망을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예 요수발이 그물.}

10905 @1 게른 이러케 필로 연결해서 만든 구무리렌 행으네 필꾸물 허는 겨우파?{그러면 이렇게 필로 연결해서 만든 그물이라고 해서 필그물 하는 겁니까?}

10905 #1 예. 필꾸물.{예. 필그물.}

10905 @1 맨 필 정도.{몇 필 정도.}

10905 #1 이 필꾸물 사당으네 예 이 자릴꾸무른 맨드는데 혼 다섯 필.{이 필그물 사다가 예 이 자리돔그물은 만드는데 한 다섯 필.}

10905 @1 다섯 필. 아아.{다섯 필. 아아.}

10905 #1 다섯 필 정도 드러가겠찌.{다섯 필 정도 들어가겠지.}

10905 @1 게문 이제 뽕마 아까 저.{그러면 이제 거룻배 아까 저.}

10905 #1 그러니까 이 에 배에서는 큰 배에서는 이러케 대를 이 이러케 메여가지고 여기 다 도르래를 달고.{그러니까 이 아 배에서는 큰 배에서는 이렇게 대를 이 이렇게 매가지고 여기에다 도르래를 달고.}

10905 @1 예.{예.}

10905 #1 이 어망 끝때다가 이제 돌맹이를 달고.{이 어망 끝때다가 이제 돌맹이를 달고.}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여기 뽕마 쪼게도 돌맹이 달고. 여기도 돌맹이 달고 해 가지고 주를 이제 두 주리나 이러케 두 줄씩 케 카지고 한 주른 깎는 배 이건 드는 배 이러케 해 가지고.{여기 거루 쪽에도 돌맹이 달고. 여기도 돌맹이 달고 해 가지고 줄을 이제 두 줄이나 이렇게 두 줄씩 해 가지고 한 줄은 까는 바 이건 다는 바 이렇게 해 가지고.}

10905 #1 자리가 그 저네는 탐지기 업쓸 때는.{자리돔이 그 전에는 탐지기 없을 때는.}

10905 @1 예.{예.}

10905 #1 그냥 십뽕 뽕 빠를 때는 오분도 허지마는 십뽕 시보분 이러케 구무를 바단 쪼게 너얼따가 깎는 배로 ㅈ . ㄴ고.{그냥 십뽕 뽕 빠를 때는 오분도 하지만 십뽕 십오분 이렇게 그물을 바다 속에 넣었다가 까는 바로 깔고.}

10905 @1 예.{예.}

10905 #1 여기 뽕마에서는 또 줄 콘돌쭈리라고 해 가지고 그 줄 까랑으네 해영으네 바다에 까랑따가 한 시보분 십뽕 시보분 이러케 인따가 뽕기자 해 가지고 뽕기며는 이제 드는 배를 들게 뽕며는 요거 깎는 배는 느뽕주고 예 드는 배로 이제 들게 뽕며는 구무리.{여기 거루에서는 또 줄 콧돌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줄 깔아서 해서 바다에 깔았다가 한 십오분 십뽕 십오분 이렇게 있다가 당기자 해 가지고 당기면 이제 다는 바를 달게 되면 요거 까는 바는 느뽕주고 아 다는 바로 이제 달게 되면 그물이.}

10905 @2 들러지는 거예?{들어지는 거지요?}

10905 #1 우에 우에 올라오는 거. 그게 올라오게 뽕며는 이제 소느로덜 이러케 어망 풍 인는 걸 전부다 뽕경 한가운데로 모라.{위에 위에 올라오는 거. 그것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손으로들 이렇게 어망 풍 있는 것을 전부다 당겨서 한가운데로 몰아.}

10905 @1 예.{예.}

10905 #1 그래 가지고 자리 이제 배에다 올려노코 헐는데.{그래 가지고 자리돔 이제 배에다 올려놓고 헐는데.}

10905 @1 게문 삼춘예 뽕마 다는 쪼근 어디우짜? 뽕마 위치는. 배가.{그러면 삼춘 거룻배 다는 쪽은 어디니까? 거룻배 위치는. 배가.}

10905 #1 뽕마. 이거 큰배고 이거 뽕마는 이 쪼게 두 개.{거루. 이거 큰 배고 이거 거루는 이 쪽에 두 개.}

10905 @1 이게 아니고 여기에. 여기 이게 뽕마라예? 뽕마 두 개예. 게고 아까 여기 돌 다 랐짜누짜?{이게 아니고 여기에. 여기 이게 거루라고요? 거루 두 개죠. 그러고 아까 아겨 돌 달았잖습니까?}

10905 #1 예.{예.}

10905 #1 그걸 무슨 돌 험니까?{그것을 무슨 돌 합니까?}

10905 #1 콘돌.{고리 돌.}

10905 @1 이게 콘또리라예. 콘또론 멘 깨우짜?{이게 고리 돌이지요. 고리 돌은 몇 갇니까?}

10905 #1 콘뿔 전부다 해영 네 개.{고리 돌 전부다 해서 네 개.}

10905 @1 네 개예. 코마다 콘뿔을 드라예?{네 개요? 고리마다 고리 돌을 달지요?}

10905 #1 예.{예.}

10905 #1 콘뿔 드는데 아까 이디 콘뿔 드는 이러케 고리를 멘든텐 허지 아녜쭈과? 그 고리는 뭐렌 험니까?{고리 돌 다는데 아까 여기 고리 돌 다는 이렇게 고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리는 뭐라고 합니까?}

10905 #1 아.{아.}

10905 @1 이거랑 연결하는.이 깁는 베허고 연결하는 거.{이것이랑 연결하는. 이 까는 바하고 연결하는 것.}

10905 @1 아 구물코. 구물 거 뭐라고 허나?{아 그물 고리. 그물 거 뭐라고 하나?}

10905 @1 이 드는베 깁는베 허는.{이 다는 바 까는 바 하는.}

10905 #1 베리코. 베리코.{벼리 고리. 벼리 고리.}

10905 @1 베리코예?{벼리 고리요?}

10905 #1 예. 이런 주를 베리엔 험니다게. 베리.{예. 이런 줄을 벼리라고 합니다. 벼리.}

10905 @1 아 베리. 예. 마쭈다.{아 벼리. 예. 맞습니다.}

10905 #1 베리. 베리에다가 베리코를 만드러 가지고 거기다 이제 콘뿔도 다라메고 깁는베 드는베 이 꼬뜨머리를 무껴마썬.{아 벼리. 벼리에다가 벼리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리 돌을 달아매고 까는 바 다는 바 이 꼬뜨머리를 묶습니다.}

10905 @1 삼춘 이 베리도 지금 여 베리가 이러케 네 군데를 베리를 다 드라마썬? 베리 어디가 우에우파?{삼춘 이 벼리도 지금 여 벼리가 이렇게 네 군데를 벼리를 다 답니까? 벼리 어디가 됩니까?}

10905 #1 베리코 허며는 이러케.{벼리 고리 하면 이렇게.}

10905 @1 어.{아.}

10905 #1 베리코는 베 양쪼게 일꼬 땸마 두 처기니까 혼 척씩 일꼬.{벼리 고리는 베 양쪽에 있고 거루 두 척이니까 한 척씩 있고.}

10905 @1 예. 베릴쭈른. 이 베리는 어디 어디 이신 거?{예. 벼릿줄은. 이 벼리는 어디 어디 있는 거?}

10905 #1 베리 이 구물 만들 때 이제.{벼리 이 그물 만들 때 이제.}

10905 @1 다시 이러케.{다시 이렇게.}

10905 #1 규격 이제 얼마큼 크게 멘드느냐에 툇랑으네 이제 베리. 베리가 이제 멘 빨씩 이제 케 가지고 멘든. 어망이 구무리 뛴는 거.{규격 이제 얼마큼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벼리. 벼리가 이제 몇 발씩 이제 해 가지고 만든. 어망이 그물이 되는 거.}

10905 @1 예예예. 게민 이제 사가그로 전부 베리는 다 인는 거구나예? 그러면 이 베는 무슨 베 험니까?{예예예. 그러면 이제 사각으로 전부 벼리는 다 인는 거군요? 그러면 이 베는 무슨 베 합니까?}

10905 #1 요수바릴뻬.{요수밭이배.}

10905 @1 이게 요수바릴뻬예?{이것이 요수밭이배지요?}

10905 #1 예.{예.}

10905 @1 요수바릴뻬는 무슨 베로 험 거마썬?{요수밭이배는 무슨 베로 한 겁니까?}

10905 #1 발똥선.{발동기선.}

10905 @1 이건 이때 발똥선 나온 때구나예? 게문 요수바리 구물 만든 거는 언제 찍부터

헐쑈과? 이 가파도에서.{이것은 이때 발동기선 나온 때군요. 그러면 요수발이 그물 만든 것은 언제 적부터 했습니까? 이 가파도에서.}

10905 #1 그러니까 것이 혼. 해방 저네부떠 헐쑈 건데. 해방 저네부떠.{그러니까 그것이 한 해방 전으로부터 했을 것인데. 해방 전으로부터.}

10905 @1 게른 쾡장히 빨리 헐 거다예?{그러면 쾡장히 빨리 한 거네요?}

10905 #1 우리 절물 때도 요수바리 다녔쓰니까.{우리 젊을 때도 요수발이 다녔으니까.}

10905 @1 으음.{으음.}

10905 #1 하여튼 우리 학교 땡길 때도 자리 저 이 삼촌 저 자근아버지 쉰파버지가 이제 요수바리베 허며는 학교 땡길 때도 이 저 왕으네 비러당 자리 좀 줍써 헤영으네 혼 뉘뻑 비러당 먹꼭또 헤난쓰니까. 건또 혼 사십년대.{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자리돔 저 이 삼촌 저 작은아버지 둘째아버지 이제 요수발이베 하면 학교 다닐 때도 이 저 와서 빌려다가 자리돔 좀 주십시오 해서 한 되 빌려다가 먹고도 했었으니까. 그것도 한 사십년대.}

10905 @1 이거 해방 전부터 이러케 예.{이거 해방 전부터 이렇게 예.}

10905 #1 예. 해방 전부터.{예. 해방 전부터.}

10905 @1 행 거라. 발똥선 나온 거 보니까예.{한 거야. 발동기선 나온 것 보니까요.}

10905 #1 예.{예.}

10905 @1 그러며는네 이 자리를 뜨젠 허면 사라든 먼 명이 피료헤마씨? 이거 쾡장히 마니 피료혈 꺼 가태예. 땡마까지 하면?{그러면 이 자리돔을 뜨려고 하면 사람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거 쾡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지요. 거루까지 하면?}

10905 #1 땡마에 둘씩 커며는 사 명.{거룻배에 둘씩 하면 사 명.}

10905 @1 예.{예.}

10905 #1 요즈른 전부다 기계화 돼니까 땡마에도 한 사람씩뵈끼 안 올라마썰.{요즘은 전부다 기계화 되니까 거룻배에도 한 사람씩밖에 안 올라요.}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또 사람도 마니 피료언꼬. 기계로 허니까. 그 저네는 순 사름 소느로만 땡기니까 둘씩 올랐꼬.{또 사람도 많이 필요없고. 기계로 하니까. 그 전에는 순 사람 손으로만 당기니까 둘씩 올랐고.}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배에도 한 대여섯 한 십 명 정도는 다녔쑈다게.{배에도 한 대여섯 한 십 명 정도는 다녔습니다.}

10905 @1 십 명 정도예?{십 명 정도요?}

10905 #1 게 요즈른 한 읍 명이민 뉘어마씨. 기계화 돼니까 전부다 롤라로 이제 감꼬 허니까.{게 요즘은 한 육 명이면 됩니다. 기계화 되니까 전부다 롤러(돌림판)로 이제 감고 하니까.}

10905 @1 이거는 요순빠리뵈 한 거고. 이런 거라날땡 헐 거 아니예?{이거는 요수발이베 한 거고. 이런 거였다고 한 거 아닌가요?}

10905 #1 엔나레 요수바리 생기기 저넨 마루바리.{옛날에 요수바리 생기기 전에는 마루발이.}

10905 @1 마루바리.{마루발이.}

10905 @2 이거시.{이것이.}

10905 #1 마루. 엔날 이 이 일본마린데.{마루. 옛날 이 일본말인데.}

10905 @1 둥그러타.{둥그렇다.}

10905 #1 마루바리라 해 가지고.{마루발이라 해 가지고.}

10905 @2 이거시 사들꾸물.{이것이 사들그물.}

10905 #1 예. 풍서네.{예. 풍선에.}

10905 @1 예.{예.}

10905 #1 예 또 사 사들꾸물로 해 가지고.{예 또 사 사들그물로 해 가지고.}

10905 @1 풍선 허는 건 사들로 헌 거 아니라예?{풍선 하는 것은 사들로 한 거 아니지요?}

10905 #1 예. 대 어으를 어으를 대나무 아 두 겹 세 겹 이러케 째어 가지고 두 겹 세 겹 철사로 이제 꼬와.{예. 대 에움을 에움을 대나무 아 두 겹 세 겹 이렇게 째 가지고 두 겹 세 겹 철사로 이제 꼬와.}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이러케 해 가지고 거 한 네 쪽. 네 쪽 다섯 쪽 이러케 아 기리 헌 거를 한 서 발 쫄 댜는 대나무 이제 쫄글 이제 여러 겹 한 두 겹 세 겹으로 철사로 꼬아 가지고 어으를 만드러마씨.{이렇게 해 가지고 거 한 네 쪽. 네 쪽 다섯 쪽 이렇게 아 길이 한 것을 한 서 발 쫄 댜는 대나무 이제 쪽을 이제 여러 겹 한 두 겹 세 겹으로 철사로 꼬아 가지고 에움을 만들어요.}

10905 @1 예.{예.}

10905 #1 그걸 다 연결하게 댜며는 크게 둥그렇게 마루가 댜는데 그거 연결해 가지고 이제 구물 코에다가 이제 주를 이러케 이제 구물 통에다가 이제 이러케 주를.{그것을 다 연결하게 되면 크게 둥그렇게 마루가 댜는데 그거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물코에다가 이제 줄을 이렇게 이제 그물 통에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10905 @1 예.{예.}

10905 #1 예 이러케 예 이러케 이러케 이렇게 코를 만드러 가지고 이제 이 어으때 연결할 찌게 하나씩 이 코에다 끼면서 이제 연결하고.{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에움대 연결할 적에 하나씩 이 고리에다 끼우면서 이제 연결하고.}

10905 #1 아페 풍선 배 아페는 찬때 해 가지고 이만큼헌 쉼.{앞에 풍선 배 앞에는 찬때 해 가지고 이만큼한 쇠.}

10905 @1 예. {예.}

10905 #1 철. 철로 만든 파이프. 파이프로 해 가지고 예 이쪼그로 대 어으를 이제 딱 무끄 게 댜며는 어망이 이젠 딱 달라지게 댜지.{철. 철로 만든 파이프. 파이프로 해 가지고 예 이 쪽으로 대 에움을 이제 딱 묶게 되면 어망이 이제는 딱 달라지게 댜지.}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그거 풍서는 여기다가 이제 양쪼게다 콧뜰. 이견또 역시 콧뜰 드라메영으네 이제 물 쪼게 줄 메영으네 드라메며는 풍서는 기계 업씨 소느로만 허는 거니까.{그거 풍선은 여기다가 이제 양쪼게다 콧뜰. 이것도 역시 콧뜰 달아매서 이제 물 속에 줄 매서 달아매면 풍선은 기계 없이 손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10905 @1 예.{예.}

10905 #1 그거는 기픈 바다에 요수바리는 기픈 수심 물 뽀는 데서 가서도 허지마는 마루 바리는 전부다 이제 여. 꼭 열 차자서 허여야 둘레가 크지 안키 때무네 크지 아녀 부나네 에 톱 여 차장으네 자리가 또 꼭 여 꼭때기에서만 잘 모여마씨.{ 그것은 깊은 바다에 요수

밭이는 깊이 수십 못 보는 데서 가셔도 하지만 마루밭이는 전부다 이제 여. 꼭 여를 찾아서 해야 둘레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아 버리니까 예 똑 여 찾아서 자리돔이 또 꼭 여 꼭 대기에만 잘 모입니다.}

10905 @1 예.{예.}

10905 #1 게머는 그 여 촌장으네 게난 그 풍선 선장이 아주 영니해야 뽕쭈마썬.{그러면 그 여 찾아서 그러니까 그 풍선 선장이 아주 영리해야 됩지요.}

10905 @1 예.{예.}

10905 #1 무리 어떠케 갈 때는 이 여를 어떠케 바다 사야 뽕고 여가 가나므로 가파도 학교에다가 어느 왕도를 실리게 뽕머는 무슨 여다. 게머는 그건또 잘 아라야 뽕마썬.{물이 어떻게 갈 때는 이 여를 어떻게 받아 서야 되고 여가 가늠으로 가파도 학교에다가 어느 바위를 실리게 되면 무슨 여다. 그러면 그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10905 #1 그거 아랑 그 여에 차자강 들무래는 동쪼그로 이러케 무리 서쪼그로 안 가. 동쪼그로 허머는 그 여를 반앙 풍서니 서게 뽕면 거기다 구물을 안치는 거라마썬.{그거 알아서 그 여에 찾아가서 밀물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서쪽으로 안 가. 동쪽으로 하면 그 여를 받아서 풍선이 서게 되면 거기에다 그물을 안치는 거지요.}

10905 #1 경 허머는 자리가 쌍 모여지머는 뽕기라 해 가지고 이젠 소느로 전부다. 둘 썬 가운데 한 사람 다섯 한 대여썬썬 풍서느로 뽕겨. 동서가.{그렇게 하면 자리돔이 썬 모여지면 당기라 해 가지고 이제는 손으로 전부다. 둘썬 가운데 한 사람 다섯 한 대여썬썬 풍선으로 다녀. 동서가.}

10905 @1 음. 동서가?{음. 동서가?}

10905 @2 예. 동서가.{예. 동서가.}

10905 #1 자릿뽕 동서.{자리돔배 동서}

10905 @1 자릿뽕 동서예. 삼춘예 게문 이 마루바리힐 때는 이 대는 어신 거구나예?{자리돔배 동서요. 삼춘 그러면 이 마루밭이 할 때는 이 대는 없는 거군요?}

10905 #1 예 엄는 거.{아 없는 거.}

10905 @1 엄는 거예?{없는 거요?}

10905 #1 예.{예.}

10905 @1 예. 사들하고는 툄린 거.{예. 사들하고는 다른 거.}

10905 #1 이거 이거는 저 이.{이거 이것은 저 이.}

10905 @1 게난 거릴 때 허는 거니까 허고.{그러니까 뜰 때 하는 것이니까 하고.}

10905 #1 아 이 뽕. 뽕 뜰 때 허고.{아 이 뽕치. 뽕치 뜰 때 하고.}

10905 @1 예. 족빠지 담찌예?{예. 뜰채 닻지요?}

10905 #1 통 아네 뽕 뜰 때 허는 거고.{통 안에 뽕치 뜰 때 하는 것이고.}

10905 @1 예.{예.}

10905 #1 이거는 어망에다가 이 어으메다가 이제 썬빠이쁘 이러케 해 가지고 여기다 콘뽕 드라메고 아.{이것은 어망에다가 이 에움에다가 이제 쇠파이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 콧돌 달아매고 아.}

10905 @1 게 여기 이러케 저 배에다가.{게 여기 이렇게 저 배에다가.}

10905 #1 줄 줄 배에다가 이제 줄.{줄 줄 배에다가 이제 줄.}

10905 @1 메영으네.{매서.}

10905 #1 메영.{매서.}

10905 @1 게문 이 마루바리 댐 때는 배 풍선 어느 부분하고 연결하는 거우꽈?{그러면 이 마루발이 댐 때는 배 풍선 어느 부분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10905 #1 이거는 연결 안 됩니다.{이것은 연결 안 됩니다.}

10905 @1 연겨른 안 되고예. 연겨른 안 하고 이 줄로만 저기를 허는 거구나예?{연결은 안 되고요. 연결은 안 하고 이 줄로만 저기를 하는 거군요?}

10905 #1 예예.{예예.}

10905 @1 아까 여기 콧돌 그 찰때 든텐 허니까예. 찰때에 콧돌 드랑으네 이거하고 ㄱ치 허는 거 아니?{아까 여기 콧돌 그 찰대 단다고 하니까요. 찰대에 콧돌 달아서 이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

10905 #1 찰때. 찰때라는 건 저 이 요수바리에만 일꼬. 마루바리에는 업꼬.{찰대. 찰대라는 것은 저 이 요수발이에만 있고. 마루발이에는 없고.}

10905 @1 아니 아까 풍서네 찰때 현텐.{아니 아까 풍선에 찰대 한다고.}

10905 #1 찰때가 아니고.{찰대가 아니고.}

10905 @1 여기 췌허영으네 여기 풍서네 영 드랑으네 이거랑 연결허는.{여기 쇠 해서 여기 풍선에 이렇게 달아서 이것이랑 연결하는.}

10905 #1 게메 요 어음허고.{그러게 요 에음하고.}

10905 @1 예.{예.}

10905 @2 파이프.{파이프.}

10905 #1 파이프 요거.{파이프 요거.}

10905 @1 예.{예.}

10905 #1 요거이 찰때라. 요거.{요것이 찰대야. 요거.}

10905 @1 아 이게.{아 이것이.}

10905 #1 예. 췌로 만든 거이.{예. 쇠로 만든 거요?}

10905 #1 예. 이게 찰때고. 어음에 게예. 게문 이 구물 마루바리허민 이거는 어음 아니우꽈? 삼촌. 이러케 대나무로.{예. 이것이 찰대로. 에음에 것이요. 그러면 이 그물 마루발이하면 이것은 에음 아닙니까? 삼촌. 이렇게 대나무로.}

10905 #1 어음.{에음.}

10905 @1 어음 이 그 다으메 여기 이러헌 거 이런 건 뭐?{에음. 이 그 다음에 여기 이러헌 거 이런 것은 뭐?}

10905 #1 이진 구물코.{이진 그물코.}

10905 @1 아 구물코.{아 그물코.}

10905 #1 베리코. 구물베리코.{베리코. 그물베리코.}

10905 @1 구물베리코.{그물베리코.}

10905 #1 예.{예.}

10905 @1 이거는 아까 찰때.{이것은 아까 찰대.}

10905 #1 예. 구물베리코를 이 구물 이제.{예. 그물베리코 이 그물 이제.}

10905 @1 이거는 구물.{이것은 그물.}

10905 #1 예예. 구물 현 데다가 이제 다랑으네.{예예. 그물 한 데다가 이제 달아서.}

10905 @1 예.{예.}

10905 #1 이제 두꺼운 줄로 이러케 메 가지고 요 요 코도 두꺼운 줄로 메여가지고 이제. {이제 두꺼운 줄로 이렇게 메 가지고 요 요 코도 두꺼운 줄로 메 가지고 이제.}

10905 @1 이러케 똥기면 이거 히미 일께 허는 거구나. 게 이거는 이제 똥기는 거는 이제 풍서네서 하는 거라예? 여기가 풍선예. 그러면 이 뱃똥서더른 마루바리힐 때 맨 명이 피료 해마씨?{이렇게 당기면 이거 힘이 있게 하는 거구나. 그래 이것은 이제 당기는 것은 이제 풍선에서 하는 거지요? 여기가 풍선요. 그러면 이 뱃똥서들은 마루발이할 때 몇 명이 필요 한가요?}

10905 #1 대여선 명 들어압쭈.{대여섯 명 들어야지요.}

10905 @1 대여선 명예?{대여섯 명요?}

10905 #1 예. 대여선 명.{예. 대여섯 명.}

10905 @1 으음.{으음.}

10905 #1 게난 뉘 사름 업쉴 때는 한 사 명 정도 가주마는 소느로 땡기는 거니까 고기가 도망 자리 빠져 나가지 모터게 빨리 땡겨야 되는 따무네.{그러니까 뉘 사람 없을 때는 한 사 명 정도 가지만 손으로 당기는 것이니까 고기가 도망 자리똥 빠져 나가지 못하게 빨리 당겨야 되는 때문에.}

10905 @1 예.{예.}

10905 #1 아 사라미 베리 이 베리 땡길 땡 둘씩 둘씩 케가지고 가운데 상가짓베 여기 여기다가 줄 세 개를 가운데 저 이 선장이.{아 사람이 베리 이 베리 당길 때는 둘씩 둘씩 케가지고 가운데 맨 위의 배 여기 여기다가 줄 세 개를 가운데 저 이 선장이.}

10905 @1 예.{예.}

10905 #1 가운데 딱 쌓으네 요거 세 줄. 버릴쭈 세 개 인는 예 삼가지에 쭈를 그 배임제가 이제 가운데서 딱 해서 물안경으로 저 바다 이 선장이 바닷속 보면서 자리 모여지는 건 또 보고. 모여지게 뉘든 땡기라 허며는 이제 쏜똥 자른 사람더른 이제 자바 땡겨그네 허게 뉘며는 자리가 경 허영 땡쭈다.{가운데 딱 서서 요거 세 줄. 버릴쭈 세 개 있는 예 삼가지에 줄을 그 배임자가 이제 가운데서 딱 해서 물안경으로 저 바다 이 선장이 바닷속 보면서 자리 모여지는 것도 보고. 모여지게 되면 당기라 하면 이제 쏜돌 잡은 사람들은 이제 잡아 당겨서 하게 되면 자리똥이 그렇게 해서 땡습니다.}

10908 @1 게른 삼춘 여기 여기에서 이무른 어느 거고 고부른 어디우짜?{그러면 삼춘 여기 여기에서 이물은 어느 것이고 고물은 어디니까?}

10908 #1 베 베 아페를 저 이무리라 허고.{베 베 앞예를 저 이물이라고 하고.}

10908 @1 예.{예.}

10908 #1 이거 나줄 이짚데 이 베에는 이물 고부리 인는데 고부리 항상 노프거든.{이거 낮을 이자인데 이 베에는 이물 고물이 있는데 고물이 항상 높거든.}

10908 @1 아아.{아아.}

10908 #1 두예가.{뒤예가.}

10908 @1 두예가 노파예?{뒤예가 높아요?}

10908 #1 발똥. 배가 이제 뜨며는 이제 아피 이러케 노파베지마는 월래 이거 가에 올리게 뉘민 아피보단 두예가 노픍니다게.{발똥. 배가 이제 뜨면 이제 앞이 이렇게 높아보이지만 월래 이거 가에 올리게 되면 앞예보다는 뒤가 높습니다.}

10908 @1 아아.{아아.}

10908 #1 이러케.{이렇게.}

10908 @1 예예.{예예.}

10908 #1 여기 까라안은 수시미 일끼 때무네.{여기 갈아얇는 수심이 있기 때문에.}

10908 @1 예예예예.{예예예예.}

10908 #1 여기 뭐 기계 ㄴ뚝 거 메우게 되면 허고, 풍서는 그 그런대로 이러케 약간 고무리라도 약간 노프지. 마니는 안 노파마씨.{여기 뭐 기계 같은 거 메우게 되면 하고, 풍선은 그 그런대로 이렇게 약간 고무리어도 약간 높지. 많이는 안 높아요.}

10908 @1 음. 발뚱기보단예?{음. 발뚱기보다요?}

10908 #1 예.{예.}

10908 @1 예. 그러케 해서 하고 뽕뚱서. 동서.{예. 그렇게 해서 하고 뽕뚱서. 동서.}

10908 #1 예.{예.}

10908 @1 자릴뚱서?{자리뚱뚱서?}

10908 #1 예. 자릴뚱서.{예. 자리뚱뚱서.}

10908 @1 게문 여기는 동서렌 안 해마씨? 요수바리헐 때.{그러면 여기는 동서라고 안 하나요? 요수받이할 때.}

10908 #1 아이. 만 만날 동서엔 힘니다. 인부들.{아니. 만 만날 동서라고 합니다. 인부들.}

10908 @1 인부. 아 인부드를 동서라고.{인부. 아 인부들을 동서라고.}

10908 #1 저 인부드를 동서라고 힘니다게. 자릴뽕 동서.{저 인부들을 동서라고 합니다. 자리뽕뽕 동서.}

10905 @1 자릴뽕 동서예? 예. 아라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갈 때 기구는 이런 그물드른 이러케 가정 간짜나예? 꿰기 자방 꿰기 논는 거는 뭐에 넣 완쭈과?{자리뽕뽕 동서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갈 때 기구는 이런 그물들은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고기 잡아서 고기 넣는 것은 뭐에 넣어서 왔습니까?}

10905 #1 그 배 칸 카니 일썌 가지고.{그 배 칸 칸이 있어 가지고.}

10905 @1 예.{예.}

10905 #1 거기 저 물뽕 다 만드러 가지고 거기 무리 드러오게 뽕머는 거기다 자리가 산 채 드러오는 겁쭈.{거기 저 물뽕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물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자리뽕이 산 채 들어오는 거지요.}

10905 @1 예예예. 아 게난 물뽕하고, 물뽕허기 저네 풍선 가뜰 경우는 무슨?{예예예. 아 그러니까 물뽕하고, 물뽕하기 전에 풍선 같은 경우는 무슨?}

10905 #1 풍선. 풍서도 물뽕은 일썌마는 풍서는 그대로 자방 그대로 강 그대로 푼라마씨? 주근 체로.{풍선. 풍선도 물뽕은 있지만 풍선은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가서 그대로 팝니다. 죽은 체로.}

10905 @1 주근 체로 그 무슨 구덕 달른 거 이런 거는 어서나수파? 그 배에.{죽은 체로 그 무슨 바구니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었었습니까? 그 배에.}

10905 #1 예. 엔나레는 그런 거 뽕로.{아 옛날에는 그런 거 뽕로.}

10905 @1 뽕로.{뽕로.}

10905 #1 예. 뽕로 허영 푼랴쭈다.{예. 뽕로 해서 팔았습니다.}

10908 @1 예예. 그러면 해안가에서예. 이제 우리 아까 구물 종류가 두 가지. 구물 종류 무슨 구물 무슨 구물 일썌과? 해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구물로 꿰기 자브면 어떤 구물 어떤 구무리 피료해마씨?{예예. 그러면 해안가에서요. 이제 우리 아까 그물 종류가 두 가지. 그물 종류 무슨 그물 무슨 그물 있습니까? 해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물로 고기 잡으면 어떤 그물 어떤 그물이 필요합니까?}

10908 #1 그 자리허고 뽕 말고.{그 자리뽕하고 뽕치 말고.}

10908 @1 예.{예.}

10908 #1 이 어망은 저 이 거 절로 감니다게. 예 구멍 크기가.{이 어망은 저 이 거 절로 감니다. 아 구멍 크기가.}

10908 @1 예.{예.}

10908 #1 어 스절 자근 거는 오절.{아 사절 작은 것은 오절.}

10908 #1 요즘 여기는 스절 내지 스절 반. 구물코 쯤 큼니다게.{요즘 여기는 사절 내지 사절 반. 그물코 조금 큼니다.}

10908 @1 네에.{예에.}

10908 #1 그런 걸로 구물 멘드랑. 기침. 어망빼는 그 미테다 뽕뽕. 어 또 이십 미리 정도 돼는 그 뽕뽕 그런 걸 여러 개 드랑 로프에다 나이롱 주레다가 그걸 드랑으네 그물 미테다가 연결헤영 멘든 거시 저 이 위에는 저 이 버국.{그런 것으로 그물 만들어서. 기침. 어망빼는 그 밑에다 봉돌. 어 또 이십 밀리미터 정도 되는 그 봉돌 그런 것을 여러 개 달아서 로프에다 나일론 줄에다가 그걸 달아서 그물 밑에다가 연결해서 만든 것이 저 이 위에는 저 이 버국.}

10908 @1 버국예?{버국요?}

10908 #1 예. 버국덜. 이 준버국 다 만드렁 파니까.{예. 버국들. 이 잔 버국 다 만들어서 파니까.}

10908 @1 예예.{예예.}

10908 #1 그거 저 주레다 메영으네 또 일정한 간격 뒹으네 무끄며는 구물이 돼는데 그런 구물 이제 허게 되면 저녁 때 바다에 강 낭 강 이제 고기 좀 들어짐커다 허는 장소에 강으네 이제 노케 뒹며는 뒷날 아치미 강 거덩. 건끼 뒹며는 고기 들미는 모슬포 나강 풀고.{그거 저 줄에다 매서 또 일정한 간격 뒤서 묶으면 그물이 되는데 그런 그물 이제 하게 되면 저녁 때 바다에 가서 놔서 가서 이제 고기 좀 들것같다 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놓게 되면 뒷날 아침에 가서 걷어서. 건게 되면 고기 들면 모슬포 나가서 팔고.}

10908 @1 그 그물로 행으네 잡는 퀘기는 어떤 퀘기마씨?{그 그물로 해서 잡는 고기는 어떤 고집니까?}

10908 #1 그물로 잡는 거 구루찌. 우럭 뭐 돔. 구문쟁이 다금바리 북빠리 그런 거. 논쟁이 예. 그런 정도.{그물로 잡는 거 뽕에돔. 우럭 뭐 돔. 능성어 다금바리 붉바리 그런 거. 아홉 동가리요. 그런 정도.}

10908 @1 그러면 아까 구물 할 때 퀘기 종류에 따라 절쭈가 다른텐 허자나예? 그 저리라는 마리 무슨 마리우파?{그러면 아까 그물 할 때 고기 종류에 따라 절수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 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908 #1 구물코지. 구물코 기리. 널비.{그물코. 그물코 길이. 넓이.}

10908 @1 예.{예.}

10908 #1 널비를 절로.{넓이를 절로.}

10908 @1 구물코 하나를 절로 표현하자나예? 그러면 아까 마냐게 오절이다 헨쓸 때는 오절 하게 되면 얼만큼 일찌레 얼만큼 정도우파? 기리로 허며는.{그물코 하나를 절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만약에 오절이다 했을 때는 오절 하게 되면 얼만큼 일절에 얼만큼 정답니까? 길이로 하면.}

10908 #1 글썸. 지금 스저리 한 구 미리 구십 미리. 구십 미리 뭐 백꼬 미리 그런 거로 구물. 요즘 구물 만드는 건 한 백오 미리.{글썸. 지금 사절이 한 구 밀리 구십 밀리. 구십 밀리

뭐 백오 밀리 그런 거로 그물. 요즘 그물 만드는 것은 한 백오 밀리.}

10908 #1 저 이 볼락 ㄴ튼 거 잠는 거는 한 칠십오 미리 그런 거.{저 이 볼락 같은 거 잠는 것은 한 칠십오 밀리 그런 거.}

10908 @1 볼라근 자그니까 좀 더 작파예?{볼락은 작으니까 좀 더 작네요?}

10908 #1 예.{예.}

10908 @1 게른 그 칠십오 미리렌 허면 절쭈로 허게 뉘면?{그러면 그 칠십오 밀리라고 하면 절수로 하게 되면?}

10908 #1 칠시보 미리 쟁도 뉘 거시 한 오절쭈.{칠십오 밀리 정도 된 것이 한 오절쭈.}

10908 @1 오절. 음. 칠 쉐치가 오저리네예?{오절. 음. 칠 센티미터가 오절이네요?}

10908 #1 칠 쉐치 오미리 뉘 거시.{칠 센티미터 오 밀리 된 것이.}

10907 @1 그게 오저리라고예. 그리고 여기에 그 원도 하난쭈파?{그게 오절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원도 많았습니까?}

10907 #1 원 워니 어선쭈다. 여기는 저 한개창에 저 뉘통아니엔 헌 디 이제 포구가 뉘어 십쭈마는 엔나레는 거기 물싸민 바당 나고 무리 쪼끔 고여 인쭈 정도. 거 뉘 거기 뉘 잘 드러온다 해서 뉘통아니엔 헌디. 지그른 다 저.{원 원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저 한개창에 저 뉘통안이라고 한 테 이제 포구가 되었습지만 옛날에는 거기 물싸면 바당 나고 물이 조금 고여 있을 정도. 거 뉘치 거기 뉘치 잘 들어온다 해서 뉘통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 저.}

10907 @1 한개 허멍.{한개 하면서.}

10907 #1 아 축강 건설해 부니까 그게 어서저마쭈.{아 포구 건설해 버리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10907 @1 아 우리 엔날 그 ㄴ미라든가 이런 뉘비할 때 통별로 뉘 한다고 해나지 아녀 우파예?{아 우리 옛날 그 모자반이라든가 이런 뉘비할 때 통별로 뉘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10907 #1 예예.{예예.}

10907 @1 그때 통이 뉘우파?{그때 통이 뉘니까?}

10907 #1 그때 통이 바로 이 이 구역.{그때 통이 바로 이 이 구역.}

10907 @1 예.{예.}

10907 #1 이 가파도 도라가멍 뉘칭이 일쭈다게.{이 가파도 돌아가면서 뉘칭이 있습니다.}

10907 @1 예.{예.}

10907 #1 예 요 ㄴ시리. 이개덕. 예 조근통 큰통 평풍덕 저기 장택코 어 조근나끈너 큰아 끈너 물아피 인게 이러케 쭈 도라가면서 그 다 애기허카마쭈?{예 요 모시리. 이개덕. 아 작은통 큰통 병풍덕 저기 장택코, 어 작은아끈여 큰아끈여 물앞이 인게 이렇게 쭈 돌아가면서 그 다 애기할까요?}

10907 @1 예.{예.}

10907 #1 그걸또. 아 아까도 애기헐찌마는 저 인게꾸석 예 저 두이로 도라가른 뉘성. 그 다음 한개창. 한개창으로 저쪽커민 지판알 그디 방에알 지판알. 예 말자븐목. 두시여. 예 큰아끈 아니 큰웅진물 조근웅진물. 또 껌지우리.{그것도 아 아까도 애기헐지만 저 인게꾸석 예 저 뉘로 돌아가면 뉘성. 그 다음 한개창. 한개창으로 저쪽하면 지판알 거기 방아알 지판알. 예 말잡은목. 두시여. 예 큰아끈 아니 큰웅진물 작은웅진물. 또 껌지우리.}

10907 #1 또 사계개 뉘깁머리 이러케 헤영 그 다 그 구역마다 그 뉘칭이 이서 가지고.{또 사계개 뉘깁머리 이렇게 해서 그 다 그 구역마다 그 뉘칭이 있어 가지고.}

10907 #1 그 통마다 이제 잘 드는 통이 이제 므미 잘 올르는 통에다 저 이제 돈 얼마씩 내영으네 가이블 해십쭈게.{그 구역마다 이제 잘 드는 구역이 이제 모자반이 잘 올르는 구역에다 저 이제 돈 얼마씩 내서 가입을 했습쬌.}

10907 #1 한꺼버네 또 거 마니 드러가게 뉘며는 그 몸 그 거름힐 꺼니까 거 득탕 씹끼도 허고 허며는 뉘허니까 한 거기서 한 오 명이민 오 명 드러가민 더 이상 몸 드러가민 다른 통에 드러가압쭈마쭌.{한꺼번에 또 거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모자반 그 거름힐 것이니까 거 다투어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 뉘하니까 한 거기서 한 오 명이면 오 명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가면 다른 구역에 들어가압지요.}

10907 @1 으음.{으음.}

10907 #1 걷또 선착쭈느로 해 가지고 돈 얼마쭌. 게니까 돈 인는 사르문 우선 강 가입퍼 게 뉘며는 춤 그 통 안네 드렁으네 그 해초 가튼 거 해영으네 예 거 올렁으네 거름허고 해 십쭈.{것도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돈 얼마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우선 가서 가입하게 되면 참 그 구역 안에 들어서 그 해초 같은 거 해서 예 거 올려서 거름하고 했습지요.}

10907 @1 게문 그때 통하고 아까 뉘통아네 통허고는 의미가 다른 거구나예?(그러면 그때 구역하고 아까 뉘통안에 통허고는 의미가 다른 거군요?)

10907 #1 다른 겹쭈게.{다른 거지요.}

10907 @1 나는 그런데도 이제 통 이런 원담치록 이성으네 그런 이름.{나는 그런데도 이제 구역 이런 원담처럼 있어서 그런 이름.}

10907 #1 그런 건 아니고.{그런 것은 아니고.}

10907 @1 아니고예. 게문 여기는 별또로 여긴 원담 썬 거는 엇어난마쭌?(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는 별또로 여기는 원담 썬 것은 없었습니까?)

10907 #1 예. 어서.{예. 없어.}

10907 @1 가과도에서도 덤장합니까?(가과도에서도 덤장합니까?)

10907 #1 가과돈 덤장 안 합니다.{가과도는 덤장 않습니다.}

10907 @1 아 덤장 안 해예?(아 덤장 안 해요?)

10907 #1 바당 씨니까 어망이 전더나질 아녀마쭌.{바다 세니까 어망이 견녀내질 않습니다.}

10907 @1 아아 그러면 삼춘 전공 이제 낙쭌. 그냥 엔날 춤때로 해영으네 허는 그거는 어떤 시그로 저길 쉰쭈과?(아아 그러면 삼춘 전공 이제는 낙시. 그냥 옛날 낙싯대로 해서 하는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저기는 했습니까?)

10907 #1 엔날 여기는 춤때로는 가예로는 그자 어랭이 가튼 거 조력 ㄴ튼 거 고멩이 ㄴ튼 거 나깁쭌마는 여기는 보통 뉘마 탕 강으네 줄로 해영 나깁니다게. 줄로.{옛날 여기는 낙싯대로는 가로는 그저 황놀래기 같은 거 노래미 같은 거 용치놀래기 같은 거 낙았지만 여기는 보통 거루 타고 가서 줄로 해서 낙습니다. 줄로.}

10907 @1 예. 줄낙쭌로.{예. 줄낙시로.}

10907 #1 줄낙쭌 해영 어랭이 그런 걷또 나끄곡. 불락 ㄴ튼 건 저 침때 해 가지고 대나무 한 두 발쭌 뉘 거. 세 발. 한 발 두 발 한 세 발 뉘쭌 거라. 그런 거 해여 가지고 예 뉘쭌쭌 가는 거에다가 피 메경 걷또 쭌마 가지고 치며는 꺼멩게 뉘고 이제 뉘뉘터니까 그걸로 허영으네 불락 가튼 거는 그 주레다가 그냥 대구수 아리.{줄낙시 해서 용치놀래기 그런 것도 낙고. 불락 같은 것은 저 낙싯대 해 가지고 대나무 한 두 발쭌 뉘 거. 세 발. 한 발 두 발 한 세 발 뉘쭌 거야. 그런 거 해 가지고 예 뉘쭌쭌 가는 거에다가 피 먹여서 것도 삶아 가지고 쭌면 꺼멩게 되고 이제 뉘뉘하니까 그것으로 해서 불락 같은 것은 그 줄에다 그냥 낙싯줄 아리.}

10907 @1 예.{예.}

10907 #1 일점오 호나 이 호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인조 미끼. 낙씨에다가 이제 뽕톨 이퍼 가지고 거기다 가와. 이퍼는 건뽕고 가와라고. 가와 이퍼 가지고 짹 뿌리게 뽕며는 멀리 안 뿌려도 그러케 고기가 불라기 잘 무러시난.{일점 오호나 이호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인조 미끼. 낙씨에다가 이제 뽕돌 입혀 가지고 거기에다 가와. 입히는 것보고 가와라고. 가와 입혀 가지고 짹 뿌리게 되면 멀리 안 뿌려도 그렇게 고기가 불락이 잘 물었으니까.}

10907 #1 그 경 허고. 또 뽕마 탕 강 그 줄로 나끄는 거는 우럭. 북빠리 그런 거 나깁꼬. {그 그렇게 하고. 또 거루 타서 가서 그 줄로 낚는 것은 우럭. 북빠리 그런 거 낚았고.}

10907 @1 삼촌 아까 조러기렌 현 고기는 어떤 레기마씨?{삼촌 아까 노래미라고 한 고기는 어떤 고집니까?}

10907 @2 조럭.{노래미.}

10907 #1 조련또 그 노래미에 속커는 거?{조럭도 그 노래미에 속하는 거.}

10907 @1 아 아까 노래미에 속커는 거?{아 아까 노래미에 속하는 거?}

10907 #1 거 하여튼 건 색까리 흥끔 거무스레허고 좀 길쭉커고 그 조러기 마시 이집쭈 게.{거 하여튼 건 색깔이 조금 거무스레하고 좀 길쭉하고 그 노래미가 맛이 있습지요.}

10908 @1 그 다으맨예. 우리 그 고기 잡는 배 종류 일찌 아너우파? 배. 배 종류 해 간꼬. 고기 잡는 배 이르든 어떤 게 어떤 게 이서난쭈과? 엔나레 고기 자블 때 사용하는 배 이름? 아까 뽕마도 일꼬.{그 다음에는요. 우리 그 고기 잡는 배 종류 있지 않습니까? 배. 배 종류 해 가지고. 고기 잡는 배 이름은 어떤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옛날에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배 이름? 아까 거루도 있고.}

10908 #1 뽕마.{거루.}

10908 @1 예.{예.}

10908 #1 요수바리뽕.{요수발이배.}

10908 @1 예.{예.}

10908 #1 뽕뽕.{뽕뽕배.}

10908 @1 뽕뽕.{뽕뽕배.}

10908 #1 거 다 자리 뜨는 배가 뽕 혈 때 또 뽕뽕도 뽕곡.{거 다 자리뽕 뜨는 배가 뽕뽕 할 때 또 뽕뽕배도 되고.}

10908 @1 예예.{예예.}

10908 #1 그런 거. 그 정도.{그런 거. 그 정도.}

10908 @1 그 정도예? 그러면 이제 발뽕 발뽕기도 일꼬.{그 정도요? 그러면 이제 발뽕 발뽕기선도 있고.}

10908 #1 발뽕기. 주로 발뽕기로 뽕치나 자리 자브니까. 그건 다 가튼 의미이고.{발뽕기. 주로 발뽕기선으로 뽕치나 자리뽕 잡으니까. 그것 다 같은 의미이고.}

10908 @1 그 다음 우리 지그든 업찌만 뽕선네? 뽕서늘 한번.{그 다음 우리 지금은 업찌만 뽕선요? 뽕선을 한번.}

10908 @1 뽕서니 여기 그러도 뽕나?{뽕선이 여기 그러도 되나?}

10908 @1 그 뽕단배 부분 명칭드를 한번 ㄱ라쭈뽕씨?{그 뽕단배 부분 명칭들을 한번 말쑤해 쭈 보십시오?}

10908 #1 예. 뽕선.{예. 뽕선?}

10908 @1 예.{예.}

10908 #1 예.{예.}

10908 @1 그림 그려봅써?{그림 그려보십시오?}

10908 #1 요 아피를 이제 칼치엔 허고.{요 앞을 이제 칼치라고 하고.}

10908 @1 예.{예.}

10908 #1 요 풍선 요기 이러케 허며는 이런 시그로 됩니다게.{요 풍선 요기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10908 @1 예.{예.}

10908 @2 파락?{파락?}

10908 #1 여기를 이러케 해 가지고 칼치가 뽕족커게 나오곡. 이러케 해서 이러케 허며는 요거시 갑빵.{여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칼치가 뽕족하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것이 갑방.}

10908 @1 갑빵예?{갑방요?}

10908 #1 갑빵 해 가지고 여기 문 드라 가지고 여기에 사람 드거랑 잘 쭈 인게 멘들고. {갑방 해 가지고 여기 문 달아 가지고 여기에 사람 들어가서 잘 수 있게 만들고.}

10908 @1 예. 갑빵.{예. 갑방.}

10908 #1 여기는 칸 칸 해 가지고 카니 인꼬. 가운데는 멩에. 양쪼그로 이러케 멩에가 두꺼운 나무로 이러케 허게 되면 나무가 이러케 멩에.{여기는 칸 칸 해 가지고 칸이 있고. 가운데는 멩에. 양쪽으로 이렇게 멩에가 두꺼운 나무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멩에.}

10908 @1 예. 그 멩에는 무슨 멩에우짜?{예. 그 멩에는 무슨 멩엠티까?}

10908 #1 멩에에다가 이게 여기 돛. 도출 달게끔 여기다 이 두꺼운 나무에다가 이러케 이 고정. 연결시키는 고정 트리 이서 가지고 여기다 노코 이제 노끈으로 이러케 무끄며는 뽕때가 세와져.{멩에에다가 이게 여기 돛. 돛을 달게끔 여기에다 이 두꺼운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 고정. 연결시키는 고정 틀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 놓고 이제 노끈으로 이렇게 묶으면 돛대가 세워져.}

10908 @1 예. 뽕때가 세와져?{예. 돛대가 세워져?}

10908 #1 기침. 게면 이건 허릴때.{기침. 그러면 이것은 고물대.}

10908 @1 허릴때. 이게 허릴때?{고물대. 이것이 고물대?}

10908 #1 예.{예.}

10908 @1 이 뽕때가 허릴때? 예.{이 돛대가 고물대? 예.}

10908 #1 뽕때. 요 갑빵 아페도 이러케 방석 멘드러 가지고 구멍 뚫러 가지고 여기다 안치는 게 야릴때.{돛대. 요 갑방 앞에도 이렇게 방석 만들어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여기다 얹히는 게 야릿대.}

10908 @1 야올때?{이물대?}

10908 #1 야올때.야올때. 허릴때.{이물대. 이물대. 고물대.}

10908 @1 예.{예.}

10908 #1 여기 치통문. 이러케 널 거 가지고 구멍 뚫러진 거시 치통문.{여기 킷구멍. 이렇게 널 그것 가지고 구멍 뚫어서 것이 킷구멍.}

10908 @1 치통문.{킷구멍.}

10908 #1 여기다 해가지고 치를 달며는 이거시 치.{여기다 해가지고 킷을 달면 이것이 킷.}

10908 @1 예.{예.}

10908 #1 여기다가 아 거보고 뭐라 하나? 치.{여기다가 아 그것보고 뭐라 하나? 키.}

10908 #1 치통문. 이 치통무니고.{킷구멍. 이 킷구멍이고.}

10908 @1 예. 치통무니고?{예. 킷구멍이고.}

10908 #1 이거는 치고.{이것은 키고.}

10908 @1 예. 치고.{예. 키고.}

10908 #1 이거 손자비를.{이거 손잡이를.}

10908 @2 키손? 치손? 몽고지이?{키손? 키손? 노손?}

10908 #1 예 이저 부런네.{아 잊어 버렸네.}

10908 @1 네는 어디서?{노는 어디서?}

10908 #1 치창낭. 치창낭.{키창나무. 키창나무.}

10908 @1 아 치창낭. 예예.{아 키창나무. 예예.}

10908 #1 치창낭.{키창나무.}

10908 @1 치창낭 예예.{키창나무 예예.}

10908 #1 하도 오래노난. 이거 치창낭.{하도 오래놓으니까. 이거 키창나무.}

10908 @2 예. 조썬다.{예. 좋습니다.}

10908 #1 요거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요거 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10908 @2 돌 딸고.{뚫 달고.}

10908 #1 초석.{뚫.}

10908 @1 예. 초석.{예. 뚫.}

10908 #1 초서게 허며는 이 대를 대나무 해가지고 이러케 허고 여기는 줄로 허고 여기도 대.{뚫에 하면 이 대를 대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줄로 하고 여기도 대.}

10908 @1 예.{예.}

10908 #1 여기도 두꺼운 대로 허고. 여긴 줄.{여기도 두꺼운 대로 하고. 여기는 줄.}

10908 @1 예.{예.}

10908 #1 이러케 해서 요 주레다가 이러케 두꺼운 노끈으로 이러케.{이렇게 해서. 요 줄에다가 이렇게 두꺼운 노끈으로 이렇게.}

10908 @1 대에다가 메영.{대에다가 매서.}

10908 #1 예. 이러케 허게 되면 요게 돌때 끼우는 데.{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이 뚫대 끼우는 데.}

10908 @1 예.{예.}

10908 #1 또 여기에 도르래 들고 여기도 도르래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예 여기서 줄로 해 가지고.{또 여기에 도르래 달고 여기도 도르래 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예 여기서 줄로 해 가지고.}

10908 @1 땡겨 가지고.{당겨 가지고.}

10908 #1 여기다 고정시켜. 여기 고정시키게 되며는 또 돌 딸고 여기도 도르래 매어 가지고 여기다가.{여기에다 고정시켜. 여기 고정시키게 되면 또 뚫 달고 여기도 도르래 매 가지고 여기에다가.}

10908 @1 뭐에 연겨리우파?{뭐에 연결입니까?}

10908 #1 여기다가 저 이 에 종통.{여기에다가 저 이 아 노손.}

10908 @1 종통.{노손.}

10908 #1 종통 만드러 가지고 여기다가 그 이제 바람이 세게 뒤편에 뭐 허니까 줄로 이쪽에 고정시키고 이러케 해가지고.{종통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이제 바람이 세게 되면 뭐 허니까 줄로 이쪽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908 @1 두 군데로.{두 군데로.}

10908 #1 도르래로 이러케 허민 에 이걸로 땡기게 뒤편에 이거 또 땡겨도 지고 무끄게 뒤편에 쑥 도라가며는 무끄게 뒤편에.{도르래로 이렇게 하면 에 이것으로 당기게 되면 이거 또 당겨도 지고 묶게 되면 쑥 돌아가면 묶게 되고.}

10908 @1 게문에 삼촌. 아까 이게 허릴때 아니라예? 이게 뽕뽕에 허릴때. 허릴때 여기 대나무를 뭐렌 험니까? 이러케 가로로 논 대나무.{그러면요 삼촌. 아까 이것이 고물대 아닌가요? 이것이 뽕대인데 고물대. 고물대 여기 대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가로로 놓은 대나무.}

10908 @2 초서게.{뚫에.}

10908 @1 초서게. 허릿대 가운데 노는.{뚫에. 고물대 가운데 놓는.}

10908 #1 어.{어.}

10908 @1 이게 활때.{이게 활대.}

10908 #1 요디다 거는 거시 활때고.{요기다 거는 것이 활때고.}

10908 @1 예. 중간에. 활때고.{예. 중간에. 활때고.}

10908 #1 활때고 이.{활때고 이.}

10908 @1 전체저그로.{전체적으로.}

10908 #1 게난 이거 공부행 놔둬야하는데.{그러니까 이거 공부해서 놔둬야하는데.}

10908 @1 웃음.

10908 #1 옛날 나도 직접 뽕뽕난디 이 저.{옛날 나도 직접 만들었는데 이 저.}

10908 @1 게문 이 여뽕 주른?{그러면 이 옆에 줄은?}

10908 #1 이거시 예.{이것이 예.}

10908 @2 베릴줄.{벼릿줄.}

10908 #1 이거시 당때라고 해실 거라. 당때.{이것이 당때라고 했을 거야. 당대.}

10908 @1 여기 이게 당때예?{여기 이것이 당때요?}

10908 #1 예 당때.{예. 당대.}

10908 @1 당때.{당대.}

10908 #1 당때에 *** 뽕 썰 때는 요거 한 당을 무끄쥘게. 요 간격 요거 쪼끔씩 나오는 데 요거 이거 두 개를 이러케.{당때에 *** 바람 썰 때는 요거 한 당을 묶지요. 요 간격 요거 조금씩 나오는 데 요거 이거 두 개를 이렇게.}

10908 @1 한 당?{한 당?}

10908 #1 예. 무끄게 뒤편에 한 당 무끄곡.{예. 묶게 되면 한 당 묶고.}

10908 @1 예.{예.}

10908 #1 바람 또 크게 세게 뒤편에 요거까지 다 세 개 무끄면 석 당 무끄며는 요 두 당 바깥에 안 남지. 게문 바람 세도 아 배가 저 너머지지 아니니까.{바람 또 크게 세게 되면 요거까지 다 세 개 묶으면 석 당 묶으면 요 당밖에 안 남지. 그러면 바람 세도 아 배가 저 넘어지지 않으니까.}

10908 @1 다 뽕뽕커게 이러케 고정시켜주는 거라예? 그거를 당때 무끄뽕 해마씨?{다 뽕뽕하게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지요? 그것을 당대 묶는다고 하나요?}

10908 #1 예.{예.}

10908 @1 그러며는 이 허리초서게 당때는 다섯 개가 되는 거우꽈? 여섯. 아 다섯 개지.
{그러면 이 고물대에 당대는 다섯 개가 되는 겁니까? 여섯. 아 다섯 개지.}

10908 #1 네 개. 아 다 우 아래꺼정 허며는 혼 여섯 개.{네 개. 아 다 위 아래까지 하면
한 여섯 개.}

10908 @1 여섯 개고 이런 폭 대는 거슨 네 개?{여섯 개고 이런 폭 대는 것은 네 개?}

10908 #1 네 개.{네 개.}

10908 @1 다섯 땅으로 뒤편 인는 거 아니?{다섯 당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

10908 #1 포근 아 당때는 네 개 들고.{폭은 아 당대는 네 개 달고.}

10908 @1 예. 당때는 네 개.{예. 당대는 네 개.}

10908 #1 네 개 달고 으.{ 네 개 달고 으.}

10908 @1 우알론 뒤편 해?{위 아래로는 뭐라고 해요?}

10908 #1 머릴때 알때라고 헐쓸 꺼여.{머릿대 알대라고 했을 거야.}

10908 @1 아 머릴때 알때.{아 머릿대 알대.}

10908 #1 머릴때 알때.{머릿대 알대.}

10908 #1 게른 머릴때 알때.{그러면 머릿대 알대.}

10908 @1 게민 이 여페 주른 뒤편꽈? 돌쭈른 어디우꽈? 초석쭈른?{그러면 이 옆에 줄은
뭇니까? 뚫줄은 어딴니까? 뚫줄은?}

10908 #1 여기 돌 딸 때 올리는 거?{여기 뚫 달 때 올리는 거?}

10908 @1 예. 그게 초석쭈?{예. 그것이 뚫줄?}

10908 #1 어.{어.}

10908 @1 게른 이 도르래는 뒤편 ㄴ라?{그러면 이 도르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10908 #1 으?{으?}

10908 @1 이거 올리 이러케 하면서 하는 도르래?{이거 올리 이렇게 하면서 하는 도르래?}

10908 #1 그냥 여기선 도레기.{그냥 여기서는 도르래.}

10908 @1 도레기?{도르래?}

10908 #1 도레기 메왕.{도르래 메워서.}

10908 @1 도레기 메왕예. 게니까 이 초석쭈 올리고 내리고 허는 거를 도레기. 그 다음 중
통하고 매는 데도 도레기 아까 헐헐 헐짜나예. 이 도레긴 뒤편꽈? 중통에 매는 건?{도르래
메워서요. 그러니까 이 뚫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도르래. 그 다음 노손하고 매는 데도
도르래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이 도르래는 뭇니까?}

10908 #1 겐또 도레기.{그것도 도르래.}

10908 @1 그냥 도레기. 여기도 도레기 두 개. 여긴 하나.{그냥 도르래. 여기도 도르래 두
개. 여기는 하나.}

10908 #1 하나.{하나.}

10908 @1 하나고 여기는 도레기 두 개예?{하나고 여기고 도르래 두 개요?}

10908 #1 예.{예.}

10908 @1 예. 이러케 이제 하고. 그 다으메 아까 멍에 이러케 헐는데 가운데 멍에는 무슨
멍에 힘니까? 멍에 배에 멍에는 맨 개 이쭈꽈?{예.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멍에
이렇게 했는데 가운데 멍에는 무슨 멍에 합니까? 멍에 배에 멍에는 몇 개 있습니까?}

10908 #1 한장.{한장.}

10908 @1 배 가운데를.{배 가운데를.}

10908 #1 배 가운데 인는 장을 한장.{배 가운데 있는 장을 한장.}

10908 @1 예.{예.}

10908 #1 한장에 저 멩에. 한장멍에엔 험쭈.{한장에 저 멩에. 한장멍에라고 하지요.}

10908 @1 예. 한장멍에예? 예. 한장멍에. 그 다음 멩에가 이 멩에 말고도 으라 개 일찌 아너우파? 멩에가 멘 개 이실 겨우파?{예. 한장멍에요? 예. 한장멍에. 그 다음 멩에가 이 멩에 말고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멩에가 몇 개 있을 겁니까?}

10908 #1 멩에는 한장멍에 뿐.{멩에는 한장멍에 뿐.}

10908 @1 고불멍에하고 이물멍에는?{고물멍에하고 이물멍에는?}

10908 #1 고부레는 치통문 일꼬.{고물에는 치통문 있고.}

10908 @1 예.{예.}

10908 #1 우에는.{위에는?}

10908 @1 이물 이무레는?{이물 이물에는?}

10908 #1 이무레는.{이물에는.}

10908 @1 아까 이물감빵 감빵 일꼬.{아까 이물감방 있고.}

10908 #1 감 감빵 일꼬.{감 감방 있고.}

10908 @1 그 다으메 이 여페 배 여페는 뭐렌 험니까?{ 그 다음에 이 옆에 배 옆에는 뭐라고 합니까?}

10908 #1 예 노가이.{예 노가이.}

10908 @1 노가이. 그게 파락?{노가이. 그것이 파락?}

10908 #1 아 파락또 노가이. 일본마릴찌 몰르주만. 우린 노가이라고.{아 파락도 노가이. 일본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노가이라고.}

10908 @1 파라기렌 말도 드릴찌예? 이거 노가이는 일본말 담쭈다.{파락이라는 말도 들었지요? 이거 노가이는 일본말 같습니다.}

10908 #1 예 **파라기엔 험쭈. 파락.{예 ** 파락이라고 하지요. 파락.}

10908 @1 웃음.

10908 #1 파락.{파락.}

10908 @1 예. 파락.{예. 파락.}

10908 #1 파락 파락또 이러케 너브며는 이러케 멩에 바끄로 나온 데다가 이러케 두르게 뒹며는.{파락 파락도 이렇게 넓으면 이렇게 멩에 밖으로 나온 데다가 이렇게 두르게 되면.}

10908 @1 예.{예.}

10908 #1 이 정도 노피로 이러케 돌르게 뒹며든 또 이러케 두러 버리며는 배허곡 간격 새에 이 저 바디를 저 이 바디를 부쳐줘야 뒹는데 그거시 파락. 그거시 파라기고 이 으페 거는 그냥 노가이엔 허영.{이 정도 높이로 이렇게 두르게 되면 또 이렇게 둘러 버리면 배하고 간격 사이에 이 저 바디를 저 이 바디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파락. 그것이 파락이고 이 옆에 거는 그냥 노가이라고 해서.}

10908 @1 예. 노가이.{예. 노가이.}

10908 @1 으으으음.{으으으음.}

10908 @1 그러면 이 여페 아까 저기 바디 부쳐주는 거 일짜누파?{그러면 이 옆에 아까 저기 바디 붙여주는 것 있지않습니까?}

10908 #1 예. 파락.{예. 파락.}

10908 @1 그 그거에는 뭐 놀 쭈도 인는 디 아니라예? 물건 가쁜 겐또예?{그 그것에는 뭐 놓을 수도 있는 데 아닌가요? 물건 같은 것도요?}

10908 #1 거 거는 여기 풍서는 노 저을 때에 여기 또.{거 거는 여기 풍선은 노 저을 때에 여기 또.}

10908 @1 노는 어디서 지서마씨?{노는 어디에서 저어요?}

10908 #1 요 치통문 요조게다가.{요 킷구멍 요쪽에다가.}

10908 @1 예.{예.}

10908 #1 저 이 거보고 뭐냐 저.{저 이 거보고 뭐냐 저.}

10908 @1 벤드레 몽고지?{벤드레, 노손?}

10908 @2 거 췌로 댜 거예?{거 쇠로 댜 거요?}

10908 @1 예. 거 우리 여기서는 네줄 터영으네.{예. 거 우리 여기서는 낫쫘해서.}

10908 @2 아 네쫘. 예 네쫘.{아 낫쫘. 예 낫쫘.}

10908 #1 네쫘.{낫쫘.}

10908 @1 예.{예.}

10908 #1 네쫘 터영으네 허게 댜며는 허고 요 파라게에다가 요 멍에 한장멍에 또 으프로 나온 데다가 요 네쫘 이거 해여 가지고 네를 이쫘게도 인꼬 이쫘게도 인꼬 네 두 개에다가 아 큰네 해 가지고 식 개.{낫쫘해서 하게 되면 하고 요 파라게에다가 요 멍에 한장멍에 또 옆으로 나온 데다가 요 낫쫘 이거 해 가지고 노를 이쫘게도 있고 이쫘게도 있고 노 두 개에다가 아 큰노 해 가지고 세 개.}

10908 @1 세 개예?{세 개요?}

10908 #1 예. 세 개 허영 노를 저언꼬.{예. 세 개 해서 노를 저었고.}

10908 @1 계문예. 삼춘. 이 네쫘 이 이 고불예. 고불 쪼게서 전는 네는 무슨 네 힘니까? {그러면요 삼춘. 이 낫쫘 이 이 고물요. 고물 쪽에서 져는 노는 무슨 노 힘니까?}

10908 @1 도문네?{도문노?}

10908 #1 아 도 춤. 웃음. 그거 더 잘아람쫘다양. 도문네 말쫘다.{아 도 참. 웃음. 그거 더 자 알고 있네요. 도문노 맞습니다.}

10908 @1 게 이쫘기니까.{게 이쫘이니까.}

10908 #1 이거 도문네하고 전네.{이거 도문노하고 옆노.}

10908 @1 계문 도문네하고 이 양쪼게는?{그러면 도문노하고 이 양쪼에는?}

10908 #1 전네.{옆노.}

10908 @1 전네?{옆노?}

10908 #1 예.{예.}

10908 @1 켄꺼리엔 안 허고 여기는 전네.{켓꺼리라고 안 하고 여기는 져네.}

10908 #1 예. 전네.{예. 옆노.}

10908 #1 그 그러면 도문네 전는 사르문 누레젠 힘니까?{그 그러면 도문노 져는 사람은 누구라고 힘니까?}

10908 #1 도문넨 보통 선장이 잡쫘마씨.{도문노는 보통 선장이 잡지요.}

10908 @1 선장이 잡꼬. 이 엽 엽.{선장이 잡고. 이 옆 옆.}

10908 #1 배 임제가. 배 임제가 잡꼬 이건 동서드리 잡꼬.{배 임자가. 배 임자가 잡고 이 것은 동서들이 잡고.}

10908 @1 아 전네는 동서드리 잡꼬예? 계문 저거도 풍선 한번 나가젠 허면 세 명 이상은

타야겠파예? 배 하나예?{아 옆노는 동서들이 잡고요? 그러면 적어도 풍선 한번 나가려고 하면 세 명 이상은 타야겠네요? 배 하나요?}

10908 #1 아 아니. 두 명만 타도 돼긴 돼.{아 아니. 두 명만 타도 되기는 돼.}

10908 @1 아 두 명만 타도.{아 두 명만 타도.}

10908 #1 노는 바람 잘 때는 혼자만 저어도 되고.{노는 바람 잘 때는 혼자만 저어도 되고.}

10908 @1 예.{예.}

10908 #1 또 전네 저을 싸름 허게 돼든 한 사람 더 인쓰면 조코.{또 옆노 저을 사람 하게 되면 한 사람 더 있으면 좋고.}

10908 @1 아아.{아아.}

10908 #1 돌또 달 때는 선장이 인꼬. 이 돌 올려주는 사르미 셔야 돼난.{돛도 달 때는 선장이 있고. 이 돛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10908 @1 예.{예.}

10908 #1 하여튼 두 사람 이상은 셔야.{하여튼 두 사람 이상은 있어야.}

10908 @1 예. 게문 돌 올려주는 사라를 부르는 이르든 어서마씨?{예. 그러면 돛 올려주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없나요?}

10908 #1 그건 인꼬.{그것은 없고.}

10908 @1 그 다음 또 삼춘 아까 이거는 허리.{그 다음 또 삼춘 아까 이것은 허리.}

10908 #1 허릴때엔 허고.{고물대라고 하고.}

10908 @1 허리초서기자나예?{고물돛이잖아요?}

10908 #1 이건 허리고.{이것은 고물돛이고.}

10908 @1 아까 여기는 몇 땅으로 돼어 일쭉과? 이쪼게 꺼는.{아까 여기는 몇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것은.}

10908 #1 그거는.{그것은.}

10908 @1 자근 도슨?{작은 돛은?}

10908 #1 그거슨 가운데는 이건 두 개.{그것은 가운데는 이것은 두 개.}

10908 @1 아아.{아아.}

10908 #1 이거는 바라미 켜나 안 켜나 이건 그대로.{이것은 바람이 켜나 안 켜나 이건 그대로.}

10908 @1 항상 이러케 행 놔뵈.{항상 이렇게 해놔뵈서.}

10908 #1 어 무끄지 아녕. 그냥 돌 달기만 허든 돼어. 이런 시그로.{어 묶지 않고. 그냥 돛 달기만 하면 되어. 이런 식으로.}

10908 @1 예.{예.}

10908 #1 도르래. 도레기.{도르래. 도르래.}

10908 @1 도레기 두 개 하고. 으.{도르래 두 개 하고. 으.}

10908 #1 여기 도레기. 코거리 해 가지고 고리에다 어느 정도 간격 이거는 누결따 뽕결따 허지마는 이거는 거의 고정.{여기 도르래. 고리 해 가지고 코에다 어느 정도 간격 이것은 누혔다 당겼다 하지만 이것은 거의 고정.}

10908 @1 예. 게문 이 도르래 해 갇꼬 매는 이 부분예. 여기는 이르미 뽕우짜? 아페.{예. 그러면 이 도르래 해 가지고 매는 이 부분요. 여기는 이름이 뽕니까? 앞예.}

10908 #1 그냥 풀리. 고티엔 해.{그냥 고리. 고리라고 해.}

10908 @1 풀리. 풀리 이름 별로 어서마씨? 여기에 아까 그 이물감뽕예 이러케 네모나게

뭐 만드랴고네.{고리. 고리 이름 별로 없나요? 여기에 아까 그 이물갑방에 이렇게 네모나게 뭐 만들어서.}

10908 #1 방석. 방석.{방석. 방석.}

10908 @1 방석. 무슨 방석?{방석. 무슨 방석?}

10908 #1 야올때빵서기엔.{이물대 방석이라고.}

10908 @1 야올때방씩예?{이물대 방석이라고요?}

10908 #1 여기는 허릴빵석.{여기는 고물대 방석.}

10908 @1 아 여기 야.{아 여기 이.}

10908 #1 어 허릴빵석 이제.{어 고물대 방석 이제.}

10908 @1 허릴빵석. 그 방석또 네모난 나무 이런 거세다가 이러케 사각경으로.{고물대 방석. 그 방석도 네모난 나무 이런 것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10908 @1 예. 뿔랑.{예. 뿔어서.}

10908 #1 기피 팝쭈게.{깊이 파지요.}

10908 @1 예.{예.}

10908 #1 게며는 허릴때 대나무 이러케 허며는 허릴때 숙때나무 가튼 거 이러케 허며는 이런 미테다 이러케 까까 가지고 여기에 맡게끔.{그러면 고물대 대나무 이렇게 하면 고물대 삼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이런 밑에다 이렇게 깎아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10908 @1 끼우게예?{끼우게요?}

10908 #1 딱 두이로 빼여 가지고 여기다 노코 요 멩에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이러케 노코.{딱 뒤로 빼 가지고 여기다 놓고 요 멩에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놓고.}

10908 @1 예.{예.}

10908 #1 두 두리나 세시서 이러케 이러케.{두 둘이나 셋이서 이렇게 이렇게.}

10908 @1 올렁.{올려서.}

10908 #1 소느로 올리게 아느로 드러가면서 올리게 뒤편은 이제 세와지게.{손으로 올리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올리게 되면 이제 세워지게.}

10908 @1 예.{예.}

10908 #1 게민 저 여기 트리 일썌 가지고.{그러면 저 여기 틀이 있어 가지고.}

10908 @1 예.{예.}

10908 #1 그 허리 어 멩에 뒤켜네 이러케 나무로 이러케 골히 멘드랴고네 거기에다 이제 노끄느로 헤영 우에 딱 무끄며는 아랫빵서게 고정 되고 우의 딱 무끄게 뒤편은.{그 고물 아 멩에 뒤켠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고리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제 노끈으로 해서 위에 딱 묶으면 아랫방석에 고정 되고 위에 딱 묶게 되면.}

10908 @1 허리도시.{고물돛이.}

10908 #1 움지기지 아녀.{움직이지 않아.}

10908 @1 음 게면 허리도시. 허리돌때가 여기 딱 세워지는 거.{음 그러면 고물돛이. 고물돛대가 여기 딱 세워지는 거.}

10908 #1 예.{예.}

10908 @1 으음.{으음.}

10908 #1 게며는 또 이거시 총이엔 현 게 일쑤다.{그러면 또 이것이 총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10908 @1 예.{예.}

10908 #1 요 이 대나무 세왕 내 부는 게 아니고 요 총 끝뎡이에다가 예 버릴쥬 메여 가지고.{요 이 대나무 세워서 내 버리는 게 아니고 요 총 끄트머리에다가 예 버릴쥬 매 가지고.}

10908 @1 예.{예.}

10908 #1 이 노가이 여파다 이러케 구멍을 뚫러 가지고 거기다 끼엿 이제 무껍. 무끄게 뚫며는 양쪼그로 하나씩 두 줄.{이 노가이 옆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 끼어서 이제 묶어서. 묶게 되면 양쪽으로 하나씩 두 줄.}

10908 @1 버 버릴쥬.{버 버릴쥬.}

10908 #1 예. 버릴쥬.{예. 버릴쥬.}

10908 @1 아 게른 이 버릴쥬 무끄는 여기 노가이에 허는 그 부분도 이름 이시는가마씨? 골히 만드는데.{아 그러면 이 버릴쥬 묶는 여기 노가이에 하는 그 부분도 이름 있는가요? 고리 만드는데.}

10908 #1 건 어*.{그건은 없*.}

10908 @1 건 업꼬.{그것은 없고.}

10908 @1 게른예. 네가 아까 세 군데서 저실 꺼 아니우파? 네 전는 거는 뭇렌 ㄴ라? 뭇 자방으네 네를 저십니까?{그러면요. 노가 아까 세 군데서 저을 것 아닙니까? 노 짓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뭇 잡아서 노를 짓습니까?}

10908 #1 그 네 우대 종통 자방. 네 우대 저 네 알때허고 올때허곡 연결허곡 여기 이제 손자비를 종통이엔.{그 노 윗대 노손 잡아서. 노 윗대 저 노 아랫대하고 윗대하고 연결하고 여기 이제 손잡이를 노손이라고.}

10908 @1 아 네 손자비를 종통예?{아 노 손잡이를 노손이라고요?}

10908 #1 예. 여기.{예. 여기.}

10908 @1 예. 이제 여긴 여긴 뭇 네썸 뎡드랑으네.{예. 이제 여기는 여기는 뭇 뚫구멍 만 들어서.}

10908 @2 예. 만썸다.{예. 맞습니다.}

10908 #1 구멍 뚫라겄꼬. 이 안네. 네 종통에다가 뎡드레.{구멍 뚫어졌고. 이 안네. 노 노손에다가 뎡드레.}

10908 @1 예. 뎡드렌쥬.{예. 뎡드렛쥬.}

10908 #1 예 뎡드렌쥬 여기 이 안.{예 뎡드렛쥬 여기 이 안.}

10908 @1 네 네조세다가.{노 뚫쥬에다가.}

10908 #1 아니 안쪼게다가 이 멍에 안쪼게다가.{아니 안쪼에다가 이 멍에 안쪼에다가.}

10908 @1 예.{예.}

10908 #1 저 노끈 메여 가지고 이러케 둥그러케 양쪼그로 이러케 허고.{저 노끈 매 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10908 @1 예.{예.}

10908 #1 허릴때에도 이러케 저 노끈 허게 뚫면 이 골히로 종통에 끼왕으네 네를 저는 거.{고물대에도 이렇게 저 노끈 하게 되면 이 고리로 노손에 끼워서 노를 짓는 거.}

10908 @1 아 그러면 이거를 전부 뎡드레렌 헤예?{아 그러면 이것을 전부 뎡드레라고 한 다고요?}

10908 #1 그 뎡드레.{그 뎡드레.}

10908 @1 줄. 줄로.{줄. 줄로.}

10908 #1 줄. 줄 가지고 뎡드레.{줄. 줄 가지고 뎡드레.}

10908 @1 게니까 이 벤드레 줄 쏘게 이제 종통을 끼왕 저기 전는 거 아니?(그러니까 이 벤드레 줄 속에 이제 노손을 끼워서 저기 져는 거 아니?)

10908 #1 예.{예.}

10908 @1 예. 게문 소느로 잡는 부부는 어디우파? 손 종통 잡는덴 허지 아넨? 아까.{예. 그러면 손으로 잡는 부분은 어딴니까? 손 노손 잡는다고 하지 안했어요? 아까.}

10908 #1 종통.{노손.}

10908 @1 어 종통. 종통. 요 종통을 여기에 끼왕 허는 거?(어 노손. 노손. 요 노손을 여기에 끼워서 하는 거?)

10908 #1 벤드레에 끼왕.{벤드레에 끼워서.}

10908 @1 아 벤드레에 끼왕예. 그 다음 벤드레에 끼왕 하게 되면?(아 벤드레에 끼워서요. 그 다음 벤드레에 끼워서 하게 되면?)

10908 #1 네 저을 때에 그거 끼우지 아느민 이 밋에 물 걸리는 거시 납작커기 때무네 땡길 때 밋트로 바다 쏘그로 드러가 부는 때무네 우에로 올라가 불거든. 종통이 그러니까 이 벤드레를 끼워주는 거.{노 저을 때에 그거 끼우지 않으면 이 밋에 물 걸리는 것이 납작하기 때문에 당길 때 밋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때문에 위로 올라가 버리거든. 노손이 그러니까 이 벤드레를 끼워주는 거.}

10908 @1 예.{예.}

10908 #1 더 올라가지 몬터게.{더 올라가지 못하게.}

10908 @1 아아.{아아.}

10908 #1 게며는 밋트로 무를 자꾸 거려주니까 배가 아프로 나가게 되는 거지.{그러면 밋으로 물을 자꾸 떠주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

10908 @1 게문 그 네가 물 쏘그로 드러가는 부부들 네에 무슨 부분 합니까?(그러면 그 노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노에 무슨 부분 합니까?)

10908 @2 요거마씨. 요거.{요겁니다. 요거.}

10908 #1 네 우대 네.{노 윗대 노.}

10908 @1 네씨븐 어디우파?(노윗은 어딴니까?)

10908 #1 게 네 네씨비 이 끝 뿌분을 네씨비엔 허곡.{게 노 노윗이 이 끝 부분을 노윗이라고 하고.}

10908 @1 예. 이 우에 꺼는?(예. 이 위에 져는?)

10908 #1 이 우대.{윗대.}

10908 @1 우대.{윗대.}

10908 #1 우대허곡.{윗대하고.}

10908 @2 이건 아 알때팡?(이것은 아 알때니까?)

10908 #1 아 알때. 알때 쪼게도 우에 저 납작커게 만든 것이.{아 아랫대. 아랫대 쪽에도 위에 저 납작하게 만든 것이.}

10908 @1 네썸.{노윗.}

10908 #1 네썸.{노윗.}

10908 @1 게문 네차근 어느 겨우파?(그러면 노착은 어느 겁니까?)

10908 #1 네착 뭐 그런 거?(노착 뭐 그런 거?)

10908 @1 네손. 그거 그 마른 얻꼬.{노손. 그거 그 말은 없고.}

10908 #1 종통허고 우대허고.{노손하고 윗대하고.}

10908 @1 아아.{아아.}

10908 @2 알때.{아랫대.}

10908 @1 올때. 여기는 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예. 삼촌 이거는 하고 이 배에 또 긴 짱때 달은 거 하나 인찌 아녀우파? 배 완따갠따 하는 거?{윗대. 여기는 윗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삼촌 이것은 하고 이 배에 또 긴 장대 같은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배 왔다갔다 하는 거?}

10908 #1 사올때.{상앗대.}

10908 @1 사올때는 어디에 놔니까?{상앗대는 어디에 놓습니까?}

10908 #1 사올때도 역시 영 파라게. 기침. {상앗대도 역시 이렇게 파락에.}

10908 @1 파라게 놔두는 거.{파락에 놓아두는 거.}

10908 @2 혹시 요만쯔메 보면 영 똥 거 노치 아넘니까?{혹시 요만쫘메 보면 이렇게 된 거 놓지 않습니까?}

10908 @1 뭐 거렁 사올때 영 걸렁 노키도 하는.{뭐 걸어서 상앗대 이렇게 걸어서 놓기도 하는.}

10908 #1 아 이 저이 예.{아 이 저이 예.}

10908 @1 이쪽 치통문 쪼게.{이쪽 킷구멍 쪽에.}

10908 #1 치통문 쪼게 거.{킷구멍 쪽에.}

10908 @1 요런 낭까지 딱 ***.{요런 나뭇가지 딱 ***.}

10908 @1 와이. 무슨 가지*.{와이. 무슨 가지*.}

10908 #1 모르겐네.{모르겠네.}

10908 @1 그러케 허면 거기에 뭐 거리 노키. 허드레 현 거 거리노키도 하고 허는예?{그렇게 하면 거기에 뭐 걸어 놓기. 허드레 한 거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요?}

10908 #1 그 이 허릴때도 이러케.{그 고물대도 이렇게.}

10908 @1 걸쳐 노코.{걸쳐서 놓고.}

10908 #1 딱 케여그네 걸청 그 거보고.{딱 해서 걸쳐서 그 거보고.}

10908 #1 쟁가기 안 나네.{생각이 안 나네.}

10908 @2 예. 조쭈다.{예. 좋습니다.}

10909 @1 예예. 그 다으메 해안가에서 여기에서 잡는. 그때 조개도 일낀 일뎡 해서예? 여기 조개드른 어떤 종뉴 이서마씨?{예예. 그 다음에 해안가에서 여기에서 잡는. 그때 조개도 있기는 있다고 했지요? 여기 조개들은 어떤 종류 있어요?}

10909 #1 조개는 어금.{조개는 어금.}

10909 @1 예. 어금. 그때 어금 얘기헐따. 어금.{예. 어금. 그때 어금 얘기했다. 어금.}

10909 #1 어금. 그 다음 보말.{어금. 그 다음 고둥.}

10909 @1 예.{예.}

10909 #1 보말도 텅겅이 일꼬.{고둥도 텅겅이 있고.}

10909 @1 예.{예.}

10909 #1 아 먹뽀말 일꼬.{아 밤고둥 있고.}

10909 @2 수두리 일꼬.{두드럭고둥.}

10909 #1 수두리도 일꼬. 가메기보말도 일꼬.{두드럭고둥도 있고. 타래고둥도 있고.}

10909 @1 예.{예.}

10909 @2 췌보말?{소라고둥?}

10909 #1 췌군벌.{군부.}

10909 @1 예. 췌군벌.{예. 군부.}

10909 #1 군벌. 췌군벌. 베말. 바루.{군부. 군부. 삿갓조개. 오분자기.}

10909 @1 예.{예.}

10909 #1 그 정도.{그 정도.}

10909 @1 전보근?{전복은?}

10909 #1 저 전보근 가에서 안 나난.{저 전복은 가에서 안 나니까.}

10909 @1 이거는 가에서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점복 종류는?{이것은 가에서 안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복 종류는?}

10909 #1 기침. 바다에는 또 소라.{바다에는 또 소라.}

10909 @1 소라를 이 동네 말로?{소라를 이 동네 말로?}

10909 #1 구제기.{소라.}

10909 @1 예. 구제기.{예. 소라.}

10909 #1 구제기허고 점복커고.{소라하고 전복하고.}

10909 @1 예.{예.}

10909 #1 해삼.{해삼.}

10909 @1 예.{예.}

10909 #1 해서텐 해. 여기선 해섬.{해삼이라고 해. 여기서는 해삼.}

10909 @1 해섬.{해삼.}

10909 #1 주로 그 정도.{주로 그 정도.}

10909 @2 점복도 암놈 순놈 일짜누파?{전복도 암놈 수놈 있잖습니까?}

10909 #1 수통이.{수전복.}

10909 @1 예.{예.}

10909 #1 마드리.{시볼트전복.}

10909 @1 점복 새끼는?{전복 새끼는?}

10909 #1 점복 새긴 생피. 생피.{전복 새끼는 생피. 생피.}

10909 @1 예. 생피.{예. 생피.}

10909 #1 생피.{생피.}

10909 @1 수통이는 뭐우파?{수통이는 뭘니까?}

10909 #1 수 잘 나도 모르는데.{수 잘 나도 모르는데.}

10909 @2 순놈이우파?{수놈입니까?}

10909 #1 수통이. 수통이. 순놈 점복보고 수통이엔 허는 거 가튼데. 수통이.{수통이. 수통이. 수놈 전복보고 수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수통이.}

10909 @1 예. 마드리는?{예. 시볼트전복은?}

10909 #1 마드리.{시볼트전복.}

10909 @2 건 막 늘근 거 아니우팡? 마드레는?{그것은 막 늙은 것 아닙니까? 마드레는?}

10909 #1 마드레?{마드레?}

10909 @1 막 늘근 건만 아니고 모양이 다른 거.{막 늙은 것만 아니고 모양이 다른 거.}

10909 #1 아 경 늙지 아녀도 마드레 몽탕허고 건 뭘 암점복보고 그러케 허는진 몰라도 부인 더러 잘 구분허영.{아 그렇게 늙지 않아도 시볼트전복 몽푹하고 건 뭘 암전복보고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부인들은 잘 구분해서.}

10909 @2 예 예를 들면 이러케 이러케.{예.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10909 #1 우린 우린 꼭 ㄱ든 점보그로만 보는데 여자드른 수통이 마드레.{우리는 우리는 꼭 같은 전복으로만 보는데 여자들은 수통이 마드레.}

10909 @1 암침복 베짜킨 건 암침복 요리케 헨 건 수침복. 마드레는 누니 크대요.{암전복 납작한 것은 암전복 요렇게 한 것은 수전복. 시볼트전복은 숨구멍이 크대요.}

10909 #1 으음.{으음.}

10909 @2 걸 누니라고 해?{그것을 눈이라고 해?}

10909 @1 누니라고. 우도에서 나가 저 생활어할 때.{눈이라고. 우도에서 내가 저 생활어할 때.}

10909 @2 아 그래?{아 그래?}

10909 @1 그래서 하나 눈. * 누니 마드레가 크텐.{그래서 하나 숨구멍. * 숨구멍이 시볼트전복이 크다고.}

10909 @2 게문 숨꾸멍?{그러면 숨구멍?}

10909 @1 예. 숨꾸멍.{예. 숨구멍.}

10909 @2 으음.{으음.}

10910 @1 이러케 하고예? 그 다으메 딱 이제 바라메 대해서. 아까 동서남북. 바람 이름 한번 곱아줘 봅써?{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딱 이제 바람에 대해서. 아까 동서남북. 바람 이름 한번 말해줘 보십시오?}

10910 #1 주로 동쪽게서 부는 건 쉰뻔름.{주로 동쪽에서 부는 것은 섯바람.}

10910 @1 예. 동쪽게서 부는 건 쉰뻔름.{예. 동쪽에서 부는 것은 섯바람.}

10910 #1 저 동북쪽게서 부는 건 뉘썤뻔름.{저 동북쪽에서 부는 것은 뉘새바람.}

10910 @2 동북.{동북.}

10910 @1 동북. 동북쪽게는 뉘썤바름.{동북. 동북쪽에는 뉘새바람.}

10910 #1 남쪽게는 마파름.{남쪽에는 마파람.}

10910 @1 마팍름.{마파람.}

10910 #1 서쪽게는 갈뻔름.{서쪽에는 갈바람.}

10910 @1 예. 갈뻔름.{예. 갈바람.}

10910 @1 여기는 하늬뻔름?{여기는 하늬바람?}

10910 @1 부조근 하늬뻔름. 그 다으메 동남쪽게 바당에서.{북쪽은 하늬바람. 그 다음에 동남쪽에 바당에서.}

10910 #1 여기도 쉰. 여기도 보통 남쪽 동남쪽게서 부러오는 동쪽게 뻔르믈 거의 다 쉰뻔르믈 헉고.{여기도 섯. 여기도 보통 남쪽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동쪽에 바람을 거의 다 섯바람이라고 하고.}

10910 @1 쉰뻔름.{섯바람.}

10910 #1 동마팍름. 동마팍르미믈 험니다. 동마. 동마파름.{동마파람. 동마파람이라고 합니다. 동마. 동마파람.}

10910 @1 여기는 동마팍름.{여기는 동마파람.}

10910 #1 여기 남쪽기 마파름이난 동마팍름.{여기 남쪽이 마파람이니까 동마파람.}

10910 @1 예.{예.}

10910 #1 이건 서갈뻔름.{이것은 서갈바람.}

10910 @1 서가른 어디헉고 어디 바라미우파?{서갈은 어디하고 어디 바람입니까?}

10910 @2 서쪽기 갈브르미니까.{서쪽이 갈바람이니까.}

10910 @1 예. 그때 중간네를 선까리렌 허더라고마썸.{예. 그때 중간에를 섯갈이라고 하더라고요.}

10910 @2 음.{음.}

10910 @1 서갈브르른 어디우파?{섯갈바람은 어딴니까?}

10910 #1 서까레.{섯갈에.}

10910 @1 선갈. 서갈브르른?{섯갈. 서갈바람은?}

10910 #1 아 게메. 서갈. 서쪽기.{아 그러게. 서갈. 서쪽이.}

10910 @1 갈브름.{갈바람.}

10910 #1 주로.{주로.}

10910 #1 주로 서쪽게서도 부러오는 거 하여튼 남쪽기고 뭐이고 이러케 부러오는 건 갈브르미니엔 험니다.{주로 서쪽에서도 불어오는 거 하여튼 남쪽이고 뭐이고 이렇게 불어오는 것은 갈바람이라고 합니다.}

10910 @1 예. 갈브름.{예. 갈바람.}

10910 @1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게니까 이 동네에서 이거 동서남북 커지 말고 삼춘예. 이 동네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불르는 이름 한번?{그 다음에 여기서 그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이거 동서남북 하지 말고 삼춘요. 이 동네에서 바람 방향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 한번?}

10910 @2 바라메 종뉴 한번 쭉 ㄱ라보십써?{바람의 종류 한번 쭉 말해 보십시오?}

10910 @1 섯바름.{섯바람.}

10910 #1 섯바름. 동마파름 마파름 서갈브름.{섯바람. 동마파람. 마파람. 서갈바람.}

10910 #1 예 선마파름. 선마파름.{예 섯마파람. 섯마파람.}

10910 @1 예. 선마파름.{예. 섯마파람.}

10910 #1 선마파름.{섯마파람.}

10910 @1 예.{예.}

10910 #1 갈브름.{갈바람.}

10910 @1 예. 하니브름.{예. 하니바람.}

10910 #1 하니브름.{하니바람.}

10910 @1 북서풍은 여기서 뭐렌 험니까?{북서풍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10910 #1 겐또 이 갈브르미니엔 헤서.{그것도 이 갈바람이라고 했어.}

10910 @1 아.{아.}

10910 #1 북서풍. 북서풍도.{북서풍. 북서풍도.}

10910 @1 뽀파니는 어디우파?{뽀하니는 어딴니까?}

10910 #1 여기 저 북동풍이 뽀파니.{여기 저 북동풍이 뽀하니.}

10910 @1 게른 뽀세브르른? 뽀세브름도 일찌 아녀우파예?{그러면 뽀새바람은? 뽀새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10910 #1 뽀세브름. 뽀파니.{뽀새바람. 뽀하니.}

10910 @1 예.{예.}

10910 #1 거이 거이 하니브르미라도 북쪽부터.{거의 거의 하니바람이라도 북쪽부터.}

10910 @1 가까이.{가까이.}

10910 #1 북쪽 가까이 인는 걸 이거.{북쪽 가까이 있는 것을 이거.}

10910 @1 뽀파니.{뽀하니.}

10910 #1 뚫파니허고 하니보름도 이러케 정확키 똑 고정헤영 부는 게 아니고 약간 북쪼그로 오며는 에 뚫파니.{높하니하고 하니바람도 이렇게 정확히 똑 고정해서 부는 게 아니고 약간 북쪽으로 오면 에 높하니.}

10910 @1 예.{예.}

10910 #1 약간 서 걸런젠 허영 섰타니.{약간 서 걸렸다고 해서 섰하니.}

10910 @1 아 여기는 섰타니.{아 여기는 섰하니.}

10910 #1 예.{예.}

10910 @1 예. 뚫보름도 일찌예?{예. 뚫바람도 있지요?}

10910 #1 섰뻬르미 흥끔 우이로 불면 뚫세르미엔 허고.{섰바람이 조금 위로 불면 높새바람이라고 하고.}

10910 @1 아 뚫세르름.{아 높새바람.}

10910 @1 음. 뚫뻬름은 어디우파? 여기는 산부세는 어디우파?{음. 뚫바람은 어딴니까? 여기는 산부세는 어딴니까?}

10910 #1 산부세?{산부세?}

10910 @1 그런 말 안 드러뵈쑈과? 올진풍?{그런 말 안 들어쑈습니까? 올진풍?}

10910 #1 그런 거 안 드러보고.{그런 거 안 들어보고.}

10910 @1 저쪽 산방산 쪼그로 부러오는 브르른?{저쪽 산방산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10910 #1 그 거기가 한 ** 뚫파니쑈.{그 거기가 한 ** 높하니쑈.}

10910 @1 아 뚫파니예? 다른 이르므론 언꼬예?{아 높하니요. 다른 이름은 없고요?}

10910 @1 자 그 다으메는예. 이 바당에 그 물때 일찌 아너우파? 그 물때는 여기서는 뽈로 뽈 물까지 해간꼬 하는 거를 한번 ㄹ라쑈 뽈쑈?{자 그 다음에는요. 이 바다에 그 물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물때는 여기서는 무엇으로 몇 물까지 해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말해쑈 보쑈시오?}

10910 #1 물때는 무른.{물때는 물은.}

10910 @1 예. 혼물 두물 허는 거?{예. 한무날 두무날 하는 거?}

10910 #1 아 혼물 두물 허는 거?{한 한무날 두무날 하는 거?}

10910 @1 예.{예.}

10910 #1 이거는 아 초흐루 보르른 일곰무리고.{이것은 아 초하루 보름은 일곰무날이고.}

10910 @1 예.{예.}

10910 #1 아 으선무리고.{아 여섯무날이고.}

10910 @1 으선물.{여섯무날이고.}

10910 #1 아 초흐른 일곰무리고 구믄보르른 에 여선물.{아 초하루 일곰무날이고 그믄보름은 에 여섯무날.}

10910 #1 음 게른 여기는 구믄으선 보르으선 험니까?{음 그러면 여기는 그믄여섯 보름여섯합니까?}

10910 #1 그믄으선 보름으선.{그믄여섯 보름여섯.}

10910 @1 예. 게른 뽈 물까지 세마쑈? 여기는.{예. 그러면 몇 무날까지 세나요? 여기는.}

10910 #1 예예. 열두물까진 허곡.{예예. 열두무날까지는 하고.}

10910 @1 예. 혼물 두물 허영 ㄹ라 뽈쑈?{예. 한무날 두무날 해서 말해 보쑈시오?}

10910 #1 아 열. 혼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선물 으선물 일곰물 으덜물 아흠물 열물 열혼물 열두무레 막물. 그 다르른 아끈조기.{아 열. 한무날 두무날 서무날 너무날 다섯무날 여섯무

날 일곱무날 여덟무날 아홉무날 열무날 열한무날 열두무날 막물. 그 다음은 아츠조금.)

10910 @1 아끈조기?(아츠조금.)

10910 #1 한조기.{한조금.}

10910 @1 한조기.{한조기.}

10910 #1 부날.{부날.}

10910 @1 부날.{부날.}

10910 #1 그 다음부면 혼물 두물.{그 다음부터는 한무날 두무날.}

10910 @1 혼물예. 게른 망무리 먼 무리 망무리라마씨?(한무날요. 그러면 막물이 몇 무날 이 막물이라구요?)

10910 #1 열뚜물이 망물.{열두무날이 막물.}

10910 @1 아 여기는 열뚜무리 망물예. 우도는 열서무리 망물.{아 여기는 열두무날이 막물 요. 우도는 열서무날이 막물.}

10910 #1 어 여기는 열뚜무리 망물.{어 여기는 열두무날이 막물.}

10910 @1 그러면 아끈조기는 메칠부터 메치루우짜?(그러면 아츠조금은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10910 #1 아끈조기는 어 일뤼허고 쓰무이틀.{아츠조금은 아 이레하고 스무이틀.}

10910 @1 예.{예.}

10910 #1 일뤼 쓰무이틀.{이레 스무이틀.}

10910 @1 한조기는?(한조금은?)

10910 #1 으드렌날허고.{여드렛날하고.}

10910 @1 어 쓰무사흘.{아 스무사흘.}

10910 #1 쓰무사흘.{스무사흘.}

10910 @1 부나른?(부날은?)

10910 #1 부나른 예.{부날은 예.}

10910 @1 아흐레?(아흐레?)

10910 #1 아흐레허고 쓰무나흔날.{아흐레하고 스무나흔날.}

10910 @1 아 부나리렌 헨다예? 여기는예.{아 부날이라고 하네요? 여기는요.}

10910 #1 예. 부날.{예. 부날?}

10910 @1 으. 그 다으메 이거는 혼물 두물허고 무슨 사리여?(으. 그 다음에 이것은 한무 날 두무날 하고 무슨 사리다?)

10910 @1 아까 이제 그 무리 열 부날까지 센 거자나예? 사리여 웨사리여 이런 그런 물과 팔러넌 이름들도 인썸니까?(아까 이제 그 물이 열 부날까지 센 거잖아요? 사리다 웨살이다 이런 그런 물과 팔러넌 이름들도 있습니까?)

10910 #1 어 한웨살.{어 한웨살.}

10910 @1 예.{예.}

10910 #1 물끼리 쟈게 텅길 때 보통 서물서부터 열뚜물까지는 사리로 보고.{물길이 세계 다닐 때 보통 서무날부터 열두무날까지는 사리로 보고.}

10910 @1 예.{예.}

10910 #1 그 다으른 조금엔 허곡.{그 다음엔 조금이라고 하고.}

10910 @1 예.{예.}

10910 #1 열서물부터 혼물 두물 서물꺼지는 조금.{열서무날부터 한무날 두무날 서무날까

지는 조금.}

10910 @1 음. 두물까지는예?{음 두무날까지는요?}

10910 #1 그거는 조금.{그것은 조금.}

10910 @1 그 다으메 이거는 한웨사른 뭐우파?{그 다음에 이것은 한웨살은 뭇니까?}

10910 #1 한웨사른 물끼리 썰게 땡길 때 보고 한웨사리엔 허고.{한웨살은 물길이 세계 다닐 때 보고 한웨살이라고 하고.}

10910 @1 아아 하니 크다라는.{아아 한이 크다라는.}

10910 #1 일고으땡물 썸 하여튼.{일곱여덟무날 썸 하여튼.}

10910 @1 물끼리 썰 때예?{물길이 썰 때요?}

10910 @1 네. 이 가파도에서 파도치는 거를 뭇렌 헬쭈파?{네. 이 가파도에서 파도치는 것을 뭇라고 했습니까?}

10910 #1 뭇?{뭇?}

10910 @1 누?{파도?}

10910 #1 아 누 이럼젠 험니다. 누 일럼젠.{아 파도 인다고 합니다. 파도 인다고.}

10910 @1 누 이럼젠예. 자 누 이는 건또 종류가 이제 으라 가지 일땡 헤서예?{파도 인다고요. 자 파도 이는 것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 있다고 했지요?}

10910 @1 뭇 바당 쪼게만 치는 그니까 이건 가에서만 치는 누는 무슨 누?{뭇 바다 쪽에만 치는 그러니까 이것은 가에서만 치는 파도는 무슨 파도?}

10910 @2 곤누.{고운 파도.}

10910 @1 뭇 더 덩누.{뭇 더 덕누.}

10910 @2 덩누.{덕누.}

10910 #1 아 거 더 덩누 드런젠도 허고.{아 거 더 덕누 들었다고도 하고.}

10910 @1 예.{예.}

10910 #1 알파지 드런젠도 허곡. 알파지는 물끼리 이리저리 왕 썰게 다닐 때를 알파지 드런젠. 아니 올렁이 심할 때는 알파지 드런젠 허고.{알파지 들었다고도 하고. 알파지는 물길이 이리저리 와서 세계 다닐 때를 알파지 들었다고. 아니 올렁이 심할 때는 알파지 들었다고 하고.}

10910 @1 예. 올렁올렁 막 카튼 거예?{예. 올렁올렁 막 하는 거요?}

10910 #1 알파지 드런젠 허고. 덩누 드런젠도 허고.{알파지 들었다고 하고 덕누 들었다고도 하고.}

10910 @1 예.{예.}

10910 #1 뭇 그 정도.{뭇 그 정도.}

10910 @1 누 일럼젠 허고.{파도 인다고도 하고.}

10910 #1 어 누. 덩누나 그 누 이는 거나.{어 파도. 덕누나 그 파도 이는 것이나.}

10910 @1 덩누는 무신 겨우파?{덕누는 무슨 겁니까?}

10910 #1 어 거이 다 비습비습된 말. 거 누 이럼젠도 허곡 덩누 이럼젠도 허고 알파지 드런젠도 허곡 거 보통 거의 다 가튼 맹라게서.{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말. 거 파도 일고있다고도 하고 덕누 일고 있다고도 하고 알파지 들고있다고도 하고 거 보통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10910 @1 그 다으멘예 물들고 싸고 허는 거에 따랑으네 트나지예? 물드는 걸 여기서 뭇렌?{그 다음에는요 물밀고 써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지요? 물미는 것을 여기서 뭇라고?}

10910 #1 들물 쏘물.{밀물 썰물.}

10910 @1 들물 쏘물. 그건또 들물도 물드는 게 쪼끔 헐 때 히고 흐끔 싸는 거 히고.{밀물 썰물. 그것도 밀물도 물미는 것이 조금 할 때 하고 조금 싸는 거 하고.}

10910 #1 초든물허고 춤드리.{초든물하고 참들이.}

10910 @1 예.{예.}

10910 #1 또 물쌀 때는 예 쏘물.{또 물쌀 때는 예 썰물.}

10910 @1 예.{예.}

10910 #1 반물썰기.{반물세기.}

10910 @1 예.{예.}

10910 #1 좇썰기.{좇세기.}

10910 @1 예.{예.}

10910 @1 그러면예 아까 춤드리는 뭐우파?{그러면요 아까 참들이는 뭘니까?}

10910 #1 무리 만조될 때 춤드리.{물이 만조될 때 참들이.}

10910 @1 아 무리 완전히 드러올 때는 춤드리.{아 물이 완전히 들어올 때는 참들이.}

10910 #1 춤드리.{참밀물.}

10910 @1 그 다음에 만조 아니고 그냥 쪼끔만 드러올 때는?{그 다음에 만조 아니고 그냥 조금만 들어올 때는?}

10910 #1 어 초든무레는 초들물.{어 초든물에는 초들물.}

10910 @1 초들물.{초들물.}

10910 #1 초들물 반들물 춤드리.{초들물 반들물 참들이.}

10910 @1 예.{예.}

10910 #1 그거고.{그거고.}

10910 @1 반물썰기?{반물세기?}

10910 #1 쏘물.{썰물.}

10910 @1 예.{예.}

10910 #1 반물썰기 좇썰기.{반물세기 좇세기.}

10910 @1 예. 아까 초들무른 뭐라마씨?{예. 아까 초들물은 뭐예요?}

10910 #1 초들물 밀물 곧 드러올 때.{초들물 밀물 곧 들어올 때.}

10910 @1 예.{예.}

10910 #1 그때 초들물. 반들물은 거의 반 들며는. 물끼리 변동이 이서마씨.{그때 초들물. 반들물은 거의 반 들면. 물길이 변동이 있어요.}

10910 @1 예.{예.}

10910 #1 반들물 때 초들물 때 춤드리. 춤드리엔 무리 만조 돼어 부니까 자고 반물 들 때는 그때는 무리 성할 때니까 그땐 물끼리 좀 세고.{반들물 때 초들물 때 참들이. 참들이에는 물이 만조 되어 버리니까 자고 반물 들 때는 그때는 물이 성할 때니까 그땐 물길이 좀 세고.}

10910 #1 어 초든무레도 썰게 드러올 땐 드러오고. 초든무레 반들물꺼지는 무리 썰게 갑쭈.{어 초들물에도 세게 들어올 때는 들어오고. 초들물에 반들물까지는 물이 세게 가지요.}

10910 @1 예.{예.}

10910 #1 춤드리에는 물이 자고. 또 쏘물 때도 쏘물허고 반물썰기꺼지는 무리 세고.{참들이에는 물이 자고. 또 썰물 때도 썰물하고 반물세기까지는 물이 세고.}

10910 @1 예.{예.}

10910 #1 반물썰기가 되며는 무리 변동이 좀 일췌 아 그때는 반물썰기나 반들물 때는 고기도 마니 나오고.{반물썰기가 되면 물이 변동이 좀 있어서 아 그때는 반물썰기나 반들물 때는 고기도 많이 나오고.}

10910 @1 음 그때가.{음 그때가.}

10910 #1 예. 그 그러니까 이젠 반들물 ** 저 반물썰기 그런 게 나옴쥬.{예. 그 그러니까 이젠 반들물 ** 저 반물썰기 그런 게 나오지요.}

10910 @1 예. 그 다음 아까 쫓세?{예. 그 다음 아까 쫓세?}

10910 #1 쫓세기는 또 무리 무리 마니 빠진 상태에서 잘 때. 그때를 쫓세기.{쫓세기는 또 물이 물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잘 때. 그때를 쫓세기.}

10910 @1 게문 그 물 마니 장 쫓세기 때는 보통 가면 무슨 일드를 하는 거라마췌?(그러면 그 물 많이 자서 쫓세기 때는 보통 가면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10910 #1 쫓세기 때는 뭐 구물 아침 물때에 쫓세기 되며는 구물빼드른 구물도 빼고.{쫓세기 때는 뭐 그물 아침 물때에 쫓세기 되면 그물배들은 그물도 빼고.}

10910 @1 아.{아.}

10910 #1 이 물췌 버리며는 이제 바다에 조개 가뜰 거 저 이 보말 ㄱ뜰 건또 잡꼬.{이 물췌 버리면 이제 바다에 조개 같은 거 저 이 고둥 같은 것도 잡고.}

10910 #1 그러케 허고. 춤드리 때는 뭐 별로 하는 게 없꼬.{그렇게 하고. 참들이 때는 뭐 별로 하는 것이 없고.}

10910 @1 예.{예.}

10910 #1 구물 노을 때나 거들 때 그런 땐 허곡. 해너덜 또 잠수힐 때도 예 쫓세기나 춤드리에는 무리 자니까 그때는 마니 해너덜토 자겹퍼고.{그물 놓을 때나 건을 때 그런 때는 하고. 해너들 또 잠수할 때도 아 쫓세기나 참들이에는 물이 자니까 그때는 많이 해너들도 작업하고.}

10910 @1 쫓세기허고 춤드리 때에?{쫓세기하고 참들이 때요?}

10910 #1 거 옛날 그 고무웁 안 입꼬 해너덜 자겹필 때는 이 속꼴만 입꼬 힐 췌게는 꼭 줄세기나 춤드리 그 한두 시간 그 안에 자겹헐쓰니까.{거 옛날 그 고무웁 안 입고 해너들 작업할 때는 이 속웁만 입고 할 적에는 꼭 쫓세기나 참들이 그 한두 시간 그 안에.}

10910 @1 왜냐하면 무리.{왜냐하면 물이.}

10910 #1 예. 자니까. 무리 자니까.{예. 자니까. 물이 자니까.}

10910 @1 알겐썅니다. 여기까지 하겐썅니다.{알췌썅니다. 여기까지 하췌썅니다.}

제 2 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나룩
20102	이삭	고고리
20103	볍씨	나룩씨
20104	못자리	*
20105	모판	나룩판
20106	쟁기	잠대
20107	보습	보섬
20108	벚	벤
20108-0-1-이		배시
20109	극쟁이	*
20110	씨레	*
20111	번지	*
20112	모내기	나룩길덜 험신게
20113	흙덩어리	병덩이 병에
20114	고무래	당그네
20114-1	고무래(곡식)	당그네
20114-2	고무래(재)	불그네
20114-3	고무래(흙)	*
20114-4	고무래(미는 것)	*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
20115	쇠스랑	소스랑
20116	곡괭이	목괭이
20117	괭이	괭이
20118	삽	가래죽
20119	호미	굴게기 굴괭이
20120	농기구	연장
20121	검	검질
20122	김매다	검질메레 가게
20123	애벌 매다	초불검질
20123-1	두벌 매다	두불검질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막뿔검지른
20124	논둑	논뚜둑
20124-1	논두렁	물꼬랑 막찌 말라

20125	밭둑	받뚜둑
20126	밭두둑	받뚜둑
20127	밭고랑	고랑으로 허곡
20128	밭이랑	요건 이렁 고지
20128-1	(밭이랑을) 타다/ 갈다/째다/파다	받 등그러케 갈라
20128-2	이랑밟기	아이고 보리완 불람찌
20129	보리	보리에
20129-1	가을보리	*
20129-2	봄보리	*
20130	보리쌀	보리솔
20131	가을갈이	번허열찌
20132	감부기	감비역
20133	두엄	툼비 만드는 거
20134	거름	걸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ㄱ슬농사 장만허는 거
20202	벧단	나룻문
20202-1	벧단	이거 영 줌드리
20202-2	벧단	즈믄 잘 연갈랑 잘 헤사
20202-3	벧단	*
20203	가리	눌
20204	가리다	크게 누러서라
20205	벧가리	나룻눌
20206	난가리	눌 나룻눌
20207	타작	태작커는 거
20208	벼훑이	클
20208-1	그네	보리클
20209	개상	보리 두드리는 먹똥 가져오라
20209-1	자리개	*
20209-2	자리개질	나룩 태작캠서라
20210	도리깨	도께
20210-1	도리깨장부	그 도께어시가 황당허다 도깁썩룩
20210-2	도리깨열	도께아덜
20210-3	도리깨꼭지	도께도레기
20211	벧짚	나룩썩
20211-0-1	-을	나룩썩 가져오라
20211-0-2	-에	썩게

20212	새 패기	송골레
20213	쭉정이	줄레
20214	티	꺼랭이
20215	까끄라기	ㄱ스락
20216	풍구	보리 불리는 클 쥐시라
20217	원두막	웬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에비엔 허제비
20219	흥년	송년 드런
20220	머슴	장남 어성
20221	놉	아이고 우리 지비 놉 완쩌게
20221-0-1	-을	노블 비러야 헐 켄
20222	폼앗이	수누렁
20223	폼샷	쿰 놉쿰
20223-0-1	-으로	쿠므로 버스런

2.1.3. 방아찡기

20301	방아	방에
20302	디딜방아	*
20303	방앗공이	방엔꾸로
20304	방아확	돌혹
20305	물레방아	물방아
20306	연자방아	돌방에에 강
20307	절구	절귀
20308	절구통	방엔톡
20309	절굿공이	방엔꾸
20310	절구질	방엔꾸 지는 거
20311	겨	채 갈르는 거
20312	보릿겨	보미는 보리체
20313	왕겨	나룩체 나룩체
20314	쌀겨	검불
20315	검불	검불 검불
20316	겉질	거죽

2.1.4. 곡물

20401	곡식	사과 겹쭈근 곡썩
20402	참쌀	츄솔
20403	멥쌀	메쓰리주게

20404	쌀보리	술우리로 술보리밥
20405	조	조
20406	차조	흐린조
20407	메조	모은존 노리고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즈라 즈라 져젠헤
20410	조이삭	조코고리
20411	수수	대주긴디
20411-1	붉은색 수수	대죽쌀
20411-2	장목수수	비대주기엔
20411-3	찰수수	츠진대죽
20411-4	메수수	모인대주근
20412	수수짱	대중냥 쉼메기고
20413	옥수수	대죽뿌레기
20413-1	찰옥수수	츠진대죽 흐린대죽뿌레기
20413-2	메옥수수	모인대죽뿌레기
20414	귀리	대우리
20415	메밀	모밀
20416	콩	콩으루
20417	콩각지	콩각찌파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다 드라메연
20420	띠우다	띠완쑤다
20421	곰팡이	곰생이
20422	강낭콩	강낭콩 답따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깨로 춤지름
20424-2	들깨	저 유
20425	고소하다	코수허다

2.1.5. 채소

20501	채소	늑물 가란찌
20502	나물	난 승키 다 가란
20502-1	나물(밭)_재료	*
20502-2	나물(밭)_반찬	*
20502-3	나물(들)_재료	드른늑물 캐레가게
20502-4	나물(들)_반찬	*
20502-5	나물(산)_재료	산늑물

20502-6	나물(산)_반찬	*
20503	푸성귀	푸습썰
20504	다듬다	다드므라
20505	반찬	출레
20506	무	늬뻘
20507	썰다	이거 썬렁
20508	무청	츄마기
20509	시래기	쓰레기
20510	무말랭이	생기리
20511	장다리무	지지 세왈찌
20512	배추	늬물 베초
20513	고깡이	늬물쑈
20514	오이	오이 아니
20515	오이지	웨지 허연
20516	오이소박이	웨지 파네영
20517	가지	가지
20518	호박	이 호박 어섔쑈다
20519	고구마	감젠게
20520	감자	지슬 아니우파
20521	우영	*
20522	파	패마눔은
20523	고추	빨간 고치
20524	시금치	시금추
20525	미나리	미나리
20526	부추	요건 새우리
20527	상추	부루
20528	마늘	콤포테생이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난쟁이
20531	달래	드른마눔
20532	도라지	도라지
20533	더덕	던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곤바비엔
20602	찬밥	시근맘마씨
20602-1	더운밥	더운바벤

20603	조밥	서숙밥 조팍
20604	누룽지	누렁지
20605	눌은밥	누렁이물
20606	승냥	승냥
20607	뜨물	틴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늑물죽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썬렌도 허고 우둥엔도
20612	칼국수	칼즈베기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그냥 우둥
20613	건더기	건지엔도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양너미엔
20615	꾸미	*
20616	미역	매역
20617	김(海苔)	짐
20618	수제비	즈베기
20619	끼니	때
20620	미음	곤죽 미음
20620-1	(미음을)끓이다/ 쭈다/삶다	쭈는 거
20621	옛기름	골
20622	식혜(食醴)	감주
20623	식혜	*
20624	달다(甘)	딤쭈
20625	가루	ㄱ르
20625-0-1	-에	ㄱ르에
20625-0-2	-을	ㄱ르를
20625-0-3	-도	ㄱ르도 어성
20626	밀가루	밀ㄱ르
20627	밀기울	밀체
20628	미숫가루	개역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장물
20702	된장	똥장
20703	고춧가루	고춘ㄱ르가
20704	고추장	고치장

20705	소금	소금
20706	김치	김치
20707	김장	저슬김치
20708	깍두기	깍뚜기김치
20709	나박김치	물김치
20710	담그다	김치 담강 양념 버무럼
20710-0-1	-고	김치 다맘쩌
20710-0-2	-어라	다므라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버무럼쩌
20713	버섯	버섯 초기엔도 허곡
20713-0-1	-이	초기가
20714	콩나물	콩늑물 콩지름
20714-1	콩나물	콩늑물반찬
20714-2	숙주(나물)	녹띠지름
20715	두부	둠비마씨
20716	비지	비제기
20716-1	비지떡	*
20717	달걀	둑썰기
20718	가래떡	가래떡
20719	시루떡	시리떡마씨 침떡
20720	송편	즈븐떡
20721	빳다	즈브라
20722	흰떡	ㄱ레떡
20723	고물	쉬
20724	팔죽	둥지퐁쭈젠
20725	새알심	퐁쭈즈베기
20726	백설기	침떡
20727	튀밥	깡녕이엔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탁빼기도
20730	소주	소주
20731	부침개	템뿌라엔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소띠기엔도 허곡
20802	가마솥	가매솥
20802-0-1	-을	가매솥 시스라
20802-0-2	-에	가매소세

20803	아궁이	손깁알
20803-0-1	-이	손깁아리
20804	그을음	그시렁
20805	불쏘시개	소가 이씨야주
20806	연기	네가 납쭈
20806-1	내(煙氣)	네엔
20807	그을리다	그시렁쩌
20808	부지깁이	부지땡이
20809	부삽	불가레죽 불체가레죽
20810	넙다	누니 땡따
20811	넙비	넙비
20812	그릇	그른
20812-0-1	-을	그른 씨스라
20813	뚜껑	두껍이
20814	주발 뚜껑	밥뚜껍이 개지
20815	사발 뚜껑	사발뚜껍이
20816	숟뚜껑	숟뚜껑 숟뚜껍이
20817	밥주걱	우금
20818	숟가락	수까락
20819	젓가락	저봄
20820	종지	종제기
20821	보시기	보시
20822	뚝배기	뚝싸발
20823	접시	젹씨
20824	조리	조리
20825	이남박	낭싸발 남박
20826	바가지	쿨락빠
20827	행주	상빠
20828	행구다	헤우라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구진물
20831	찌꺼기	아쟁이
20832	화로	화레
20833	화롯불	화렌뿔
20834	부젓가락	불찌봄 불좁찌기 불하시
20834-0-1	-이	불찌부미 불좁찌기가 불즈부미
20834-1	부손	불루금
20835	다리쇠	적썬
20836	석쇠	적썬
20837	도시락	밥차룽
20838	바구니	구덕

20839	뒤주	뒤지
20840	찬합	차남
20841	강판	강파니
20842	개다리소반	*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큰구들
20902	벽	백백름
20903	다락	다락땡엔
20904	벽장	백짱
20905	감추다	곰찌라
20906	흙	헐리
20907	돌찌귀	돌찔귀
20907-1	암짜	암철귀
20907-2	수짜	수찔귀
20908	미단이	지겐문
20909	여단이	여다지
20910	덧문	건문
20911	열다	문 으랑
20912	문고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통쇄
20914	간히다	가두와절찌
20915	열쇠	열쇄
20916	잠그다	중가똥
20917	구멍	고망 고망
20917-1	취구멍	취고망 중이고망 메누리고망
20918	찢다	치전쨌
20919	구들	구들뜰
20920	흙받기	고데판
20921	흙손	*
20922	흙칼	췌손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낭손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췌손 싁꼬
20923	바르다	세멘 볼르라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이
20926	도배	도비 험찌

20927	구석	구석
20928	굽도리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크컬헨쩨 허주
20930	문지방	지방 지벵이
20930-0-1 -에		지벵이 우이 지방 우이
20931	틈	트멍이 생겔따
20932	가장자리	구석
20933	가운데	가운디 안지라
20934	시렁	*
20935	살강	살레
20936	선반	선반
20937	서랍	설랍
20938	경대	경대
20939	거울	섹경
20940	걸다	걸라
20941	호룽	춘똥 초룽뿔

2.3.2. 건물

21001	지붕	지붕
21001-0-1 -에		지붕우의
21002	기와	기와
21003	기와집	기와집
21004	수키와	*
21005	암키와	*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리
21008	추녀	추넨는
21009	처마	집까쟁이
21010	오두막	오막싸리 막싸리
21011	초가집	초집
21012	이영	늑람지에
21012-0-1 -에서		늑람지우의서 놀지 말라
21013	옹마름	상ㅁ르
21014	기스락	집까지
21015	낙숫물	지슬물
21015-1 기스락물		지슬물
21016	사닥다리	사다리
21017	옹마루	상ㅁ르
21018	토방	난간

21019	댓돌	*
21019-1	섬돌	광뜰
21020	마루	마레
21020-0-1	-에	마레에
21021	뒷마루	난간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추춧뜰
21023-0-1	-을	추춧뜰을 노라
21024	굴뚝	넢굴뚝

2.3.3. 마당

21101	뜰	화단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넢른 편넢쭈
21103-0-1	-어서	넢렁 조아
21104	넢히다	마당을 넢퍼사켜
21105	곶간	곶간
21106	외양간	쉐막
21107	마구간	몰막
21108	광	안뺑
21109	헛간	창꼬라고 헛는데
21110	쓰레기	먼지 치우라
21111	장독대	장광
21112	장독 뚜껑	황뚜껑이
21113	변소	돈통
21113-1	똥장군	수통
21114	울타리	우잔또렌
21115	담	담
21115-0-1	-에	담우의
21115-0-2	-도	담도 너러전쨌
21116	사립문	*
21117	뒤곶	똥쨌슬
21117-0-1	-에서	똥쨌스레서
21118	바깥	베곶떡 나가지 말라
21118-0-1	-에	베곶떡 나가지 말라
21119	모퉁이	오그라진 질로
21120	모서리	모사리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믄슬
21202	윗마을	운똥네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시
21203-0-2	-에	우리 이우센
21204	마을가다	믄실간다
21205	우물	물통
21206	두레박	주루박
21207	샘(泉)	생무리엔 헤신가
21208	가(邊)	바우
21208-0-1	-을	바우 잘 다끄라
21208-0-2	-에	바우에 알찌 말라
21209	물지게	물찌게
21210	가게	상점 가게가 오렌 마리주
21211	싸다	헐헐 거마씨
21212	비싸다	비싼퍼니우다
21213	홍정	홍성
21214	거간꾼(중매인)	홍성부찌는 사름
21215	잔돈	존도느로 바깥 오라
21216	예누리	그 예누리
21217	거스름돈	주리
21218	거스르다	돈 거슬러
21219	꾸다(借)	꿍와마씨
21219-0-1	-어야	꿍 완찌
21220	구두쇠	구두췌
21221	맡기다	머청 놔두켜
21222	나머지	남제기엔
21223	덤	더 부쳐췌찌
21224	몫	적시
21224-0-1	-을	느 적씨 마탕 놔두라
21225	빚	비시
21225-0-1	-을	비슬 가파야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벨리
21227	심부름	부름씨
21228	두름	두 문
21228-1	축	*
21228-2	꽤	*
21228-3	접	흔 접

21228-4	쌈	훈	쌈미
21228-5	두름	*	
21228-6	단/뭇	멘	쫄레 사완쨌
21228-7	단/뭇	단	
21228-8	툇	*	
21228-9	모슘	훈	쭈
21229	컬레	훈	베
21230	마지기	훈	말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백	이십오 평이 훈 말지기
21231	꾸러미	훈	꾸러미
21232	그루	그루	
21233	포기	펼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찰리가	마질 꺼
21235-0-1	-을	쫄	다물 찰리 거정오라
21235-0-2	-에	찰리에	다마야주
21236	하나	훈	나
21236-1	한 개	한	개
21236-2	한 되	한	웨
21236-3	한 말	훈	말
21237	둘	둘	
21237-1	두 개	두	개
21237-2	두 되	두	웨
21237-3	두 말	두	말
21238	셋	서	이
21238-1	세 개	세	개
21238-2	세 되	서	웨
21238-3	세 말	서	말
21239	넷	너	이
21239-1	네 개	네	개
21239-2	네 되	너	웨
21239-3	네 말	너	말
21240	다섯	다	선
21240-1	다섯 개	다	선 깨
21240-2	다섯 되	다	선 웨
21240-3	다섯 말	다	선 말 단 말
21241	여섯	으	선
21241-1	여섯 개	여	선 깨
21241-2	여섯 되	여	선 웨
21241-3	여섯 말	여	선 말
21242	일곱	일	곱

21242-1 일곱 개	일곱 개
21242-2 일곱 되	일곱 뻬
21242-3 일곱 말	일곱 말
21243 여덟	여덟 으답
21243-1 여덟 개	으답 개
21243-2 여덟 되	으답 뻬
21243-3 여덟 말	으답 말
21244 아홉	아홉
21244-1 아홉 개	아홉 개
21244-2 아홉 되	아홉 뻬
21244-3 아홉 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 개	열 개
21245-2 열 되	열 뻬
21245-3 열 말	열 말
21246 스물	스물
21246-1 스무 개	스무 개
21246-2 스무 되	스무 뻬
21246-3 스무 말	쭈무 말
21247 서른	서른
21247-1 서른 개	서른 개
21247-2 서른 되	서른 뻬
21247-3 서른 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마흔 개
21248-2 마흔 되	마흔 뻬
21248-3 마흔 말	마흔 말
21249 쉰	쉰
21249-1 쉰 개	쉰 개
21249-2 쉰 되	쉰 뻬
21249-3 쉰 말	쉰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 개	예순 개
21250-2 예순 되	예순 뻬
21250-3 예순 말	예순 말
21251 일흔	이른
21251-1 일흔 개	이른 개
21251-2 일흔 되	이른 뻬
21251-3 일흔 말	이른 말
21252 여든	으든
21252-1 여든 개	으든 개

21252-2 여든 되	으든 돼
21252-3 여든 말	으든 말
21253 아흔	아은
21253-1 아흔 개	아은 개
21253-2 아흔 되	아은 돼
21253-3 아흔 말	아은 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 깨
21254-2 백 되	백 뒤
21254-3 백 말	뱅 말
21255 이백	이백
21256 한둘	흔둘
21256-1 한두 개	흔두 개
21256-2 한두 되	한두 돼
21256-3 한두 말	한두 말
21257 두셋	둘썬
21257-1 두세 개	두세 개
21257-2 두세 되	두세 뒤
21257-3 두세 말	두서 말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 개	두서너 개
21258-2 두서너 되	두서너 뒤
21258-3 두서너 말	두서너 말
21259 서넛	서넛 서넛
21259-1 서너 개	서네 개
21259-2 서너 되	서너 뒤
21259-3 서너 말	서너 말
21260 네댓	너덜
21260-1 네댓 개	너다섯 깨
21260-2 네댓 되	너덜 뒤
21260-3 네댓 말	너덜 말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 개	다서여섯 깨
21261-2 대여섯 되	대여섯 뒤
21261-3 대여섯 말	대으섯 말
21262 예닐곱	여선일곱
21262-1 예닐곱 개	예수일곱 깨
21262-2 예닐곱 되	으서일곱 뒤 예수일곱 뒤
21262-3 예닐곱 말	으서일곱 말 예수일곱 말
21263 일여덟	일곱으답
21263-1 일여덟 개	일곱여덜 깨

21263-2 일여덟 되	일곱으답 꿔
21263-3 일여덟 말	일고여덜 말
21264 여덟아홉	으답아홉
21264-1 여덟아홉 개	으덜아홉 개
21264-2 여덟아홉 되	으답아홉 꿔
21264-3 여덟아홉 말	으답아홉 말
21265 여남은	여나믄
21265-1 여남은 개	여나믄 개
21265-2 여남은 되	여나믄 꿔
21265-3 여남은 말	으나믄 말 여나믄 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메
21302 길이	온찌러기
21303 저고리	저구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저고리
21305 두렁이	베부레기
21306 무늬	무늬
21307 고쟁이	속쥬이
21308 바지	바지
21309 두루마기	두루메기 후루메
21310 의복	입쌈이 조타
21311 구겨지다	부벼절썰
21312 옷고름	고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전
21315 겹	건
21315-0-1 -에	거테 뒹 무던썰
21315-0-2 -을	거틀
21316 홉옷	홉돈
21317 겹옷	저본
21318 잠방이	점벙이
21319 누더기	누데기온
21320 거지	동녕마치 동냥마치나
21321 구걸	동냥허레 동녕허레
21322 조끼	쪼끼
21323 내의	내의
21324 껌입다	전주경이범썰 허주

21325	소매	스미엔 허주
21326	주머니	주멩기 주멩이
21327	호주머니	계쑤
21328	허리띠	건 허리띠 허리끈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복
21331	삿갓	사깔
21331-0-1 -에		사까세 가령
21332	고깔	송낙 썸
21333	사모	사모관대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다림
21336	감발	*
21337	짚신	집썸 집세기 초신
21338	미투리	*
21338-1 (짚신을) 삼다/ 만들다/트다/결다		삼는 건
21339	나막신	나막썸 남신
21340	설피(雪皮)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멩지
21401-1 명주실		멩지썸
21402	목화	멘네
21402-1 목화다래		드레 멘네다래
21403	무명	미녕이엔
21403-1 무명실		미녕썸
21404	씨아	씨 빠는 물레
21405	자새	*
21406	물레	썸즌는물레
21407	베	베
21408	질쌈	질쌈
21409	골무	골매 손꼴매
21410	반짚고리	바눔쌍지
21411	가위	ㄱ세
21411-0-1 -을		ㄱ세 가정오라
21411-0-2 -에		ㄱ세에
21412	마르다(裁)	ㄱ르다 몰르다
21412-0-1 -고		온 몰람찌

21412-0-2 -어라	온 몰르라
21413 형겔	험벅
21413-0-1 -을	험벅 거정 오라
21413-0-2 -에	험버게
21414 바늘	바눔
21415 꿰다	바눔꾸 꾸라
21415-0-1 -고	바눔꾸 꾸엄찌
21415-0-2 -어라	꾸라
21416 바느질	바눔질
21417 재봉틀	재봉트른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끈 노끄스로
21420 참바	베
21421 매듭	므작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 /워다/묶다	므작 지왓찌
21422 보자기	포테기
21423 이불	이불
21424 솜	소게
21425 포근하다	북삭커다
21426 홉이불	홉띠불
21427 겹이불	겹빼불
21427-1 솜이불	소게이불
21428 누비이불	글레이불
21429 베개	베게
21430 베갯잇	베젠넙
21430-0-1 -에	베젠니베
21431 목침	목침
21432 퇴침	목침
21433 방석	방석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세답허랭 허주
21436 빨랫방망이	세답마께
21437 빨래터	빨랜광돌
21438 빨랫줄	세답빼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림질
21440 인두	윤디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민빵멩이
21442 다듬잇돌	암반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 험찌

2.5. 민속

2.5.1. 세시풍속

21501	설날	맹질나렌 정월맹질
21502	설	설날
21503	선달 그믐날	선돌그믐나렌
21504	묵은세배	*
21505	올해	올리
21505-0-1	-는	올리는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내후년 내후년
21505-5	내후년	내후후년
21506	작은설	*
21507	웃	유시엔 험니다 순
21507-0-1	-을	윤까라글
21507-0-2	-에	윤까라게
21507-1	웃놀이	윤노리 녁똥베기엔도 허곡
21508	웃가락	윤까락
21508-1	도	토엔도 허곡 또엔도 허곡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윤 순
21508-5	모	모
21509	단동	웨동
21509-1	외동무니	웨지
21509-2	두동무니	두지
21509-3	석동무니	석찌
21509-4	녁동무니	녁찌
21509-5	막동	막똥사니
21509-6	단동무니	무지막찌
21510	보름	보름날
21510-1	삭망	상망 초하루보름이엥도
21511	추석	추성날 파월맹질
21512	망월	*
21513	쥐불놀이	*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 막대	조근막때
21514-2	긴 막대	큰막때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
21517	팽과리	팽과리
21518	장구	장구는
21519	결두리	중차미엔도 허곡 중석
21520	무당	심방
21520-1	박수	남심방
21521	고수레	걸명 코시
21521-1	고수레!	*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상여
21524	굴건	건대
21525	제사	식계
21526	제기	제기
21527	귀신	귀시니엔도 허곡 권꺼시엔도 허곡
21528	도깨비	헐뽕 도채비

2.5.2. 농경 용품

21601	고삐	쉐석
21602	굴레	녹띠엔 허여 녹띠
21603	명예	명예
21604	길마	질메
21605	부리땅	망울
21606	구유	거통이엔 쿠시에
21607	작두	작또로
21608	꼴	출
21609	역물	으물
21610	쇠죽	쉐죽
21611	쇠죽바가지	남박쌌기
21612	수레	구루마엔
21613	끝다	끄성 가다
21613-0-1	-고	끄성 감찌
21614	바퀴	바쿠엔
21615	새끼(繩)	새끼쭈렌 허곡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난젠
21616	망태기	망태기 멍텅이보단
21617	먹등구미	망텅이라고 헐쭈 큰망텅이
21618	거적	거적
21619	가마니	가메기

21619-1 가마니틀	*
21620 돛자리	초석
21621 자리틀	*
21621-1 (자리를) 짜다/치다 /만들다/결다/매다	초석 째다
21622 왕골	*
21623 삼태기	굴채
21623-1 쪼 삼태기	쪼굴채엔
21623-2 짜리 삼태기	*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대걸멍이
21625-1 고운채	좁진채
21625-2 굵은채	거름채
21626 대장장이	불매쟁이
21627 대장간	불매황
21628 풀무	풀미 불매
21629 모루	췌방석엔 헤신디
21630 모루채	췌망치
21631 갈퀴	글갱이
21632 집게	불쫓봄 불집게 집게
21633 장도리	망치
21633-1 노루발	물빼기는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베
21635 도끼	도치
21636 자루(柄)	즈룩
21636-0-1 -을	즈루글
21636-0-2 -에	즈루게
21637 갈고리	칼쿠리
21638 췌기	세감
21639 송곳	송곤
21639-0-1 -에	송고세
21640 뽕죽하다	뽕쪽커난
21641 솟돌	신평
21641-0-1 -에	신평레 ㄹ라야주
21642 땃돌	ㄹ레
21642-1 수쇠	ㄹ레조시 수톨
21642-2 암쇠	암쿠멍 암코망이엔 암톨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중시리로
21645 지게 작대기	작떼기

21646	막대기	막뎡이
21647	몽둥이	몽둥이

2.5.3. 생활 용품

21701	빗자루	비차락
21702	광주리	광주리 이선는다
21703	소쿠리	소쿠리
21704	함지	남도고리
21705	풀비	풀삐
21705-1	귀알	풀솔
21706	독	통개에
21706-0-1	-에	통개에
21707	물독	물항 물통개
21708	항아리	망데기 황은
21709	단지	단지
21710	물둥이	허벅
21711	짜리	머릿빵석
21712	옹기	옹기
21713	표주박	쿨락박세기
21714	키(箕)	푸는채
21715	떡살	떡판
21716	다식판	*
21717	시루	시리
21717-0-1	-을	시리 아저와야
21717-0-2	-에	시리에
21718	시룻밀	시린꼬망마개
21718-0-1	-에	시린꼬망마개에
21719	시룻번	떡빠비엔 헤신가
21720	부싯돌	부싯돌
21720-0-1	-을	부싯돌 거정 오라
21721	부시	빈췌
21722	부싯깃	소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뱃통때
21725	담배설대	담뱃때
21726	대통	담배통
21727	물부리	물뿌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쌈지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소대
21731	벼루	베리
21732	가락지	가락찌 까락찌
21733	비녀	빈네
21734	참빗	챙빈
21734-0-1	-을	챙빈 거저오라
21734-0-2	-에	챙비세
21735	얼레빗	얼레기
21736	세숫대야	세멘끼
21737	비누	비노
21738	도투마리	도꼬마리
21739	활대	버리라고
21740	잉앗대	잉안때
21741	부티	부채라고 헨나
21742	도롱이	점찌기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임탱이 이마 이멩이
21802	이마빼기	이마빡
21803	눈자위	눈똥자
21804	검은자위	거문자위
21805	흰자위	흰자위
21806	눈꺼풀	눈꺼풀 눈뚜께
21807	거적눈	덥계눈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길다
21810	눈두덩	눈뚜탱이
21811	안경	안경
21812	안경집	안경찝
21813	돋보기	돋뵈기 돋빼기
21814	주름살	주름
21814-0-1	-이	주르미 하다
21815	엷되다	절머 보인다
21816	수염	쉬염
21817	구레나룻	녹똥쉬염

21817-0-1 -을	녹뿔쉬엄 까끄라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크다
21819 콧수염	콘썬염
21820 코딱지	코풀떼기 코푼제기
21821 콧구멍	콘꼬망
21821-0-1 -을	콘꼬망 마그라
21821-0-2 -에서	콘꼬망에서
21822 콧물	콘물 남찌
21823 입술	입썰 입빠우
21823-0-1 -에	입썬래 입빠우에
21824 다물다	입 따물랑 허주
21825 어금니	어금니
21826 덧니	던니
21827 휘파람	썬뻬름
21828 침	침 춤
21829 삼키다	숨전쩐
21830 가래(痰)	게춤 가래
21831 빨다	바끄라
21832 혀	세
21833 혓바늘	썬까시
21834 콧볼	콘뻬
21835 귀고리	귀거리
21835-1 귀걸이	귀마게
21836 귀지	콘뻬
21837 귀이개	귀휘지개
21838 소리	소리 남찌
21839 엇듣다	연뜨럼찌 여산뜨럼찌
21840 귀청	귀창이
21841 귀밑	귀똥베기
21841-0-1 -에	귀똥베기에
21842 관자놀이	관자노리
21843 기미	지미 썬찌
21844 주근깨	푼리점
21845 턱	턱 푼가리
21846 턱수염	턱가리시염
21847 뺨	뺨떼기
21847-1 볼	볼
21848 가름하다	술랑허다
21849 보조개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꺼럭

21851	비듬	비듬
21852	기계총	이발총
21853	정수리	상감
21854	대머리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뽕쓸머리
21856	가르마	가리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 /하다	갈르는 거
21857	가마(旋毛)	가메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마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가마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가메기
21858	뒤통수	뒤통수
21859	뒤틀미	뒤틀미 뒤틀꼬개
21860	목	목 모가지
21861	먹살	맥쌀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독지
21902	밀치다	게물럼시
21903	겨드랑	저깁이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심
21906	걸리다	절리다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허파	폐 북뿌기
21909	쓸개	실개
21910	콩팥	콩팥 콩푼
21910-0-1	-에	콩팥세
21910-0-2	-을	콩팥슬
21911	팔	폴
21912	팔꿈치	폴꿈치
21913	팔짱끼다	폴짱찌다
21914	손뚝	손콥
21915	오른손	늑든손

21916	원손	웬손 웬착쑈
21917	다르다	트나다
21917-0-1	-아서	트나난
21917-1	틀리다	틀런찌
21918	원손잡이	웬창똥이
21919	엄지손가락	엄지손까락
21920	집게손가락	검지손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중지손까락
21922	약손가락	약찌손까락
21923	새끼손가락	소지손까락
21924	생인손	생손 알런찌
21925	사마귀	만축
21926	손아귀	손아귀
21927	손목	손목 손모가지 홀목 홀모게기
21928	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21931	옆구리	옥갈리 엽꾸리
21932	간지럽다	저금따
21933	간지럼	저금 탐찌
21934	잔허리	존허리
21935	근육	힘썰
21936	배꼽	배똥
21937	목물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귀마리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창
22004	발톱	발톱 발콥
22005	냄새	냄살
22006	고린내	꼬랑내
22007	굳은살	깁이
22008	정강이	정깁이
22009	종아리	종아리
22010	장딴지	쥐술
22011	회초리	훼초리
22012	무릎	동고릅 동무릅
22012-0-1	-을	동고릅 다첸찌

22012-0-2 -에	동고로베
22013 오곰	오곰
22014 엉덩이	엉덩이
22015 궁둥이	궁뎡이
22016 볼기	잠지폐기 볼기
22017 멍	멍
22018 멍울	멍얼
22019 가랑이	가랭이
22020 사이	사이 트멍에
22021 살	사타구니엔
22021-0-1 -이	사타구니가 부얼찌
22021-0-2 -을	사타구니를
22022 사타구니	사타구니
22023 가래툰	멍얼
22023-0-1 -을	멍얼 산쭈다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 허벅찌
22025 넓적다리	허벅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	*
/앉다/트다/꼬다/하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고뿔 들런찌
22102 기침	지침
22103 재채기	현깁이
22104 사례	살레에 드런
22104-1 사례 들리다/ 만나다/걸리다	살레에 드런
22105 딸꾹질	툄곡찌
22106 트림	트림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구실
22109 여드름	으드름
22110 학질	학질
22110-1 하루거리	날거리
22110-2 이틀거리	*
22110-3 매일 앓는 학질	*
22111 홍역	홍역
22112 볼거리	볼거리 귀똥치기

22113	땀띠	땀띠기
22114	두드러기	두드레기
22115	버짐	버짐
22115-1	마른버짐	흰버짐 군버짐
22115-2	진버짐	츄버즘
22115-3	도장버짐	*
22116	문둥이	문둥이
22116-1	문둥병	문둥이뻥
22117	부스럼	부시레미 부시럼
22117-1	종기	허물 십쥬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골르렌
22120	난쟁이	난장이
22121	사팔뜨기	사팔떼기 삼팔뜨기
22122	언청이	얼챙이
22123	소경	봉사
22123-1	당달봉사	튼봉사
22124	애꾸	웨눈베기
22125	눈곱	눈꼽
22126	다래끼	개쌌 난쥬허주
22126-1	다래끼	개쌌 둘런 우에 난 건 둘런
22126-2	다래끼	아래 꺼는 개쌌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 철락따리
22128	곱사등이	곱쌌
22129	귀머거리	귀막씨
22130	말더듬이	버버리
22131	병어리	모레기
22132	잠꾸러기	잠꾸레기
22133	졸리다	조랍따
22134	하품	하우염
22135	졸음	즈미 조름 참찌 몬터연
22135-0-1	-을	즈믈 몬츠망
22135-0-2	-에	조르메 겨윙 줌에 겨윙
22136	잠꼬대	헌말

2.7. 육아

22201	입덧	입뎌
22201-0-1	-을	입뎌슬

22202	잣난아이	곤난나기 물레기
22203	어린아이	두린에기
22204	경기(驚氣)하다	정끼허다
22205	눅히다	눅찌라
22206	계집아이	지집빠이
22207	예쁘다	곱따
22208	사내아이	스나이
22209	아우 타다	아시 탄
22209-1	아우보다	아시보난 아시 탄
22210	야위다	유우럼찌
22211	쌍둥이	쌍둥이 골레기엔
22212	오줌	오죸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지성귀
22215	뉘다(排便)	오조물 쉼와야주
22216	방귀	방귀 똥 꺾엄찌
22216-1	뀌다	똥 꺾엄찌
22217	구린내	구린내 남쎸 허주 똥냄새
22218	구리다	곤쭈마씨
22219	포대기	지성귀
22220	기지개	질 텀쎸 허주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 /쓰다/펴다	질 텀찌
22221	거짓말	거진말
22222	남부끄럽다	눔부치럽따
22223	겹쟁이	겹쟁이 겹쎸
22224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22225	죄암죄암	죸메죸메
22226	곤지곤지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섬마섬마
22228	도리도리	마니마니
22229	짹짹	던데던데
22230	부라부라	오들랑오들랑
22231	걸음마	거름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아그작아그작 어그작어그작
22233	넘어지다	푸더지다
22234	곤두박질	바가절찌 곤작살찌
22235	안기다	드라점찌
22236	바람개비	븜또레기
22237	호드기	주네 부럼찌
22238	숨바꼭질	고블레기

22239	소꿉놀이	현뽕노리
22240	사금파리	사금마치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토끼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개오리연
22242	걸리다	걸리는 건 업썰썰
22243	고누	꼰
22244	땅뺨기	손치기
22245	팽이	팽이도 이서
22246	딱지치기	떼기치기
22247	구슬	다마치기
22248	그네	그넨 별로 어서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 /구르다	그네는 타는 거
22249	밑신개	그넨빵석
22250	굴렁쇠	굴렁썰
22251	굴리다	굴렁썰 둥그리는 거
22251-0-1	-고	굴렁썰 둥구리멍 노람썰
22251-0-2	-어야	눈 둥그러사
22252	자전거	조앵게
22253	목말	고개 테완 완썰
22254	말타기	말탈락
22255	달음박질	드름박썰 드를락
22256	썰매	썰매는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타는 거
22256-2	송곳	*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 /떨다/하다	엄살 부림썰
22258	부아	부에 남썰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아방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22302	어머니	어멍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22303	할아버지	하르방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
22304 할머니	할망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서방
22305-1 남편(호칭)	여보 익썩이 아빠 익썩이 아버지
22306 아내	집싸람 안싸람
22306-1 아내(호칭)	여보 익썩이 어멍
22307 형	성
22307-1 형(호칭)	성님
22308 아우	아시우다
22308-1 아우(호칭)	아시아
22309 누나	누나 누니미엔도 허곡
22309-1 누나(호칭)	누님
22310 누이	누이동생
22310-1 누이(호칭)	누이야
22311 자식	즈시기엔
22312 맏아들	큰아덜
22313 맏딸	큰딸
22314 막내	막똥이
22315 오빠	오라방 오라버님
22315-1 오빠(호칭)	오라방
22316 언니	언니 성님
22316-1 언니(호칭)	성님
22317 아버지	애아방 애기아방
22317-1 아버지(호칭)	익썩아 은녕이 아방아
22318 어미	에기어멍
22318-1 어미(호칭)	메느리야 은녕이 어멍아
22319 손자	손지 스나이손지
22320 손녀	지집빠이손지
22321 사위	사위
22321-1 사위(호칭)	은녕이 아방아
22322 외손자	웨손지
22323 외손녀	웨손지
22324 꾸짖다	옥컨다도 험쭈마씨
22324-0-1 -고	옥켄서라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주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영
22327 혼인	절혼
22327-1 혼인식	절론식
22328 혼인 잔치	절론잔치엔

22329	장가가다	장게감찌
22329-1	시집가다	시집감찌
22330	혼숫감	살림사리
22331	함	함
22332	겹사돈	겹싸도넨 험니다 겹싸돈
22333	새 색시	새각씨
22333-1	새 색시(호칭)	새각씨야
22334	시아버지	씨아버니미우다
22334-1	시아버지(호칭)	그냥 아버니미우다
22335	시아머니	씨어머니미우다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머님
22336	비위	비우를
22337	아주버니	큰나즈방
22337-1	아주버니(호칭)	아주버님
22338	서방님	아즈방
22338-1	서방님(호칭)	아즈방
22339	도련님	씨아즈방
22339-1	도련님(호칭)	씨아즈방
22340	형님	성님
22340-1	형님(호칭)	성님
22341	시누이	씨누이우다
22341-1	시누이(호칭)	우에는 성님
22341-2	아가씨	*
22341-3	아가씨(호칭)	미테는 아시아
22342	올케	아지망
22342-1	올케(호칭)	아지망아
22343	매형	매형
22343-1	매형(호칭)	매형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아시아
22345	큰아버지	큰나버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큰나버님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호칭)	쎄따버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호칭)	말쎄따버지
22346	큰어머니	큰너머니
22346-1	큰어머니(호칭)	큰너머님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쎄떠머님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말쎄떠머님

	아내(호칭)	
22347	큰 집	큰지비엔
22348	작은아버지	조근나버지 조근나방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조근아버님 조근나버지
22349	작은어머니	조근어명이우다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조근너머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삼추느로 전부다
22351-1	아저씨(호칭)	삼촌
22352	아주머니	여삼촌
22352-1	아주머니(호칭)	삼촌
22353	조카	조케
22354	조카딸	우리 여조케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님
22357	고종	고종사촌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님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님
22360	이종	이종입쭈 이종사촌 웨사촌
22361	외삼촌	웨삼초니우다
22361-1	외삼촌(호칭)	삼촌
22362	외숙모	삼촌
22362-1	외숙모(호칭)	삼촌
22363	외종	웨종 웨스촌
22364	외할아버지	웨하라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하라버지
22365	외할머니	웨할망 웨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할머니
22366	장인	가시아방
22366-1	장인(호칭)	아버님
22367	장모	가시어명
22367-1	장모(호칭)	장모님 어머니
22368	처남	처나미우다 처남
22368-1	처남(호칭)	아시아 처남
22369	처남댁	그냥 아지망
22369-1	처남댁(호칭)	아지망

22370	홀아비	홀아방
22371	홀어미	홀어멍
22372	계모	다슴머멍
22372-1	계부	다슴마방
22373	아저씨	삼춘
22373-1	아저씨(호칭)	삼춘
22374	아주머니	아지망
22374-1	아주머니(호칭)	아지망
22375	사나이	스나이
22376	영감	하르방
22376-1	할머니를 낳추어 말할 때(저 늙의 할망구)	저 늙의 할망구
22377	나이	나썰 나이
22377-0-1	-를	나썰 머검썸 나이 머검서
22378	환갑	환갑
22378-1	환갑잔치	환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물궤기
22402	민물고기	돈물궤기
22403	피라미	*
22404	지느러미	지느레미 놀게기
22405	아가미	쿠쟁이
22406	창자	창지
22407	송사리	*
22408	헤엄	휘엄썰썰
22409	메기	*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거부기마씨
22412	미꾸라지	미꾸리 미꾸레기엔도 허곡
22413	개구리	갈게비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궤비
22416	꺼머리	꺼머리
22417	다슬기	다슬기
22418	우렁이	*

22419	고등	보말
22420	달팽이	돌뱅이
22421	새우	샤오
22421-1	새우(대)_민물	*
22421-2	새우(소)_민물	*
22421-3	새우(대)_바다	*
22421-4	새우(소)_바다	*
22422	새우젓	샤오절
22422-0-1	-이	샤오저시 짜다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개오리
22427	가자미	가제미
22428	멸치	멜
22429	명태	멩테
22429-1	동태	동테
22429-2	황태	황테
22429-3	노가리	노가리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생테
22430	조기	조기
22431	도미	돔
22432	뱀장어	베움장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니깍
22435	낙싯대	첨때엔 힘니다
22436	얼레	차세
22437	조개	어금
22438	소라	구제기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버랭이엔 힘쭈
22502	날벌레	날뽕레
22503	파리	푼리
22503-1	쉬파리	왕푼리 똥파리엔 허영으네 쉬푼리
22504	쉬슬다	쉬쓰런쨍
22505	가시	버랭이 이런쨍
22506	진딧물	쉬 싹쨍 허주

22506-1 (진딧물이) 끼다/ 얹다/생기다	쉬 이런썩 허주
22507 잠자리	박쭈리
22508 방아깨비	심방만촉
22508-1 암컷	*
22508-2 수컷	*
22509 메뚜기	만촉
22510 여치	여치
22511 사마귀	국제기
22512 벌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 /키우다	치는 거
22513 땅벌	땅뽕가뜯 거는 얻꼬
22514 나비	나비 내비
22515 하루살이	흐루사리 누네누니 일어썩 허고
22516 풍뎡이	풍뎡이
22517 모기	모기
22518 장구벌레	장굴레비
22519 매미	재열
22520 개똥벌레	불란디
22521 반딧불	불란디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구데기엔 험쭈
22525 노래기	마쿠데기
22526 그리마	ㄱ스락주넝이엔
22527 지네	주넝이
22528 개미	개염지
22529 바구미	남쉬
22530 진드기	부구리엔
22531 벼룩	배룩
22532 이(蟲)	니
22532-1 서캐	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소낭빠렝이
22534 귀뚜라미	공중이
22535 누에	누엔디
22536 고치	고치
22537 번데기	뽕데기
22538 지렁이	게오리
22539 회충(蛔蟲)	훼충 거수웨

22540	소금쟁이	*
22541	방개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췌
22603	송아지	송에기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메에
22605	황소	부렁이
22606	길들이다	질드리당
22606-1	소 모는 소리	이려
	-앞으로 가라	
22606-2	소 모는 소리	왕
	-그 자리에 서라	
22606-3	소 모는 소리	*
	-오른쪽으로 돌아	
22606-4	소 모는 소리	*
	-왼쪽으로 돌아	
22606-5	소 모는 소리	뒤터레
	-뒤로 물러나라	
22607	쇠고기	췌케기
22608	고기(肉)	케기
22609	둘치	지스랭이
22610	꼬리	꼴랭이
22611	망아지	몽생이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기
22614	돼지	도새기
22614-1	멧돼지	산또새기
22615	주둥이	주둥이
22616	돼지 머리	도새기 머리
22617	돼지우리	돈통에
22617-1	오래오래	으식끄식 이식이식
22618	개(犬)	개
22618-1	수캐	수캐
22618-2	암캐	암캐
22619	강아지	강생이
22620	염소	염송에기
22621	고양이	고녕이

22621-1 수고양이	수코녕이
22621-2 암고양이	암코녕이
22622 토끼	토끼
22623 거위(鵞)	거위
22624 암탉	암퇘
22625 병아리	비에기 빙에기
22626 모으다	모다야주
22627 수탉	장득
22627-0-1 -이	장득기 울면
22628 벚(鷄冠)	베슬 고달
22629 부리	주둥이
22630 모이	곡석
22630-0-1 -을	곡석 머검찌
22630-1 모이다	모여온다
22631 닭털	독터럭
22632 닭똥	독똥
22633 어리	중시리
22634 닭장	독짱 이서십쭈
22635 둥우리	독탕에
22636 날개	놀게
22637 깃	놀게진 진
22637-0-1 -을	지슬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렝이
22702 살쾩이	식
22703 여우	여시는 여우
22704 원숭이	나비엔 허주 납
22705 사슴	사심
22706 노루	노로
22706-0-1 -이	노로가 어서
22706-0-2 -을	노로를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베염
22711 도마뱀	독딸기
22712 구렁이	구렝이
22713 살무사	독싸는 일찌

22714	생쥐	새앙쥐
22715	박쥐	박쥐
22716	거꾸로	꺼꾸로
22717	다람쥐	다람쥐
22718	새(鳥)	날짐승 생이
22719	꿩지	꿩랑지
22720	솔개	똥소레기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루미
22724	소쩍새	*
22725	꿩	꿩
22726	장끼	장꿩
22727	까투리	암꿩
22727-1	꺼병이	꿩빙에기
22728	종달새	종다리는
22729	빠꾸기	빠꼭썰주마는
22730	기러기	기레기
22731	뜸부기	*
22732	올빼미	옥뺨미엔 험니다 옥뺨
22733	까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
22735	덧	던
22735-0-1	-을	던 놔얹쭈마씨
22736	올가미	올게미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진달래꽃
22802	철쭉꽃	철쭉또
22803	민들레	민들레
22804	맨드라미	*
22805	봉선화	봉선화
22806	파리	푸계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봉오리
22809	시들다	시드런썬
22810	질경이	배채기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배채기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
22811	빨기	뽕이
22812	비름	춤비눔
22813	쇠비름	췌비눔
22814	썸바귀	돈쭈앵이
22815	고들빼기	*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이름)	*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까리풀
22818	도깨비바늘	*
22819	도꼬마리	*
22820	억새	어욱
22821	갈대	*
22822	이끼	늘
22823	아주까리	피만지
22824	담쟁이	담꼴르레기 담꼴르레기
22825	수세미	*
22826	덩굴	주리엔
22827	덤불	덤불도 자왈
22827-1	가시덤불	가시자왈
22828	잔디	떼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낭
22902	솔방울	솔똥
22903	관솔	솔각뿔
22904	솔가리	솔입
22905	그리모으다	글그레
22906	뽕나무	뽕낭
22907	오디	*
22908	도토리	도토리
22909	떡갈나무	*
22910	상수리	*
22911	웃	*
22911-0-1	-으로	*
22912	버드나무	*
22913	느티나무	굴무기낭

22914	그림자	굴메
22914-1	그늘	굴메
22915	숲	고지
22915-0-1	-을	고지 가야
22915-0-2	-에	고지에 가야
22916	시원하다	씨원허다
22917	절레	*
22918	칩	칙
22918-0-1	-에	치게 발 걸런찌
22919	가지(枝)	가쟁이
22920	끝	끝뎡이
22920-0-1	-이	끝뎡이가
22920-0-2	-을	끝뎡이를
22920-0-3	-에	끝뎡이에 새 아잔찌
22921	삭정이	사근낭엔 허주
22921-1	삭정이를 탄다 /꺾다/하다	꺼경
22922	나무	낭
22922-0-1	-을	낭을
22922-0-2	-에	낭에
22923	나무하다	낭허레 간다
22924	그루터기	그루 그리
22924-1	그루터기	나문끄리
22925	등걸	구루
22926	장작	장작
22927	꽤다	꽤다
22928	부스러기	낭쭈시
22929	숫	순
22929-0-1	-이	수시 췌다
22929-0-2	-을	수슬
22929-0-3	-에	수세
22930	불잉걸	불잉쟁이
22931	쌉	새쌉
22932	잎	이파리
22932-0-1	-을	이파리를
22932-1	잎사귀	입쌍귀
22933	가랑잎	입쌍귀
22934	뿌리	뿔리

2.10.1.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숭개
23004	곶감	곶감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
23007	살구	*
23008	앵두	*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
23010-0-1	-을	*
23011	석류	성뉴
23012	모과	모과
23013	과일	과실
23014	꼭지	꼭떼기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23015-2	팻밤	팻밤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동밤	쌍둥이밤 쌍밤
23016	보늬	*
23017	호두	호두
23018	가래(秋子)	*
23019	개암	*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
23022	청미래덩굴	*
23023	으름	*
23024	참외	참뽕
23025	딸기	탈
23025-1	딸기(밭)_재배	*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
23025-5	딸기(산)_재배	*
23025-6	딸기(산)_야생	*
23026	뱀딸기	*
23027	마름(菱)	*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산뽕오리 산꼭떼기
23102	기슭	지슬
23102-0-1	-에	산찌스레
23103	골짜기	꿀찌기
23104	메아리	산울림
23105	고함	고하멘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 /하다	고함치지
23106	묘	사니라고 메라고도 하지
23107	뿔자리	멧짜리 산터도 허지마는
23107-1	광중	개광
23108	구덩이	구덩이를
23109	비탈	비트레기
23110	가파르다	비스러지다
23111	언덕	동산
23112	낭떠러지	기정
23113	들(野)	드르에
23113-0-1	-에	드르에
23114	벌	*
23115	갈림길	갈렌끼렌 험쭈
23116	헤어지다	갈라정 감찌
23117	바위	왕돌
23117-0-1	-을	왕돌 들림찌
23117-0-2	-에	왕도레
23118	돌(石)	돌멩이
23118-0-1	-을	돌멩이 골라야켜
23118-0-2	-에	돌멩이에 마잔찌
23119	자갈	작찌엔 험니다
23120	모래	몰레
23120-0-1	-를	모사를 파압쭈
23121	진흙	진호기엔 허고
23121-1	찰흙	춘호기엔 처녁크 처낙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물
-------	---	---

23202	거품	게끔
23203	개운하다	씨원하다
23204	도랑	골챙이
23204-1	봇도랑	물또랑
23205	둑	두둑
23206	잠기다	잠견젠
23207	개울	넌무리넌 험쭈
23208	내(川)	넌꼴챙이
23209	미역 감다	휘엄찌
23210	발가숭이	빨거케 버선찌
23211	목욕하다	몸ㄱ맘찌
23212	수채	골챙이
23213	개골창	개골챙이
23214	시궁창	펼통이엔
23215	웅덩이	웅텅이
23216	수렁	펼통이엔 험니다
23217	늪	펼통
23217-0-1	-에	펼통에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성창
23220	돛	초서기엔 험니다 초석
23220-0-1	-에	초서게 마장
23221	돛대	돈때
23222	돛배	풍서니엔 험니다
23223	돛 줄	야린쭈
23224	돛줄	단쭈
23225	거루	템마
23226	상앗대	사울때
23227	개 필	펼
23228	물	무티 감찌
23228-0-1	-으로	무트로 무티로
23229	밀물	드는물 들물
23230	썰물	싸는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굴라점찌
23232	그물	구물
23233	해녀	좁수

2.11.3. 시후

23301	새벽	동세베기
-------	----	------

23302	새 벉밥	세 벉뵁
23303	아 침	아 침
23304	아 침 밥	조 반
23305	점 심	증 슴빠 멘
23306	저 녀	즈 낙 때
23307	설 꺾하다	어 스렁엔 험쭈 어 스렁헨쨌
23308	노 을	노 을
23308-0-1	-을	노 을 뵁쨌
23309	불그레하다	불그레험쭈
23310	해 거름	헤 지기엔 험쭈 헤 지기
23311	땅 거미	어 스렁허연
23312	봄	뵁
23313	여름	으름
23314	더 위	더 웨
23315	추 위	으러절쨌 허주 추 위엥
23316	가 을	ㄱ슬
23316-0-1	-에	ㄱ스레
23317	겨 을	저슬마쨌
23317-0-1	-에	저스레
23318	얼 음	어름
23319	오 늘	오 널
23320	내 일	닐
23321	모 례	모 리
23322	글 피	글 피
23323	그글 피	저녕날
23324	어 제	어 제
23325	그저 께	그지게엥도 허고 그제
23326	그그저 께	그그지게
23327	훗 날	훈 날
23328	하룻 날	초 흐루
23329	이튿 날	초 이튼 날
23330	사훈 날	초 사훈 날 초 사훈 날
23331	나훈 날	초 나훈 날
23332	닷쨌 날	초 다쨌 날
23333	엿쨌 날	초 〇 〃 ㄴ 쨌 날
23334	이렛 날	초 일렌 날
23335	여드렛 날	초 으드렌 날
23336	아흐렛 날	초 아흐렌 날
23337	열흘 날	열 흘랄
23338	하 루	흐 루
23339	이 틀	이 틀

23340	사흘	사을
23341	나흘	나을
23342	닷새	단췌
23343	엿새	은췌
23344	이레	일뤼
23345	여드레	으드레
23346	아흐레	아으레
23347	열흘	열를
23348	한나절	훈나절
23348-1	반나절	반나절
23349	그믐	그무멘 허주
23349-1	그믐께	그믐끼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이제
23353	이미	불써엥 이미엔도 허곡 불써
23354	요즈음	요새
23355	금방	고시엔도 허곡 금방 먹꼬 와따도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벤
23401-0-1	-이	베시
23401-0-2	-을	베슬
23402	따스하다	뜨뜨터여
23403	아지랑이	아지랭이
23404	응달	그늘진 디
23405	양달	벤벤른 디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줍벙이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이남
23410	눈개	줍벙이빼
23411	무지개	황고지
23412	소나기	췌네기
23413	갑자기	갑제기
23414	홍수	내 터절찌 홍수
23415	번개	편게
23416	천둥	천둥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습따
23419	함박눈	험병눈
23420	싸락눈	싸레기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비눈깨비 비눈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동곤
23425	햇무리	험므루 해간
23426	달무리	돌무리 돌간
23427	둥글다	똥그렁허주마씨
23428	은하수	은나수를
23429	금성	썬뻬렌 험쭈
23430	가뭄	ㄱ뭄
23431	마르다	몰르지
23431-0-1 -어서		몰랑
23432	위	우의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웬쪽
23435	오른쪽	오른쪽 ㄴ든쪽
23436	결	저끝띠
23436-0-1 -에		나 저끝띠에 안지라
23437	회오리바람	도깨비븜
23438	북풍	하니븜
23439	남풍	마팍름
23440	동풍	썬뻬름
23441	서풍	갈븜

제 3 편 음운

3.1. 음운 목록

3.1.1. 단모음

31001	테(輪)	
31001-0-1	-이/가	테가
31001-0-2	-보다	테보다
31002	태(胎)	
31002-0-1	-이/가	보시
31002-0-2	-보다	볼뿐다
31003	떼(群)	
31003-0-1	-이/가	떼가
31003-0-2	-보다	떼보다
31004	때(時)	
31004-0-1	-이/가	때가 다 웨언
31004-0-2	-보다	때보다
31005	틀(機)	
31005-0-1	-이/가	크리
31005-0-2	-보다	클보다
31006	털(毛)	
31006-0-1	-이/가	터러기
31006-0-2	-보다	터럭뿐다
31007	글(文)	
31007-0-1	-이/가	그리
31007-0-2	-보다	저 글보다
31008	걸(옷)	
31008-0-1	-이/가	거리
31008-0-2	-보다	걸보다
31009	기(旗)	
31009-0-1	-이/가	기가
31009-0-2	-보다	이 기보다
31010	귀(耳)	
31010-0-1	-이/가	귀가
31010-0-2	-보다	느 귀보다
31011	시(生時)	
31011-0-1	-이/가	난 시가
31011-0-2	-보다	난 시보다
31012	쉬(蠅卵)	

31012-0-1 -이/가	이 쉬가
31012-0-2 -보다	저 쉬보다
31013 쇠(鐵)	
31013-0-1 -이/가	췌가
31013-0-2 -보다	췌보다
31014 외:국(外國)	
31014-0-1 -이/가	웨구기
31014-0-2 -보다	웨국보다
31015 왜국(倭國)	
31015-0-1 -이/가	웨구기
31015-0-2 -보다	웨국뽀다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31035-0-1 -이/가	으라이
31035-0-2 -보다	으라이보다
31035-0-3 -을/를	으라일
31036 물결(波)	
31036-0-1 -이/가	저리 췌다
31036-0-2 -보다	절보다
31036-0-3 -을/를	절 보라
31037 예:의(禮儀)	
31037-0-1 -이/가	예의가
31037-0-2 -보다	예의보다
31037-0-3 -을/를	예의를
31038 계:획(計劃)	
31038-0-1 -이/가	계회기 신가
31038-0-2 -보다	계획뽀다
31038-0-3 -을/를	계획글
31039 규칙(規則)	
31039-0-1 -이/가	규치기
31039-0-2 -보다	규칙뽀다
31039-0-3 -을/를	규치글
31040 휴일(休日)	
31040-0-1 -이/가	휴이리
31040-0-2 -보다	휴일보다
31040-0-3 -을/를	휴이를
31041 교통(交通)	
31041-0-1 -이/가	교통이

31041-0-2 -보다	교통보다
31041-0-3 -을/를	교통을
31042 효:자(孝子)	
31042-0-1 이/가	효자가
31042-0-2 보다	효자보다
31042-0-3 을/를	효잘
31043 웬일(何事)	
31043-0-1 -이/가	무슨 니리
31043-0-2 -보다	무슨 닐보다
31043-0-3 -을/를	무슨 니를
31044 궤:(짝)(櫃)	
31044-0-1 -이/가	이 궤가
31044-0-2 -보다	저 궤보다
31044-0-3 -을/를	이 궤를
31045 왜란(倭亂)	
31045-0-1 -이/가	웨라니
31045-0-2 -보다	웨란보다
31045-0-3 -을/를	웨라늘
31046 헛대(鷄架)	
31046-0-1 -이/가	헬때가
31046-0-2 -보다	헬때보다
31046-0-3 -을/를	헬때를
31047 원망(怨望)	
31047-0-1 -이/가	원망이
31047-0-2 -보다	원망보다
31047-0-3 -을/를	원망을
31048 권투(拳鬪)	
31048-0-1 -이/가	권투가
31048-0-2 -보다	권투보다
31048-0-3 -을/를	권투를
31049 의논(議論)	
31049-0-1 -이/가	으노니
31049-0-2 -보다	으논보다
31049-0-3 -을/를	으노늘
31050 무늬(紋)	
31050-0-1 -이/가	무니가
31050-0-2 -보다	무니보다
31050-0-3 -을/를	무니를
31051 왕(王)	
31051-0-1 -이/가	왕이
31051-0-2 -보다	그 왕보다

31051-0-3 -을/를	왕을
31052 과자(菓子)	
31052-0-1 -이/가	과자가
31052-0-2 -보다	과자보다
31052-0-3 -을/를	과자를

3.1.3. 장모음 · 성조

31053 일(一)	
31053-0-1 -이/가	이리
31053-0-2 -보다	일보다
31054 일:(事)	
31054-0-1 -이/가	이리
31054-0-2 -보다	이 일보다
31055 매(鞭)	
31055-0-1 -이/가	이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다
31056 매:(驚)	
31056-0-1 -이/가	매가 크다
31056-0-2 -보다	매보다
31057 밤(夜)	
31057-0-1 -이/가	바미
31057-0-2 -보다	밤보다
31058 밤:(栗)	
31058-0-1 -이/가	바미
31058-0-2 -보다	밤보다
31059 눈(眼)	
31059-0-1 -이/가	누니
31059-0-2 -보다	눈보다
31060 눈:(雪)	
31060-0-1 -이/가	누니 완쩍
31060-0-2 -보다	눈보다
31061 말(馬)	
31061-0-1 -이/가	므리
31061-0-2 -보다	말보다
31062 말(斗)	
31062-0-1 -이/가	훈 마리
31062-0-2 -보다	두 말보다
31063 말:(言)	
31063-0-1 -이/가	저 사름 마리

31063-0-2 -보다	이 말보다
31064 손(客)	
31064-0-1 -이/가	소니미 하다
31064-0-2 -보다	저 소님보다
31065 손(手)	
31065-0-1 -이/가	나 소니
31065-0-2 -보다	느 손보다
31066 손:(孫)	
31066-0-1 -이/가	소니 하다
31066-0-2 -보다	손보다
31067 배(梨)	
31067-0-1 -이/가	이 배가
31067-0-2 -보다	저 배보다
31068 배:(倍)	
31068-0-1 -이/가	배가
31068-0-2 -보다	배보다
31069 벌(罰)	
31069-0-1 -이/가	버리
31069-0-2 -보다	벌보다
31070 벌:(蜂)	
31070-0-1 -이/가	버리
31070-0-2 -보다	벌보다
31071 솔(松)	
31071-0-1 -이/가	솔나무가
31071-0-2 보다	솔나무보다
31072 솔:(刷)	
31072-0-1 -이/가	이 소리
31072-0-2 -보다	저 솔보다
31073 줄(鉉)	
31073-0-1 -이/가	이 주리
31073-0-2 -보다	저 줄보다
31074 줄:(연장)	
31074-0-1-이/가	주리
31074-0-2 -보다	저 줄보다
31075 돌:(石)	
31075-0-1 -이/가	도리
31075-0-2 -보다	저 돌보다
31076 담(牆)	
31076-0-1 -이/가	다미
31076-0-2 -보다	저 담보다
31077 담:(膽)	

31077-0-1 -이/가	다미 크다
31077-0-2 -보다	담보다 더 크다
31078 들:(野)	
31078-0-1 -이/가	이 드르가
31078-0-2 -보다	저 드르보다
31079 달-(縣)	
31079-0-1 -고	문패 돌곡
31080 달-(甘)	
31080-0-1 -고	가미 둘다
31081 달:-(熱)	
31081-0-1 -고	약 딸령
31082 갈-(換)	
31082-0-1 -고	이걸로 ㄹ랑
31083 갈-(磨)	
31083-0-1 -고	이걸로 ㄹ랑
31084 갈:-(耕)	
31084-0-1 -고	받까랑 쉬라
31085 걷-(收)	
31085-0-1 -고	날레 걷꼭
31086 걷:-(步)	
31086-0-1 -고	거렁
31087 적-(書)	
31087-0-1 -고	공체게 즈광 오라
31088 적:-(小)	
31088-0-1 -고	이 고친 족꼭

3.2. 음운 과정

3.2.1. 활용

32001 막-(防)[ㄱ]	
32001-0-1 -지	막찌 말라
32001-0-2 -고	마강 시라
32001-0-3 -더라	잘 마가라
32001-0-4 -으니까	잘 마그난
32001-0-5 -아/어(-았/었다)	잘 마강
32002 흐르-(流)[ㅡ]	
32002-0-1 -지	흘르지
32002-0-2 -고	무리 흐르곡
32002-0-3 -더라	물 흘러라

32002-0-4 -으니까	물 흘르난
32002-0-5 -아/어(-왔/었다)	물 흘렁
32003 오-(來)[ㄴ]	
32003-0-1 -지	오지 못텐쑤다
32003-0-2 -고	오공 말곡
32003-0-3 -더라	오라라
32003-0-4 -으니까	매날 오난
32003-0-5 -아/어(-왔/었다)	지비 왕
32004 듣-(聞)[ㄷ 변]	
32004-0-1 -지	듣찌
32004-0-2 -고	잘 듣꼭
32004-0-3 -더라	잘 드러라
32004-0-4 -으니까	잘 드러난
32004-0-5 -아/어(-왔/었다)	잘 드렁
32005 많:- (多)[ㄴㅎ]	
32005-0-1 -지	하지 아녀다
32005-0-2 -고	돈도 하곡
32005-0-3 -더라	돈도 하난
32005-0-4 -으니까	돈도 하라
32005-0-5 -아/어(-왔/었다)	하영 버런꾸나
32006 말-(任)[ㅌ]	
32006-0-1 -지	마트지 말라
32006-0-2 -고	이장 마트곡
32006-0-3 -더라	이장 마타라
32006-0-4 -으니까	이장 마트난
32006-0-5 -아/어(-왔/었다)	이장 마탕
32007 알:- (知)[ㄹ]	
32007-0-1 -지	알지 못터키여
32007-0-2 -고	잘 알곡
32007-0-3 -더라	잘 아라라
32007-0-4 -으니까	잘 아난
32007-0-5 -아/어(-왔/었다)	잘 아랑
32008 감:- (閉眼)[ㄱ]	
32008-0-1 -지	눈 곱찌 말라
32008-0-2 -고	눈 곱꼬
32008-0-3 -더라	눈 ㄱ마라
32008-0-4 -으니까	눈 ㄱ무난
32008-0-5 -아/어(-왔/었다)	눈 ㄱ망
32009 벗-(脫)[ㅍ]	
32009-0-1 -지	벗찌 말라
32009-0-2 -고	온뻔꼬

32009-0-3 -더라	온 짬 버서라
32009-0-4 -으니까	온 빠스난
32009-0-5 -아/어(-왔/었다)	온 빠성
32010 옹-(可)[ㄹㅎ]	
32010-0-1 -지	올치 아너다
32010-0-2 -고	올코
32010-0-3 -더라	올라라
32010-0-4 -으니까	그 마리 오르난
32010-0-5 -아/어(-왔/었다)	올라
32011 입-(着衣)[ㅂ]	
32011-0-1 -지	입찌 몬터키여
32011-0-2 -고	온 땀꼬
32011-0-3 -더라	그 아이 온 띠버라
32011-0-4 -으니까	온 띠브난
32011-0-5 -아/어(-왔/었다)	온 띠병
32012 바꾸-(換)[ㅌ]	
32012-0-1 -지	온 띠브라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고
32012-0-3 -더라	바짜라
32012-0-4 -으니까	바꾸난
32012-0-5 -아/어(-왔/었다)	바짱
32013 덮-(覆)[ㅍ]	
32013-0-1 -지	더프지
32013-0-2 -고	더평
32013-0-3 -더라	더퍼라
32013-0-4 -으니까	더프난
32013-0-5 -아/어(-왔/었다)	더평
32014 묻:- (問)[ㄷ 변]	
32014-0-1 -지	묻찌 말라
32014-0-2 -고	묻꼭대곡
32014-0-3 -더라	말 무러라
32014-0-4 -으니까	말 무르난
32014-0-5 -아/어(-왔/었다)	말 무렁
32015 낫:- (癮)[ㅅ 변]	
32015-0-1 -지	난찌 아념쭈다
32015-0-2 -고	빨리 난꼭
32015-0-3 -더라	잘 나사라
32015-0-4 -으니까	잘 나시난
32015-0-5 -아/어(-왔/었다)	벙 나산
32016 닫-(閉)[ㄷ]	
32016-0-1 -지	더끄지 말라

32016-0-2 -고	문 더끄곡
32016-0-3 -더라	문 더꺼라
32016-0-4 -으니까	문 더끄난
32016-0-5 -아/어(-았/었다)	문 더껏
32017 쫓- (追)[츠]	
32017-0-1 -지	조치지 말라
32017-0-2 -고	어멍 조치곡
32017-0-3 -더라	조차라
32017-0-4 -으니까	어멍 조치난
32017-0-5 -아/어(-았/었다)	어멍 조창
32018 베- (枕)[네]	
32018-0-1 -지	베지 말라
32018-0-2 -고	베게 베곡
32018-0-3 -더라	베개 베어라
32018-0-4 -으니까	베게 베난
32018-0-5 -아/어(-았/었다)	베게 베영
32019 깨- (破)[히]	
32019-0-1 -지	깨지 말라
32019-0-2 -고	낭 깨곡
32019-0-3 -더라	낭 줌지리 깨어라
32019-0-4 -으니까	낭 깨난
32019-0-5 -아/어(-았/었다)	낭 깨영
32020 펴- (伸)[키]	
32020-0-1 -지	페우지 몬터키여
32020-0-2 -고	페우고
32020-0-3 -더라	페와라
32020-0-4 -으니까	잘 페우난
32020-0-5 -아/어(-았/었다)	잘 페왕
32021 밝- (明)[리]	
32021-0-1 -지	날 북찌 아넌찌
32021-0-2 -고	날 북꼭
32021-0-3 -더라	날 불가서라
32021-0-4 -으니까	날 불그난
32021-0-5 -아/어(-았/었다)	날 불강
32022 삶- (烹)[리]	
32022-0-1 -지	썸지 몬터키여
32022-0-2 -고	썸꼭 대곡
32022-0-3 -더라	웨이 하영 쏘마라
32022-0-4 -으니까	하영 쏘뜨난
32022-0-5 -아/어(-았/었다)	하영 쏘망
32023 읊- (吟)[안]	

32023-0-1 -지	을프지 말라
32023-0-2 -고	을프곡 대곡
32023-0-3 -더라	을퍼라
32023-0-4 -으니까	을프난
32023-0-5 -아/어(-왔/었다)	매날 을평
32024 뽓:- (踏)[꺄]	
32024-0-1 -지	볼브지 맵썩
32024-0-2 -고	잘 볼르곡
32024-0-3 -더라	잘 볼라라
32024-0-4 -으니까	잘 볼르난
32024-0-5 -아/어(-왔/었다)	잘 볼령
32025 하-(爲)[ㅏ 변]	
32025-0-1 -지	말허지 말라
32025-0-2 -고	말허곡 말곡
32025-0-3 -더라	말허여라
32025-0-4 -으니까	말허난
32025-0-5 -아/어(-왔/었다)	말허영
32026 땃-(結)[ㅈ]	
32026-0-1 -지	믄치지 말라
32026-0-2 -고	일 믄치곡
32026-0-3 -더라	잘 믄차라
32026-0-4 -으니까	잘 믄치난
32026-0-5 -아/어(-왔/었다)	잘 믄창
32027 없:- (無)[ㅁ]	
32027-0-1 -지	돈 어찌 아녀다
32027-0-2 -고	돈 어꼭
32027-0-3 -더라	돈 어서라
32027-0-4 -으니까	돈 어시난
32027-0-5 -아/어(-왔/었다)	돈 어성
32028 앉-(坐)[ㅅ]	
32028-0-1 -지	그디 알찌 말라
32028-0-2 -고	그디 알꼭
32028-0-3 -더라	방서 게만 아자라
32028-0-4 -으니까	방석꾸이 아지난
32028-0-5 -아/어(-왔/었다)	방석 우에 아장
32029 비비-(刮)[ㅣ]	
32029-0-1 -지	비비지 말라
32029-0-2 -고	잘 비비곡
32029-0-3 -더라	잘 비벼라
32029-0-4 -으니까	잘 비비난
32029-0-5 -아/어(-왔/었다)	잘 비병

32030	끄-(消)[一]	
32030-0-1	-지	끄지 말라
32030-0-2	-고	불 끄고
32030-0-3	-더라	불 꺼라
32030-0-4	-으니까	불 끄난
32030-0-5	-아/어(-왔/었다)	불 꺾
32031	꺾-(折)[ㄱ]	
32031-0-1	-지	냥 거끄지 말라
32031-0-2	-고	냥 거끄곡
32031-0-3	-더라	냥 거꺼라
32031-0-4	-으니까	냥 거끄난
32031-0-5	-아/어(-왔/었다)	냥 거꺾
32032	신:-(履)[ㄴ]	
32032-0-1	-지	신 신찌 말라
32032-0-2	-고	신 신꼭
32032-0-3	-더라	신도 시너라
32032-0-4	-으니까	신 시느난
32032-0-5	-아/어(-왔/었다)	신 시닝
32033	보-(視)[ㅇ]	
32033-0-1	-지	베리지 말라
32033-0-2	-고	베리곡
32033-0-3	-더라	베려라
32033-0-4	-으니까	베리난
32033-0-5	-아/어(-왔/었다)	베런
32034	추-(舞)[ㅈ]	
32034-0-1	-지	추지 말라
32034-0-2	-고	춤 추곡
32034-0-3	-더라	춤 잘 추어라
32034-0-4	-으니까	춤 추난
32034-0-5	-아/어(-왔/었다)	춤 좃
32035	피우-(吸煙)[ㅍ]	
32035-0-1	-지	피우지 말라
32035-0-2	-고	피우곡
32035-0-3	-더라	피와라
32035-0-4	-으니까	피우난
32035-0-5	-아/어(-왔/었다)	피왕
32036	서-(立)[ㅅ]	
32036-0-1	-지	그디 사지 말라
32036-0-2	-고	그디 사곡
32036-0-3	-더라	문똥에 사서라
32036-0-4	-으니까	문똥에 사난

32036-0-5 -아/어(-았/었다)	문똥에 상
32037 기-(匍腹)[ㅣ]	
32037-0-1 -지	기지 말라
32037-0-2 -고	기곡 곁꼭
32037-0-3 -더라	잘잘 기어라
32037-0-4 -으니까	잘 기난
32037-0-5 -아/어(-았/었다)	잘 기영
32038 이-(戴)[ㅣ]	
32038-0-1 -지	이지 말라
32038-0-2 -고	머리에 이곡
32038-0-3 -더라	머리에 이어라
32038-0-4 -으니까	머리에 이난
32038-0-5 -아/어(-았/었다)	머리에 이영
32039 아니-(否)[ㅣ]	
32039-0-1 -지	그게 아니지 아녀우짱
32039-0-2 -고	그게 아니곡
32039-0-3 -더라	그게 아니라라
32039-0-4 -으니까	그게 아니난
32039-0-5 -아/어(-았/었다)	그게 아년
32040 되-(升)[ㅁ]	
32040-0-1 -지	짐자그로 웨지 말라
32040-0-2 -고	거 웨곡
32040-0-3 -더라	소느로도 웨여라
32040-0-4 -으니까	웨로 웨난
32040-0-5 -아/어(-았/었다)	웨로 웨영
32041 있-(有)[ㅅ]	
32041-0-1 -지	지베 싰찌 말라
32041-0-2 -고	집 싰꼬
32041-0-3 -더라	강보난 시여라
32041-0-4 -으니까	지비 시난
32041-0-5 -아/어(-았/었다)	지비 시영
32042 놓-(放)[ㅎ]	
32042-0-1 -지	받띠 노치 말라
32042-0-2 -고	쉐 노코
32042-0-3 -더라	쉐 놔서라
32042-0-4 -으니까	쉐 노난
32042-0-5 -아/어(-았/었다)	쉐 낭
32043 훔-(拔)[ㅼ]	
32043-0-1 -지	홀트지
32043-0-2 -고	홀트고
32043-0-3 -더라	홀타라

32043-0-4 -으니까	홀트난	
32043-0-5 -아/어(-왔/었다)	홀탕	
32044 곱:-(麗)[ㅂ변]		
32044-0-1 -지	곱찌 아녀다	
32044-0-2 -고	곱꼭 말곡	
32044-0-3 -더라	가이 고와라	
32044-0-4 -으니까	가이 고우난	
32044-0-5 -아/어(-왔/었다)	가이 고완	
32045 쥐:-(握)[ㄱ]		
32045-0-1 -지	쥐지 말라	
32045-0-2 -고	쥐곡 폐우곡	
32045-0-3 -더라	꼭 쥐어라	
32045-0-4 -으니까	꼭 쥐난	
32045-0-5 -아/어(-왔/었다)	꼭 쥐영	
32046 가:-(去)[ㅈ]		
32046-0-1 -지	가지 말라	
32046-0-2 -고	가곡 오곡	
32046-0-3 -더라	가라	
32046-0-4 -으니까	가난	
32046-0-5 -아/어(-왔/었다)	강	
32047 먹:-(食)		
32047-0-1 "{-지,-고,-더라}"	먹찌 말라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경	
32048 뜯:-(摘)		
32048-0-1 "{-지,-고,-더라}"	뜯찌 말라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뜯당	
32049 같:-(如)		
32049-0-1 "{-지,-고,-더라}"	ㄱ트곡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ㄱ타도	
32050 얕:-(淺)		
32050-0-1 "{-지,-고,-더라}"	야프지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팡	
32051 흩:-(散)		
32051-0-1 "{-지,-고,-더라}"	허트지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허텅	
32052 날:-(飛)		
32052-0-1 "{-지,-고,-더라}"	잘 놀지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느랑	
32053 울:-(泣)		
32053-0-1 "{-지,-고,-더라}"	울지 말라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우렁	

32054	얼:- (洵)	
32054-0-1	"{-지,-고,-더라}"	솔 일지 마랑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솔 이렇
32055	얼:- (凍)	
32055-0-1	"{-지,-고,-더라}"	얼지 아넬찌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렇 몬 땡기키여
32056	넘:- (越)	
32056-0-1	"{-지,-고,-더라}"	담 넘찌 말라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담 너멍
32057	숨:- (隱)	
32057-0-1	"{-지,-고,-더라}"	곶찌 마랑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곶방
32058	쉽:- (易)	
32058-0-1	"{-지,-고,-더라}"	쉽찌 아넹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쉬왕
32059	눅:- (臥)	
32059-0-1	"{-지,-고,-더라}"	장판 우의 눅찌 말라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눅 자라
32060	깎:- (縫)	
32060-0-1	"{-지,-고,-더라}"	잘 줍찌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줍
32061	밋:- (憎)	
32061-0-1	"{-지,-고,-더라}"	밋찌 아녀다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왕
32062	높:- (高)	
32062-0-1	"{-지,-고,-더라}"	노프지 아녀다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팡
32063	짓:- (作)	
32063-0-1	"{-지,-고,-더라}"	집 진꼭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집 지성
32064	붓:- (腫)	
32064-0-1	"{-지,-고,-더라}"	양지 붓꼬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얼굴 부성
32065	웃:- (笑)	
32065-0-1	"{-지,-고,-더라}"	웃찌 아녀라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성
32066	쫓:- (吠)	
32066-0-1	"{-지,-고,-더라}"	쫓끼지 말라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개 쫓경
32067	꽂:- (插)	
32067-0-1	"{-지,-고,-더라}"	잘 꼬지지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꼬장
32068 낱-(産)	
32068-0-1 "{-지,-고,-더라}"	새끼 나지 아녜찌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끼 낱
32069 땡:- (辯)	
32069-0-1 "{-지,-고,-더라}"	머리 땡찌 아녜찌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리 잘 따왕
32070 꿔-(切)	
32070-0-1 "{-지,-고,-더라}"	잘 끈치지 몬터키여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끈창 머그라
32071 괜창-(無妨)	
32071-0-1 "{-지,-고,-더라}"	괜치 아녕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괜찬코
32072 읽-(讀)	
32072-0-1 "{-지,-고,-더라}"	책 익찌 몬터켜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책 이경
32073 뽕:- (滌)	
32073-0-1 "{-지,-고,-더라}"	초랍찌 아녀다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초라왕
32074 옮:- (遷)	
32074-0-1 "{-지,-고,-더라}"	웁გი지 말라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집 웁경
32075 뽕:- (貫)	
32075-0-1 "{-지,-고,-더라}"	뽕루지 모터켜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뽕랑
32076 꿔-(跪)	
32076-0-1 "{-지,-고,-더라}"	꿔리지 말라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리 꿔령
32077 닳-(扞, 연필 심이 ~)	
32077-0-1 "{-지,-고,-더라}"	다이지 아녜찌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다연
32078 닳:- (煎, 솥에서 장이 ~)	
32078-0-1 "{-지,-고,-더라}"	너미 딸리지 말라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딸령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라}"	짜지 아녀다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짱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라}"	멍석 몰지 말라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멍석 믱랑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라}"	쓰지 말라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글 썩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올르지 못터커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랑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쁘지 아녀다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요샌 바빻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고프지 아녀다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고팡
32085 쏘-(射)	
32085-0-1 "{-지,-고,-더라}"	쏘지 말라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창으로 쏘앙
32086 꾸-(夢)	
32086-0-1 "{-지,-고,-더라}"	꾸메 시꾸지 아녜찌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꾸메 시꾸앙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라}"	오래 머물지 말라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래 머무렁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라}"	잘 다듬찌 아녜찌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다드망
32089 견디-(忍)	
32089-0-1 "{-지,-고,-더라}"	잘 존디지 못터커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존덩
32090 마르-(裁)	
32090-0-1 "{-지,-고,-더라}"	온 몰르지 못터커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온 잘 몰랑
32091 끼-(烟鎖, 안개가 ~)	
32091-0-1 "{-지,-고,-더라}"	으네 찌지 아녜찌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으네 찌영
32092 마시-(飲)	
32092-0-1 "{-지,-고,-더라}"	술 마시지 말라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술 마성
32093 세:-(強)	
32093-0-1 "{-지,-고,-더라}"	힘 씨지 아녀다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힘 씨영
32094 포개-(重疊)	
32094-0-1 "{-지,-고,-더라}"	절쭈경 노치 말라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절쭈경 낵

32095	두드리-(敲)	
32095-0-1	"{-지,-고,-더라}"	문 두드리지 말라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 두드령
32096	켜-(點燈)	
32096-0-1	"{-지,-고,-더라}"	불 켜지 말라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 훤히게 켜
32097	썰:- (바람을)	
32097-0-1	"{-지,-고,-더라}"	바람 썰우지 말라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람 썰왕
32098	쇠-(老)	
32098-0-1	"{-지,-고,-더라}"	너미 세지 아녀다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세영
32099	쉬:- (饅, 밥이 ~)	
32099-0-1	"{-지,-고,-더라}"	밥 쉬지 아녜찌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밥 쉬영
32100	희-(白)	
32100-0-1	"{-지,-고,-더라}"	히영히지 아녀다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히영행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라}"	보리 보끄지 말라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보리 보깡
32102	안:- (抱)	
32102-0-1	"{-지,-고,-더라}"	안찌 몬터켜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아낭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라}"	묻찌 말라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무덩
32104	불:- (吹)	
32104-0-1	"{-지,-고,-더라}"	이브로 불지 말라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브로 부렁
32105	빨-(洗濯)	
32105-0-1	"{-지,-고,-더라}"	잘 빨지 몬터켜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빨랑
32106	죽-(死)	
32106-0-1	"{-지,-고,-더라}"	죽찌 아녜쭈다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주경
32107	걸:- (步)	
32107-0-1	"{-지,-고,-더라}"	걸찌 몬터켜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거렁
32108	가물-(旱)	
32108-0-1	"{-지,-고,-더라}"	ㄱ물지 아녜쭈다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ㄴ무랑
32109 졸:- (睡)	
32109-0-1 "{-지,-고,-더라}"	졸지 말라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조랑 웨느나
32110 쓸-(掃)	
32110-0-1 "{-지,-고,-더라}"	잘 쓸지 아녀신게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쓰렁
32111 감:- (捲)	
32111-0-1 "{-지,-고,-더라}"	썰 감찌 말라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썰 가망
32112 더듬-(摸)	
32112-0-1 "{-지,-고,-더라}"	더듬찌 말라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드망
32113 굽:- (炙)	
32113-0-1 "{-지,-고,-더라}"	굽찌 몬터켜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구웁
32114 무겁-(重)	
32114-0-1 "{-지,-고,-더라}"	경 베지 아녀다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베영 몬 지켜
32115 잇:- (連)	
32115-0-1 "{-지,-고,-더라}"	일찌 몬터켜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이성
32116 빗-(梳)	
32116-0-1 "{-지,-고,-더라}"	머리 빗찌 말라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리 비성 시라
32117 까맣-(黑)	
32117-0-1 "{-지,-고,-더라}"	꺼멍허지 아녀다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꺼멍허연
32118 넣-(入)	
32118-0-1 "{-지,-고,-더라}"	췌 쏘게 노치 말라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췌 쏘게 낱 놔두라
32119 고:- (煮)	
32119-0-1 "{-지,-고,-더라}"	술 다끄지 아념니다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술 다깁 사랄찌
32120 얹-(載)	
32120-0-1 "{-지,-고,-더라}"	그레 언지지 말라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언정
32121 귀찮-(囁)	
32121-0-1 "{-지,-고,-더라}"	귀찬치 아녀다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귀차녕
3212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지,-고,-더라}"	불르지 못터커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배 불량
32123 맑-(淸)	
32123-0-1 "{-지,-고,-더라}"	경 목찌 아녀다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당 몰강
32124 굵:- (膿)	
32124-0-1 "{-지,-고,-더라}"	고름이 곰찌 아녜찌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곰망
32125 굵:- (太)	
32125-0-1 "{-지,-고,-더라}"	혹찌 아녀다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흘경
32126 엷:- (薄)	
32126-0-1 "{-지,-고,-더라}"	얇루지 아녀다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얇루앙
32127 쑤-(春, 곡식을 절구에다 ~)	
32127-0-1 "{-지,-고,-더라}"	쉬 쓸지 아녜찌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 쓰렁 몬 먹켜
32128 잃-(失)	
32128-0-1 "{-지,-고,-더라}"	이버니랑 일르지 말라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일렁
32129 핥-(舐)	
32129-0-1 "{-지,-고,-더라}"	할트지 말라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탕 머그라
32130 짧-(短)	
32130-0-1 "{-지,-고,-더라}"	쪼르지 아녀다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쪼랑
32131 놀라-(驚)	
32131-0-1 "{-지,-고,-더라}"	놀래지 맙써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놀래영
32132 자-(宿)	
32132-0-1 "{-지,-고,-더라}"	자지 말라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장
32133 못:하-(不爲)	
32133-0-1 "{-지,-고,-더라}"	일 못터지 아녜다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못터영
32134 모르-(不知)	
32134-0-1 "{-지,-고,-더라}"	잘 몰라라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거 몰랑 조쭈다
32135 아프-(痛)	
32135-0-1 "{-지,-고,-더라}"	아프지 맙써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팡 안 웨켜

32136	크-(大)	
32136-0-1	"{-지,-고,-더라}"	크지 아녀다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켜
32137	꼬-(索, 새끼를 ~)	
32137-0-1	"{-지,-고,-더라}"	노끈 꼬지 말라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끈 꼬왕
32138	쭈-(造)	
32138-0-1	"{-지,-고,-더라}"	죽 쭈지 몬터켜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푼쭈 썰
32139	맞추-(組合)	
32139-0-1	"{-지,-고,-더라}"	마추지 몬터켜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마창
32140	데우-(燬)	
32140-0-1	"{-지,-고,-더라}"	데우지 말라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데왕
32141	이:-(盖, 지붕을 ~)	
32141-0-1	"{-지,-고,-더라}"	집 일지 몬터켜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초집 잘 이렁 놔두라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귀리지 말라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귀렁
32143	기다리-(待)	
32143-0-1	"{-지,-고,-더라}"	지들리지 맙썬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들렁
32144	세:-(算)	
32144-0-1	"{-지,-고,-더라}"	세지 몬터켜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세영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라}"	빠지 몬터켜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뺑
32146	켜-(引, 톱으로 ~)	
32146-0-1	"{-지,-고,-더라}"	낭 싸지 맙썬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낭 쌍
32147	되:-(硬)	
32147-0-1	"{-지,-고,-더라}"	너미 뉼지 아녀게 허라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뉼영
32148	쉬:-(休)	
32148-0-1	"{-지,-고,-더라}"	쉬지 말라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쉬영
32149	할퀴-(搔)	
32149-0-1	"{-지,-고,-더라}"	곡쭈지 말라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국쭈왕
32150 눈:-(焦)	
32150-0-1 "{-지,-고,-더라}"	눌지 몬터게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누렁
32151 깨닫-(覺)	
32151-0-1 "{-지,-고,-더라}"	깨돋찌 몬터켜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깨드랑
32152 마렵-(오줌이 ~)	
32152-0-1 "{-지,-고,-더라}"	오줌 므릅찌 아녀다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줌 므로왕
32153 부끄럽-(恥)	
32153-0-1 "{-지,-고,-더라}"	부치럽찌 아녀다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늬 부치러왕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라}"	가참찌 아녀다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차왕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라}"	지프지 아녀다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지평
32156 긋:-(劃)	
32156-0-1 "{-지,-고,-더라}"	긋찌 몬터켜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그성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라}"	시치지 말라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청 놔두라
32158 찹-(搗)	
32158-0-1 "{-지,-고,-더라}"	방에 찰찌 몬터켜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에 지영
32159 긁-(搔)	
32159-0-1 "{-지,-고,-더라}"	긋찌 말라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글경
32160 굶:-(飢)	
32160-0-1 "{-지,-고,-더라}"	굶찌 말라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굴멍
32161 닮:-(似)	
32161-0-1 "{-지,-고,-더라}"	아방 답찌 아녀다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멍 달망
32162 싫-(厭)	
32162-0-1 "{-지,-고,-더라}"	실프지 아녀다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일 실평
32163 쿨-(蹴, 달같이 ~)	

32163-0-1 "{-지,-고,-더라}"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4 붓-(-注)
 32164-0-1 "{-지,-고,-더라}"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라}"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라}"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라}"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라}"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0 쏘-(-蜚, 벌이 ~)
 32170-0-1 "{-지,-고,-더라}"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1 주-(-興)
 32171-0-1 "{-지,-고,-더라}"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라}"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라}"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76 속이-(-欺)
 32176-0-1 "{-지,-고,-더라}"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리지 아녜찌
 고령
 물 비우지 말라
 물 비왕
 잘 타지 몬터켜
 몰 잘 탕
 몰류지 몬터켜
 잘 몰류왕
 쓰지 아녀다
 이배 썩
 슬프지 아녀다
 막 슬펍
 지쁘지 아녀다
 막 지뽕
 벌 쏘지 아녜찌
 벌 쏘앙
 하영 주지 몬터켜
 하영 췌 놉두라
 키우지 몬터켜 | 질루지 몬터켜
 잘 키왕 | 잘 질황
 가치지 말라
 잘 가청
 부수지 몬터켜
 잘 부수왕
 나누지 몬터켜
 골고루 나눔
 췌기지 맙췌
 날 췌경

32177	끼-(插)	
32177-0-1	"{-지,-고,-더라}"	그 추게 끼지 못턴다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추게 끼영
32178	튀-(跳)	
32178-0-1	"{-지,-고,-더라}"	잘 튀지 못터켜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튀영
32179	괴:- (滯)	
32179-0-1	"{-지,-고,-더라}"	물 궤지 아넌다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물 하영 궤영
32180	여위-(癯)	
32180-0-1	"{-지,-고,-더라}"	경 줄지 아넌찌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주렁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라}"	맵찌 아녀다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매투
32182	뀌:- (屁)	
32182-0-1	"{-지,-고,-더라}"	똥 끼지 말라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똥 끼영
32183	고치-(改)	
32183-0-1	"{-지,-고,-더라}"	고치지 못터켜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고청 씨라
32184	싣:- (載)	
32184-0-1	"{-지,-고,-더라}"	잘 시끄지 못터켜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글라
32185	얻:- (得)	
32185-0-1	"{-지,-고,-더라}"	얻찌 못터켜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덜 무신거 허젠
32186	빻-(粉碎)	
32186-0-1	"{-지,-고,-더라}"	빻쓰지 못터켜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빻상
32187	파랑-(碧)	
32187-0-1	"{-지,-고,-더라}"	바당 파랑허지 아여다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파랑허영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라}"	뜨나지 아녀우짱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뜨낭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라}"	푸지 못터켜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펴 갇써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라}"	오줌 누지 못터켜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오줌 넣
32191 더럽-(汚)	
32191-0-1 "{-지,-고,-더라}"	더럽찌 아녀다 추접허지 아녀다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더러왕 너미 추접퍼영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라}"	잘 거두지 몬터키여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거두왕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라}"	물 꿰지 아념찌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 잘 꿰왕
32194 이기-(承)	
32194-0-1 "{-지,-고,-더라}"	즌식 이기지 몬턴다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즌식 이경
32195 부시-(照)	
32195-0-1 "{-지,-고,-더라}"	눈 즈곱찌 아녀다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눈 즈고왕
32196 자빠지-(後)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지 아녀다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꾸 자빠정
32197 일으키-(使起)	
32197-0-1 "{-지,-고,-더라}"	일리지 말라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일령
32198 당기-(引)	
32198-0-1 "{-지,-고,-더라}"	둥기지 몬터켜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둥경 무끄라
32199 버리-(捨)	
32199-0-1 "{-지,-고,-더라}"	버리지 말라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너미 브령 안 웨켜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훔치지 말라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미 꺼 훔청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게에 지지 몬터켜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지영 글라
32202 외:- (暗誦)	
32202-0-1 "{-지,-고,-더라}"	웨우지 몬터켜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잘 웨왕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잘 사귀지 몬터켜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잘 사귀영 놔두라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그거 썩지 아녀찌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거 썩경 몬 먹켜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지 아녀다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지렁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라}"	잘 부끄지 몬터켜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부경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두물지 아녀다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두무렁
32208 줄:-(縮)	
32208-0-1 "{-지,-고,-더라}"	잘 굴지 아녀쑤다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영 구렁
32209 심:-(植)	
32209-0-1 "{-지,-고,-더라}"	싱그지 말라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제 싱경 살켜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라}"	쓰다듬찌 말라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리 쓰다드멍
32211 사:납-(猛)	
32211-0-1 "{-지,-고,-더라}"	경 사납찌 아녀다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사나왕
32212 가볍-(輕)	
32212-0-1 "{-지,-고,-더라}"	게불찌 아녀다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게부왕
32213 젓:-(撈)	
32213-0-1 "{-지,-고,-더라}"	절찌 말라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저성
32214 두껍-(厚)	
32214-0-1 "{-지,-고,-더라}"	두껍찌 아녀다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두꺼왕
32215 무르-(軟)	
32215-0-1 "{-지,-고,-더라}"	경 물르지 아녀다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물렁
32216 분질르-(折)	
32216-0-1 "{-지,-고,-더라}"	분질르지 몬터켜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분질렁
32217 배우-(學)	
32217-0-1 "{-지,-고,-더라}"	배우지 몬턴다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놈신디 배왕

32218	다리-(𢶏)	
32218-0-1	"{-지,-고,-더라}"	다리지 몬터키여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령 이브라
32219	휘비-(窻, 귀를 ~)	
32219-0-1	"{-지,-고,-더라}"	휘비지 말라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휘병
32220	아리-(痛)	
32220-0-1	"{-지,-고,-더라}"	알리지 아념쑤다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알령
32221	그리-(畵)	
32221-0-1	"{-지,-고,-더라}"	그리지 몬터켜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그령
32222	저리-(癱)	
32222-0-1	"{-지,-고,-더라}"	자리지 아녀다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리 자령
32223	블리-(增)	
32223-0-1	"{-지,-고,-더라}"	수정 블리지 몬터켜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정 불령
32224	뜨시-(溫)	
32224-0-1	"{-지,-고,-더라}"	방 뜨시지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 뜨성
32225	끓이-(使沸)	
32225-0-1	"{-지,-고,-더라}"	잘 끓리지 몬터켜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끓령
32226	누비-(縫)	
32226-0-1	"{-지,-고,-더라}"	잘 누비지 몬터켜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누병 이브라
32227	구기-(皺)	
32227-0-1	"{-지,-고,-더라}"	꾸지지 말라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온 꾸경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비지 아넬찌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집 빼왕
32229	식히-(使冷)	
32229-0-1	"{-지,-고,-더라}"	식키지 말라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32230	매-(草)	
32230-0-1	"{-지,-고,-더라}"	검질매지 몬터켜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검질매영
32231	매:-(結)	
32231-0-1	"{-지,-고,-더라}"	ㅁ작 ㅁ치지 몬터쿠다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ㅁ작 ㅁ창
32232 뛰-(走)	
32232-0-1 "{-지,-고,-더라}"	튀지 말라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튀영
32233 담:- (盛)	
32233-0-1 "{-지,-고,-더라}"	하영 담찌 말라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다망
32234 가렵-(癢)	
32234-0-1 "{-지,-고,-더라}"	경 ㄱ릅찌 아녀우다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ㄱ로왕
32235 때리-(打)	
32235-0-1 "{-지,-고,-더라}"	나 뜰리지 맘써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뜰령 아프느나
32236 어둡-(暗)	
32236-0-1 "{-지,-고,-더라}"	어둡찌 아녜찌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어두영
32237 잡-(執)	
32237-0-1 "{-지,-고,-더라}"	잘 심찌 몬터켜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멍
32238 차-(蹴)	
32238-0-1 "{-지,-고,-더라}"	공 차지 말라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멀리 창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지,-고,-더라}"	경 모지리지 아녀다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모지리영
32240 부르-(呼)	
32240-0-1 "{-지,-고,-더라}"	그 사름 불르지 말라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사름 불령 오라
32241 따르-(注)	
32241-0-1 "{-지,-고,-더라}"	이레 비우지 말라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비왕
32242 쪼:- (啄)	
32242-0-1 "{-지,-고,-더라}"	경 존찌 말라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조상 머검찌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라}"	잘 두지 아녜다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두영
32244 시키-(使)	
32244-0-1 "{-지,-고,-더라}"	눔 시기지지 말라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시경
32245 지리-(漏, 오줌을 ~)	

32245-0-1 "{-지,-고,-더라}"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6 던지-(投)
 32246-0-1 "{-지,-고,-더라}"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7 모이-(集)
 32247-0-1 "{-지,-고,-더라}"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8 만지-(搦)
 32248-0-1 "{-지,-고,-더라}"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9 꺾:- (𢶏)
 32249-0-1 "{-지,-고,-더라}"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0 비틀-(捻)
 32250-0-1 "{-지,-고,-더라}"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1 돕:- (助)
 32251-0-1 "{-지,-고,-더라}"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라}"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3 미끄럽-(滑)
 32253-0-1 "{-지,-고,-더라}"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라}"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6 주무르-(揉)
 32256-0-1 "{-지,-고,-더라}"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7 메우-(填)
 32257-0-1 "{-지,-고,-더라}"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58 고소하-(香味)
 32258-0-1 "{-지,-고,-더라}"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오줌 경 지리지 아녀다
 너무 지령
 네끼지 맵싸 | 테끼지 맵서
 잘 네짱 | 잘 테짱
 모이지 아녀서라
 하영 모영
 몬직찌 말라
 경 몬직앙
 불 치우지 말라
 불 치왕
 막 떼우지 맵싸
 막 떼왕
 도웨지 몬터쿠다
 하영 도웨영
 씹찌 말라
 경 씹병
 경 민지럽찌 아녀다
 너무 민지로왕
 닫찌 말게 허러
 이디 다양
 경 놀르지 맵싸
 경 놀렁 시라
 주물르지 맵싸
 너미 주물렁
 메우지 몬터켜
 잘 메왕
 경 쿠수허지 아녀다
 막 쿠성 만쫄타

32259	내리-(降)	
32259-0-1	"{-지,-고,-더라}"	비 느리지 아넘썸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 느령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라}"	둥글지 맙서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레 둥그령
32261	만들-(作)	
32261-0-1	"{-지,-고,-더라}"	멩글지 몬터켜 멘들지 몬터켜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멩그랑 멘드랑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라}"	늑썸 맙썸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늘경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라}"	밤새낭 알르지 아나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알령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라}"	어멍 뒤 돌르지 말라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둘랑 안 똬켜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라}"	그거 사지 몬터켜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상 갑썸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라}"	치우지 말라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몬 치왕 갑썸
32267	부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뿌러지지 말게 허라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러정 몬씨켜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치지 말게 허라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손 다청
32269	느리-(緩)	
32269-0-1	"{-지,-고,-더라}"	느리지 아년다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느령
32270	무치-(和, 나물을 ~)	
32270-0-1	"{-지,-고,-더라}"	무치지 맙썸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늑물 무청
32271	죄:- (縮)	
32271-0-1	"{-지,-고,-더라}"	너무 쥐지 말라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꽉 쥐영
32272	팔-(賣)	
32272-0-1	"{-지,-고,-더라}"	그거 팔지 맙썸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거 폭랑
32273 뽀-(-選)	
32273-0-1 "{-지,-고,-더라}"	그 사름 뽀찌 말라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그 사름 뽀방
32274 뒤지-(-索)	
32274-0-1 "{-지,-고,-더라}"	경 뒤지지 말라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경 뒤정
32275 마치-(-終)	
32275-0-1 "{-지,-고,-더라}"	일 믃끄지 아넌쑤다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 믃깡
32276 절이-(-鹽)	
32276-0-1 "{-지,-고,-더라}"	저리지 말라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저령
32277 휘-(-曲)	
32277-0-1 "{-지,-고,-더라}"	휘우지 몬터켜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휘왕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라}"	이삭 하영 준찌 몬터켜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석 하영 주성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라}"	빼어안찌 맵씨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어아상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라}"	지울리지 말라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지울령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라}"	경 아깝찌 아너다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아까왕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라}"	반갑찌 아너우파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반가왕
32283 찌-(-蒸)	
32283-0-1 "{-지,-고,-더라}"	설게 치지 말라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치영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라}"	노랑히지 아너다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랑히영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라}"	푸리지 아너다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막 푸령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라}"	서둘르지 맙썤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둘렁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라}"	서툴지 아녀우다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서툴렁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을르지 아녀다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게을렁
32289 따듯하-(溫)	
32289-0-1 "{-지,-고,-더라}"	뜨뜻터지 아녀다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뜨뜻터영
32290 춥-(寒)	
32290-0-1 "{-지,-고,-더라}"	얼지 아녀우다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어렁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라}"	뜨겁찌 아녀우다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뜨거왕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라}"	미지근허지 아녀우다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지근허영 몬 머커
32293 차갑-(寒)	
32293-0-1 "{-지,-고,-더라}"	실렷찌 아녀우다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실려왕
32294 부럽-(羨)	
32294-0-1 "{-지,-고,-더라}"	경 불룹찌 아녀우다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블루왕
32295 알밋-(憎)	
32295-0-1 "{-지,-고,-더라}"	알밋찌 아녀우다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알미왕
32296 비슷하-(類似)	
32296-0-1 "{-지,-고,-더라}"	비슷터지 아녀우파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비슷터영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새롭찌 아녀우다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새로왕
32298 서:럽-(悲痛)	
32298-0-1 "{-지,-고,-더라}"	설럽찌 아녀우다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설루왕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라}"	까다롭찌 아녀우다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까다로왕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라}"	웨롭찌 아녀우다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무 웨로왕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라}"	아쉽찌 아녀우다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미 아쉬왕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돈돈허지 아녀다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무 돈돈허영
32303 늦-(晚)	
32303-0-1 "{-지,-고,-더라}"	늦찌 맏찌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미 느정
32304 남:- (餘)	
32304-0-1 "{-지,-고,-더라}"	남찌 아녜쭈다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미 나망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고,-더라}"	넝기지 말라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하영 넝경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고,-더라}"	잡빠뜨리지 말라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잡빠뜨령
32307 쭈그러뜨리-(使凹)	
32307-0-1 "{-지,-고,-더라}"	멜르지 맏찌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경 멜랑
32308 견주-(比)	
32308-0-1 "{-지,-고,-더라}"	느미영 견주지 맏찌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너무 견주왕
32309 외우-(誦)	
32309-0-1 "{-지,-고,-더라}"	웨우지 몬터켜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잘 웨왕
32310 문질르-(摩)	
32310-0-1 "{-지,-고,-더라}"	문질르지 말라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잘 문질령
32311 가리키-(指)	
32311-0-1 "{-지,-고,-더라}"	ㄱ르치지 말라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ㄱ리청
32312 가르치-(敎)	
32312-0-1 "{-지,-고,-더라}"	ㄱ르치지 몬터켜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엿다}"	잘 ㄱ르청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고,-더라}"	잘 발류지 몬터커나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4 겨루-(競)
 32314-0-1 "{-지,-고,-더라}"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고,-더라}"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라}"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고,-더라}"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 달리-(走)
 32318-0-1 "{-지,-고,-더라}"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9 우기-(拗)
 32319-0-1 "{-지,-고,-더라}"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0 중얼거리-(獨言)
 32320-0-1 "{-지,-고,-더라}"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1 지껄이-(騷)
 32321-0-1 "{-지,-고,-더라}"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2 다니-(行)
 32322-0-1 "{-지,-고,-더라}"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3 떨어뜨리-(使落)
 32323-0-1 "{-지,-고,-더라}"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라}"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5 시-(酸)
 32325-0-1 "{-지,-고,-더라}"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6 솟-(湧)
 32326-0-1 "{-지,-고,-더라}"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7 좋:-(好)

잘 발류왕

 심 겨누지 말라 | 심백커지 말라
 겨눴 | 심백커영

 달래지 몬터켜
 잘 달래영

 본받찌 맏써
 잘 본바당

 어지리지 말라
 너미 어지령

 잘 돌리지 몬터켜
 잘 돌령

 우기찌 맏써
 경 우경

 중얼거리지 말라
 중얼거령

 지꺼리지 말라
 경 지꺼령

 탕기찌 말라
 경 탕경

 떠러치찌 말라
 떠러청

 깨찌 말라
 줌 깨왕

 너무 시찌 말게 허라
 너미 시영

 물 솟찌 아넘찌
 너미 소상

32327-0-1 "{-지,-고,-더라}"	조치 아년가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미 조앙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라}"	빨강허지 아녀다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빨강허영
32329 끝:-(-曳, 땅에 질질 ~)	
32329-0-1 "{-지,-고,-더라}"	끝찌 말라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잘 끄성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라}"	얹찌 아녀다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무 알방
32331 하얗-(白)	
32331-0-1 "{-지,-고,-더라}"	히영허지 아녀다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히영허영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32332-0-2 -을/를	구글
32332-0-3 -에(서)	구게
32332-0-4 -으로	구그로
32332-0-5 -도	국또
32333 논(沍)	
32333-0-1 -이/가	노니
32333-0-2 -을/를	노늘
32333-0-3 -에(서)	노네
32333-0-4 -으로	노느로
32333-0-5 -도	논도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쓰리
32334-0-2 -을/를	쓰를
32334-0-3 -에(서)	쓰레
32334-0-4 -으로	쓸로
32334-0-5 -도	쓸도
32335 봄(春)	
32335-0-1 -이/가	보미
32335-0-2 -을/를	보믈
32335-0-3 -에(서)	보메
32335-0-4 -으로	보므로

32335-0-5 -도	봄도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지비
32336-0-2 -을/를	지블
32336-0-3 -에(서)	지비
32336-0-4 -으로	지브로
32336-0-5 -도	집또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슬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오스로
32337-0-5 -도	온또
32338 방(房)	
32338-0-1 -이/가	구드리
32338-0-2 -을/를	구두를
32338-0-3 -에(서)	구두레
32338-0-4 -으로	구들로
32338-0-5 -도	구들도
32339 낮(晝)	
32339-0-1 -이/가	나시
32339-0-2 -을/를	나슬
32339-0-3 -에(서)	나질랑
32339-0-4 -으로	나스로
32339-0-5 -도	난또
32340 낮(顔)	
32340-0-1 -이/가	양지가
32340-0-2 -을/를	양지를
32340-0-3 -에(서)	양지에
32340-0-4 -으로	양지로
32340-0-5 -도	양지도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정제가
32341-0-2 -을/를	정제를
32341-0-3 -에(서)	정지에
32341-0-4 -으로	정지로
32341-0-5 -도	정지도
32342 밭(田)	
32342-0-1 -이/가	바시
32342-0-2 -을/를	바슬
32342-0-3 -에(서)	바세

32342-0-4 -으로	바스로
32342-0-5 -도	받또
32343 앞(前)	
32343-0-1 -이/가	아피 흰허다
32343-0-2 -을/를	아플 보라
32343-0-3 -에(서)	아피 클라
32343-0-4 -으로	아프로
32343-0-5 -도	압또
32344 녀(魂)	
32344-0-1 -이/가	예기 너기 나간쩌
32344-0-2 -을/를	너글 드리라
32344-0-3 -에(서)	*
32344-0-4 -으로	*
32344-0-5 -도	넉또 드러사켜
32345 흙(土)	
32345-0-1 -이/가	허기 조차
32345-0-2 -을/를	허글 더끄라
32345-0-3 -에(서)	허게
32345-0-4 -으로	허그로
32345-0-5 -도	헉또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으다비
32346-0-2 -을/를	으다블
32346-0-3 -에(서)	으다베
32346-0-4 -으로	으다브로
32346-0-5 -도	으답또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예기 도시 예기 도리
32347-0-2 -을/를	예기 도를 예기 도슬
32347-0-3 -에(서)	예기 도세 예기 도레
32347-0-4 -으로	예기 돌로 도스로
32347-0-5 -도	예기 돌도 돌또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까비 너무 비싸다
32348-0-2 -을/를	까블
32348-0-3 -에(서)	까베
32348-0-4 -으로	꾼까브로
32348-0-5 -도	깁또 비싸다
32349 속:(內)	
32349-0-1 -이/가	소기 쏘기
32349-0-2 -을/를	그 쏘글

32349-0-3 -에(서)	그 쏘게
32349-0-4 -으로	그 쏘그로
32349-0-5 -도	그 사름 쏙또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니
32350-0-2 -을/를	도늘
32350-0-3 -에(서)	도네
32350-0-4 -으로	도느로
32350-0-5 -도	돈도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를
32351-0-3 -에(서)	바레
32351-0-4 -으로	발로
32351-0-5 -도	발도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지미
32352-0-2 -을/를	지믈
32352-0-3 -에(서)	지메
32352-0-4 -으로	지므로
32352-0-5 -도	짐도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
32353-0-2 -을/를	이블
32353-0-3 -에(서)	이베
32353-0-4 -으로	이브로
32353-0-5 -도	입또
32354 낫(鎌)	
32354-0-1 -이/가	호미가
32354-0-2 -을/를	호미를
32354-0-3 -에(서)	호미에
32354-0-4 -으로	호미로
32354-0-5 -도	호미도
32355 강(江)	
32355-0-1 -이/가	강이
32355-0-2 -을/를	강을
32355-0-3 -에(서)	강에
32355-0-4 -으로	강으로
32355-0-5 -도	강도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어멍 제시

32356-0-2 -을/를	어멍 제슬
32356-0-3 -에(서)	어멍 제세
32356-0-4 -으로	어멍 제스로
32356-0-5 -도	어멍 쯔또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고장이
32357-0-2 -을/를	고장을
32357-0-3 -에(서)	고장에
32357-0-4 -으로	고장으로
32357-0-5 -도	고장도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팍시
32358-0-2 -을/를	팍슬
32358-0-3 -에(서)	팍세
32358-0-4 -으로	팍스로
32358-0-5 -도	팍또
32359 옆(側)	
32359-0-1 -이/가	나 으피
32359-0-2 -을/를	나 으플
32359-0-3 -에(서)	나 으페
32359-0-4 -으로	나 으프로
32359-0-5 -도	나 읍또
32360 샅(賃金)	
32360-0-1 -이/가	쿠미 비싸다
32360-0-2 -을/를	쿠믈 주라
32360-0-3 -에(서)	쿠메
32360-0-4 -으로	쿠므로
32360-0-5 -도	쿰도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득기 크다
32361-0-2 -을/를	득글 자브라
32361-0-3 -에(서)	득게
32361-0-4 -으로	득그로
32361-0-5 -도	득또
32362 밖(外)	
32362-0-1 -이/가	베곁띠가 흰헨쩌
32362-0-2 -을/를	베곁떨 보라
32362-0-3 -에(서)	베곁뜨레
32362-0-4 -으로	베곁띠로
32362-0-5 -도	베곁띠도

제 4 편 문법

4.1. 대명사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5 나-와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3 저-을/를
40102-0-4 저-에게
40102-0-5 저-와/과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5 너
40105-0-1 너-가
40105-0-2 너-의
40105-0-3 너-을/를
40105-0-4 너-에게
40105-0-5 너-와/과
40105-0-6 너-는
40105-0-7 너-도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나
나가 헐찌
나 물거니여
날 만나레 완찌
나안티 쫌찌 | 나신디
나영 ㄴ찌 감찌
난 모르키여
나도
저엔
저가 하겐썬니다 | 저가 허쿠다
저의 지빔니다
절 드랑 감썬
나안티 줍썬 | 저안티 줍썬 | 저신디 줍썬
저영 ㄴ찌 가게마썬
전 바빵 몬 가쿠다
저도 가쿠다
우리 아버지
저의 부치님니다
니 맨썰
느가 허라
이거 느 거 마지나
이거 니 주켜
이거 니안티 주켜. 니신디 주켜
오늘 나 니영 ㄴ찌 가켜
는 오지 말라
느도 ㄴ찌 글라
자네가 그 일 험신가
저 사름도 ㄴ치 그러
느네 아버지
가이도 ㄴ치 가야켜
야이
자이 드랑 오라
지만 아는 체 헤엄썬
하르방 빵에서

4.1.2. 의문대명사

· 누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누게우짱?
이 상황 누게가 깨어시니?
이거 누게 도넝고?
누게 만난 완?
거 누게신디 줄 꺼? | 누게안티 줄 꺼고?
누게영 겨론험시니?

· 무엇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이거 무신 거고?
뭘 싹쭈광?
무슨 일 험시니?
무신 거 머구쿠광?
무신 거영 달뜨니?

4.1.3. 그 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어디 감쭈광?
감땅 어느제 올 꺼고?
어느 거시 믇으메 드러?
무사 믇으메 드러?
이디서 학교 가는데 얼마나 걸리코?
요새 느 어떻 지냄디?

4.1.4. 지시대명사 ·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이거 무슨 거고?
그건 뭇꼬?
저건 뭇꼬?
이디
그디
저디
이레 오라
그레
저레 글라

4.2. 조사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전복 까비 비싸다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족따
40203	-을/를(어디를)	귀 때기 때리지 말라
40204	-을/를(무엇을)	무를 쥐야
40205	-에 게/게(사람에게)	저 아시안티 주라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나신디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자이 누게안티 누게신디 덤벼시?
40208	-에(집에)	나 지비 감쥌
40209	-에(나중에)	우리 나중에 다시 보게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지비서 식께 헐다
40211	-에서(서울에서)	우리 서울서 만나자
40212	-에서(여기에서)	모실포에서 이디꺼지
40213	-으로(참쌀로)	감저 쭈시로 멘든다
40214	-으로(짚으로)	찌그로 단 멘든다
40215	-으로(새끼로)	노꼬스로 무꺼
40216	-으로(어디로)	어드레 감지?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여르메 춤메허곡 수박허고 머거
40218	-와/과(나와)	나영 ㄴ치 가게
40219	-보다(형보다)	성은 아시보다 크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도새기추룩 술견쥌
40221	-만큼(너만큼)	나도 성마니 커시민 조으켜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 마니만 머그라
40223	-아/야(복남아)	은형아
40224	-아/야(복남이)	광리미 술 하영 머검서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누님양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버지
40227-1	-아/야(할아범요!)	하르방마썸 하라버지마썸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돈께기영 바비영 하영 머글꺼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께기랑마랑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담배는 피우주마는 수른 안 머거
40231	-만(딸만)	성손지만 아까완 햐썸
40232	"-도(키도, 얼굴도)"	지레도 크고 얼굴도 잘 썸겨서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다 술 머거

40234	-부터(오늘부터)	나 오늘부터 술 끄느커
40235	-까지(내일까지)	숙제 닐꺼지 혈 꺼여
40236	-조차(물조차)	머글 물도 얻따
40236-1	-조차(비할라)	비아올라 오논디 어디 감쭈과?
40237	-이야/야(말이야)	그 사름 말이사 잘허주
40238	-을랑(소릴랑)	그런 소리랑 다시랑 마라
40239	-이라도(부자라도)	그 사름 부제라도 퀘기 안 머거
40240	-밖에(너밖에)	느베끼 얻따
40241	-가지고(싸가지고)	보따리에 싸거정 와서라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 (오라고)	오렌 햄서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라쭈다
40244	-요(높임)(했지요)	누가 헐쭈광? 누게가 헐쭈광?

4.3. 종결어미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이디 아지라
40302	-게(앉게)	사위야 이디 아지라
40303	-으오(앉으시오)	성님 여기 안지십써 안집써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집써
40305	-세요(앉으세요)	안지십써 이레 안집써

4.3.2. 청유형

40306	-자(가자)	나영 ㄴ찌 가게
40307	-세(가세)	나영 ㄴ찌 클라
40308	-으오(가오)	성님 ㄴ찌 가게마썸
40309	-십시다(가십시다)	ㄴ찌 가게마썸
40310	-세요(가세요)	ㄴ치 가게마썸

4.3.3. 의문법

40312	-니(오니)	베곬띠 비 완샤?
-------	--------	-----------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니 오늘 생이리여
40336	-인가(생일인가)	느 내일 생이리가?
40337	-이오(생일이오)	닐 생이리우다
40338	-이오(생일이오?)	성님 닐 생이리우파?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넬 아버님 생이리우다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닐 생이리우파?
40341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닐 어머니 생이리우다
40342	-이시지요(생신이시지요?)	어머님 내일 생이리우파?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나)	무신걸꼬?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느 소네 든 거 뭇꼬?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성님 소네 꺼 뭇시우짱?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소네 든 거 뭇시우짱?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어머니 소네 든 거 뭇시우짱?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여보 소네 꺼 뭇시라?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여보 소네 든 거 뭇시우짱?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맏습니다)	차가 할쑤다
40351	-습디다(맏습디다)	하십떼다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느네 강아진 밥 잘 머검찌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잘 머검찌
40354	-일세(오랜만일세)	느 오랜마니여 자네 오랜마닐쎄
40355	-으마(깁으마)	가프커라 가프켜
40356	-음세(깁음세)	내일 저녁 때꺼지 꼭 가프켜
40357	-을라(다칠라)	다치켜 멍심허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밤 머건 테레비 뵈찌
40402	-으면서(보면서)	밤 머그멍 테레비존 뵈찌
40403	-어/-어서	나리 너무 추원 몬 완찌
40404	-으니/-으니까	멘도롱허난 조름 완찌
4040	-관테	무슨 이리나네
40406	-다가	오다네
40407	-거든	할망 만나건 나 안부 전허라
40408	-더라도	사드랑 헤도 사주지 말라
40409	-으려고	이온터고 갈랑 먹쎄 파왈찌

40410	-도록	빼가 빠지도록 일해도 버슨 게 얄따
40411	-을수록	자리가 노플쭈록
40412	-듯이	물쓰드시 썸썸
40413	-지	연속꼭만 보지 뉴슨 잘 안 드려

4.5. 주체존대

40501	-셔(오셔)	이레 오심
40502	-셨소(하셨소)	보리 다 가라셔?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느네 아기 잘 우섬썸
40602	-는/ㄴ-(기어간다)	느네 예기 잘 기엄썸
40603	-는/ㄴ-(크다)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생이리여
40605	-고 있-(오고 있다)	비 완썸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사름 밤 머거셔? 니 밤 머건자?
40607	-았었(왔었다)	하라버지 밤 머건쭈과?
40608	-더-(먹더라)	가날썸 읍지빈 썸죽 잘 머검서라
40609	-더-(먹더냐)	읍지비 썸 건 잘 머검띠강?
40610	관형형(만나는)	맨날 만나는 친구가 셔
40611	관형형(만난)	어제 만난 친구
40612	관형형(만났던)	오 년 저네 만난띠 친구 오넬 만난썸
40613	관형형(만날)	닐 만날 친구
40614	관형형(큰)	지레 큰 아이 이레 오라
40615	관형형(크던)	지레 크던 아이가 이젠
40616	관형형(컸던)	지레 컸띠 아이
40617	-겠-(않겠다)	아프론 나 담배 피우지 아녀커라
40618	-겠-(오겠다)	비 오켜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안 먹얼썸 먹썸 아넬썸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날씨가 안 조타 날씨가 조치 아녀다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끗터지 아녀다 ㅋ꺄헝지 아녀다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가지 않았다)	우리 아덜 아직 장게 안 가서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다/만나 안 보았다)	아직 만나지 아여셔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먹찌도 아녀고 줌만 잠찌
40706-1	부정(먹도 않고)	먹또 아녀고 줌만 잠찌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나 술 몬 먹나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나 말 만찌 아녀?

4.8. 사동과 피동

4.8.1. 사동

40801	살리다	무래 빠진 아이 살려쥬찌
40802	늘리다	학생 순 늘려야켜
40803	말리다1	너령 몰려야켜
40804	말리다2	싸우믈 몰려야켜
40805	얼리다	냉동시레 어름 얼령 머거야켜
40806	녹이다	어름 노경 머거야켜
40807	신기다	신찌 주라
40808	보이다	시계 뵈와쥬찌
40809	알리다	잔치 허는 거 알럼찌
40810	입히다	아이 온 입찌 주라
40811	얹히다	안찌라
40812	벗기다	뵈껴 주라
40813	웃기다	잘 웃껌찌
40814	씩히다	잘 췌경
40815	숨기다	곰져 낡찌
40816	끓기다	메칠 굶찌라
40817	깨우다	아치메 깨우라
40818	돌우다	도두라

4.8.2. 피동

40819	잡히다	자편
40820	깎이다	까꺠찌
40821	끼이다	손 꺠꺠찌
40822	떼이다	그 사름안티 나 돈 떼얹찌
40823	채이다	뵈빠레 채얹찌
40824	닫히다	문 더꺠꺠찌
40825	들리다	잘 들럼찌
40826	엮히다	에기 어떻 등에 어꺠찌
40827	바뀌다	나 신 니 신허고 바꺠꺠찌

40828	썩히다	씨피주게
40829	엎히다	머그메 언친 거 담따
40830	찍히다	도끼에 발똥 찍켄찌
40831	눌리다	헉 더꺼전 눌런
40832	실리다	실런 감찌
40833	끓기다	끈차전찌
40834	끓히다	글켄찌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받꼬 픈 겐또 일찌
40902	싶다(싶더니)	잘 머검신가 허난 안 머검서
40903	보다(보세요)	그 온 이버 볼찌
40904	버리다(버렸네)	다 머거 부런찌
40905	대다(댄다)	우러 대염찌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비 오람직커다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자는 생이여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보다)	추운 생이여

4.10. 부사

41001	실컷	실피 머그라
41002	많이	밥 하영 머그민 언친다
41003	너무	너미
41004	조금	헛끄만 머거도 취허여
41005	자주	즈주 자주
41006	빨리	생각뽀단 빨리 완찌
41007	얼른	눔덜 보기 저네 얼릉 머그라
41008	기어코	기어이 가더니 몬 완찌
41009	가끔	신평 혼번씩 머거
41010	먼저	므녀 가라
41011	나중에	냉중에
41012	가득	허버게 물 ㄱ뚝 지렁 오라
41013	몽땅	멘땅
41014	모조리	메딱 비어 부런찌
41015	혼자	혼자 싯찌
41016	항상	항상 바빠
41017	똑똑히	똑똑키 보라

41018	겨우	제우 제우 츠만찌
41019	늘	느랑 잠서
41020	저절로	절로 남찌
41021	자꾸	즈주 하품 나왓찌
41022	설마	츠마
41023	하마터면	흐마트면
41024	함께	흔디 여행을 간찌
41025	걸핏하면	걸핀터민 활 잘 내여
41026	공연히	공연시리
41027	그냥	그냥
41028	매우	츠말로 씨다
41029	곧장	슬피지 마랑 곧짱 오라
41030	벌써	그 일 벌써 다 해서?
41031	가장	질 불가
41032	가만히	ㄱ마니 시라
41033	미리	미르 대비해야여
41034	이따금	이따금

4.11. 관용구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이보게 아지망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끄느쿠다양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고생헨쭈다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래간마니여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어디 감수광?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폐난 허시우짱?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물건깁 바듭써 물건깁 여기 일쭈다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예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니우다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아멩치도 아녀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그냥 놔 내 부러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요샌 아무나 차 므라

4.11.2. 속담

41114 속담(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도게 물 붓끼라 | 터진 통개에 물 담끼라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둑기 췌 도둑 된다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 아니 땐 굴뚝게 연기 날까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